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1640-01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결과보고서

2017. 10.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한국문헌정보기술 콘텐츠솔루션(주)

만든 사람들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조영삼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재봉 기록문화팀장
김은아 기록연구사
원종관 기록연구사
임태원 기록연구사

수행기관 ‖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콘텐츠솔루션(주)

〈사업관리〉
사업총괄: 윤정훈(콘텐츠솔루션(주) 대표이사)
품질관리: 박민수(한국문헌정보기술(주) 팀장)
박순금(콘텐츠솔루션(주) 선임연구원)

〈컨설팅/수집〉
팀 장: 박종연(한국문헌정보기술(주) 위촉연구원)
팀 원: 이준희(한국문헌정보기술(주) 위촉연구원)
김강산(한국문헌정보기술(주) 위촉연구원)
김진선(한국문헌정보기술(주) 위촉연구원)
배종열(한국문헌정보기술(주) 위촉연구원)
NKHJARGAL BILGUUN(한국문헌정보기술(주) 위촉연구원)

〈아카이브〉
팀 장: 장형오(한국문헌정보기술(주) 위촉연구원)
팀 원: 김 환(한국문헌정보기술(주) 위촉연구원)
김수연(콘텐츠솔루션(주) 연구원)
정다현(콘텐츠솔루션(주) 연구원)

〈콘텐츠개발〉
팀 장: 이형수(콘텐츠솔루션(주) 책임연구원)
팀 원: 이의진(한국문헌정보기술(주) 코디네이터)
장재원(콘텐츠솔루션(주) 디자이너)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 001

1. 사업개요 ····· 2
   1.1. 개요 ····· 2
   1.2. 사업배경 및 목적 ····· 2
   1.3. 추진방향 ····· 3
2. 과업내용 ····· 4
   2.1.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 ····· 4
   2.2. 과업별 프로세스 조정 ····· 6
3. 추진절차 ····· 7

제2장 서울기록화 현황 분석 ····· 009

1. 기록화현황 분석 ····· 10
   1.1. 기록화현황 분석의 필요성 ····· 10
   1.2. 기록화현황 분석 절차 ····· 10
   1.3. 본청 및 본부사업소·출연기관의 기록화현황 조사 ····· 11
   1.4. 협치기관 및 민간의 기록화 현황 조사 ····· 13
   1.5. 기록화현황 유형별 분류 ····· 14
2. 기록화현황 사례 종합 ····· 26
   2.1. 본청 ····· 26
   2.2. 본부사업소·출연기관 ····· 32
   2.3. 협치기관 ····· 39
   2.4. 민간 ····· 44
3. 시사점 ····· 48
   3.1. 서울시 내부의 기록화현황 정보공유 부재 ····· 48
   3.2. 아카이브, 기록화 등의 표현 남용 ····· 48
   3.3. 사회적 사건, 기억에 대한 통합적 기록화 방안 부재 ····· 48
   3.4. 서울 기록화를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 구성 ····· 49
   3.5. 민간 기록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49

제3장 기록 주제 선정 및 선별지침 개발 ····· 051
1. 서울기록 주제선정 ····· 52
1.1. 주제선정 배경 ····· 52
1.2. 주제선정 적합성 검토 ····· 57
2. 선별지침 개발 ····· 63
2.1. 선별지침의 적용 ····· 63
2.2. 영역별 선별지침 개발 ····· 71
3. 시사점 ····· 162
3.1. 선별지침 구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추가조사 강화 ····· 162
3.2. 유관기관 및 협치기관 보유기록 현황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62
3.3. 민간기록 현황 파악 및 확보방안 마련 ····· 163
3.4. 선별지침 검토 및 확정을 위한 절차 보완 ····· 163
3.5. 선별지침 상호 간의 연계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 164

제4장 서울기록 수집 ····· 167
1. 수집 매뉴얼 개발 및 적용 ····· 168
1.1.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 168
1.2.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 ····· 169
2. 서울기록 수집 ····· 178
2.1. 서울기록 수집 절차 및 현황 ····· 178
2.2. 일반수집 ····· 180
2.3. 집중수집 ····· 196
3. 서울기록 수집 기록물 정리 ····· 217
3.1. 비전자기록물 보존용품 적용 ····· 217
3.2.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 218
3.3. 기록물 정리 현황 ····· 220
4. 시사점 ····· 222
4.1. 수집처 보유기록에 대한 상세현황 파악 ····· 222
4.2. 민간기록 수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 마련 ····· 222
4.3.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과 사후관리 ····· 222

4.4. 유관기관 보유기록의 수집방법 마련 ····· 223
4.5. 전자기록의 수집방법과 절차 마련 ····· 223
4.6. 수집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협업프로그램 마련 ····· 224
4.7. 수집기록 활용을 위한 정리단계 마련 ····· 224
4.8. 구술기록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투입 ····· 225

제5장 서울시민기록단 운영 ····· 227

1. 사업개요 ····· 228
1.1. 서울시민기록단 운영 개요 ····· 228
1.2. 서울시민기록단 주요 활동 ····· 228
2. 서울시민기록단 활동 ····· 229
2.1. 서울시민기록단 소개 ····· 229
2.2. 서울시민기록단 주요 활동 ····· 233
3. 서울시민기록단 활동 ····· 244
3.1. 주요 활동 개요 ····· 244
3.2. 팀별 주요 활동 ····· 244
4. 서울시민기록단 활동평가 ····· 249
4.1. 시민기록단 팀별 내부 평가 ····· 249
4.2. 시민기록단지원팀 내부 평가 ····· 252
5. 시사점 ····· 254
5.1. 시민기록단 위상과 역할에 맞는 구성 방식 ····· 254
5.2. 자율성을 보장한 시민기록단 ····· 254
5.3.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시민기록단 활동 ····· 255

제6장 시범 콘텐츠 개발 ····· 257

1. 시범 콘텐츠 개요 ····· 258
1.1. 전시 개요 ····· 258
1.2. 전시 내용 ····· 258
2. 시범 전시콘텐츠 ····· 260

2.1. 전시콘텐츠 섹션별 세부 내용 ····· 260
2.2. 전시콘텐츠 시안 ····· 264
2.3. 전시 모습 ····· 266

제7장 서울기록화 제언 ····· 267

1. 제언 개요 ····· 268
2. 서울기록원 개관 전 ····· 268
2.1. 수집전략의 보완 ····· 268
2.2. 수집기록물 등록 및 관리 방안 수립 ····· 269
2.3. 수집 기록물 분류 방안 ····· 269
2.4. 서울기록 수집계획 수립 ····· 269
3. 서울기록원 개관 후 ····· 270
3.1. 수집체계 검증 및 개선 ····· 270
3.2. 수집기록 서비스 및 전시 ····· 270
3.3. 시정기록 재조직화 ····· 270

표 목차

〈표 1〉 추가 조사 작업 예시 ····· 12
〈표 2〉 본청 기록화 현황 유형별 분류 ····· 15
〈표 3〉 본부사업소·출연기관 기록화현황 유형별 분류 ····· 19
〈표 4〉 협치기관 유형별 분류 ····· 22
〈표 5〉 민간 유형별 분류 ····· 25
〈표 6〉 서울기록의 구성 ····· 52
〈표 7〉 서울기록 주제선정 주요고려 사항 ····· 53
〈표 8〉 서울기록 주제 ····· 56
〈표 9〉 서울기록화 주제선정 적합성 평가표 ····· 58
〈표 10〉 주제선정 적합성 검토를 위한 대상 목록 예시 ····· 60
〈표 11〉 서울기록화 주제선정 적합성 평가 결과 예시: 목동 철거민 ····· 62
〈표 12〉 서울기록 선별지침 상위의 분류범주 ····· 64
〈표 13〉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 ····· 67
〈표 14〉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 상세설명 ····· 67
〈표 15〉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 적용 - 모여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 69
〈표 16〉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 적용 결과 ····· 70
〈표 17〉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관련 기록 ····· 77
〈표 18〉 서울공유 허브 서울공유경제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79
〈표 19〉 평생교육 관련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분석 ····· 83
〈표 20〉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검색 결과 ····· 84
〈표 21〉 서울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관련 보유기록물 ····· 85
〈표 22〉 체육진흥과 9개 사업 ····· 108
〈표 23〉 생활체육 관련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108
〈표 24〉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검색된 생활체육 관련 기록(보존기간 10년 미만) ····· 110
〈표 25〉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검색된 생활체육 관련 기록(보존기간 30년 이상) ····· 110
〈표 26〉 서울특별시체육회 생활체육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111
〈표 27〉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112
〈표 28〉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_서울광장·광화문광장 ····· 115
〈표 29〉 서울시 보유 목동 컬렉션 주요기록 ····· 121
〈표 30〉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신명자 이사장 구술 ····· 123
〈표 31〉 작은자리 제공 목동관련 사진 목록 ····· 124
〈표 32〉 목동아줌마 ····· 126
〈표 33〉 복음자리 소식지 ····· 126
〈표 34〉 여성안심특별시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129
〈표 35〉 서울의 상징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134
〈표 36〉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137
〈표 37〉 서울로7017 관련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분석 ····· 148
〈표 38〉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검색 결과_서울로7017 ····· 149

〈표 39〉 서울연구원 서울로7017 관련 보유기록물 ····· 150
〈표 40〉 (사)서울산책 서울로7017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152
〈표 41〉 서울로7017 관련 연구물 현황 ····· 152
〈표 42〉 원전 하나 줄이기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158
〈표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수집관련 조항 ····· 170
〈표 44〉 시민기록의 유형 ····· 171
〈표 45〉 접촉 목적에 따른 내용 및 예시 ····· 173
〈표 46〉 방문시 유의사항 ····· 174
〈표 47〉 서울기록 수집현황 ····· 179
〈표 48〉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기록수집 활동 ····· 181
〈표 49〉 시범수집 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질문지(안)_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 182
〈표 50〉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선별·수집 기록 목록 예시 ····· 185
〈표 51〉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록수집 활동 ····· 186
〈표 52〉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선별·수집기록 목록 예시 ····· 189
〈표 5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록수집 활동 ····· 190
〈표 54〉 (사)서울산책 기록물 수집 개요 ····· 196
〈표 55〉 (사)서울산책 수집기록 통계 ····· 199
〈표 56〉 양연수 기록물 수집개요 ····· 201
〈표 57〉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기록물 수집개요 ····· 203
〈표 58〉 촛불기록수집단 기록물 수집개요 ····· 204
〈표 59〉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선별·수집기록 목록 예시 ····· 207
〈표 60〉 목동철거민 기록물 수집 개요 ····· 210
〈표 61〉 목동철거민 기록물 수집기록 목록 ····· 212
〈표 62〉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기록물 수집 개요 ····· 214
〈표 63〉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수집기록 목록 ····· 215
〈표 64〉 비전자기록물 유형별 보존용품 적용 기준 ····· 217
〈표 65〉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표준 ····· 218
〈표 66〉 비전자기록물 유형별 디지털화 기준 ····· 219
〈표 67〉 수집기록물 정리 현황표 ····· 220
〈표 68〉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회 식순 ····· 237
〈표 69〉 서울시민기록단 주요 활동 개요 ····· 244
〈표 70〉 서울시민기록단 팀별 성과 평가 ····· 249
〈표 71〉 서울시민기록단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 방향 ····· 250
〈표 72〉 시민기록단지원팀 내부 평가 ····· 252

그림 목차

〈그림 1〉 서울 기록화현황 조사 절차 ····· 11
〈그림 2〉 서울시 기록화 사업 현황 조사시트 ····· 13
〈그림 3〉 사전 조사 예시 - 협치기관, 민간 ····· 13
〈그림 4〉 협치기관 및 민간 기록화 현황 조사시트 ····· 14
〈그림 5〉 본청 기록화 현황 보존기간 ····· 18
〈그림 6〉 본청 기록화 현황 사전조사 목록 예시 ····· 26
〈그림 7〉 키워드 '아카이빙' 정보소통광장 검색 결과 ····· 27
〈그림 8〉 2015년 서울 건축아카데미 아카이빙 북 제작 계획 ····· 28
〈그림 9〉 키워드 '아카이브' 정보소통광장 검색 결과 ····· 30
〈그림 10〉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계획 문서 ····· 31
〈그림 11〉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 기록화 현황 사전조사 목록 예시 ····· 33
〈그림 12〉 서울디자인재단 아카이브 홈페이지 ····· 33
〈그림 13〉 디자인 아카이브 관련 문서 ····· 34
〈그림 14〉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조사 ····· 36
〈그림 15〉 평생학습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관련 정보소통광장 검색 결과 ····· 37
〈그림 16〉 키워드 '평생학습 아카데미' 나라장터 검색 ····· 37
〈그림 17〉 평생학습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관련 나라장터 검색 결과 ····· 38
〈그림 18〉 협치기관 기록화 현황 사전조사 목록 예시 ····· 39
〈그림 19〉 강북봉제지원센터 홈페이지 ····· 40
〈그림 20〉 강북구 봉제여지도 ····· 40
〈그림 21〉 해방촌 도시재생 공모사업 조사 ····· 42
〈그림 22〉 해방촌 아카이브 구글 검색 결과 ····· 43
〈그림 23〉 해방촌 마을기록단 페이스북 페이지 ····· 43
〈그림 24〉 환경재단 홈페이지 ····· 45
〈그림 25〉 환경재단 녹취록 ····· 45
〈그림 26〉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아카이브 검색 결과 ····· 46
〈그림 27〉 한국 퀴어락 아카이브 ····· 47
〈그림 28〉 서울기록 주제선정 1차 가안 목록 ····· 54
〈그림 29〉 서울기록 기록화 프로세스 ····· 65
〈그림 30〉 '공유도시 서울'의 변천 ····· 74
〈그림 31〉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키워드 검색 및 기록물 추출 ····· 75
〈그림 32〉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_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 76
〈그림 33〉 정소보통광장 키워드 분석_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 77
〈그림 34〉 평생교육종합발전 5개년 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 ····· 81
〈그림 35〉 평생교육 키워드 검색 및 기록물 추출 ····· 82
〈그림 36〉 평생교육_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 84
〈그림 37〉 성균관대에서 열린 전국빈민연합 집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 91
〈그림 38〉 올림픽과 철거민을 다룬 영화 '상계동 올림픽'(김동원 감독 作) ····· 92

〈그림 39〉 올림픽_국가기록원 키워드 검색 결과 목록 ····· 95
〈그림 40〉 KTV-E영상 역사관 내 올림픽 관련 영상 ····· 95
〈그림 41〉 영화 〈상계동 올림픽〉 장면 ····· 96
〈그림 42〉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실 ····· 97
〈그림 43〉 올림픽_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키워드 검색 ····· 98
〈그림 44〉 양천벌의 전쟁: 30년 전, 목동 철거민 투쟁의 현장을 가다 ····· 119
〈그림 45〉『동아일보』, 1972. 8. 25. ····· 119
〈그림 46〉 목동철거 데모 현장 ····· 121
〈그림 47〉 여성안심특별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128
〈그림 4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SNS후기 공모 ····· 130
〈그림 49〉 서울시 상징물의 종류 ····· 132
〈그림 50〉 서울시 휘장 및 캐릭터 현황 ····· 133
〈그림 51〉 서울시 휘장 및 엠블럼 ····· 134
〈그림 52〉 서울역 고가도로 조감도 ····· 140
〈그림 53〉 박원순 시장 뉴욕 서울역 공원화 사업 발표 ····· 142
〈그림 54〉 2014년 10월 12일 1차 고가개방행사 모습 ····· 143
〈그림 55〉 박원순 시장 현장소통 모습 ····· 144
〈그림 56〉 2차, 3차 고가개방행사 포스터 ····· 145
〈그림 57〉 서울로7017 프로젝트 ····· 146
〈그림 58〉 서울로7017 CI ····· 147
〈그림 59〉 서울로7017_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 149
〈그림 60〉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가칭) 추진계획(안) ····· 150
〈그림 61〉 서울로7017 관련 언론기사 목록 ····· 154
〈그림 62〉 성대골 사람들 홈페이지 화면 ····· 157
〈그림 63〉 원전 하나 줄이기 관련 서울연구원 현황분석 ····· 159
〈그림 64〉 기록물 기증 및 제보신청서(예시) ····· 176
〈그림 65〉 서울기록 수집절차 ····· 178
〈그림 66〉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김민기위원장 인터뷰 ····· 183
〈그림 67〉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기록물을 선별 및 목록화 하는 모습 ····· 184
〈그림 68〉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록물 ····· 187
〈그림 69〉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록물을 선별 및 목록화 하는 모습 ····· 188
〈그림 7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유기록_올림픽 ····· 200
〈그림 71〉 수집된 양연수 기록물을 선별 및 목록화 하는 모습 ····· 202
〈그림 72〉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사무실 내 기록을 선별하는 모습 ····· 203
〈그림 73〉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사무실 내 기록물을 수집하는 모습 ····· 205
〈그림 74〉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사무실 내 수집한 기록물이 상자에 정리된 모습 ····· 205
〈그림 75〉 블랙텐트 기록 수집 현황_폴더 ····· 206
〈그림 76〉 수집된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기록물을 선별 및 목록화 하는 모습 ····· 207

〈그림 77〉 수집된 촛불기록수집단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한 모습 ····· 208
〈그림 78〉 블랙텐트 기록분류 예시 ····· 209
〈그림 79〉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방문모습 및 복음자리 ····· 211
〈그림 80〉 복음자리 기록 선별 및 목록화 ····· 211
〈그림 81〉 목동철거민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유기록 ····· 213
〈그림 82〉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방문 모습 및「성대골 리빙랩」····· 215
〈그림 83〉 박물류 비전자기록물 보존용품 적용 모습 ····· 217
〈그림 84〉 보존상자에 편성된 비전자기록물 ····· 218
〈그림 85〉 비전자기록물을 스캐닝 및 촬영하는 모습」····· 219
〈그림 86〉 디지털화된 비전자기록물 이미지」····· 219
〈그림 87〉 서울시민기록단 오리엔테이션 진행 모습 ····· 234
〈그림 88〉 시민기록단 활동 중간보고회 진행 모습 ····· 236
〈그림 89〉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회 현수막 이미지 ····· 236
〈그림 90〉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회 진행 모습 ····· 237
〈그림 91〉 전시콘텐츠 시안: 인트로 ····· 264
〈그림 92〉 전시콘텐츠 시안: 강장공장 ····· 264
〈그림 93〉 전시콘텐츠 시안: 비상구 ····· 265
〈그림 94〉 전시콘텐츠 시안: 조우 ····· 265
〈그림 95〉 전시콘텐츠 시안: SH필름 ····· 266
〈그림 96〉 서울로7017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 야외 전시회 모습 ····· 266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제1장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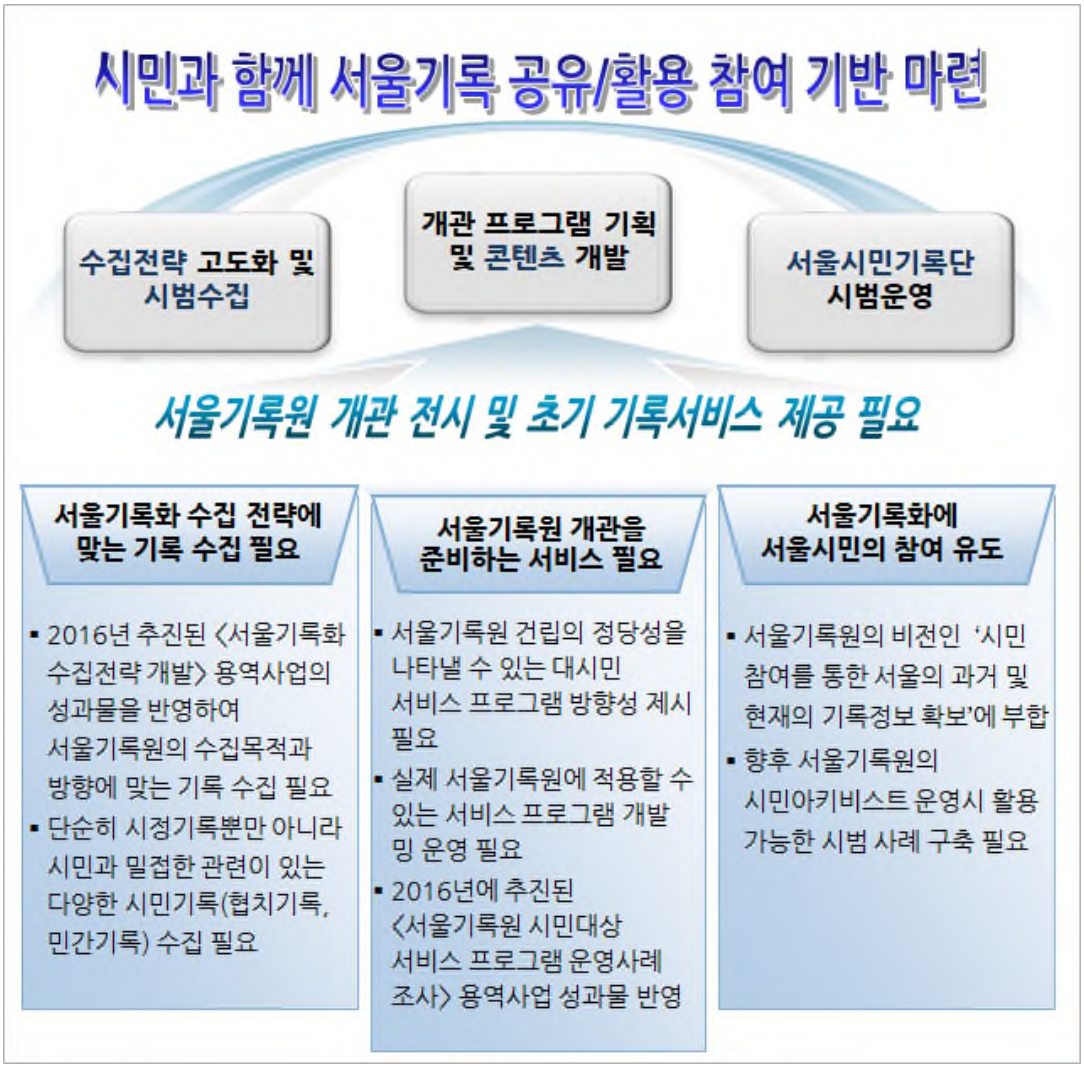
1. 사업개요

1.1. 개요

사업명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사업기간	2017. 04. 21. ~ 2017. 10. 17. (180일)
사업금액	185,220,000원 (VAT 포함)
수행기관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콘텐츠솔루션(주)

1.2. 사업배경 및 목적

- 시민과 함께 서울기록을 공유·활용하기 위한 참여서비스 기반 마련
  - 시정기록 중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록을 주제별로 수집
  - 시정기록+협치기록+민간기록이 함께 생산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대상 수집
- 서울기록원 개관전시 및 초기 기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구축
  - 서울기록원 건립의 정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관전시 주제 선정
  - 서울기록원 홍보·견학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축



1.3. 추진방향

1단계('16년)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2단계('17년) 〈기록수집 및 콘텐츠 구축〉		3단계('18년) 〈수집기록 전시 및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서울기록 정의 ·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및 수집정책 수립 · 서울기록화 액션플랜 수립	⇨	· 서울시 기록화 현황 분석 · 서울기록화 주제 선정 · 서울기록원 개관 전시 주제 선정 · 기록서비스 제공 콘텐츠 구축 · 서울시민기록단 시범 운영	⇨	·개관 전시 주제 확정 ·견학·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시민기록단 운영

2. 과업내용

2.1.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

▪ 서울시 산하기관 및 민간분야 기록화 현황 분석·목록 작성

내 용	❑ 서울시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공단, 투자·출연기관 기록화 현황 분석 ❑ 서울시 협치기관(중간지원조직),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 기록화 현황 분석
방 법	❑ 기관 홈페이지, 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한 사전조사 ❑ 주요 기관·단체 담당자/개인수집가에 대한 인터뷰·설문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
산출물	❑ 서울시 기록화 현황 목록 - 기록화 주제·목적, 기록화담당자, 수집대상 기록, 수집정책 수립여부, 수집방법, 수집기록 보존·활용 현황 등 - 서울시 소속부서 및 산하기관(50개 이상), 민간단체·기업(30개 이상), 개인수집가 10인 이상 ❑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서울기록원과의 연계방안 마련

▪ 서울기록화 주제 선정 및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

내 용	❑ 서울시 각종 정책에 따라 변화된 서울과 시민의 삶을 반영한 주제 ❑ 각 시대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인물 등에 관한 주제 ❑ '16년 개발된 서울기록화 수집전략을 반영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수립 ❑ '17년~'19년 서울기록원이 수행할 기록화 사업 주제 선정
방 법	❑ 시정기록과 시민기록(협치기록+민간기록)이 함께 생산되는 주제 선정 ❑ '16년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사업에서 제시한 12개 영역별 주제 선정 (1개 영역별 3개 이상 주제) ❑ 각 주제별 선별지침 작성
산출물	❑ 서울시 각 분야별 정책에 따른 주요 생산기록 목록 ❑ 선정된 주제별 우선순위 목록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총 36개 이상의 주제로 작성)

■ 서울기록 시범수집 및 수집프로세스 검증

내 용	❑ 서울기록화 수집전략에 따른 기록 실물 수집 - 선별지침 각 영역별 1개 이상 주제의 기록 수집 - 서울기록원 개관시기 서비스 프로그램별 기록 수집 ❑ 실물 수집을 통한 수집프로세스 검증 및 보완
방 법	❑ 직접수집 및 기록화 활동 기관(단체)과의 연계 수집 ❑ 소장처 기록화 유형별 기록수집 및 프로세스 점검 및 구체화
산출물	❑ 시범수집 대상 기록 목록 ❑ 시범수집 기록물 ❑ 서울기록화 수집프로세스(안)

■ 서울기록원 개관 프로그램 주제 선정 및 수집대상 선별

내 용	❑ 서울기록원 개관전시·홍보·견학 프로그램을 위한 주제 선정 ❑ 주제별 수집대상 기록 선별
방 법	❑ 서울기록원 개관 전 홍보를 위한 주제 목록 작성 및 수집 ❑ 서울기록원 개관전시를 위한 주제 목록 작성 및 수집 ❑ 서울기록원 견학프로그램을 위한 주제 목록 작성 및 수집
산출물	❑ 서울기록원 개관 전·후 기록서비스 프로그램 주제 목록 ❑ 주제별 수집대상 기록 목록 - 소장처, 기록물 유형, 수집방법, 대상 선정 사유 등 ❑ 주제별 수집 기록물

■ 서울기록원 온·오프라인 기록서비스 제공 콘텐츠 구축

내 용	❑ 서울기록원 개관시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 법	❑ 각 프로그램별 콘텐츠 개발 ❑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비전자기록의 디지털화
산출물	❑ 서울기록원 기록서비스 콘텐츠(개관전시·홍보·견학 프로그램) ❑ 디지털화 기록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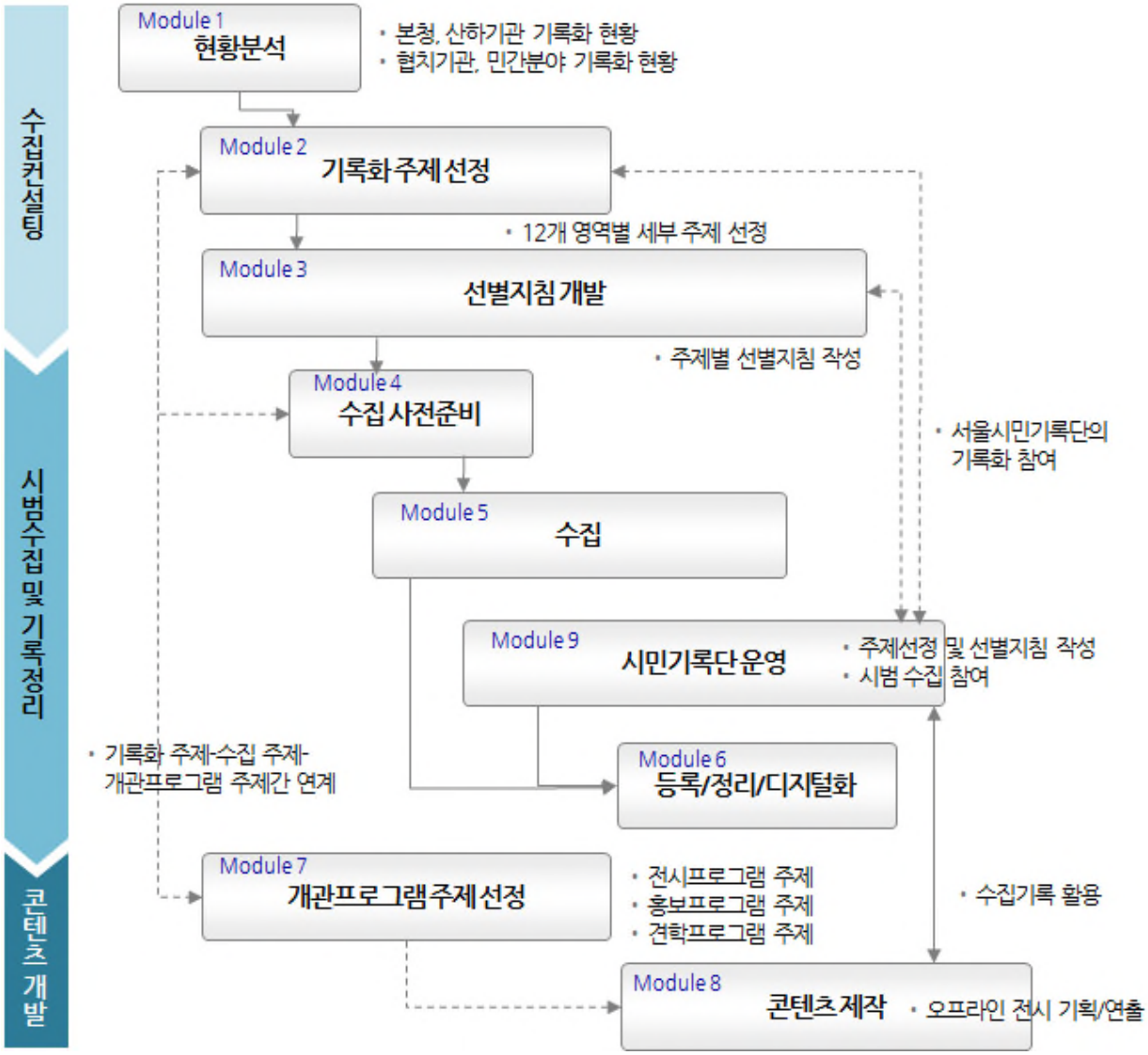
▪ 서울시민기록단(가칭) 구성 및 운영

내 용	❑ 서울기록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구성 ❑ 향후 서울기록원 시민아키비스트 운영 시 활용 가능한 시범사례
방 법	❑ 서울기록화의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한 교육 주관 ❑ 서울기록화 주제선정, 선별지침 개발, 시범수집 등에 참여
산출물	❑ 서울시민기록단 구성 및 운영 과정에 관한 기록

2.2. 과업별 프로세스 조정



3. 추진절차


수집컨설팅
시범수집 및 기록정리
콘텐츠 개발
Module 1
현황분석
• 본청, 산하기관 기록화 현황
• 협치기관, 민간분야 기록화 현황
Module 2
기록화 주제 선정
• 12개 영역별 세부 주제 선정
Module 3
선별지침 개발
• 주제별 선별지침 작성
Module 4
수집 사전준비
• 서울시민기록단의 기록화 참여
Module 5
수집
Module 9
시민기록단 운영
• 주제선정 및 선별지침 작성
• 시범 수집 참여
• 기록화 주제-수집 주제-개관프로그램 주제간 연계
Module 6
등록/정리/디지털화
Module 7
개관프로그램 주제 선정
• 전시프로그램 주제
• 홍보프로그램 주제
• 견학프로그램 주제
• 수집기록 활용
Module 8
콘텐츠 제작
• 오프라인 전시 기획/연출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제2장
서울기록화 현황 분석

1. 기록화현황 분석

1.1. 기록화현황 분석의 필요성

- 서울시 본청 및 본부사업소, 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협치기관, 민간(단체 및 개인)이 모두 서울의 다양한 면면을 기록하여 남기고 있음.
  - 시의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록화
  - 시민의 삶과 관련한 기록화
  - 서울의 변화상에 대한 기록화 등
- 서울의 기록화현황에 대한 분석은 향후 서울기록원의 운영프로그램(전시 및 대시민 기록 서비스)에 밑거름이 됨과 동시에 서울시 기록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
- 또한 거버넌스 형태로 활동중인 중간지원조직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협치기관 및 민간영역과 서울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따라서 '기록화현황 분석'에서는 본청과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기록화 현황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협치기관, 민간의 기록화 현황도 조사하여 서울기록원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함.

1.2. 기록화현황 분석 절차

- 서울 기록화현황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는 선행연구로 진행된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사업」[1]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와 분석을 진행함.
- 조사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사전조사-해당 기록화사업 조사-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단계로 진행됨.
  - 사전조사
    - 사전조사 단계는 서울시 본청 및 본부사업소의 경우 문서목록 및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진행하며, 유관기관 및 협치기관, 민간의 경우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공통적으로 기록, 기록화, 아카이브, 아카이빙, DB, DB구축, 백서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해당 기록화사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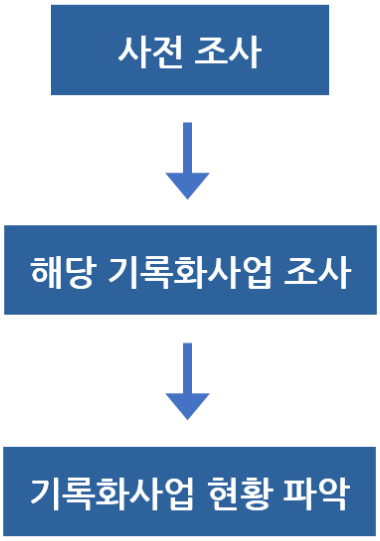
1)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사업」, 2016.

- 해당 기록화사업 조사 단계는 사전조사 단계를 통하여 추출된 기록화 현황에 대한 세부조사 단계로 유효한 대상 값을 바탕으로 2차 키워드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한 후 진행
- 나라장터 입찰공고(제안서) 검토를 통해 해당 기록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파악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 이 단계는 기록화사업에 대하여 생산된 기록에 대한 세부정보를 찾는 동시에 관련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도 추가됨.

▪ 협치기관 및 민간의 경우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언론기사 검색 및 각종 문헌 등을 추가 검토하여 기록화 현황 분석 실시



〈그림 1〉 서울 기록화현황 조사 절차

1.3. 본청 및 본부사업소·출연기관의 기록화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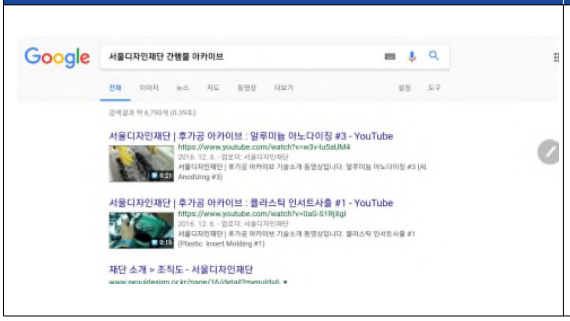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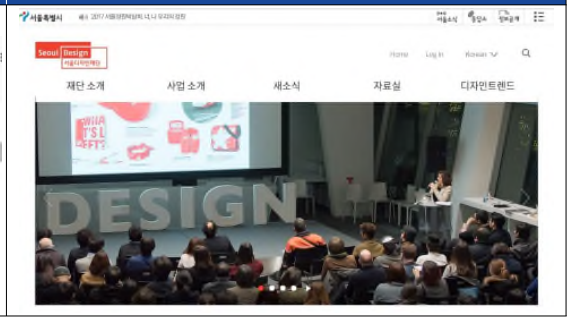
▪ 본청 및 본부사업소, 출연기관의 기록화현황 조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속부서 기록화사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함.

▪ 향후 서울기록원으로 기록물 이관과 기록정보의 연계 방안을 모색

▪ 정보소통광장을 통한 키워드 검색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언론기사 검색을 통해 대상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함.

- 사전조사: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을 통한 목록 확보
  - 검색 필터: 분야, 생산기관
  - 키워드: 기록화, 기록, 아카이브, 아카이빙, 백서, DB, DB구축 등
- 해당 기록화사업 조사: 1차 작업을 통해 추출된 대상은 세부정보 파악을 위한 추가 조사 작업을 진행
  - 정보소통광장 관련 문서 세부 검토
  - 나라장터 입찰공고(제안서) 검토
  - 포털사이트 추가 검색

〈표 1〉 추가 조사 작업 예시

정보소통광장 관련 문서 세부 검토	나라장터 입찰공고(제안서) 검토
	
포털사이트 추가 검색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 정보 수집**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기록화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3차 추가 정보 조사 작업 진행하여 조사시트에 반영
  - 주관부서 및 담당자 확인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검토(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 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 사업시기 및 수집대상기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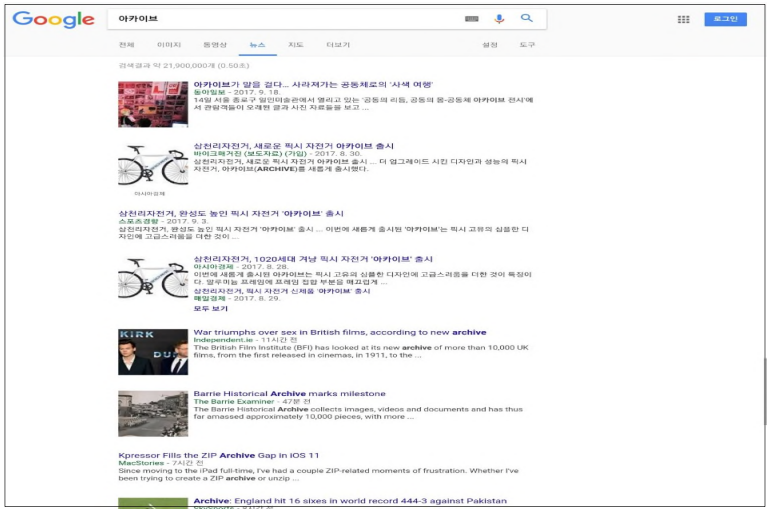
서울시 기록화 사업 현황 조사(본청, 본부, 사업소, 출연기관)

연번	구분	주관부서	기록화담당자	분류체계 단위과제	보존기간	사업명	사업목적	내용	사업시기	수집대상기록
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전재희	북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5년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한옥정보통합시스템 DB구축, 서울시 전역 한옥 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정보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08년 '북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15년 서울시 전역 한옥 건축자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한옥포털'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2016년에 완료함 2017년 3월 '서울 한옥포털' 서비스로 대시민 공개	2008년 ~ 현재	북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관련 기록 外
2			전선영	북촌문화센터운영 및 홍보활성화	10년	서울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조사	서울시 '역사가옥'에 대한 정의 정립 및 목록화, '역사가옥'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스토리텔링 DB구축(50건) '역사가옥'의 유형별 활용 모델 제시(스토리텔링 콘텐츠 가공(5건)	2015년 서울시 '역사가옥'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주요 역사가옥(종건적가옥, 배렴가옥 등)에 대한 콘텐츠 발굴을 진행함 2015년 9월 '종건적가옥 운영 및 활용 검토' 시장지시 / 2016년 4월 '역사가옥 활용' 기본계획 수립 2016년 9월 역사가옥 활용 및 운영 컨설팅 완료 2017년 2월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사무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실시	2015년 ~ 현재	조사중
3			이은희	미확인	미확인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 진행여부 검토 중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마을 서촌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공유 미 플랫폼 조성 서촌에 대한 아카이브 자원이나 아카이빙 활동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	2013년부터 추진된 '2030 서촌 종합발전계획'에서 서촌 아카이브 구축이 제안됨 서촌지역의 역사문적 가치를 소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서촌 아카이브 자원 전반을 스토리 텔링화하여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발 함	조사중	조사중

〈그림 2〉 서울시 기록화 사업 현황 조사시트

1.4. 협치기관 및 민간의 기록화 현황 조사

- 협치기관 및 민간의 기록화현황 조사는 본청 등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됨
- 본청 및 본부사업소, 출연기관의 기록화현황을 바탕으로 연관되어 진행되는 협치기관 및 민간의 기록화 현황을 검토 함
- 이와 더불어 정보소통광장을 통한 키워드 검색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언론기사 검색을 통해 대상을 추출하는 1차 작업을 진행함
- 사전조사: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등



〈그림 3〉 사전 조사 예시 - 협치기관, 민간

- 포털사이트 및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
  - 키워드: 기록화, 기록, 아카이브, 아카이빙, 백서, DB, DB구축 등

- 해당 기록화사업 조사: 1차 작업을 통해 추출된 대상은 세부정보 파악을 위한 추가 조사 작업을 진행
  - 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 검색: 서울시와 연계하여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거나 서울과 관련된 개별적인 기록수집을 진행하는지를 우선 검토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기록화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아래 〈그림 4〉와 같이 추가 정보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시트에 반영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시기
  - 관련 시정기록의 유무
  - 수집대상 기록

연번	구분	단체(개인) 명	사업명	관련 시정기록	내용	목적	시기	수집대상기록	수집정책 수립여부	수집방법	수집기록 보존 활용 현황	기록위치 링크
1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지원센터	서울로 7017	서울역 7017프로젝트 백서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	공간범위: 서울역 고가와 직접적 연관되는 주변지역까지 시간범위: 서울역 고가 주변의 역사, 고가 탄생 배경~보행길 조성사업 내용범위: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관련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류정리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 분석 평가 -조사 수집된 자료의 디지털화 및 DB 구축 -백서 기획 및 원고 작성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진행 전 과정을 기록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향후 유사사업에 참고 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고 서울역 고가의 변화와 주변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역사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	2016년 4월 ~2017년 3월		필요	수집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백서제작 및 기록화 용역 시행계획 [비공개] http://opengov.seoul.go.kr/sanction/7818498 나라장터에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백서제작 및 기록화 용역'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있음 http://www.g2b.go.kr/pt/menu/selectSubFrame.do?fr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사례집	2014 마을공동체 사례집 등	-각 자치구별 1개 마을공동체 사례에 대해 소개 (총 25개) -자치구에서 우수 마을공동체 사례에 대한 사전 추천을 받아 각 마을원장에 마을활동가가 직접 방문하여 주민을 인터뷰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의 마을탐방기 작성	자치구별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소개하는 책자로 제작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울시 전체로 마을공동체 사례를 확산 - 전파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2014년 12월 ~2015년 2월		필요	수집		2014 마을공동체 사례집 발간계획 http://opengov.seoul.go.kr/sanction/3186425
3		해방촌 마을기록단	해방촌 아카이브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해방촌 아카이브 -신흥시장 활성화,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박물관)	향후 마을박물관 컨텐츠 구성 및 운영방안 기반 마련			필요	수집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2016년도 주제공모사업 추진계획 http://opengov.seoul.go.kr

〈그림 4〉 협치기관 및 민간 기록화 현황 조사시트

1.5. 기록화현황 유형별 분류

1.5.1. 본청

- 서울시 본청의 기록화현황 조사 결과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40개의 기록화사업이 확인됨.
- 이는 크게 서울시의 사업 및 정책을 기록화 한 유형과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기록을 정리하는 사업의 기록화로 구분됨.
- 유형별 분류
  - 사업 및 정책을 기록화 유형: 도시농업, 서울경관, 마을공동체 등의 사업 및 정책의 결과물을 기록화 한 사례로 주로 백서, 기록화 보고서 등의 형태로 확인됨
    - 기관의 사업 혹은 정책을 실행하면서 생산된 자료 및 문서들을 기록화 하는 사업

- 시스템 개편사업 기록화: DB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시스템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포털사이트 개편과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임)
  - 기관의 기록을 정리하거나 시스템을 정리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표 2〉 본청 기록화 현황 유형별 분류

번호	유형 분류	주관부서	사업명 (기록화 사업)	분류체계 단위과제	사업시기	수집대상기록
1	사업 정책 기록화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서울 도시농업 백서	도시농업추진 관리	2014년 5월~9월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 스포츠백서	업무계획및보고관리	2016년 1월~	
3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016 서울백서 발간계획	시정백서발간	2017년 1월~4월	단위과제카드: 시정백서발간
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경관기록화	도시경관조성 및 관리		단위과제카드: 서울경관기록화사업
5			GB해제 집단취락 생활문화 기록화	지구단위계획 제도및정책수립		단위과제카드: GB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6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일반업무관리	2016년 8월~	
7			서울시 공공건축가 기록화	공공계획가운영		
8			2015년 서울건축아카데미 아카이빙 북	건축아카데미 운영	2015년 11월~12월	
9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옛길 영상기록화	역사도심관리 및 운영		단위과제카드: 옛길영상기록화사업
1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도시활성화과	용산참사 백서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	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화보고서	성곽마을보전 관리	2014~2016	
12			행촌 생활문화 기록화사업보고			
13			마을 스토리텔링 발굴 기록화		2016년 11월~	
1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거재생정책 및제도개선	2015년 3월~	단위과제카드:도시재생선도지역

번호	유형 분류	주관부서	사업명 (기록화 사업)	분류체계 단위과제	사업시기	수집대상기록
			봉제일자리지원사업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7 서울 미래유산 아카이브 자료 조사	미래유산보존 및활용지원	2016년 1월~6월	
16			2016 서울사진축제 아카이빙 추진(파독간호사 아카이빙)	문화진흥사업 추진	2016년 4월~12월	
17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무형문화재지 정관리	1989~2017	
18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6 갈등관리 백서	갈등조정및중재	2016년 9월~12월	
19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백서	마을만들기일반	2013년 10월~12월	
20			이웃사이다 백서	마을공동체홍보	2016년 6월~8월	단위과제카드:마을공동체홍보
2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청 운영 백서	시민청운영	2014년 6월~7월	단위과제카드:시민청운영
22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	서울로7017프로젝트 백서	홍보지원	2016년 4월~2017년 3월	
23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과	서울시 마을기업 백서	마을기업운영 및육성지원		
24			2015마을기업홍보	마을기업운영 및육성지원		
2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공동체주택 기록화	주택제도개선	2015년 10월~	
2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조사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홍보활성화	2015년 ~	단위과제카드:북촌문화센터운영및홍보활성화
2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창의어린놀이터 꿈틀 백서	어린이공원관리	2016년 7월~11월	
28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정원박람회 백서	서울꽃으로피다캠페인추진	2016년 12월	
29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광장기록화	기록정보서비스운영	2014년 1월~ 2014년 8월	
30		행정국 총무과	세월호 추모공간 운영 백서 『함께아파하며,함께어루만지며』	일반업무관리	2015년 2월~	

번호	유형 분류	주관부서	사업명 (기록화 사업)	분류체계 단위과제	사업시기	수집대상기록
31			서울시 청사 이전 백서	청사관리업무 (조경, 청소, 소독)	2013년 10월	
32			시 청사 생활백서	일반업무관리	2013년 4월~5월	
33	시스템 개편 사업 기록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용산공원 아카이브 구축	용산공원 일대관리		
34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한양도성 각자성석 시범보존처리 및 디지털 기록화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6월~	
35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재난현장기록물 DB구축	소방홍보기본계획수립	2012년 4월~10월	
36			소방아카이브 고도화	소방전산및정보통신보안관리	2017년 2월~5월	
37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항공사진 통합관리 원스톱서비스	항공사진통합관리	2014년 4월~	단위과제카드: 항공사진시스템운영관리
38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북촌통합정보시스템운영	2008년 ~ 현재	북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관련 기록 外
39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서촌마을공동체조성추진		
40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한강영상기록물 제작 영상아카이빙	영상백서제작		단위과제카드: 한강영상기록물제작관리

- 본청의 기록화 현황은 도시재생, 도시계획, 주거(주택) 등과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록화 사업명 및 결과물은 백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5년 이내 진행된 사업 중심임.
- 본청 기록화사업에 대한 예시
  -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봉제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목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인력을 창출하며,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전담기관간 협업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 사업시기: 2015년 3월 ~

- 주요내용: 新 택리지사업
  - 지역의 자연, 지리, 인물, 건축물 등의 역사와 실태 조사
  - 지역 산업생태계의 역사와 실태 조사
  - 조사·발굴된 이야기의 기록화(Archiving)

▪ 다수의 기록화 사업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의 유한보존 기록으로 시급히 선별·수집 할 필요가 있음.

- 10년: 서울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조사, 서울광장 기록화 등
- 5년: 마을공동체 백서, 2016 서울사진축제 아카이빙 추진(파독간호사 아카이빙) 등
- 3년: 세월호 추모공간운영 백서『함께 아파하며, 함께 어루만지며, 서울시 청사 이전 백서, 서울로7017프로젝트 백서 등

연번	구분	주관부서	기록화담당자	분류체계 단위과제	보존기간	사업명	사업목적	내용	사업시기	수집대상기록
1	본청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전재희	북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5년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한옥정보통합시스템 DB구축, 서울시 전역 한옥 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정보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2008년 '북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15년 서울시 전역 한옥 건축자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한옥포털'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2016년에 완료함 2017년 3월 '서울 한옥포털' 서비스로 대시민 공개	2008년 ~ 현재	북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관련 기록 外
2			전선영	북촌문화센터운영 및 홍보활성화	10년	서울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조사	서울시 '역사가옥'에 대한 정의 및 목록화, '역사가옥'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스토리텔링 DB구축(50건) '역사가옥'의 유형별 활용 모델 제시/스토리텔링 콘텐츠 가공(5건)	2015년 서울시 '역사가옥'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주요 역사가옥(종건역가옥, 배렴가옥 등)에 대한 콘텐츠 발굴을 진행함 2015년 9월 '종건역가옥 운영 및 활용 검토' 시장지시 / 2016년 4월 '역사가옥 활용' 기본계획 수립 2016년 9월 역사가옥 활용 및 운영 컨설팅 완료 2017년 2월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실시	2015년 ~ 현재	BRM -단위과제ID: LB0007201312310007008 6Z -단위과제카드: 북촌문화센터운영및홍보활성화 -단위과제카드ID: TRDS13700E700E0014A3EDA21CA800 12F11
3			김홍	서촌마을공동체조성 추진	10년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 진행여부 검토 중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마을 서촌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공유 미 플랫폼 조성 서촌에 대한 아카이브 자원이나 아카이빙 활동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부터 추진된 '2030 서촌 종합발전계획'에서 서촌 아카이브 구축이 제안됨 서촌지역의 역사문적 가치를 소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서촌 아카이브 자원 전반을 스토리 텔링화하여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조사중	BRM -단위과제ID: LB0007201312310007014 23

정리 | 본청 | 본부사업소, 출연기관 | 협치기관 | 민간

〈그림 5〉 본청 기록화 현황 보존기간

1.5.2.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

▪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기록화현황 조사 결과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27개 기록화사업이 확인됨.

▪ 이는 본청과 같이 크게 서울시의 사업 또는 기관의 사업 및 시 정책 등을 기록화한 유형과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기록을 정리하는 사업의 기록화로 구분됨.

- 사업 및 정책을 기록화 유형: 서울디자인 재단, 서울문화재단의 주요사업, 서울여성가족재단 등의 사업 및 정책의 결과물을 기록화 한 사례로 주로 백서, 기록화 보고서, 아카이브 등의 형태의 간행물로 확인됨.

- 기관의 사업을 실행하면서 생산된 자료 및 문서들을 기록화 하는 사업으로 서울의 주요문화기관 들이 담당

- 시스템 개편사업 기록화: 도시철도사업부, 서울도서관 등에서 진행된 DB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해당기관의 시스템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
  - 기관의 기록을 정리하거나 시스템을 정리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표 3〉 본부사업소·출연기관 기록화현황 유형별 분류

번호	유형 분류	주관부서	사업명 (기록화 사업)	분류체계 단위과제	사업시기	수집대상기록
1	사업 정책 기록화	교통방송	서울의 오늘을 기록·보존하는「역사 아카이빙」			방송: 서울, 시간을 담다 / 空簡사람 / 로드다큐 우리동네
2		상수도사업본부	유수율 백서	유수율관리및분석	2015년 4월~9월	
3			상수도GIS백서	상수도GIS추진계획수립및시행		
4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 백서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관리		
5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아카이브			
6			간행물아카이브	간행물아카이브 운영계획		
7		서울문화재단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2015년 1월~12월	
8			박물관도시 서울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2016년 1월~12월	
9		서울산업진흥원	만화의거리(재미로)/ 만화박물관(재미랑)			
10		서울시설관리공단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_『생전 인터뷰』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_『생전 인터뷰』기록과 제작·설치(전시) 추진계획(안)		
11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 시민기록 프로젝트 Seoul Women's Walk			
12			여성의 기록 기억, 공유공간, '여기로' 운영			

번호	유형 분류	주관부서	사업명 (기록화 사업)	분류체계 단위과제	사업시기	수집대상기록
13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기록과 기억공유사업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기록과 기억 공유사업 계획		
1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학 연구조사			
15			서울생활자료 조사			
16			한양도성 변화상 기록화			
17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18	시스템 개편 사업 기록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17년도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	기록관리	2017년 4월~12월	
19		서울도서관	서울시정자료 디지털화 및 DB구축 사업		2013년 9월~12월	
20		서울시립미술관	미술관 아카이브	학예연구시행및 관리	2015년 2월~12월	
21		서울역사박물관	도성내외부 마을조사 및 기록화 사업(2013)		2013년 1월~12월	
22			서울성장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2014년부터 매년	
23			홍대 일대 공간적 특성 및 변화과정 기록 용역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2017년 4월~12월	
24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 아카이브 구축	서울역사교육운영관리	2016년 2월~12월	
25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디지털아카이브	평생학습포털시스템운영	2016년 3월~12월	
26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아카이브 수집	사무분장	2014년 8월~2015년 2월	
27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 아카이브	학술자료조사연구		단위과제카드:백제학아카이브구축및운영

-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기록화 현황은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록화 사업명 및 결과물은 프로젝트 결과물 또는 백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보존기간 등의 확인이 어려움.
-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 기록화사업에 대한 예시
  - 서울문화재단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

- 사업목적: 시민들의 기억을 목소리로 기록, 예술가와 협업하여 문화콘텐츠 창출, 서울에 새로운 문화 예술적 가치 부여
- 사업시기: 2015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2015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 기억수집가의 기억제공자 발굴을 통해 시민캠페인으로서의 사업 실현
  - 서울에 대한 전방위적 기억수집을 통해 지역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 형성 및 경청과 공감의 문화 조성
  - 기획주제 기억수집을 통해 역사·문화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기억수집가 COP운영을 통해 기억수집가 간의 공동작업 및 네트워킹 도모
  - 아카이빙 연구회의를 통한 장기적인 아카이빙 시스템 모색 및 효율적인 시민 서비스 체계 구축
  - 채록물을 기반으로 예술가와 협업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 생산

-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 기록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세부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교통방송: 서울의 오늘을 기록·보존하는「역사 아카이빙」,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아카이브 수집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목적 및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1.5.3. 협치기관

- 협치기관의 기록화현황 조사 결과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9개 기록화 사업이 확인됨.
- 협치기관의 기록화현황의 경우 기관의 사업을 기록화 한 경우와 사회적 이슈 및 특정 기억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사례로 구분됨.
- 유형 분류
  - 사업 기록화: 대표적인 협치 사업은 '서울로7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사례집 등과 같이 서울시와의 협치를 통해 생산된 자료 및 문서를 기록화 하는 사업인 경우로, 관련 시정기록과의 연계가 가능함.
  - 기억 기록화: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창신숭인 新 택리지 보고서'와 같이 특정 사회적 기억 혹은 그 기관(단체 또는 지역)의 기억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하는 사업인 경우

〈표 4〉 협치기관 유형별 분류

번호	유형 분류	기관명	사업명(기록화 명)	관련시정기록	시기	수집대상기록
1	사업 기록화	강북봉제지원센터	강북구 봉제여지도		2013년~2014년	강북구 봉제여지도
2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마을신문 첫걸음, 마을TV 첫걸음			마을신문 첫걸음, 마을 TV 첫걸음
3		서울시 npo 지원센터	npo 아카이브 관리		2014년~	npo 아카이브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사례집	2014 마을공동체 사례집 등	2014년 12월~2015년 2월	
5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로7017	서울역 7017프로젝트 백서	2016년 4월~2017년 3월	
6		창신숭인도시재생 지원센터	창신숭인 도시재생 아카이브 구축 결과물	도시재생기록화	2016년	창신숭인 도시재생 아카이브 구축 결과물
7		청년허브	2013 동대문 청년 프로젝트 결과집		2013년	[청년혁신일자리사업] 2013 동대문 청년 프로젝트 결과집
8	기억 기록화	창신숭인도시재생 지원센터	창신숭인 新택리지 보고서	도시재생기록화	2015년~2016년	창신숭인 新택리지 보고서
9		해방촌 마을기록단	해방촌 아카이브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2016년	해방촌 아카이브 기록

- 협치기관의 기록화 현황은 서울시와의 협치를 통해 추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록화 사업명 및 결과물은 프로젝트 보고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주요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협치기관 기록화사업에 대한 예시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지원센터
    - 사업목적: 서울로7017 프로젝트 진행 전 과정을 기록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향후 유사사업에 참고, 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고, 서울역 고가의 변화와 주변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역사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

- 사업시기: 2016년 4월 ~ 2017년 3월
- 주요내용
  - 공간범위: 서울역 고가와 직접적 연관되는 주변지역까지
  - 시간범위: 서울역 고가 주변의 역사, 고가 탄생배경~보행길 조성사업
  - 내용범위
    · 서울로7017 프로젝트 관련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류·정리
    · 서울로7017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 분석·평가
    · 조사 수집된 자료의 디지털화 및 DB 구축
    · 백서 기획 및 원고 작성
- 관련시정기록: 서울로7017 프로젝트 백서(안전총괄본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 협치기관의 기록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대부분 세부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언론기사 등을 통해서 만 내용 확인이 가능함.

- 청년허브 2013 '동대문 청년'의 58일 간 활동일지[2013 동대문 청년 프로젝트 결과집]의 경우 협치기관의 문의결과 현황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

1.5.4. 민간

▪ 민간의 서울과 관련한 기록화현황 조사 결과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11개 기록화사업 확인

▪ 서울과 관련하여 진행된 민간의 기록화는 2015~2016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된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을 통하여 수집(기록화)된 것을 제외함[2)]

▪ 민간의 기록화의 경우 협치기관과 유사하게 해당 기관의 사업을 기록화 한 경우와 사회적 이슈 및 특정 기억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사례로 구분됨.

▪ 유형 분류

- 사업 기록화: 환경재단의 녹취록, 희망제작소의 아카이브 등 단체 내부의 사업을 실행하면서 생산된 자료 및 문서들을 기록화 하는 경우임, 관련 시정기록과

2) 「2015~2016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 아카이브 자료집」, 서울문화재단, 2016.

의 연계가 가능함

- 기억 기록화: 기억발전소의 아카이빙 사업, 인간과 기억아카이브의 5월 12일 일기수집과 같이 특정 사회적 기억 혹은 그 기관(단체 또는 지역)의 기억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하는 사업인 경우

- 민간의 기록화 현황은 서울시와의 협치를 통해 추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과 기관 단체의 기록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록화 사업명 및 결과물은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형태로 나타남.
- 민간 기록화사업에 대한 예시
  - 서울무형문화재기능 보존회
    - 사업목적: 무형문화재의 발굴 다양화와 원형보전, 전승기반 강화, 시민향유 기회 확대와 인지도 향상 등을 '서울시 무형문화재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함.
    - 사업시기: 1989년 ~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보유자의 기능을 영상 다큐멘터리와 도서로 남기는 기록화 작업
      - 1989년부터 45개 종목의 54명을 무형문화재로 지정보존하고 있음
    - 관련시정기록: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용역 추진 [비공개]
- 민간의 기록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대부분 세부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언론기사 등을 통해서만 내용 확인이 가능함.

〈표 5〉 민간 유형별 분류

번호	유형 분류	기관명	기록화 현황	관련시정기록	시기	수집대상기록
1	사업 기록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아카이브 사업(진행중)		2016년 ~	
2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도서)			
3		환경재단	녹취록(綠翠錄)		2013년 ~	녹취록(綠翠錄)
4		희망제작소	아카이브		2013년 ~	자료집, 보고서, 단행본, 기타
5	기억 기록화	기억발전소	아카이빙 사업			『창천동 52-12, 기억 속의 공간, 기억 속의 사람들』 『중동고등학교74회졸업 30주년기념행사및장학회 설립기념기록물』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사업본부'경정10년의발자취'』 『구로시장탐사대:구로시장을위한손바닥사진지도책』
6		서울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7		서울산책	서울역고가 기록화	서울역 7017프로젝트 백서	2016년 4월~2017년 3월	
8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5월 12일 일기수집			5월 12일 일기수집
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친구사이 20년사 발간		2014년	친구사이 20년사
10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퀴어락(Korea Queer Archive)		2009년 ~	

2. 기록화현황 사례 종합

2.1.본청

2.1.1. 사업 및 정책의 기록화

- 본청의 사업 및 정책의 기록화 현황은 총 40개 중 32개이며, 백서(보고서 포함) 17개, 기록화 10개, 기타(조사, 홍보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음.
- 백서의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결과물인 백서가 확인됨.
- 기록화의 경우 사업에 대한 관련기록의 수집·정리 등임.
  - 서울광장 기록화,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성곽마을 생활문화 기록화보고서 등
- 본청의 사업 및 정책의 기록화 현황 조사는 정보소통광장의 키워드 검색(기록화, 아카이빙 등) 진행하여 본청의 기록화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됨.
- 〈그림 6〉과 같이 검색결과를 목록화하며 이 과정에서 주관부서, 사업명 등을 총 32개 사업의 목록을 작성함.

연번	구분	주관부서	기록화담당자	분류체계 단위과제	보존기간	사업명
1	본청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전재희	북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5년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2			천선영	북촌문화센터운영 및 홍보활성화	10년	서울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조사
3			김홍	서촌마을공동체조성 추진	10년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 진행여부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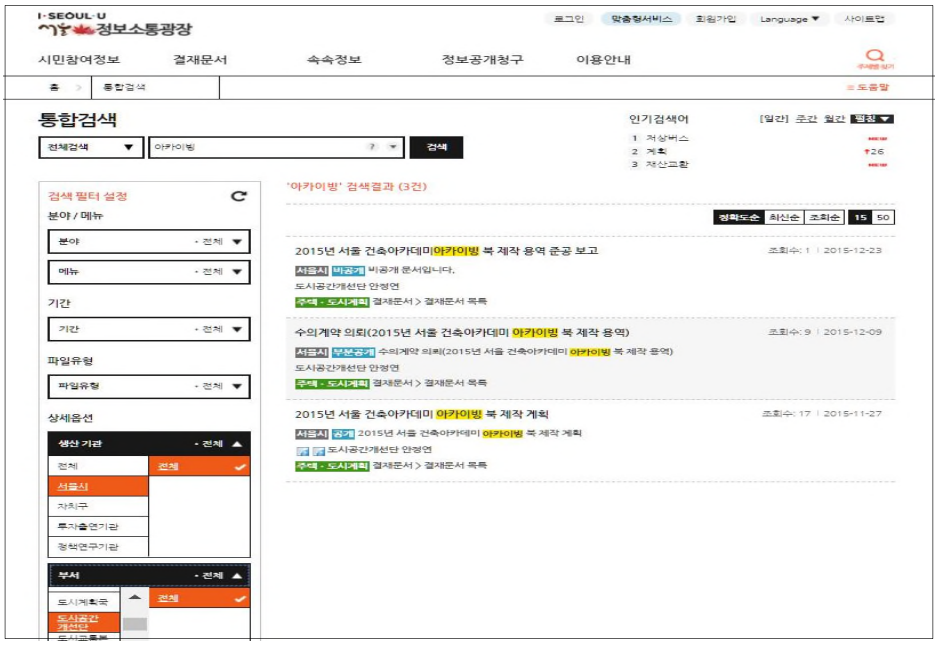
〈그림 6〉 본청 기록화 현황 사전조사 목록 예시

2.1.1.1. 2015년 서울 건축아카데미 아카이빙 북

■ 사전조사

●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32개 기록화 사업 중 세부사례는 '서울 건축아카데미 북'을 통해 확인함

-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
- 검색과정
  - 검색필터: '생산기관-서울시 / 부서-도시공간개선단' 적용
  - 키워드: 아카이빙
- 검색결과로 아래 〈그림 7〉과 같은 3개의 문서가 확인되었으며, 이 문서들은 동일 사업 문서로 확인됨
  - [비공개] 2015년 서울 건축아카데미아카이빙 북 제작 용역 준공 보고
  - [비공개] 수의계약 의뢰(2015년 서울 건축아카데미 아카이빙 북 제작 용역)
  - [공개] 2015년 서울 건축아카데미 아카이빙 북 제작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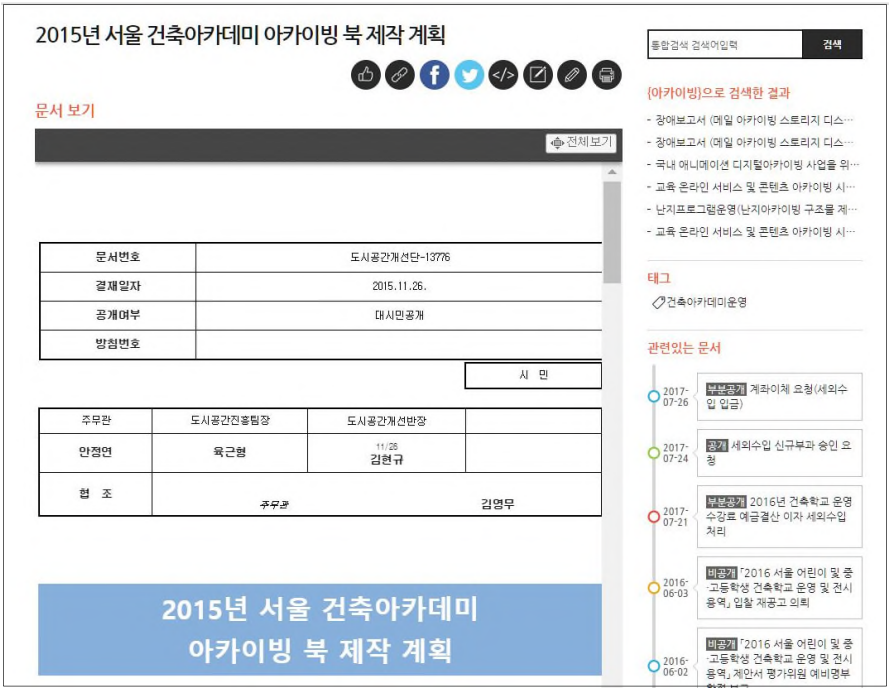


〈그림 7〉 키워드 '아카이빙' 정보소통광장 검색 결과

■ 해당 기록화사업 조사

● 정보소통광장 관련 문서 세부 검토

- 세부 검토 문서: 2015년 서울 건축아카데미 북 제작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 현황 검토, 주관부서, 단위과제 현황 등을 확인



〈그림 8〉 2015년 서울 건축아카데미 아카이빙 북 제작 계획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 해당 기록화 사업 현황 조사시트 반영

- 사업 및 정책의 기록화 – ‘2015년 서울건축아카데미 아카이빙 북’
- 주관부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담당자: 안정연
- 분류체계 단위과제: 건축아카데미운영
- 보존기간: 10년
- 사업목적: 2015년 시행한 대시민 건축학교 프로그램 시행 완료 후 운영 전 과정을 아카이빙 북으로 제작, 향후 도시·건축교육의 토대 마련
  - 최근 도시·건축분야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변화를 뒷받침하고 정책시행 주체의 경험으로 공유하기 위함
  - 서울시의 건축문화와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한 개편한 교육 프로그램 기록
  - 우리시 도시·건축에 대한 시민교육프로그램 시행과정 및 결과 기록
  - 향후 건축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토대 마련
- 사업내용:
  - 2015년 시민건축학교 강의한 강사진 원고 또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아카이빙 북 제작

- 시민건축학교 전 강의에 대하여 제작(총29강좌 및 현장답사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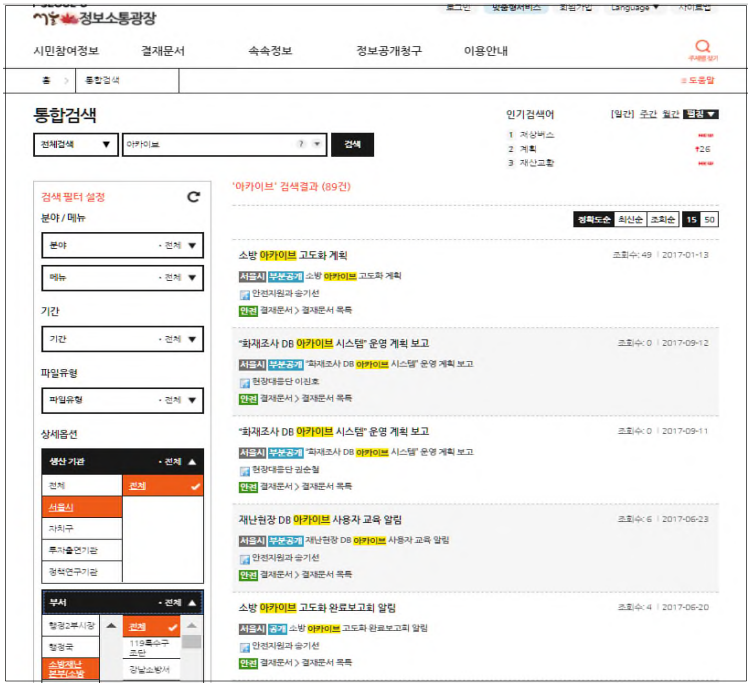
- 사업시기: 2015년 11월~12월

2.1.2. 시스템 개편사업 기록화

- 본청의 시스템 개편사업 기록화 현황은 총 40개 중 8개이며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가 7개, 영상백서 제작이 1개 임
-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의 경우 소방아카이브 고도화,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서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영상백서 제작은 한강영상기록물 제작 영상아카이빙 임
- 시스템 개편사업 기록화 현황 조사는 앞선 사업 및 정책의 기록화 사업과 같이 정보소통광장의 키워드 검색(기록화, 아카이빙 등) 진행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며
- 〈그림 6〉과 같이 검색결과를 목록화하며 이 과정에서 주관부서, 사업명 등을 총 8개 사업의 목록을 작성함

2.1.2.1. 소방아카이브 고도화

- 사전조사
  -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8개 기록화 사업 중 세부사례는 '소방아카이브 고도화'를 통해 확인함
  -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



〈그림 9〉 키워드 '아카이브' 정보소통광장 검색 결과

- 검색과정
  - 검색필터: '생산기관-서울시 / 부서-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
  - 키워드: 아카이브
- 검색결과 89개의 문서를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검색 값을 재설정
  - 검색필터: 위와 동일
  - 키워드: 소방 아카이브
- 재검색결과 61건의 소방 아카이브 관련 문서를 확인
  - 각 문서를 검토하여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 관련 문서 39건 확인

■ 해당 기록화사업 조사

● 정보소통광장 관련 문서 세부 검토

- 세부 검토 문서: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현황 검토, 주관부서, 단위과제 현황 등을 확인



〈그림 10〉 소방 아카이브 고도화 계획 문서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 해당 기록화 사업 현황 조사시트 반영

-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기록화담당자: 송기선
- 분류체계 단위과제: 소방전산 및 정보통신보안관리
- 보존기간: 3년
- 사업목적: 소방 활동, 교육 훈련 및 화재조사 등의 사진, 영상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아카이브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저장공간의 확장성 필요
  - 아카이브시스템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발생 시 처리에 제한이 있음.
  - 각 소방관서에서 보관하는 화재조사의 사진, 영상 등에 대한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
- 사업내용:
  - 재난현장 DB 아카이브 UI/UX 및 성능 개선
  - 화재조사 특성을 고려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FireCam 영상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능 제공

- 아카이브 서버(H/W) 고도화: CMS(콘텐츠관리), DB, 스트리밍, 동영상 변환
-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구성 및 설정(스토리지 구매 제외)

• 사업시기: 2017년 2월~5월

● 검색과정 이슈사항

• 특이점: 소방아카이브 고도화를 위한 계획 문서 및 고도화를 위해 관련 기관에 발신한 문서들 확인 가능

• 문제점: 소방아카이브 고도화 계획 문서만 파악이 가능하고, 고도화 과정은 정보소통광장, 나라장터, 검색엔진 등의 검색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움.

2.2. 본부사업소·출연기관

2.2.1. 사업 및 정책의 기록화

▪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사업 및 정책의 기록화 현황은 총 27개 중 17개이며 사업명으로 확인되는 것이 10개(기록화 포함), 아카이브(아카이빙) 3개, 백서 3개, 기타 1개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명인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정리하는 것으로 메모리 인 서을 프로젝트, 만화의 거리(재미로)/만화박물관(재미랑), 서울여성 시민기록 프로젝트 Seoul Women's Walk 등이 있으며, 아카이브는 디자인 아카이브 등과 같이 아카이브 명칭을 사용한 결과물이 있음.

▪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기록화 현황 조사는 정보소통광장의 키워드 검색(기록화, 아카이빙 등) 및 포털사이트 검색을 병행하여 진행함.

▪ 〈그림 11〉과 같이 정보소통광장과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확보된 검색결과를 목록화 하여 이 과정에서 확인된 해당기관, 사업명 등 총 17개의 목록을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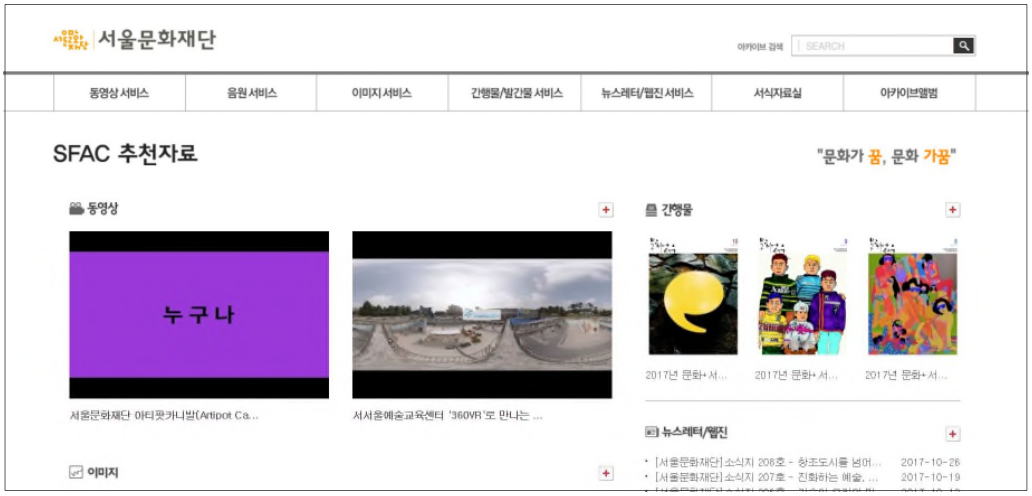
연번	구분	주관부서	기록화담당자	분류체계 단위과제	보존기간	사업명
1	본부사업소	교통방송				서울의 오늘을 기록·보존하는 「역사 아카이빙」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왕태현	기록관리	5년	2017년도 건설 중요기록물 D8구축 용역

정리 | 본청 | 본부사업소, 출연기관 | 협치기관 | 민간

〈그림 11〉 본부사업소 및 출연기관 기록화 현황 사전조사 목록 예시

2.2.1.1. 디자인 아카이브

- 사전조사
  -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17개 기록화 사업 중 세부사례는 ‘디자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함.
    - 포털사이트 조사를 통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 아카이브’를 확인
    -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조사를 통하여 디자인 아카이브 현황 파악



〈그림 12〉 서울디자인재단 아카이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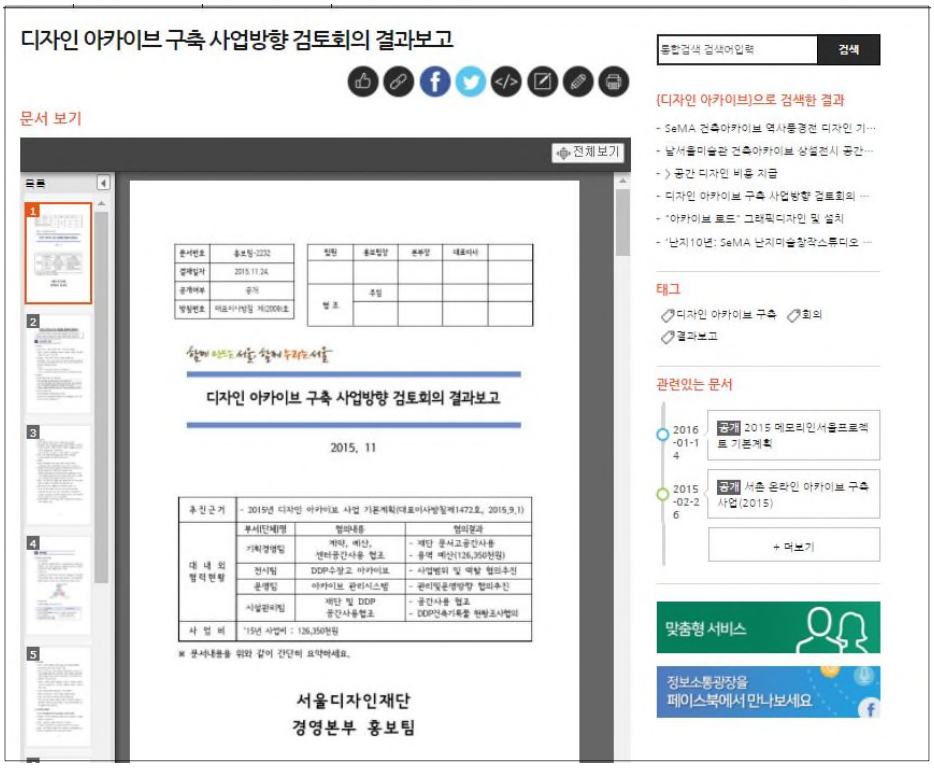
  -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 실시

- 검색과정
  - 키워드: 디자인 아카이브
- 검색결과 22개의 관련 문서를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검색 값을 재설정
  - 검색필터: 생산기관-서울디자인재단
  - 키워드: 디자인 아카이브
- 재검색결과 2건의 디자인 아카이브 관련 문서를 확인
  -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사업방향 검토회의 결과보고
  - 간행물 아카이브 운영계획

■ 해당 기록화 사업 조사

● 정보소통광장 관련 문서 세부 검토

- 세부 검토 문서: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사업방향 검토회의 결과보고 검토, 주관부서, 단위과제 현황 등을 확인



〈그림 13〉 디자인 아카이브 관련 문서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 해당 기록화 사업 현황 조사시트 반영

- 주관부서: 서울문화재단 경영본부 홍보팀
- 기록화담당자: 미확인

- 분류체계 단위과제: 회의
- 보존기간: 미확인
- 사업목적: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 활용
  -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관리하고 아카이빙을 함으로써 흔적을 남김. 서울디자인재단도 모든 기록을 남김으로써 기록물로서 관리를 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됨.
  - 기관기록물 및 디자인아카이브의 지속적 축적 및 활용(연구, 수집, 활용)
  - 라키비움 형태의 기록과, 도서관, 전시관 통합 공간 구축(디자인박물관)
  - 홈페이지를 통한 아카이빙 서비스 제공(온라인 검색, 열람, 대여 등)
- 사업내용
  - 과제개요: 2017년 디자인박물관 개관을 위해 DDP소장품 및 기증품을 분류하고 아카이빙 추진, 디자인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아카이빙 구축 추진, 아카이빙 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대상: DDP수장고, 콜렉션, 전시기획 추가 기증품 등, 기관아카이빙, 디자인아카이빙, 디자인 박물관 오픈을 위해 DDP소장품의 DB화를 위한 시스템 (DDP소장품 전용-임시적), 아카이빙 자료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 연계, 오픈 플렛폼으로서 포털같은 역할 고려
- 사업시기: 미확인

- 검색과정 이슈사항
  - 특이점: 투자출연기관의 기록의 경우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움.
  - 문제점: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논의결과는 확인가능하나 실제 구축 및 실행단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

2.2.2. 시스템 개편사업 기록화

- 본부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의 시스템 개편사업 기록화 현황은 총 27개 중 10개이며 DB구축 및 시스템 구축이 8개 이며 기타(용역 및 수집) 2개임.
- DB구축 및 시스템 구축의 경우 '2017년도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 평생학습디지털아카이브, 백제학 아카이브' 등을 확인
- 시스템 개편사업 기록화 현황 조사는 앞선 사업 및 정책의 기록화 사업과 같이 포털사이트 검색 및 정보소통광장의 키워드 검색(사업명 등) 진행하여 기초조사를 실

시함.

- 〈그림 11〉과 같이 검색결과를 목록화하며 이 과정에서 주관부서, 사업명 등을 총 10개 사업의 목록을 작성함.

2.2.2.1. 평생학습 디지털아카이브

- 사전조사
  -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10개 기록화 사업 중 세부사례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함.
    - 포털사이트 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평생학습 디지털아카이브' 확인



〈그림 14〉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조사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평새학습 디지털아카이브 현황 파악
    - 추진사업에서 '평생학습 아카이브' 구축 확인
  -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 실시
    - 검색과정
      - 키워드: 평생학습 아카이브
    - 검색결과 평생학습 아카이브와 관련한 3건의 문서 확인
      - 관련 문서는 '평생학습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1건으로 확인
- 해당 기록화 사업 조사

- 정보소통광장 관련 문서 세부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현황 및 주관부서 등을 확인하였으나, 비공개 문서를 포함



〈그림 15〉 평생학습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관련 정보소통광장 검색 결과

-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한 나라장터 키워드 검색 실시



〈그림 16〉 키워드 '평생학습 아카데미' 나라장터 검색

- 검색과정
  - 키워드: 평생학습 아카이브
- 검색결과 1,736건의 평생학습 아카이브 관련 문서 화보



〈그림 17〉 평생학습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관련 나라장터 검색 결과

- 1,736건의 문서 중 〈그림 17〉과 같이 '[20160607930-00]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를 검토하여 사업의 상세내용 파악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 해당 기록화 사업 조사시트 반영

- 주관부서: 서울평생교육진흥원
- 기록화담당자: 장경호
- 분류체계 단위과제: 서울역사교육운영관리
- 보존기간: 준영구
- 사업목적: 역사편찬원 소장 발간 도서·문서·사진·영상 자료 DB화 및 대시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 검색 아카이브의 연차적 구축
- 사업내용: 현 서울역사편찬원 소장 도서·문서·사진·영상 자료 DB 구축
  - 서울역사편찬원 발간도서 35종 345책 e-book 이관 후 DB화, 포토 14,636장, 슬라이드 18,759장, 오디오, 동영상 DB화
  - 서울 관련 신규 수집 사료 DB 구축
  - 타 역사 관련 기관 홈페이지 연계 및 전문 검색 기능 서비스
- 사업시기: 2016년 2월~12월

● 검색과정 이슈사항

- 특이점: 해당기관의 정보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확인

2.3. 협치기관

2.3.1. 사업의 기록화

- 협치기관의 기록화 현황중 사업의 기록화는 총 9개 중 7개이며 사업명으로 확인되는 것이 5개, 기타(사례집, 관리) 2개임.
- 사업명인 경우 서울로7017, 창신숭인 도시재생 아카이브 구축 결과물 등이 있음
- 협치기관의 기록화 현황 조사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기초로 정보소통광장의 키워드 검색을 병행하여 진행함.
- 〈그림 18〉과 같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확보된 검색결과를 목록화 하여 이 과정에서 확인된 단체명, 사업명, 관련 시정기록 등 총 9개 단체의 목록을 작성함.



연번	구분	단체(개인) 명	사업명	관련 시정기록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사례집	2014 마을공동체 사례집 등
3		해방촌 마을기록단	해방촌 아카이브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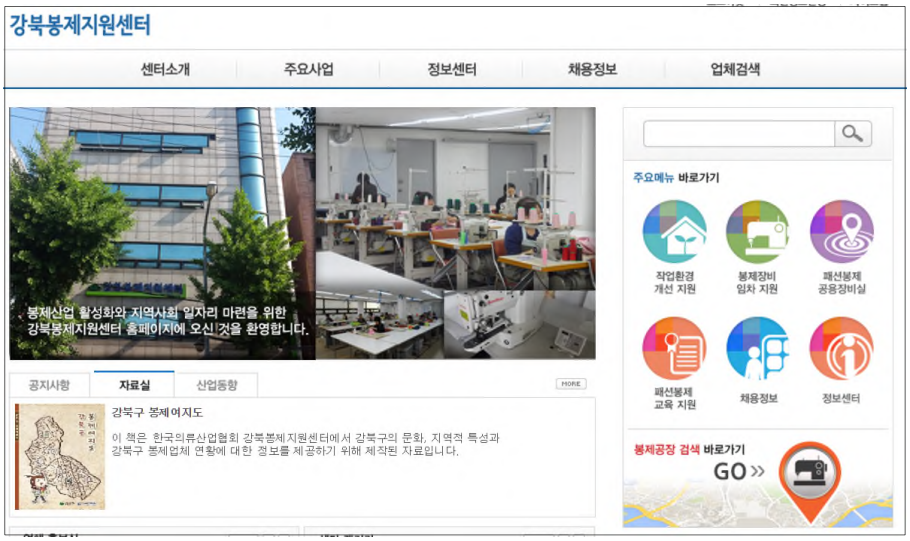
정리 | 본청 | 본부사업소, 출연기관 | 협치기관 | 민간

〈그림 18〉 협치기관 기록화 현황 사전조사 목록 예시

2.3.1.1. 강북구 봉제여지도

- 사전조사
  -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7개 기록화 사업 중 세부사례는 강북봉제지원센터 '강북구 봉제여지도'를 통해 확인함

- 포털사이트 조사를 통하여 강북봉제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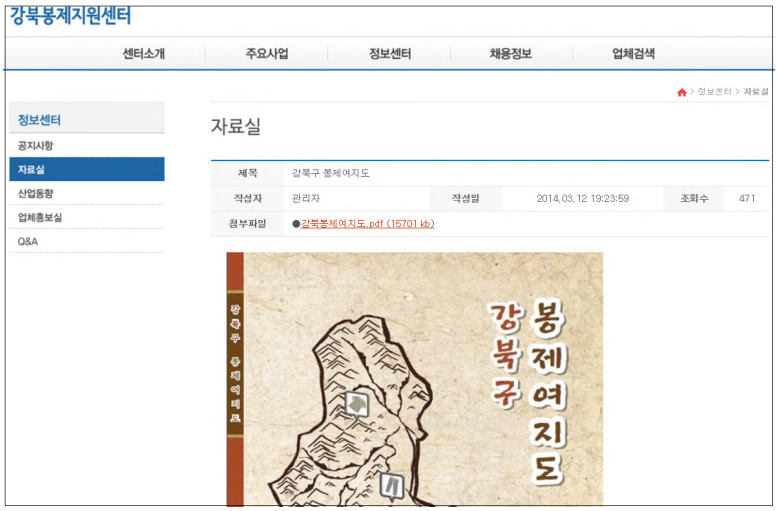


〈그림 19〉 강북봉제지원센터 홈페이지

- 강북봉제지원센터 홈페이지[3] 조사를 통해 '강북구 봉제여지도'기록화 사업 확인

■ 해당 기록화 사업 조사

- 기록화 산업 현황 조사를 위해 정보소통광장 검색을 실시하였으나 검색 값이 없음.
- 강북봉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추가 조사 실시하여 자료실을 통해 '강북구 봉제여지도' 내용 확인



〈그림 20〉 강북구 봉제여지도

3) http://gbfc.or.kr/index.html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 해당 기록화 사업 조사시트 반영
    - 단체(기업)명: 강북봉제지원센터
    - 사업목적: 강북구의 문화, 지역적 특성과 강북구 봉제업체 연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
    - 사업내용: 봉제 장인들의 현장 목소리와 강북구 봉제업체 현황 정보
      - 현장 인터뷰 자료: 업체 대표자 총 30명 참여하여 봉제 장인들의 인생 스토리를 삽화로 제작
      - 봉제 집적 지도
      - 지역별 봉제업체 리스트
    - 사업시기: 2013년 ~ 2014년
  - 검색과정 이슈사항
    - 특이점: 서울시와의 협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연계 방안이 부족함.

2.3.2. 기억의 기록화

- 협치기관의 기억의 기록화는 총 9개중 2개이며 해방촌아카이브, 창신숭인 新택리지 보고서임.
- 협치기관의 기록화 현황 조사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기초로 정보소통광장의 키워드 검색을 병행하여 진행함.
- 〈그림 18〉과 같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확보된 검색결과를 목록화하여 이 과정에서 확인된 단체명, 사업명, 관련 시정기록 등 총 2개 단체의 목록을 작성함.

2.3.2.1. 해방촌 아카이브

- 사전조사
  -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2개 기록화 사업 중 세부사례는 '해방촌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함
    -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
      - 정보소통광장 기초 키워드 검색 중 해당 사업의 발견
    - 검색과정 :

- 검색필터: ‘서울시 / 부서: 도시재생본부-주거재생과’
- 키워드: 아카이브

• 검색 결과: 3건



〈그림 21〉 해방촌 도시재생 공모사업 조사

■ 해당 기록화 사업 조사

● 세부 문서 검토

• ‘해방촌 도시재생 공모사업(아카이브-해방촌 마을기록단)비 교부’ 문서에서 상위 문서 파악

•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2016년도 주제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 검색 후, 문서 세부 검토

● 구체적인 사업현황 파악을 위한 추가 조사작업

• 포털사이트 추가검색



〈그림 22〉 해방촌 아카이브 구글 검색 결과

- 검색 과정
  - 키워드: 해방촌 아카이브
- 검색 결과 '해방촌 마을기록단(HBC Archive)' 확인하여 세부조사 진행



〈그림 23〉 해방촌 마을기록단 페이스북 페이지

- 해방촌 마을기록단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조사 등의 추가조사를 통해 사업의 목적 및 현황 추가 파악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 해당 기록화 사업 현황 조사시트 반영

- 단체(기업)명: 해방촌 마을기록단
- 관련시정기록: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2016년도 주제공모사업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751)
- 사업목적: 마을 가치를 보존
- 사업내용: 사진수집, 영상기록, 구술채록, 물품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

방촌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

- 사업시기: 2016년
- 수집대상기록: 해방촌 마을기록단 아카이브

- 검색과정 이슈사항
  - 특이점: 단체 홈페이지를 먼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정보소통과정에서 사업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을 검색하여 단체 홈페이지를 찾음.
  - 문제점: 단체 홈페이지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관련 시정기록도 대부분 비공개 문서로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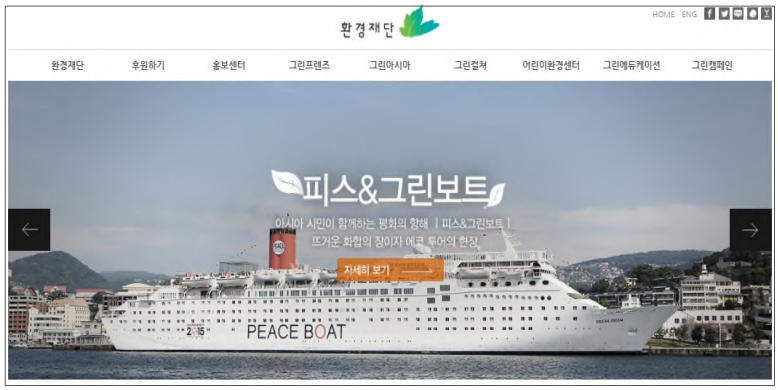
2.4. 민간

2.4.1. 사업의 기록화

- 민간의 기록화 현황 파악은 대부분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며, 세부내용의 파악에는 정보 및 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민간의 기록화 현황 중 사업의 기록화는 총 10개 중 4개로 민간(단체)의 주요사업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아카이브 또는 사업명칭으로 확인됨.
- 민간의 기록화 현황 조사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기초로 진행하며, SNS 검색 등을 추가함.
- 민간의 경우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확보된 검색결과를 목록화하여 이 과정에서 확인된 단체명, 사업명, 관련 시정기록 등을 확인하여 시트를 작성함.

2.4.1.1. 녹취록

- 사전조사
  -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4개 기록화 사업 중 세부사례는 환경재단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함.
  -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키워드 검색)을 통해 민간의 기록화 현황을 파악함.
  - 검색 결과값을 바탕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환경재단)
  - 환경재단의 홈페이지 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실시



〈그림 24〉 환경재단 홈페이지

■ 해당 기록화사업 조사

- 홈페이지의 자료실 또는 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기록화와 관련된 사업 확인
- 환경재단의 경우 녹취록 사업을 확인함.



〈그림 25〉 환경재단 녹취록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 해당 기록화 사업 현황 조사시트 반영
  - 단체(기업)명: 환경재단
  - 사업목적: 환경재단의 비전, 목표, 가치를 담아 매년 후원의 밤을 기념하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를 공유하고자 제작
  - 사업내용: 전년도 사업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제작
  - 사업시기: 2013년 ~
  - 수집대상기록: 2013 녹취록, 2014 녹취록, 2015 녹취록, 2016 녹취록
- 검색과정 이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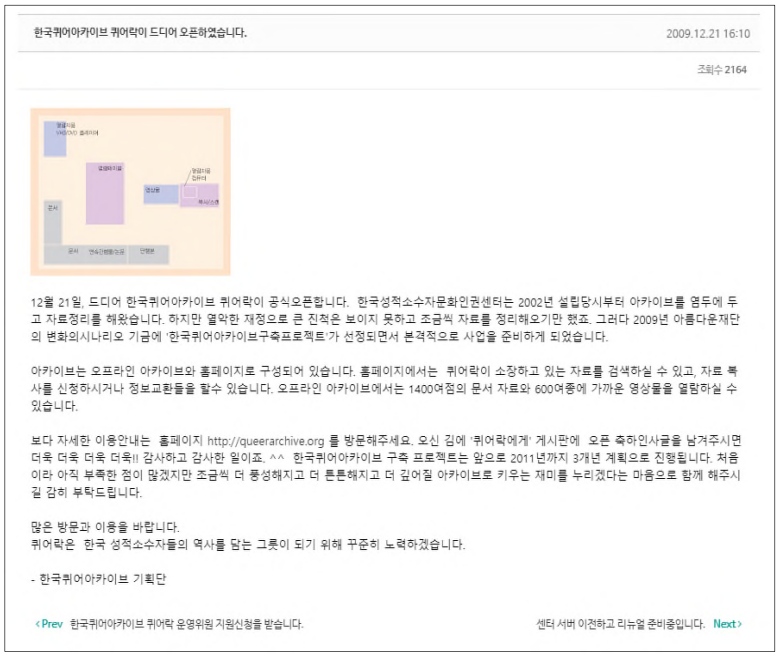
- 특이점: 민간의 기록화 현황 조사의 경우 기초정보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요구됨(포털사이트 조사 및 조사자료의 개별 검토 등)

2.4.2. 기억의 기록화

- 민간의 기억의 기록화는 총 10개 중 6개이며 5월 12일 일기수집, 친구사이 20년사 발간, 퀴어락 등이 있음.
- 민간의 기록화 현황 조사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기초로 진행되며 〈그림 18〉과 같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확보된 검색결과를 목록화 하여 이 과정에서 확인된 단체명, 사업명, 관련 시정기록 등 총 2개 단체의 목록을 작성함..

2.4.3. 퀴어락

- 사전조사
  -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6개 기록화 사업 중 세부사례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퀴어락'을 통해 확인함.
  -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키워드 검색)을 통해 민간의 기록화 현황을 파악함.
  - 검색 결과값을 바탕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홈페이지 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실시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드디어 오픈하였습니다. 2009.12.21 16:10

조회수 2164

12월 21일, 드디어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공식오픈합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002년 설립당시부터 아카이브를 염두에 두고 자료정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큰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조금씩 자료를 정리해오기만 했죠. 그러다 2009년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시나리오 기금에 '한국퀴어아카이브구축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브는 오프라인 아카이브와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퀴어락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고, 자료 복사를 신청하시거나 정보교환들을 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아카이브에서는 1400여점의 문서 자료와 600여종에 가까운 영상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홈페이지 http://queerarchive.org 를 방문해주세요. 오신 김에 '퀴어락에게' 게시판에 오픈 축하인사글을 남겨주시면 더욱 더욱 더욱 더욱!!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 한국퀴어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는 앞으로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조금씩 더 풍성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깊어질 아카이브로 키우는 재미를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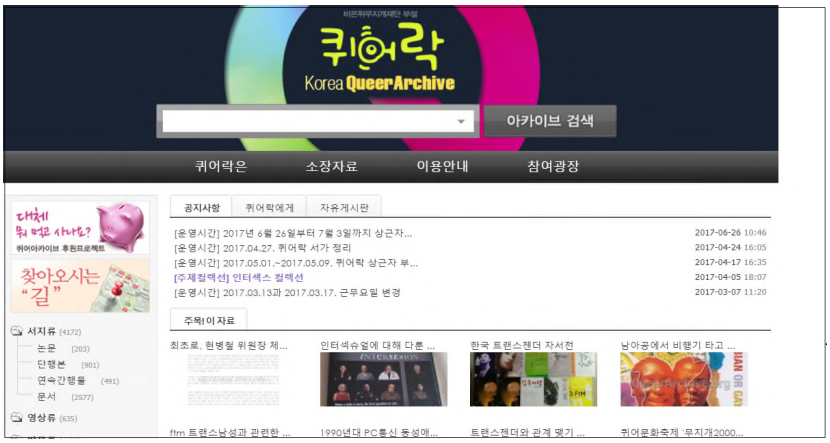
많은 방문과 이용을 바랍니다.
퀴어락은 한국 성적소수자들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퀴어아카이브 기획단

‹Prev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운영위원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센터 서버 이전하고 리뉴얼 준비중입니다. Next›

〈그림 26〉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아카이브 검색 결과

- 해당 기록화사업 조사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아카이브를 통하여 기록화 사업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
  -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존재 확인
  - 퀴어락(Korea Queer Archive) 홈페이지 세부 조사를 통해 아카이브의 구성과 현황 파악



〈그림 27〉 한국 퀴어락 아카이브

- 기록화사업 현황 파악
  - 해당 기록화 사업 현황 조사시트 반영
    - 단체(기업)명: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사업목적: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한국성적소수자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기록들을 수집 정리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으로 공유, 검색,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동적인 인적·지적교류와 증진시키기 위함.
    - 사업내용
      - 도서, 문서 및 영상물에 대한 목록화, 아카이브 홈페이지제작,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시범 오픈
      - 사진 및 박물류 등으로 기록물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수집
      - 기록물의 디지타이징을 비롯하여 아카이브구축백서 발간 등을 통해 아카이브의 구축과정부터 활용까지 모든 것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사업시기: 2009년 ~

3. 시사점

3.1. 서울시 내부의 기록화현황 정보공유 부재

-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부서에서 각종 사업 및 정책, 시스템 개편 사업 등에서 기록화를 진행하고 있음.
- 기록화 방법의 경우 백서의 제작, 영상제작, 자료조사 형태 등의 다양한 방식이 적용됨.
- 그러나 기록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집되는 기록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따라서 누락되는 기록에 대한 평가와 수집방안을 수립해야 함.
- 또한 기록들의 집합적 관리 및 기록관리 통제를 위해 서울기록원과 기록화를 진행하는 부서간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3.2. 아카이브, 기록화 등의 표현 남용

- 사업명에 '아카이브', '기록화'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다수 사용
- 실제 사업내용은 아카이브, 기록화가 아닌 시스템 정비 등의 경우도 다수 확인됨.
- 서울기록원 건립 후 각 기관 및 부서에 기록화와 관련된 컨설팅 교육이 요구됨.
  - 기록화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 및 부서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이관할 수 있음.

3.3. 사회적 사건, 기억에 대한 통합적 기록화 방안 부재

- 서울에서 발생되거나 서울과 관련된 세월호, 강남역 살해사건 등 사회적 사건 또는 기억에 대한 통합적 기록화가 요구됨.
- 서울시 본청 및 본부사업소에서 하는 기록화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하면 파악할 수 있으나, 이는 사회적 사건과 기억에 대한 파편적인 공공기록만이 남게 함.
- 따라서 협치기관 및 민간 등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사건 등과 관련한 기록화 사업의 경우 이를 주도하여 종합적 기록화 할 수 있는 담당부서(자)가 요구되며,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등을 통하여 제시될 수 있음.

3.4. 서울 기록화를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 구성

- 서울을 기록하기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 서울기록원 설립 과정에서 서울을 기록하기 위한 전담부서 또는 인력배치를 추진하여 서울기록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록화를 진행하는 부서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우선 적립
    - (가칭) 서울 기록 시민모니터링단 구축을 통한 기록화 현황 파악
- 주요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선별지침 제공
  - 서울시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선별지침을 제공하여 서울 기록의 수집 및 보존·활용에 이용할 수 있는 컨설팅 실시

3.5. 민간 기록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민간 기록화 활성화를 위한 상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 민간에서는 서울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록화 작업이 진행중이나, 실제 기록을 생산·수집하여 활용하는 단계까지의 방법론 등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 향후 서울기록원은 민간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울의 기록을 풍부하게 할 수 밑거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제3장
기록주제선정 및 선별지침개발

1. 서울기록 주제선정

1.1.주제선정 배경

1.1.1. 서울기록과 주제선정

- 서울기록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을 총칭하는 것으로 당대 서울시의 정체성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서울시의 행정·문화·역사·시민·공동체를 포괄하며 그 유형도 기존의 기록 유형을 넘어서는 개념임.[4)]
- 서울기록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는 시정기록, 시민기록으로 나뉘며, 시민기록은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으로 구분됨.[5)]

〈표 6〉 서울기록의 구성

유형	내용
시정기록	서울시의 공공행정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공시적인 모든 유형의 기록
협치기록	최근 몇 년 사이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시정운영의 특징인 시와 시민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구성된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과 활동의 기록
민간기록	서울의 시민 개인 또는 개별 단체 등에서 생산된 모든 유형의 기록
시민기록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기록물 유형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공간, 문화예술, 행동 양식까지의 범위를 확정하여 정의함

- 서울기록 주제선정은 기록의 수집 및 평가·선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임.
- 도서관 영역에서는 미국학술도서관협회(ARL) 회원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동적 장서관리를 위해 장서 현황을 공유하는 컨스팩터스(conspectus) 모형을 마련하여 도서수집을 진행하고 있음.
  - 컨스펙터스 모형은 주제와 분류기호 순에 따라 강도 수준이 0에서 5라는 표준화된 기호로 표시하며 5에 가까울수록 수집대상이 확대되어 정밀하고 집중적인

4)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용역」, 2016. 7p.

5)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용역」, 2016. 8p.

수집을 실시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의 장서 현황을 공유하는 컨스펙터스 모형을 변형하여 디지털 도큐멘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집 수준이 개발되었으며 기록관리분야에서도 이를 차용하여 기록의 수집·선별·평가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음.[6)]
-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 컨스팩터스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자자원 관리의 도구로서 수정 모형을 제안한 것으로 기록의 수집·선별·평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컨스팩터스 모형은 서울기록 주제선정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우나 전자자원의 수집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참고할 만함.
  - 전자자원 수집수준에 대한 가인드라인: 타당성, 정확성, 권위, 유일성, 완결성 , 범위 최신성, 이용자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과 달리 기록관리영역에서는 기록의 수집 및 평가·선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 및 문헌은 없으며, 평가는 '자문위원회'라는 블랙박스 안에 남게 되는 것으로 아키비스트가 사회의 표상이 될 대표적 기록을 선별하는 것도 객관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임.[7)]
- 또한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대표하는 주제나 사건을 완전히 '객관적인'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표성은 주관기관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급하게 기록화하지 않으면 사라진 기억이 될 수 있는 영역, 공공기록만으로 남겨지지 않거나 편향된 기억만이 남겨질 우려가 있는 영역, 당대의 주요 사회적 이슈와 사건 영역 등임.
- 서울기록 주제선정은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동시에 현행 서울시의 기록 생산·분류·보존체계를 참고하여 주제를 선정함.

〈표 7〉 서울기록 주제선정 주요고려 사항

1. 시급하게 기록화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영역 2. 당대의 주요 사회적 이슈와 사건 3. 공공기록으로만 남겨질 경우 편향된 기억만이 남겨질 우려가 있는 영역 4.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및 사업 5. 서울시의 관련 기록보유 여부

6) 장덕현,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펙터스 수정 모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9.

7) 설문원,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1.1.1.1. 주제선정을 위한 기초분석

- 서울기록 주제선정을 위해서는 앞서 검토한 서울기록 주제선정 주요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기초분석을 진행함.
  - 주제선정을 위한 기초분석 작업은 추후 구성될 서울기록원의 업무담당자와 주요정책 및 사업의 담당자 등으로 선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함.
- 기초분석 과정에서는 1차 주제(안) 선정을 위한 자료 검토를 진행함
  - 정보소통광장 12개 영역의 주요 기록 검토
  - 서울시 보존기록물 목록 검토
  - 선행연구 및 포털사이트 검색
- 정보소통광장 12개 영역을 기준으로 영역별로 구분하여 1차 주제(안) 52개 선정
  - 일부주제의 경우 12개 영역에서 중복될 수 있으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영역에 편입함.
  - 중복 이유는 서울시의 정책 및 주요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서울기록의 경우에도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생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연	영역	주제
1	경제	재래시장개선사업
2	경제	노점상
3	경제	공유도시 서울
4	교육	평생교육
5	교육	무상급식
6	교육	서울시 공동육아
7	교육	양정중·고등학교 이전
8	교통	강남고속버스터미널
9	교통	마을버스와 거주자우선 주차사업
10	문화	공동우물
11	문화	한옥보존 및 진흥정책
12	문화	서울시 Gentrification(성수동)
13	문화	다방(茶房)
14	문화	문래예술공장
15	문화	특별사법경찰
16	문화	한강공원
17	보건/복지	서울시 한센인
18	보건/복지	서울시 자살예방정책
19	복지	차상위계층지원사업
20	복지	모자원
21	사회	외국인 거주 지원정책
22	사회	시민청 작은 결혼식
23	사회	향우회
24	사회	생활체육
25	사회	목동·신정동 일대 철거민
26	안전	여성안심특별시
27	안전	우면산 산사태
28	안전	안전마을
29	일반행정	응답하라 서울시 : 서울시 시민소통행정
30	일반행정	고물상
31	일반행정	하수처리
32	일반행정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33	일반행정	서울시 상징물 변천
34	일반행정	서울의 자랑스런 한글옵싱정

1 주제선정정리 | 조사작업을 통해 확보된 기록

〈그림 28〉 서울기록 주제선정 1차 가안 목록

- 기초 분석을 통해 선정된 1차 주제(안)은 영역별로 다음과 같음
  - 경제: 재래시장개선사업, 노점상, 공유도시 서울
  - 교육: 평생교육, 무상급식, 서울시 공동육아, 양정 중·고등학교 이전
  - 교통: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마을버스와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 문화: 공동우물, 한옥보존 및 진흥정책, 서울시 Gentrification(성수동), 다방(茶房), 문래예술공장, 특별사법경찰, 한강공원
  - 보건: 서울시 한센인, 서울시 자살예방정책,
  - 복지: 차상위계층지원사업, 모자원
  - 사회: 외국인 거주 지원정책, 시민청 작은 결혼식, 향우회, 생활체육, 목동·신정동 일대 철거민
  - 안전: 여성안심특별시, 우면산 산사태, 안전마을
  - 일반행정: 응답하라 서울시: 서울시 시민소통행정, 고물상, 하수처리,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서울시 상징물 변천, 서울의 자랑스런 한국음식점,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서울시 시립행복원, 서울시 야간시정본부, 서울광장·광화문광장
  - 재정: 주민참여예산제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 주택·도시계획: 공원의 탄생, 옥바라지 골목, 회현시민아파트, 상계동 올림픽, 용산공원
  - 환경: 서울시 대기질 개선정책: 서울 차 없는 날 · 승용차 요일제, 아리수, 서울 차 없는 날, 간판개선사업, 원전하나 줄이기

1.1.1.2. 주제선정

- 서울기록 주제선정은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됨.
- 본 사업에서는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의 구성 없이 내부회의 등을 통하여 주제선정 및 수정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서울기록원 운영 시 서울기록선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행해야 함.
  - 내부회의: 주제(안)의 적절성 검토 및 신규주제 제안 등
    - 주제선정 적절성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 요청
    - 주제의 범위 조정: 수집 가능한 범위의 주제로 일부 변경
    - 신규주제 검토: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와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

분리하여 추진

- 주제(안)에 대한 재검토 진행
  - 시정기록 보유여부(서울시 기록보유 여부)
  - 협치기록 및 민간기록 보유여부
  - 서울시 타 문화기관(서울역사 박물관 및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등) 미수집(또는 전시) 여부
  - 시기적 구분
  - 유사주제 통합 등
- 주제(안) 재검토를 통해 아래 〈표 8〉과 같이 52개 서울기록 주제 선정 및 주제명 수정

〈표 8〉 서울기록 주제

번호	영역	주제(안)	비고
1	경제	공유도시 서울	일반수집
2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성수동	미수집
3	경제	과거와 현재의 흔적: 노점상	미수집
4	경제	고물의 재탄생: 고물상	미수집
5	교육	시민智 시대: 서울시 평생교육	일반수집
6	교육	함께 돌봄: 공동육아	미수집
7	교육	목동 양정고 이전	미수집
8	교육	급식은 교육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미수집
9	교통	서울과의 첫 만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반수집
10	교통	공공자전거 따릉이: 따릉이	미수집
11	교통	우리 동네 자가용: 마을버스	미수집
12	교통	서울 횡단 수상으로 한다: 한강 수상택시	미수집
13	문화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	집중수집
14	문화	나만 바라봐!: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	미수집
15	문화	예술, 멀지 않아요: 서울시 창작공간	미수집
16	문화	일상의 재발견: 다방	미수집
17	문화	한옥. 전통과 근대가 만나다: 한옥 보존 및 진흥 정책	미수집
18	문화	한강의 기적,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한강공원	미수집
19	보건	스포토피아 서울: 생활체육	일반수집
20	보건	수다? 水多: 공동우물	미수집
21	보건	맛집 찾으세요?: 서울시의 자랑스런 한국 음식점	미수집
22	복지	아빠가 된 서울: 모자원	일반수집
23	복지	도시 속의 한센인	미수집
24	복지	Can I help you? 자살예방정책	미수집

번호	영역	주제(안)	비고
25	사회	모여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집중수집
26	사회	당신의 최고의 순간, 서울이 함께합니다: 작은 결혼식	미수집
27	사회	밀려난 사람들, 옥바라지 골목	미수집
28	사회	목동 철거민	집중수집
29	안전	여성이 안심인 도시: 여성안심특별시	일반수집
30	안전	범죄 걱정 뚝!: 안전마을	미수집
31	안전	도시형 재난, 우면산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미수집
32	안전	Catch Teenagers: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미수집
33	일반행정	서울의 상징	일반수집
34	일반행정	응답하라 서울시, 서울시 시민소통행정	미수집
35	일반행정	서울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미수집
36	일반행정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미수집
37	일반행정	나랏말싸미: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미수집
38	일반행정	시립행복원	미수집
39	일반행정	반딧불 시정: 야간시정	미수집
40	일반행정	평생 일하는 서울시민: 50+	미수집
41	재정	민관의 상호부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일반수집
42	재정	시민이 쓰는 가계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미수집
43	주택/도시계획	서울로7017	집중수집
44	주택/도시계획	주거복지의 상징, 회현시민아파트	미수집
45	주택/도시계획	시민의 품으로, 용산공원	미수집
46	주택/도시계획	공원의 탄생: 서울시 도시공원의 역사기록	미수집
47	환경	원전 하나 줄이기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집중수집
48	환경	믿을 水? 아리수!	미수집
49	환경	근대 산업유산의 재탄생, 당인리 발전소	미수집
50	환경	시민참여의 좋은 예 , 간판개선사업	미수집
51	환경	차를 멈추면 하늘이 보입니다, 서울 차 없는 날	미수집
52	환경	깨끗한 물 깨끗한 서울: 물재생센터	미수집

1.2. 주제선정 적합성 검토

1.2.1. 주제선정 적합성 검토 절차

- 선정된 52개 주제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기록 주제선정 기준을 구성함.
- 서울기록 주제선정 기준은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아래 〈표 9〉와 같이 구성하며,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를 통하여 검토함.
  - 본 사업에서는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기에 이 과정을 사

업팀 내부에서 수행

-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는 서울기록 주제선정을 위해 아래 기준에 대한 논의와 평가를 진행하며, 적절성 평가표에 3개 이상 부합시 주제를 확정함.
- 위와 같은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평가를 위한 '제언 및 검토사항'지표를 설정하여 체크리스트에서 검토하지 못한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함

〈표 9〉 서울기록화 주제선정 적합성 평가표

주제명		영역	
적합성 검토사항			적합성
① 관련기록(주제)의 망실이나 훼손·결락 우려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집단 또는 시민이 존재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서울시 및 국가의 주요정책과 관련되는가?			□ 예 □ 아니오
④ 시민의 삶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제인가?			□ 예 □ 아니오
⑤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해야하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합 계			예: 아니오:
제언 및 검토사항			

- 서울기록 주제선정 적합성 검토표를 작성할 시에는 각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관련기록(주제)의 망실이나 훼손·결락 우려가 있는가?
  - 시급히 기록화 하지 않을 경우 기록의 망실이나 훼손 등이 요구되는 기록으로 서울시의 보존기록이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
    - 고물의 재탄생: 고물상, 목동 양정고 이전, 일상의 재발견: 다방, 서울과의

첫 만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다? 水多: 공동우물 등

-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집단 또는 시민이 존재하는가?
  - 기초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집단 또는 시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관련기록의 범주를 확대하는 동시에 향후 이 기록들을 이용하는 이용자층이 확보·확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나만 바라봐!: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 예술, 멀지 않아요: 서울시 창작공간, Catch Teenagers: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등
- 서울시 및 국가의 주요정책과 관련되는가?
  - 서울시 및 국가의 주요정책의 경우 서울의 변화상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기록으로 반드시 기록화 해야 할 대상임.
    - 시민智 시대: 서울시 평생교육, 급식은 교육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Can I help you? 자살예방정책, 응답하라 서울시, 서울시 시민소통행정 등
- 시민의 삶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제인가?
  - 해당 주제가 시민 개인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도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다른 검토사항에 비해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함.
    - 공공자전거 따릉이: 따릉이, 우리 동네 자가용: 마을버스, 시민의 품으로, 용산공원, 공원의 탄생: 서울시 도시공원의 역사기록, 모여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해야하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가?
  -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해야하는 기록은 협치의 실천·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기록임.
    - 시민이 쓰는 가계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차를 멈추면 하늘이 보입니다, 서울 차 없는 날 등
- 제언 및 검토사항은 검토된 주제에 대한 수정·변경 또는 추가검토를 요청하는 단계로, 평가표를 통해서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함.

1.2.2. 주제선정 적합성 검토 결과

- 선정된 52개 주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각 주제에 대한 선정이유(배경)를 추가하여 적합성 검토를 실시함.
  - 주제선정 이유(배경)은 기초 조사단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 적합성 검토는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할 사항이나 본 사업에

서는 사업팀 내부에서 진행함.

〈표 10〉 주제선정 적합성 검토를 위한 대상 목록 예시

번호	분야	주제	선정이유	비고
1	경제	재래시장 개선사업	- 1990년대 초 유통산업범위가 넓어지게 된 이후 외국자본, 대형마트, SSM 등 다양한 유통주체가 생성되면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 서울시는 오래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재래시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생계수단 보전. 1992년 서울시와 재래시장 간 '표준형 재래시장을 만들기로 함 - 재래시장의 변화를 기록화 할 수 있음	
2	경제	노점상	- 노점상은 서울시의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어 왔으며, 특히 소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공간 - 한국의 노점상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이 다수임. 이에 서울시는 불법 노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단속하고 있음. - 노점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록의 양이 적지 않으며, 노점 주변 일반건물의 상점들, 영세한 노점들의 민간 기록들을 수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경제	공유도시 서울	- 서울에서 공유경제 활동은 정부의 정책적 선언 이전부터 창업가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되면서 발달하였고, 이에 공유경제가 서울과 같은 글로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함. - 공유도시 서울은 시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각종 물건 뿐 아니라 시간, 정보, 공간 등을 나누어 쓰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활용성 극대화, 공동체 복원, 도시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음	
⋮	⋮	⋮	⋮	⋮

■ 주제선정 적합성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총 52개 주제 모두 중 3개 이상 적합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됨.

● 평가결과 '예'가 5개가 체크된 것은 총 5개로 문화영역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 사회영역 '모여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사회영역 '목동 철거민', 주택/도시계획영역 '서울로7017', 환경영역 '원전 하나 줄이기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등임.

- 평가결과 ‘예’ 4개가 체크된 것은 총 18개로 경제영역 ‘공유도시 서울, 시민智 시대: 서울시 평생교육’, 교육영역 ‘급식은 교육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교통영역 ‘서울과의 첫 만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문화영역 ‘한옥. 전통과 근대가 만나다: 한옥 보존 및 진흥 정책’, 보건영역 ‘스포토피아 서울: 생활체육’, 복지영역 ‘아빠가 된 서울: 모자원’, 도시 속의 한센인’, 사회영역 ‘밀려난 사람들, 옥바라지 골목’, 안전영역 ‘도시형 재난 우면산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일반행정영역 ‘서울의 상징’, ‘응답하라 서울시 서울시 시민소통행정’, 재정영역 ‘민관의 상홍부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사업’, ‘시민이 쓰는 가계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택/도시계획영역 ‘주거복지의 상징 회현시민아파트’, ‘시민의 품으로, 용산공원’, ‘공원의 탄생: 서울시 도시공원의 역사기록’, 환경영역 ‘밀을水? 아리수!’, ‘근대 산업유산의 재탄생 당인리 발전소’ 등임.
- 평가결과 ‘예’가 3개가 체크된 것은 총 53개중 위의 23개를 제외한 경제영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성수동’ 등 총 29개임.

■ 아래 〈표 11〉은 ‘목동 철거민’ 관련 주제의 적합성 체크 결과를 반영한 예시로 5개 항목 모두 ‘예’가 체크된 사례이며, 제언 및 검토사항 또한 반영한 사례임.

- ① 항목의 경우 목동 철거민 관련 기록의 경우 현재 서울시 기록관으로 관련기록이 이관되어 정리되고 있으나, 시정기록 이외 민간기록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예’에 해당함.
- ② 항목의 경우 목동철거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모여사는 마을이 존재하여 ‘예’로 체크됨.
- ③의 경우 1980년대 목동개발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예’에 해당함.
- ④의 경우 목동 철거와 관련하여 당시 신정동 일대의 시민의 삶의 큰 변화를 주었기에 ‘예’에 해당함.
- ⑤는 현재 서울시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정리되고 있는 ‘목동’관련 기록의 경우 서울의 역사 연구 및 이해당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기에 ‘예’에 해당함.
- 제언 및 검토사항부분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평가 이유를 작성한 것으로 목동 철거민 주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표 11〉 서울기록화 주제선정 적합성 평가 결과 예시: 목동 철거민

주제명	목동 철거민	영역	사회
적합성 검토사항			적합성
① 관련기록(주제)의 망실이나 훼손·결락 우려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집단 또는 시민이 존재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서울시 및 국가의 주요정책과 관련되는가?			▣ 예 □ 아니오
④ 시민의 삶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제인가?			▣ 예 □ 아니오
⑤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해야하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합 계			예: 5 아니오: 0
제 언 및 검토사항	- 1980년대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시민에 대한 기록으로 서울의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강남개발과는 달리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분야임 - 선별지침으로 확정하여 시급하게 관련기록을 수집해야 하며, 시민기록 수집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2. 선별지침 개발

2.1. 선별지침의 적용

2.1.1. 서울기록 선별지침의 개요와 구성

- 서울기록 선별지침은 현행 우리나라의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 '업무 기능 중심', '사전평가 방식', '평가기준의 미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지침으로 기능분류로 인하여 기계적으로 폐기되어 미수집 되는 기록물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이와 더불어 시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을 통한 완전성 있는 수집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이란 공공기록 영역과 민간기록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의 기록물 수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편향되지 않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게 함.
- 서울기록 선별지침은 영국 TNA의 OSPs의 개념을 차용하여 기존의 분류 및 평가체계인 기록물의 기능분류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기록의 미수집 영역을 최소화하기 개발되었음.
  - 영국 TNA의 OSPs의 경우 국가단위에서의 정책분야를 8개의 상위범주 주제영역(중앙정부와 헌법, 국방 안보와 정보, 환경, 재정, 법과 질서, 국외, 사회와 교육, 무역과 산업)으로 구분한 후 각 범위아래 주제영역을 선정한 형태임.
  - 상위범주 주제영역의 하위에는 각 상위범주와 관련된 하위주제가 기간별로 설정되며, 주로 국가사업과 연관되는 특징이 있음.
- 서울기록 선별지침은 영국 TNA의 OSPs의 개념을 차용하여 상위범주를 12개로 설정하고 각 범주별로 세부주제를 설명함.
- 특시 서울의 기록화를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기록화 대상 선별체계로 향후 지속적인 활용 및 개념의 확장을 통해 고도화 할 수 있음.
- 서울기록 선별지침의 상위분류 범주는 아래 〈표 12〉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성된 12개 영역으로 주제선정 기준영역과 동일함.

〈표 12〉 서울기록 선별지침 상위의 분류범주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상위의 분류범주	
일반행정(시정부)	재정
주택·도시계획	복지
환경	교통
안전	문화관광
교육	보건
경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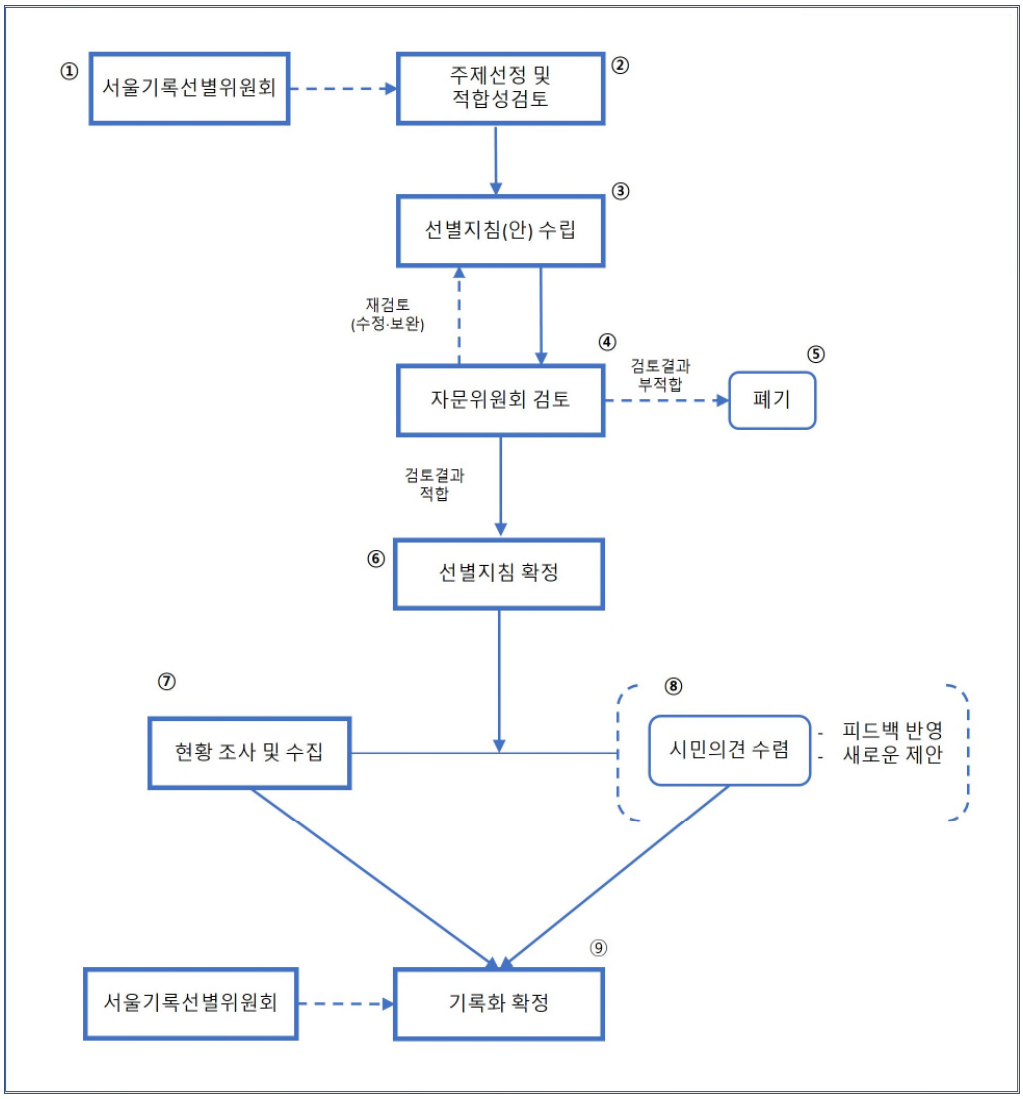
- 중간분류 유형은 부서(명), 정책, 사업(명), 주제, 케이스 파일, 기록물 유형, 위원회로 크게 7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별 세부 내용(안)을 제시해야 함.
- 세부항목은 권한, 범위, 담당(관련)부서의 책임, 주요 테마,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과 기록물 처리방법, 유관기관, 협치기록, 민간기록으로 구성됨.
- 본 사업에서는 세부항목에 부속서를 추가하여 총 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함
  - 부속서는 선별지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리드파일 및 추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연관정보의 확보 및 선별지침의 확장을 위해 사용

2.1.2. 선별지침의 적용

- 서울기록 선별지침은 서울기록 주제로 선정된 52개 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개발되었음.
- 향후 서울기록 선별지침을 개발할 때에는 아래에서 제시된 '서울기록 기록화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서울기록 기록화 프로세스는 시정부 주도로 서울을 기록화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유·소통을 통해 서울을 기록화 하는 방식임.
  - 자문위원회 및 시민 의견 수렴 단계를 통해 공유·소통을 통한 협치를 이룰 수 있음.
- 주제 선정부터 각 영역별 선별지침을 개발과정은 아래 〈그림 29〉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며,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됨.
- 본 사업에서는 서울기록선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기에 사업팀과 서울시와 협

의를 통해 확정함

-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는 서울기록원 업무담당자 및 기록화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각 처리과의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통해 주제(안) 및 선별지침(안)을 작성함
- 자문위원회는 서울시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기록 주제(안) 및 선별지침(안)의 적합성을 평가 및 조언 진행



〈그림 29〉 서울기록 기록화 프로세스

①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의 구성: 서울 기록원 및 기록화 대상 부서 담당자로 5인 이내로 구성

②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를 통한 사전조사 및 주제선정 후 적합성 평가 진행

③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추가조사를 통한 선별지침(안) 수립

④ 자문위원회를 통한 선별지침 적절성 검토

- 자문위원회는 적합·수정·보완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위원별 의견을 제시함

⑤ 자문위원회 검토결과 서울기록 선별지침으로 부적하다고 결정되면 폐기

⑥ 자문위원회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선별지침으로 확정

⑦ 수집대상기록에 대한 현황 세부조사 및 수집

⑧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서울기록선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제안을 받으며, 홍보를 통해 소장자에게 기증을 유도

⑨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를 통한 기록화 확정

- 선별지침의 적용은 ③과 ⑤단계에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③단계에서는 확정된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선별지침 초안을 작성함.
- ⑤단계에서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적합성이 검토된 선별지침에 대한 세부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임.

2.1.3.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검토

- ⑤ 단계에서 진행될 서울기록 선별지침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적용함.
- 아래 〈표 13〉의 체크리스트는 선별지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보조도구로 사용되며, 향후 개발되는 선별지침에도 적용될 수 있음.
- 평가기준은 상 6개 이상이면 적합, ‘하’ 6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단하며, ‘상’과 ‘하’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함.
- 제언은 선별지침에 대한 추가검토사항 및 제안 등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체크리스트는 시기적 중요성과 인문지리적 특수성의 두 가지 크게 구분됨.
  - 시기적 중요성
    - 시기적 중요성은 현재 시정부의 주요정책 및 사업, 시의회의 활동, 정책의 연속성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항목임.

- 인문지리적 특수성
  - 인문지리적 특수성은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평가하는 항목으로 공간, 시민의 생활, 정체성, 연구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항목임.

〈표 13〉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

영역		주제명		
구분	**적합 검토사항**			**적합도**
시기적 중요성	① 시정부의 주요정책 및 사업에 해당하는가?			□ 상 □ 중 □ 하
	② 시의회의 주요활동과 관련성이 높은가?			□ 상 □ 중 □ 하
	③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책연속성이 높은가			□ 상 □ 중 □ 하
	④ 주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단체 및 개인)가 많고 다양한가?			□ 상 □ 중 □ 하
	⑤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가?			□ 상 □ 중 □ 하
인문지리적 특수성	⑥ 공간(자연, 문화, 생활)의 구성 현황과 변천 맥락이 드러나는가?			□ 상 □ 중 □ 하
	⑦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는가?			□ 상 □ 중 □ 하
	⑧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			□ 상 □ 중 □ 하
	⑨ 서울시민의 현재 또는 과거의 일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가?			□ 상 □ 중 □ 하
	⑩ 연구를 위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가?			□ 상 □ 중 □ 하
합 계				상: 중: 하:
제언				

- 〈표 14〉는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체크리스트 작성시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임.
  -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최대한의 객관성 담보를 위한 보조장치 이며 자문위원회는 체크리스트 작성이 이를 참고해야 함.

〈표 14〉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 상세설명

번호	항목	상세	비고
①	시정부의 주요정책 및 사업에 해당하는가?	- 시장 및 시정 핵심부에서 결정하는 주요정책 및 사업 - 시장의 주요공약사항	
②	시의회의 주요활동과 관련성이 높은가?	- 시의회의 주요 의결사항 및 질의사항	
③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책연속성이 높은가?	- 해당 선별지침(주제)의 정책연속성이 높은지(역사성 등)를 검토	
④	주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단체 및 개인)가 많고 다양한가?	-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많은 경우 그 만큼 중요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⑤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가?	- 당대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회적 사건의 경우 다양한 기록이 생산 됨	
⑥	공간(자연, 문화, 생활)의 구성 현황과 변천 맥락이 드러나는가?	- 행정구역, 인구증감, 문화변동 등 다양한 현황과 변천 맥락을 검토	
⑦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가?	-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사건(사건·사고, 이벤트 등)	
⑧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	- 해당 주제가 서울시민의 다양한 측면의 정체성 형성 및 변화에 영향	
⑨	서울시민의 현재 또는 과거의 일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가?	- 시민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지	
⑩	연구를 위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가?	-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주제의 경우 다양한 연구결과를 수집·생산 가능	

- 아래 〈표 15〉는 사회영역 '모여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결과임.
-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의 통해서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가 5개 항목 모두 '예'가 나온 것과 달리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의 경우 이전 주세선정 단계보다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상으로 나타난 항목이 6개, 중 3개, 하 1개로 나타남.
- 이는 주제선정 단계보다 검토항목을 세분화한 동시에 적합도에 대한 평가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세밀한 검토를 진행하였기 때문임.

〈표 15〉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 적용 - 모여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영역	사회	주제명	모여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구분	적합 검토사항		적합도
시기적 중요성	① 시정부의 주요정책 및 사업에 해당하는가?		▣ 상 □ 중 □ 하
	② 시의회의 주요활동과 관련성이 높은가?		□ 상 □ 중 ▣ 하
	③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책연속성이 높은가		□ 상 ▣ 중 □ 하
	④ 주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단체 및 개인)가 많고 다양한가?		▣ 상 □ 중 □ 하
	⑤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가?		▣ 상 □ 중 □ 하
인문지리적 특수성	⑥ 공간(자연, 문화, 생활)의 구성 현황과 변천 맥락이 드러나는가?		□ 상 ▣ 중 □ 하
	⑦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는가?		▣ 상 □ 중 □ 하
	⑧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		▣ 상 □ 중 □ 하
	⑨ 서울시민의 현재 또는 과거의 일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가?		□ 상 ▣ 중 □ 하
	⑩ 연구를 위한 정보적 가치를 지니는가?		▣ 상 □ 중 □ 하
합 계			상: 6 중: 3 하: 1
제언	- 서울광장·광화문광장은 서울의 광장문화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기록화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 - 광장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사회활동을 확인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의 적용 결과는 아래 〈표 16〉과 같으며, 전체 52개 주제 모두 체크리스트 통과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음.
  - 52개 주제 모두 6개 항목에서 '상'이 체크됨.
- 본 사업에서는 전체 52개에 대해 모두 선별지침을 개발하지 않으며, 체크리스트 결과 '상'과 '중'의 합이 9개 이상 나온 주제 중 영역별 개수를 고려하여 36개 주제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선별지침을 개발하였으며, 나머지 16개의 경우 기초조사 단계만을 진행함.
  -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을 제외하고 상과 중의 합이 10개인 경우 집중

수집대상으로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음.

-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의 경우 2018년 서울올림픽 30주년을 맞이하여 집중수집대상으로 선정함.

〈표 16〉 서울기록 선별지침 적합성 평가 체크리스트 적용 결과

번호	영역	주제	적합도 결과
1	경제	공유도시 서울	상: 6 중: 3 하: 1
2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성수동	상: 6 중: 2 하: 2
3	경제	과거와 현재의 흔적: 노점상	상: 6 중: 2 하: 2
4	경제	고물의 재탕생: 고물상	상: 6 중: 0 하: 4
5	교육	시민智 시대: 서울시 평생교육	상: 6 중: 3 하: 1
6	교육	함께 돌봄: 공동육아	상: 6 중: 2 하: 2
7	교육	목동 양정고 이전	상: 6 중: 2 하: 2
8	교육	급식은 교육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상: 6 중: 1 하: 3
9	교통	서울과의 첫 만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 7 중: 2 하: 1
10	교통	공공자전거 따릉이: 따릉이	상: 6 중: 2 하: 2
11	교통	우리 동네 자가용: 마을버스	상: 6 중: 2 하: 2
12	교통	서울 횡단 수상으로 한다: 한강 수상택시	상: 6 중: 1 하: 3
13	문화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	상: 7 중: 3 하: 0
14	문화	나만 바라봐!: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	상: 6 중: 3 하: 1
15	문화	예술, 멀지 않아요: 서울시 창작공간	상: 6 중: 2 하: 2
16	문화	일상의 재발견: 다방	상: 6 중: 2 하: 2
17	문화	한옥. 전통과 근대가 만나다: 한옥 보존 및 진흥 정책	상: 6 중: 2 하: 2
18	문화	한강의 기적,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한강공원	상: 6 중: 2 하: 2
19	보건	스포토피아 서울: 생활체육	상: 6 중: 3 하: 1
20	보건	수다? 水多: 공동우물	상: 6 중: 2 하: 2
21	보건	맛집 찾으세요?: 서울시의 자랑스런 한국 음식점	상: 6 중: 2 하: 2
22	복지	아빠가 된 서울: 모자원	상: 6 중: 3 하: 1
23	복지	도시 속의 한센인	상: 6 중: 2 하: 2
24	복지	Can I help you? 자살예방정책	상: 6 중: 2 하: 2
25	사회	모여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상: 6 중: 3 하: 1
26	사회	당신의 최고의 순간, 서울이 함께합니다: 작은 결혼식	상: 6 중: 2 하: 2
27	사회	밀려난 사람들, 옥바라지 골목	상: 6 중: 2 하: 2
28	사회	목동 철거민	상: 8 중: 2 하: 0
29	안전	여성이 안심인 도시: 여성안심특별시	상: 6 중: 3 하: 1
30	안전	범죄 걱정 뚝!: 안전마을	상: 6 중: 2 하: 2

번호	영역	주제	적합도 결과
31	안전	도시형 재난, 우면산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상: 6 중: 2 하: 2
32	안전	Catch Teenagers: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상: 6 중: 0 하: 4
33	일반행정	서울의 상징	상: 6 중: 3 하: 1
34	일반행정	응답하라 서울시, 서울시 시민소통행정	상: 6 중: 2 하: 2
35	일반행정	서울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상: 6 중: 2 하: 2
36	일반행정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상: 6 중: 0 하: 4
37	일반행정	나랏말싸미: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상: 6 중: 1 하: 3
38	일반행정	시립행복원	상: 6 중: 0 하: 4
39	일반행정	반딧불 시정: 야간시정	상: 6 중: 1 하: 3
40	일반행정	평생 일하는 서울시민: 50+	상: 6 중: 1 하: 3
41	재정	민관의 상호부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상: 6 중: 3 하: 1
42	재정	시민이 쓰는 가계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상: 6 중: 3 하: 1
43	주택/도시계획	서울로7017	상: 7 중: 3 하: 0
44	주택/도시계획	주거복지의 상징, 회현시민아파트	상: 6 중: 2 하: 2
45	주택/도시계획	시민의 품으로, 용산공원	상: 6 중: 2 하: 2
46	주택/도시계획	공원의 탄생: 서울시 도시공원의 역사기록	상: 6 중: 1 하: 3
47	환경	원전 하나 줄이기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상: 7 중: 3 하: 0
48	환경	믿을 水? 아리수!	상: 6 중: 3 하: 1
49	환경	근대 산업유산의 재탄생, 당인리 발전소	상: 6 중: 2 하: 2
50	환경	시민참여의 좋은 예 , 간판개선사업	상: 6 중: 1 하: 3
51	환경	차를 멈추면 하늘이 보입니다, 서울 차 없는 날	상: 6 중: 1 하: 3
52	환경	깨끗한 물 깨끗한 서울: 물재생센터	상: 6 중: 2 하: 2

2.2. 영역별 선별지침 개발

2.2.1. 선별지침의 개발 과정

- 선별지침의 개발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함
  - (가칭)서울기록선별위원회의 주제선정 확정 및 자문위원회의 주제확정을 바탕으로 앞서 서울기록선별위원회에서 작성안 선별지침(안)을 구체화 함.
- 주요테마와 배경 조사
  - 주제 선정시 조사되었던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
    - 주제와 관련된 문헌 및 언론기사 등

-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관련자료 확보

▪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록의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보존기록목록 및 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서울시에서 생산·보존하고 있는 기록의 현황을 파악함.
- 이와 더불어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분석을 추가하여 주제와 관련된 기록의 생산맥락을 확인함.
- 유관기관 및 협치기관의 경우 관련 시정기록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보고서, 각종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보유기록에 대한 파악 진행
- 민간의 경우 관련 시정기록을 중심으로 해당 단체(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 선정주제 중 시정기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유관기관 및 협치기관, 민간을 중심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시정기록을 확인함.

▪ 본 사업에서 진행된 영역별 선별지침은 12개 영역에 총 52개이며, 집중수집대상의 선별지침(5개)·일반수집대상의 선별지침(8개)·미수집대상의 선별지침(39개)로 구분할 수 있음.

- 집중수집대상 및 일반수집대상의 선별지침은 사업팀 내부회의 통하여 결정되었음.
- 미수집대상의 선별지침은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 23개와 기초조사 단계의 선별지침 16개로 구분되며 앞서 살펴본 〈표 16〉의 결과에 따름.
- 본 절에서는 일반수집대상 및 집중수집대상 선별지침에 대하여만 구성과 개발과정을 설명함.

2.2.2. 경제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경제영역 선별지침은 총 4개로 '공유도시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성수동', '과거와 현재의 흔적: 노점상', '고물의 재탄생: 고물상'임.

▪ 이중 일반수집대상 선별지침은 '공유도시 서울'이며,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젠트리피케이션:성수동', '과거와 현재의 흔적: 노점상', 기초조사단계의 선별지침은 '고물의 재탄생: 고물상'임.

▪ 경제영역 선별지침 중 일반수집대상인 '공유도시 서울' 선별지침의 개발과정과 구성은 다음과 같음.

2.2.2.1. 일반수집대상 - 공유도시 서울의 구성 상세설명

① 주요테마와 배경: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 서울에서 공유경제 활동은 정부 정책 수립 이전부터 주로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발달되었음. 대표적으로 2010년 초 오피스 공유, 2011년 중반 아동의류공유, 2012년 초 빈방 공유 등이 운영되기 시작했음.
- 서울시는 2011년 10월부터 '나눔카'라는 카쉐어링(Car Sharing)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때부터 공유경제가 실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였고,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여 정책차원에서 공유경제를 검토하기 시작함.
- 2012년 9월에 '공유도시 서울 선언'의 발표를 통해 공유의 필요성과 가치를 공표하고, 이후 '공유도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유촉진조례안과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논의함.
- 2012년 공유촉진조례 제정 이후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도 구성하였으며, 서울시는 뒤이어 공유도시 1기(2012~2014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공유서울 1기는 초반에는 공유서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주체 형성과 공유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고, 민간영역의 공유사업 발굴이나 공유경제 인지도 제고와 홍보에 중점을 둔 반면, 후반에는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생활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 2015년에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이 수립 및 추진되었는데, 이때 정책의 초점은 확산이었음. 자치구와 협력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유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유경제의 외연 확산을 위해 대표 공유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림 30〉 '공유도시 서울'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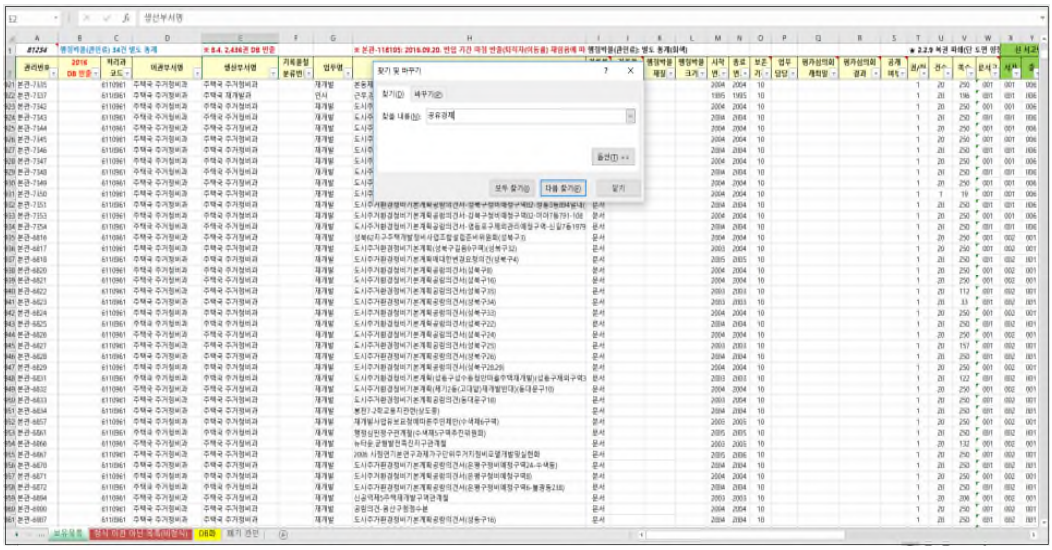
출처: 서울연구원, 공유서울은 도시사회 문제 해결 수단 공유기업시민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서울연구원 p. 4

- 무엇보다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공유를 보이는 분야는 생활용품이며 공구도서관, 육아용품, 의류 공유비율과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음.
- 서울시민의 '공유 서울' 참여는 2014년 32만 건에서 2017년 150만여 건으로, 3년 새 약 5배가 늘었으며, 이는 2015년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생활밀착형 공유사업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현재 서울시 공유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은 주거 공간 공유, 주거 생활 공유, 자동차 공유, 출퇴근 자동차 공간 공유, 주차장 공유, 사무실 공간 공유, 독서실 공간 공유, 버스킹 공간 공유, 여행 공간 경험 공유, 목적형 모임 공간 정보 공유, 식사모임, 공방 노하우 공유, 옷·공구·생활용품 공유, 일자리 공유, 공연 예술 콘텐츠 공유, 선배·직장인·진로 경험 공유, 재능 공유 등이 있음.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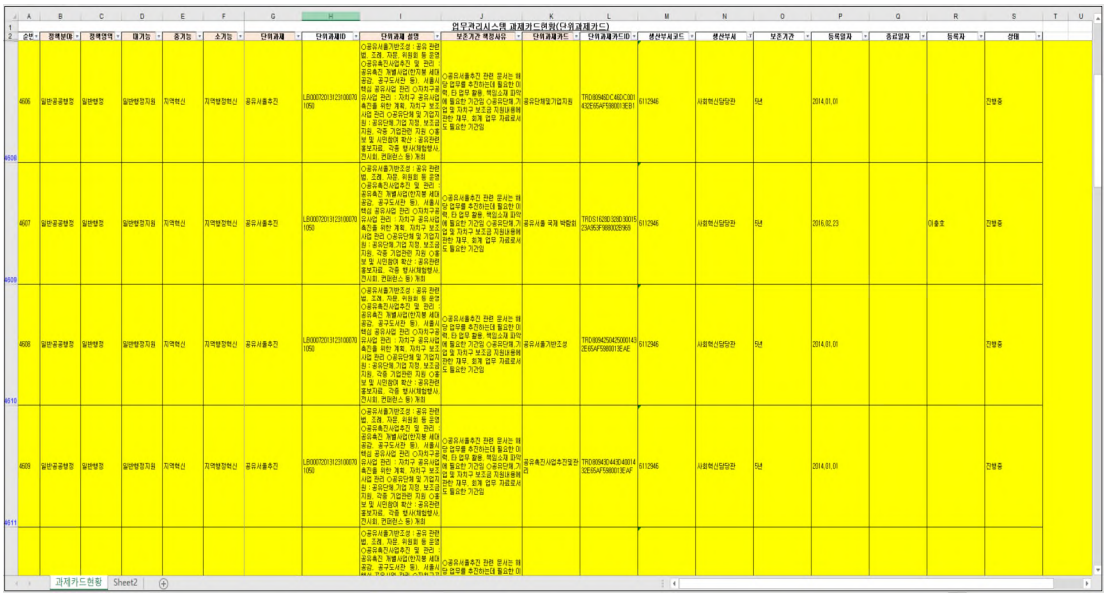
- 시정기록
  -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는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적용
  - 거시평가의 경우,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테마 선정절차를 걸쳐 생산이 예상, 추정되는 기록물 유형 및 생산부서를 확인하는 단계임.
  - 현재 생산되지 않는 기록물의 경우, 생산을 강제 또는 유도하여 기록생산의 공백을 메우는 효과를 가짐.

- 미시평가의 경우, 우선 서울시 기록관(청도, 서소문, 본관)에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기록물 현황을 분석함.
- 〈그림 31〉은 비전자기록으로 생산된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현황분석은 해당사업의 시행 및 종료, 시작 시기를 고려해서 서울시 공유경제, 공유서울, 공유도시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기록물 철을 추출하고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철 명과 생산처리과를 확인함.
-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와 관련해서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없음.



〈그림 31〉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키워드 검색 및 기록물 추출

-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 분석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 현황을 분석하여 전자기록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기록을 살피며 앞서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확인 방식과 같이 서울시 공유경제, 공유서울, 공유도시 등의 키워드 검색 등을 1차적으로 진행
  - 또한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와 관련된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정책영역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순서로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방식도 추가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 카드) 현황분석을 진행함.
  - 〈그림 32〉와 같이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 1개 단위과제에 6개의 단위과제 카드가 도출됨.
  -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카드의 확인은 담당부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단위과제를 확인한 것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시정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



〈그림 32〉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_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 이중 보존기간 10년 미만의 기록은 1개 단위과제, 6개 단위과제카드로 나타남.
  - 공유단체 및 기업지원, 공유 서울 국제 박람회, 공유 서울 기반조성, 공유 촉진 사업추진 및 관리, 자치구공유사업관리, 홍보 및 시민참여확산
-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은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서울시 공유경제, 공유서울, 공유도시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검색 결과는 아래 〈그림 33〉와 같으며, 아래 〈표 17〉과 같이 열람이 가능한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관련 기록을 제외하면 공유 서울 관련 간담회 기록이 대부분임.

〈표 17〉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관련 기록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관련 기록
서울시, 공유경제 본격화 공유단체 및 기업 27개소 지정
2016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추진계획
2016 '공유서울페스티벌' 추진계획
서울시 '공유서울(Sharing city) 2기 추진계획' 알림
2014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공유허브 운영 활성화 계획
2017년 공유촉진사업 추진계획
공유서울 확산(2014)
공유 서울 (Sharing City Seoul) -시민의 "공유" 참여 확산 추진계획
공유서울(Sharing City Seoul)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제1회 정기회 개최 등



〈그림 33〉 정소보통광장 키워드 분석_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 유관기관(자치구 등)
  - 유관기관의 기록파악은 시정기록을 바탕으로 대상기록을 확인한 후 대상기록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함.
  - 특히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생산기록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 외에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와 관련된 별도의 유관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기록을 생산하고 있음.
  - 특히 자치구에서 생산된 기록은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 등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임.
  - 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치구 기록물은 '알기 쉬운 공유경제 전직원 교육 실시 계획', '청소년 공유경제 체험교실 운영계획', '2015. 공유경제 활성화 교육 실시계획(안)',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화폐 도입 추진 계획(안)', '2017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추진계획' 등으로 제한됨젠트리피케이션: 성수동
- 협치기록
  -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와 관련된 협치기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코리아(CCK)와 공유촉진위원회으로 확인됨.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코리아(CCK)와 '서울공유 허브'
    - CCK는 서울시 공유활동의 플랫봄 역할을 하게 될 '서울공유 허브' 운영단체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6월부터 '공유허브'를 운영하기 시작했음.
    - '서울공유 허브'는 개별공유기업이나 단체들의 플랫폼을 한 곳에 모아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함.
      - 시민들에게 공유참여 방법을 온라인으로 안내
      - 국내외 공유관련 자료의 축적 및 뉴스 제공
      - 공유단체·공유기업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 CCK가 운영하는 '서울공유 허브' 플랫폼[8]을 통해서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관련 협치기록을 확인·수집 할 수 있으며, 자료 아카이브를 통해서 서울시 공유활동, 공유정책, 공유 경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영상자료, 인포그래픽 등을 관리하고 있음.

8) http://sharehub.kr/category/archive/

- ‘서울공유 허브’를 통하여 확인·수집 가능한 협치기록은 〈표 18〉과 같음.

〈표 18〉 서울공유 허브 서울공유경제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서울공유 허브 서울공유경제 관련 보유기록물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현황
(2015)서울, 공유로 도시를 그리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공유도시 서울, 4년의 성과
소유의 공유, 공유의 소유
‘세대간 주거 공유’의 현재와 전망-사회혁신 리서치랩
CC Summit 2015 관련 자료
나눔카 3년 운영성과
2015 자치구 공유사업 우수사례 모음집
공유경제: Consumer Business 기업의 대응 전략
카셰어링의 사회경제적 효과
공유도시 2년간, 공유허브 애뉴얼 리포트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고찰
내일을 위한 삶의 방식 공유 책자 등

- 공유촉진위원회
  - 서울시는 공유서울 정책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서울특별시 공유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음.
  - 공유촉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공유촉진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 공유단체, 공유기업, 자치구 지원에 관한 심의
    -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 공유촉진 정책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
  -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와 관련한 공유촉진위원회의 협치기록은 위원회 회의 기록으로 정보소통광장[9]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민간기록

-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 선별지침과 관련된 시민기록은 서울시가 지정

9)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12049

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약 75곳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에서 공유경제 활동은 정부의 정책적 선언 이전부터 창업가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되면서 발달했음.
- 초기 공유기업 사례는 2010년 초 코업(Co-up, 오피스 공유), 2011년 중반 키플(Kiple, 아동의류공유), 쏘카(Socar, 카셰어링), 2012년 초 비엔비 히어로(BnB Hero, 빈방 공유) 등이 있음.
- 이들 초기 공유기업들을 통해서 서울시 공유경제(공유도시 서울)와 관련된 민간기록이 생산되었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 민간기록은 추후 수집 실행과정에서 적극 조사가 요구됨.

2.2.3. 교육영역 선별지침

2.2.3.1. 교육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교육영역 선별지침은 총 4개로 '시민智시대: 서울시 평생교육', '함께돌봄 공동육아', '목동 양정고 이전', '급식은 교육이다: 서울시 무상급식'임.
- 이중 일반수집대상 선별지침은 '시민智시대: 서울시 평생교육'이며,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시민智시대: 서울시 평생교육', '함께돌봄 공동육아', '목동 양정고 이전', 기초조사단계의 선별지침은 '급식은 교육이다: 서울시 무상급식'임.
- 교육영역 선별지침 중 일반수집대상인 '시민智시대: 서울시 평생교육'의 선별지침의 구성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2.2.3.2. 일반수집대상 - 시민智시대: 서울시 평생교육의 구성 상세설명

① 주요테마와 배경: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 한국의 평생교육은 유교를 기반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한국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음.
- 광복 이후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1945~50년대에는 평생교육의 형성단계로 문맹퇴치 교육 정책과 기술교육정책으로, 1960~70년대에는 정부 이니셔티브에 의한 성인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으로서 인적자원 개발, 지역사회 발전, 산업발전 단계에 이르는 전국적인 국가개조 운동으로, 1980~90년대에는 평생교육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 및 제도의 확대 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으로 확대

- 2001년부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 지역 재생,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지역화를 위한 정책이 주요 아젠다로 선정됨.
-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교육과학부와 교육청 위주로 추진하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광역시의 역할이 확대되어 시-교육청-민간 협의체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평생교육협의회를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항이 강화됨.
- 서울시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2009년 3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고, 다음해인 2010년에 2월에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종합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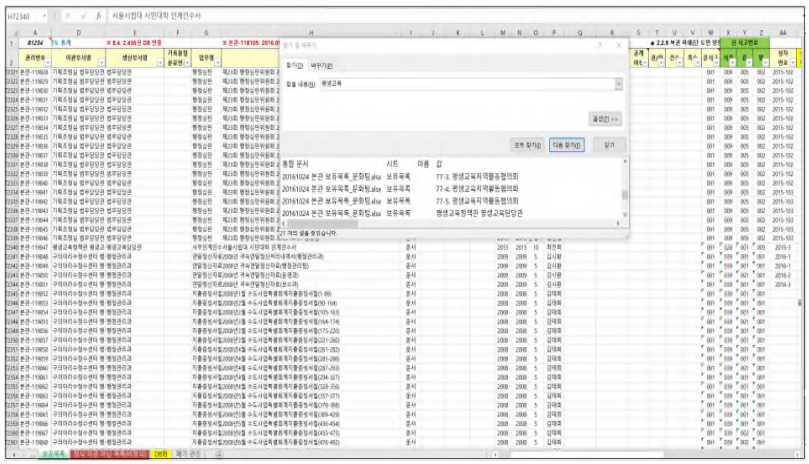
중점 영역 (3대 영역)	추진 과제 (9개 과제)	세부 사업 (21개 사업)
I. 학습공동체 인프라 구축	1. (가칭)서울시민평생학습원 건립 및 운영	1. 서울시민평생학습원 건립 추진
		2. 시민대학 운영 확대 개편
		3. '서울평생학습지도' 등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4.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5. 학습상담콜센터 운영
	2. 서울형 평생교육대학 육성	6. 대학과 지역간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
		7. 서울형 대학 평생교육원 지정 및 운영
	3. 지역생활권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8. 시민제안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9.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양성
II.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3. 학습-고용 연계의 서울형 순환교육 실현	10. 사회초년생 스타트 프로그램
		11. 워킹맘 보육-직업훈련 연계프로그램
		12. 직업 진로교육프로그램 지원
	5. 교육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13. 신소외계층 국내적응 프로그램 지원
		14. 소외계층 기초역량 및 직업능력 향상프로그램 지원
	6. 평생학습 문화 조성	15. 서울평생학습시민상 제정
		16. 학습공원 조성 사업
III. 네트워크 구축	7. 학습성과 분석 및 인증체제 구축	17. 평생교육 평가 및 성과관리 사업
		18. 서울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인증 사업
	8. 네트워크 체계 구축	19.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체계 구축
		20. 수도권 평생학습 광역네트워크 구축사업
	9. 글로벌도시간 협력 강화	21. 글로벌도시간 교류협력 사업

〈그림 34〉 평생교육종합발전 5개년 계획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

- 2013년 3월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평생교육 인프라의 구축과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에서 '공동체문화 활성화 및 시민력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평색학습'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전환점을 마련함.
- 구체적으로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도서관, 마을 만들기와 연대하여 공동체적 소통과 성찰, 삶의 활력을 공유하는 평색학습의 장'이라는 추진 목표가 만들어짐.
- 2014년 4월에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함.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주된 사업은 '민·관·학 교육협력망 구축 및 공동사업 실시',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중 특히나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향후 서울시기록화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그림 35〉는 비전자기록으로 생산된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현황분석은 해당사업의 시행 및 종료, 시작 시기를 고려해서 평생학습추진계획, 평생교육진흥, 평생교육, 마을학교, 시민대학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기록물 철을 추출하고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철 명과 생산처리과를 확인함.
    -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 〈표 19〉와 같으며, 관련된 처리과는 복지여성국 사회과, 행정국 행정과, 평생교육담당관, 노인복지과 등 4개임.



〈그림 35〉 평생교육 키워드 검색 및 기록물 추출

〈표 19〉 평생교육 관련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분석

검색어	검색결과
평생학습추진계획 평생교육진흥 평생교육 마을학교 시민대학	수량: 15건(문서, 시청각 자료 등) · 청도문서고: 해당없음 · 서울 본관 문서고: 11건 - 5년: 10건 은평의마을학교신설관계철, 공익활동지원사업정산(125.한국평생교육협회),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정산(89.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1/3),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정산(89.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2/3)),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정산(89.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3/3)), 77-1.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 77-2.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 77-3.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 77-4.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 77-5.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 - 10년: 1건 서울시립대 시민대학 인계인수서 · 서울 서소문 문서고: 4건 - 준영구: 4건 교육기관 지정서 2009-168 숭의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기관 지정서 2008-03 남서울평생교육원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기관 지정서 2008-30 한영신학대학교평생교육원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기관 지정서 2008-35 성신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 분석
  - 〈그림 36〉과 같이 평생교육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 14개 단위과제에 48개의 단위과제 카드가 도출됨.
  -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카드의 확인은 담당부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단위과제를 확인한 것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시정 기록이 확인됨.



업무관리시스템 과제카드현황(단위과제카드)

순번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단위과제ID	단위과제 설명	보존기간 책정사유	단위과제카드	단위과제카드ID	생산부서코드	생산부서	보존기간	등록일자
9594	교육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기반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교육지원	권역별시민대학운영	LB0007201312310007006603	권역별 시민대학 운영은 경희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린 시민대학과정을 기획, 운영하고 강좌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	권역별 대학건계 시민대학 운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으며,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관계 유지에 필요하여 10년으로 함	권역별시민대학운영	TRDS13280E280E0014A3EDA21CA80012AD4	6113521	평생교육담당관	10년	2015.01.02
12246	교육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기반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교육지원	대한민국인재상운영	LB0007201312310007006595	창의적 인재 육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및 계획관련 정보 통합적인 관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서울시 지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발굴에 관한 업무	우수인재 선발관련 서울시 지역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인재발굴을 목적으로 업무의 추진과정에서의 행정문서가 대부분임	대한민국인재상선발및운영	TRDS1336AB36AB0014A3EDA21CA80012AE3	6113521	평생교육담당관	5년	2015.01.02
24681	교육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기반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교육지원	비영리민간단체등록관리	LB0007201312310007006597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사업과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업무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할 가치 분만 아니라 단체의 인허가와 관련 안내등으로 권리관계 증빙에 가치가 있어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책정	비영리민간단체등록관리	TRDS131JF512F50014A3EDA21CA80012558	6113521	평생교육담당관	준영구	2015.01.02
25902	교육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기반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교육지원	서울시민대학운영	LB0007201312310007006602	서울 시민대학 운영은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민대학 기본, 심화과정별 개발하고, 개발된 강좌를 시민청 서울시민대학(시민대학 기본과정)과 은평학습장에서 운영(시민대학 심화과정)하고 시민대학 강의 만족도 분석 등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강사료 지급 등 법계관련 서류가 있어 10년의 보존기간으로 함	시민대학심화과정운영	TRDS13257B257B0014A3EDA21CA80012581	6113521	평생교육담당관	10년	2015.01.02
25903	교육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기반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교육지원	서울시민대학운영	LB0007201312310007006602	서울 시민대학 운영은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민대학 기본, 심화과정별 개발하고, 개발된 강좌를 시민청 서울시민대학(시민대학 기본과정)과 은평학습장에서 운영(시민대학 심화과정)하고 시민대학 강의 만족도 분석 등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강사료 지급 등 법계관련 서류가 있어 10년의 보존기간으로 함	시민대학프로그램개발및관리	TRDS1332CE32CE0014A3EDA21CA80012 56E	6113521	평생교육담당관	10년	2015.01.02
25904	교육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기반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교육지원	서울시민대학운영	LB0007201312310007006602	서울 시민대학 운영은 평생학습 시민네트워크 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민대학 기본, 심화과정별 개발하고, 개발된 강좌를 시민청 서울시민대학(시민대학 기본과정)과 은평학습장에서 운영(시민대학 심화과정)하고 시민대학 강의 만족도 분석 등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강사료 지급 등 법계관련 서류가 있어 10년의 보존기간으로 함	시민청서울시민대학운영	TRDS131CBC1CBC001 4A3EDA21CA80012599	6113521	평생교육담당관	10년	2015.01.02

〈그림 36〉 평생교육_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 이중 보존기간 10년 미만의 기록은 13개 단위과제, 47개 단위과제카드이고,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은 1개의 단위과제, 1개의 단위과제카드로 아래와 같은 유형의 기록임.

〈표 20〉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검색 결과

보존기간 10년 미만	보존기간 30년 이상
권역별시민대학운영, 대한민국인재상선발및운영, 비영리민간단체등록관리, 시민대학운영, 문화예술시민대학운영, 서울영어마을조성및운영, 찾아가는평생학습강좌운영, 평생교육운영활성화지원, 평생교육인프라구축, 평생교육협의회구성운영, 평생학습공동체운영지원, 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 평생학습포털시스템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비영리민간단체등록관리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평생학습추진계획, 평생교육진흥, 평생교육, 마을학교, 시민대학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평생교육과 관련 기록은 평생교육종합발전 5개년 계획, 평생교육 추진 계획,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방안연구(서울연구원) 등의 기록이 있으며, 이들 기록들은 공개가 되어 있음.

■ 유관기관 기록(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

●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생산기록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자치구로 확인됨.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은 서울평생학습의 허브로서, 평생학습 정책수립 및 평생학습 관련 기록물들을 생산, 보유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아카이브 구축 중에 있음.
-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아래 〈표 21〉과 같음.

〈표 21〉 서울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관련 보유기록물

서울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관련 보유기록물
-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2017년도 사업계획 - 평생교육현황목록 - 문해교육 안전도우미 자료 - 평생학습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 서울지역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기관 목록 등[10]

● 자치구

- 자치구의 경우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기록을 생산하고 있음.
- 자치구에서 생산된 기록은 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관련 기록은 평생교육 종합 운영 계획, 결과보고, 서울형 행복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계획 등이 있음.

■ 협치기록

● 서울시 평생교육과 관련된 협치기관으로는 서울시민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서울소재 대학들이 확인됨.

10) http://smile.seoul.kr/archives

- 이는 2013년 '평생 학습추진 계획'의 중점 과제로 권역별 시민대학 캠퍼스 지정·운영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인문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과의 MOU를 통한 시민대학의 운영과 관련이 있음.
- 서울시민대학은 시민청, 은평학습장, 뚝섬학습장, 중랑학습장, 대학연계 시민대학 등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특히 서울시-대학교 협력으로 운영되는 '대학연계 시민대학'에 대해 시민들이 호응이 가장 컸음.[11)]
- 이에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14개의 대학에 9개의 대학을 추가하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는 23개의 대학교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 시민대학 관련 협치기록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총 23개의 연계대학
    - 9개 추가대학: 광운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성대학교, KC대학교
    - 기존 14개 대학: 건국대학교(통일), 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 인문학), 고려대학교(한국문화), 동국대학교(민주시민), 서강대학교(종교), 서울대학교(인문학 일반론), 성공회대학교(인권), 성균관대학교(동양사상), 숙명여자대학교(인문고전), 숭실대학교(문화·철학사상), 이화여자대학교(여성), 한국외국어대학교(세계시민), 한양대학교(건축), 홍익대학교(예술)

■ 민간기록

- 서울시 평생교육과 관련된 민간기록은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
  -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는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보,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 협력 및 실천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평생교육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
    - 평생교육 활동가 및 학습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연수
    - 평생교육 학술활동 및 각종 간행물 발간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등
  -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록은 평생교

11) 뉴스와이어, 2016년 9월 5일, '서울시, 95% 만족도 '대학연계 시민대학' 23개로 확대' 참조.

육지역활동협의회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확인·수집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유형이 기록이 있음.

- 운영활동, 회의록, 워크숍, 정기총회결과, 정기모임 결과 등[12)]

● 이밖에 평생교육 선별지침과 관련된 시민기록은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민들의 참여 기록으로 한정되며, 추후 수집실행과정에서 적극 수집해야 함.

2.2.4. 교통영역 선별지침

2.2.4.1. 교통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교육영역 선별지침은 총 4개로 '서울과의 첫 만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공공자전거 따릉이: 따릉이', '우리동네 자가용: 마을버스', '서울 횡단 수상으로 한다: 한강 수상택시'임.
- 이중 일반수집대상 선별지침은 '서울과의 첫 만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며, '공공자전거 따릉이: 따릉이', '우리동네 자가용: 마을버스' 기초조사단계의 선별지침은 '서울 횡단 수상으로 한다: 한강 수상택시'임.
- 교통영역 선별지침 중 일반수집대상인 '서울과의 첫 만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선별지침의 구성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2.2.4.2. 일반수집대상 - 서울과의 첫 만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구성 상세설명

① 주요테마와 배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설립배경

- 해방 이후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에 주차장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 부영버스가 유지되는 한편 서울시로 개칭한 이후 시영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음.
- 1949년 8월 이기붕 서울시장이 민간운수업자를 지정하여 서울시에 105대의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해 서울시 최초 민간운수회사가 버스를 운행함.
- 한국전쟁 이후 전국에 버스가 증가하여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고 있었으며 지방에도 점차 버스 보급률이 상승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도로정비의 부진으로 서울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은 철도중심이었음.
- 1954년부터 국제협조처(ICA), 미국개발처(AID) 등의 원조로 1962년까지 도로 및

12) http://cafe.daum.net/laca.or.kr

교량 복구. 해방 직후 내무부, 부흥부는 고속도로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재원의 부족과 지지부진한 추진과정으로 인해 고속도록 건설에 난항이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경부고속도로로 상징되는 고속도로 건설이 현실화 됨.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가 철도와 운수로 이원화됨.

- 고속도로 건설 이전에도 서울역 주변에서 출발하는 일명 '고속버스'가 서울과 지방을 잇는 교통수단으로 존재했으나 철도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음.
- 그러나 서울역 주변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민간운수회사별로 위치하게 되면서 서울역 주변은 혼잡해지고 서울시 시내 교통도 심각한 수준에 이름.
- 1970년대 시작된 강남개발과 버스의 대중화와 맞물려 서울역 주변에 있었던 '고속버스터미널'을 강남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역, 공평동, 동대문 등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을 망라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일원화 하고자 함.
-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버스연합체인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가 1975년 11월 14일 설립되어 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1976년 9월 1일 1차 개장하여 1977년 8월 20일 강남터미날 전 노선 기종점 운행함(644대).
-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은 현재 약 4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강남 개발과 함께 진행된 점에 따라 서울의 개발과 깊게 관련 되어 있음.
- 또한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중앙과 지방을 잇는 지점으로서 지방사람들에게는 서울을 만나는 첫 번째 장소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
- 이러한 특수성은 서울시 강남개발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는 기재로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변화과정 및 인구이동은 한국사회 도시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 또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한 사람들의 기록은 공식기록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완전한 사회상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결과
    - 청도 준영구: 지하도 관계철, 강남터미널인가관계철(서울종합최초면허), 교통영향평가(서울고속버스터미널시설용량 및 교통처리개선방안), 강남종합버스정류장먼허철(서울고속최초면허)1~2.
    - 청도 영구: 강남종합터미널앞 지하도2공구 정산 설계서 전기 및 설비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정산변경설계서전기및설비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2공구3차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2공구3차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1공구3차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1공구3차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2공구2차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2공구2차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1공구전기및설비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1공구)3차공사(건축),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전기설비공사(1공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1공구전기및설비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2공구)2차공사, 강남종합버스터미널앞지하도시설(1공구)3차공사(건축)(外3권),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3공구)3차공사, 강남버스터미널앞지하도시설공사(3공구)3차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3공구)시설공사, 강남종합터미널앞지하도시설(3공구)1차공사(정산변경), 고속버스 정류장참고(트럭터미널)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분석
  - 수송 및 교통분야로 교통관리교통시설물 관리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 차원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인허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사진아카이브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 상가 사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유관기관 기록

- 국가기록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전경 등 사진

■ 협치기록

- 협치기록 없음

■ 민간기록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의 조직 및 구성, 연혁 포함

2.2.5. 문화영역 선별지침

2.2.5.1. 문화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문화영역 선별지침은 총 6개로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 ‘나만바라봐!: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 ’예술, 멀지 않아요: 서울시 창작공간’, ‘일상의 재발견: 다방’, ‘한옥, 전통과 근대가 만나다: 한옥 보존 및 진흥 정책’, ‘한강의 기적,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한강공원’임

- 이중 집중수집대상 선별지침은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이고,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나만바라봐!: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 ’ 예술, 멀지 않아요: 서울시 창작공간’, 기초조사단계의 선별지침은 ‘일상의 재발견: 다방’, ‘한옥, 전통과 근대가 만나다: 한옥 보존 및 진흥 정책’, ‘한강의 기적,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한강공원’임
- 문화영역 선별지침 중 집중수집대상인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의 선별지침의 구성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2.2.5.2. 집중수집대상 -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의 구성 상세설명

① 주요테마와 배경: 서울올림픽과 도시개발 정책의 배경

- 제24회 올림픽인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화, 조화, 전진’이라는 기조아래 개최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드러내는 장이자 냉전 종식의 상징적인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서울올림픽의 개최는 동구권 붕괴와 동서화합의 장이되었다는 평, 독재정권의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 대한민국 경제발전 신화의 정점이 되었다는 평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였음.
- 한편 올림픽은 국가적 차원의 체육행사 유치운동의 시작이 되었으며, 스포츠 시설, 교통, 통신 부문에서 올림픽 개최에 따라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음. 서울 지하철 2호선 등 1기 지하철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으며, 동차형 새마을호 열차의 제작, 카드형 공중전화, 커피자판기 확산 등도 서울올림픽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서울올림픽의 이면에는 개최국에 걸맞은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야 했던 시민들이 존재했음.
- 1983년 제70차 IPU총회, 1985년 IMF 및 IBRD 총회, 1986년 아시아게임과 맞물려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서울 전역의 밀집지역인 산동네 판자촌에 대한 재개발이 시작되었음.
- 전두환 정권은 일련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판자촌 재개발 및 노점상 단속을 시작했으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노점행위를 금지하기도 하였음.
- 이에 따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철거민들의 조직인 ‘서철협’이 조직되었으며, 대부분 철거지역에 종교계, 학생운동권, 민주화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지원에

나섰음.

- ‘서철협’ 결성 이후 철거반대투쟁은 1988년까지 도화동, 홍은동, 신정동, 전농동 등과 서초동의 꽃마을, 법원단지 등으로 늘어났으며, 1989년 11월 11일 결성된 ‘전국빈민연합’ 역시 올림픽 당시 노점상들의 연대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7〉 성균관대에서 열린 전국빈민연합 집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 철거민들의 사례는 상계동, 목동이 대표적임. 이 지역은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으로써 철거민과 행정당국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고, 지역 주민이 결국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음.
- 상계4/1지구 재개발지역은 85년 4월 지하철 4호선 개통과 동시에 서울시가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함. 이곳은 60년대 초 상계동이 서울시에 편입된 뒤 하천부지에 청계천 한남동 지역 철거민을 서울시가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영세민집단거주지역임.
- 구역지정과 동시에 가옥주들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나 세입자들이 철거를 반대,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반발하자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동교리에 3천여 평의 양계장 터를 추진위원측이 7천 5백만 원에 매입, 가구당 4~5평 크기의 블록집을 지어 세입자 이주단지를 마련했음.
- 세입자 581가구 중 148가구는 이곳으로 이주했으며, 360가구는 50~70만원씩의 이주비를 받아 타 지역으로 떠남. 그러나 73가구 3백여 명은 철거하다 만 가옥과 비닐 움막에서 생활하였음.

- 상계동에서 쫓겨난 철거민들 80가구는 명동성당으로 이주하였으며, 철거민들은 명동성당에서 살다가 40가구가 부천시 고강동에 850평의 땅을 사서 이주했음.
- 그러나 부천에서도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올림픽 성화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재철거되었음.



〈그림 38〉 올림픽과 철거민을 다룬 영화 '상계동 올림픽'(김동원 감독 作)

- 노점상의 경우 1988년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에서 개최한 '노점상생존권수호결의대회'가 대표적인 사건으로 당시 17명의 노점상들이 백골단에 의해 부상을 입었으며, 6월 16일까지 항쟁을 계속하였음.
- 노점상들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강경 노점 단속방침을 유보하였고, 당시 빈민운동의 주요한 세력이었던 철거민과 연대하며 빈민운동의 중심이 되었음.
- 1988년 9월 17일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올림픽에 맞선 노점상 올림픽문화제를 개최하여 5천여 명의 노점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점상 올림픽 '대동한마당'이 개최되었고 행사를 '민중올림픽'이라고 불렀음.
- 이처럼 서울올림픽은 성공적인 국가적 스포츠 행사라는 '공식기억' 외에도 기억되지 못한 이면의 기억이 존재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음.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된 처리과는 시민생활국 생활체육과, 건설행정과,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시립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도로계획과,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교통국 교통기획과, 건설관리국 주택개

량과, 상하수국 하수과 등임.

- 검색어: 올림픽, 상계동, 철거민, 노점상
- 검색결과 기록물 수량: 824건
- 청도 문서고: 813건

- 영구 (154건): 아시아 88올림픽 대회 기본계획, 처분요구집행(올림픽 대비사업)(2-1), 처분요구집행(올림픽 대비사업)(2-2), 서울시 올림픽방침서철, 올림픽 관련 시설 방침 관계철, 올림픽 관련시설 공사방침 관계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신축공사 설계도, 올림픽 공원 제10공구 건설 공사 설계도(둔촌교 상류), 올림픽 공원 제10공구 건설 공사 설계도(외곽도로 조성#22#23), 올림픽 공원 제11공구 건설 공사 설계도(1,2차 준공도), 올림픽회관건설공사(전기), 올림픽회관건설공사(기계), 올림픽회관건설공사(건축), 올림픽회관건설공사(토목) 등

- 준영구 (659건): 〈송파구〉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부지 내 보상누락 토지매입/석촌호수공원조성/삼전가정복지관 건립부지부상 사용승인요청외 1, 1990 올림픽특별회계인계인수관계철/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내중심상가증축분매각요청진달, 올림픽 공원 위락시설 관계, 올림픽 공원 도시 계획 관계(3-1), 올림픽 공원 제2공구 건설공사(1차), 올림픽 공원 제2공구 건설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1), 올림픽 선수기자촌 공모 신청서(2-1), 올림픽 지원위원 관계, `86아시아,`88올림픽대회 관계, 올림픽 대단위 사업보고, 올림픽 관련 서류, 올림픽 관련 회의자료, 올림픽 시설 안전 대책관계, 장애자 올림픽, 올림픽 관계, 올림픽 대회후 공사 관계 및 관련서류, `88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 교통 종합대책, 올림픽 자료 목록, 법인)서울올림픽과학학술대회조직위원회 등

- 서울 본관 문서고: 11건

- 영구 (4건): 올림픽대로건설지, 88올림픽고속도로건설지,건설부, 서울문화재대관,올림픽준비단, 올림픽대교건설지(1990)

- 준영구 (7건): 1980년-1981년서울화보필름및사진(1980년,1981년서울시정사용분), 올림픽문화예술축전슬라이드필름(종묘대제,즐거운한국인,북춤 등), 서울올림픽슬라이드필름1, 서울올림픽슬라이드필름2, 서울올림픽슬라이드필름3, 올림픽경기슬라이드필름1, 올림픽경기슬라이드필름2

- 서울 서소문 문서고: 0건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분석결과 올림픽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1개, 2개의 단위과제 카

드가 도출됨.

- 보존기간 10년 미만의 기록은 1개 단위과제, 2개 단위과제 카드로 서울올림픽전시관관리에 따른 소강당대관관리, 올림픽전시관운영에 관한 기록임.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앞서와 같이 올림픽, 상계동, 철거민, 노점상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정보소통광장 내 올림픽 관련 기록은 다수 검색됨. 하지만 본 선별지침의 기한에 해당하는 1989년까지의 기록이 아니며, 현재 생산되는 기록 역시 1988년 서울올림픽과 무관함. 다만 서울사진아카이브에 올림픽 관련 기록이 검색됨.

■ 유관기관 기록

●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파악하여 올림픽과 관련된 유관기관은 '국가기록원', '서울사진아카이브', 'KTV-E영상역사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올림픽기념관'으로 확인됨.

● 국가기록원 내 서울올림픽 키워드 검색결과 건기록물 10,719건, 철기록물 4,209건, 웹페이지 검색 825건, 대통령 기록물 548건이 검색 됨. 생산기관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5,969), 문화공보부 (3,466),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215),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기획관리조정관 총괄심의관 총무팀 (139), 서울특별시 은평구 감사담당관 (61),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60),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 방송제작팀 (56), 총무처 법무담당관 (44),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43), 대통령비서실 (41)으로 다양함. 그 중 1971~1990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10,545건임.

- 국가기록원 내 상계동 철거민 관련 기록 검색결과 10건의 기록이 검색됨. 상계제4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기간연기)(서울특별시고시제4), 상계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제824호), 상계제4구역제2지구조합정관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749호], 주택개량재개발상계제4구역제1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199호], 상계제4구역제2지구조합정관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572호), 상계제4구역제1지구조합정관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12호), 주택개량재개발상계제4구역제2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912호), 상계제4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기간(서울특별시고시제958호), 상계제4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정관변경인가보고,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승인(상계4구역)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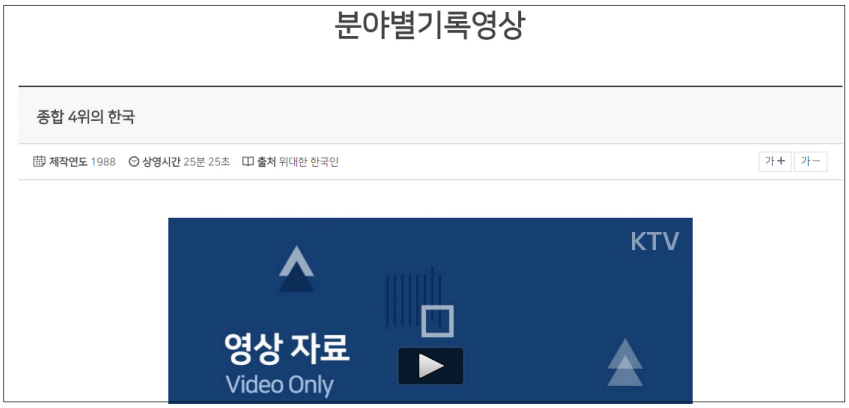


	RC_CODE	RC_RFILE_NO	제목	관리번호	생산년	생산기관명	서고정보	기록물 온라인 제공	기록물 구분	기록물 공개여부
2	1310377	200301063433	상계제4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기간연기)(서	BA0197394	1989	총무처 법무담당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3	1310377	200301060762	상계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제824호)	BA0196459	1986	총무처 법무담당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4	1310377	200301061319	상계제4구역제2지구조합정관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749호]	BA0197005	1988	총무처 법무담당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5	1310377	200301061152	주택개량재개발상계제4구역제1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	BA0196860	1988	총무처 법무담당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6	1310377	200301061001	상계제4구역제2지구조합정관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572호)	BA0196683	1987	총무처 법무담당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7	1310377	200301061094	상계제4구역제1지구조합정관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12호)	BA0196802	1988	총무처 법무담당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8	1310377	200301061424	주택개량재개발상계제4구역제2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	BA0197061	1988	총무처 법무담당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9	1310377	200301061436	상계제4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기간(서울특별	BA0197073	1988	총무처 법무담당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10	1310377	200600090508	상계제4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정관변경인가보고	BA0866346	1986	건설교통부 총무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미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11	1310377	200600090503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승인(상계4구역)	BA0866341	1985	건설교통부 총무	국가기록원서울기	온라인 미제공	일반기록물	공개

〈그림 39〉 올림픽_국가기록원 키워드 검색 결과 목록

- 국가기록원에서는 '다시 보는 그 날의 영광: 88서울올림픽대회'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서울올림픽 당시의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http://theme.archives.go.kr/next/internationalSport/seoulOpen.do)

- 서울사진아카이브 키워드 검색결과 올림픽 관련 기록은 5,514건임
- KTV-E영상역사관에서는 '분야별기록영상' 카테고리에서 올림픽 관련 영상을 제공하고 있음.
  - E 영상역사관 '서울올림픽' 검색 시 총 8,964건 자료 검색



〈그림 40〉 KTV-E영상 역사관 내 올림픽 관련 영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오픈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에서 관련 기록을 온라인 제공하고 있음.
  - 올림픽과 관련된 것은 '목동철거민투쟁', '전국노점상연합회결성', '전국빈민연합결성'의 카테고리임.
- 서울올림픽기념관은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0년에 개관하였으며, 복합 형태의 테마형 기념관으로 올림픽공원 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 서울올림픽기념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록을 다루고 있으므로 추후 수집이 요구됨.
  (https://88olympic.kspo.or.kr/homepage/korean/contents/index.asp)

▪ 협치기록

- 올림픽과 관련된 협치기관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검색됨.
- 위 단체는 1981년 12월 31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1989년 12월 31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거하여 폐지되었음.
- 주요업무는 대회행사준비. 경기운영, 대회지원업무, 대회관리, 여건조성사업, 홍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음. 관련한 기록이 국가기록원에서 검색됨.

▪ 민간기록

- 상계동 올림픽과 관련된 민간기록으로 김동원 作, 〈상계동올림픽〉의 영상기록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의 기록, 사회사진연구소 등이 있음.
- 김동원 作, 〈상계동올림픽〉
  - 〈상계동 올림픽〉(1988)은 다큐감독 김동원의 작품이며,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거된 상계동 주민의 삶을 다루고 있는 작품임.



〈그림 41〉 영화 〈상계동 올림픽〉 장면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1988년 당시 전국노점상연합으로 올림픽 반대 투쟁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노점상연합이 분리됨.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노점상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

립된 단체이며, 전국노점상총연합과 함께 매년 6월 13일마다 1988년 당시 노점상들의 운동을 기념하고, 재현하고 있음.

- 민주노점상전국연합홈페이지(http://www.newnojum.org/) 내 '자료실' 카테고리에 관련 자료 수록



〈그림 42〉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실

- 전국노점상총연합
  - 1986년 아시안게임을 이유로 한 대단속에 맞서 각 지역에 노점상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하였고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1988년 10월, 각 지역의 조직이 통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인 '전국노점상연합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음.
  - 이후 전국노점상연합은 2004년 17차 총회를 통해 명칭을 '전국노점상총연합'(약칭, '전노련')이라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Korea Street Vendors Confederation(KOSC)'로 하고 있음.
  - 전국노점상총연합 홈페이지(http://www.nojum.org/)에서는 교육자료, 정책자료, 선전자료 등 자료실 카테고리가 있음.
- 양연수(前 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의 기록
  - 양연수 前 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은 1986년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을 결성해 초대부터 4대까지 회장을 역임하였고, 1989년에는 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을 맡았음.

- 1988년 노점상 대투쟁 당시의 기록 가운데 성명서 및 노점상 자립화 재촉구 및 손수레 불법 탈취 보고대회 자료(1992년 작성) 등을 제공함.

- 사회사진연구소(Photo collective for social movement)
  - 사회사진연구소는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의 사진분과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가 고조되었던 때와 같이 발족하였으며, 울산, 광주, 거제, 부산의 사진운동 집단과 연대를 통해서 전국의 사진선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 1988년 올림픽 전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노점상, 철거민의 사회운동에 관한 사진 필름 보유하고 있음.
  - 사회사진연구소 SNS 주소 (https://www.facebook.com/%EC%82%AC%ED%9A%8C%EC%82%AC%EC%A7%84%EC%97%B0%EA%B5%AC%EC%86%8C-476324459083122/)

- 뉴스기사 검색
  - 1988년 당시 노점상 철거에 관한 기사를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검색. 검색시 289건의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음.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키워드 검색(올림픽, 노점상)		
기사제목	발행처	발행일
노점단속원 횡포 있을수 없는일 허용구역지정 서민생계 보장을	동아일보	1988.03.08
사건도 사고도 시민들 불안도 날로'인플레'	한겨레	1988.05.15
어떻게 살라고...	한겨레	1988.05.18
노점단속 중단 촉구 도시 노점상 연합회	한겨레	1988.05.20
올림픽 남북한 공동 참여 민족평화통일 계기됐으면	한겨레	1988.05.24
88대비 노점상 일제단속	동아일보	1988.05.26
올림픽앞두고 노점상단속 서울시,내달 도심지 중점	한겨레	1988.05.27
간선로변 露店(노점) 급증 올림픽 앞두고 단속	경향신문	1988.05.27
노점 단속 철회 촉구 도시노점상 연합회 성명	한겨레	1988.05.31
잦은 특별단속空約(공약) 빈축	경향신문	1988.06.01
88대비 노점상 단속 영세상인 대책 절실	한겨레	1988.06.03
'올림픽 1백일 작전'...노점 무차별 단속	한겨레	1988.06.03
복지사회와 뒷걸음질 주택정책	한겨레	1988.06.04
사진과 함께 날더러 어찌 살라고 무차별 노점상 단속	한겨레	1988.06.05
노점상 단속 우리 때문에 관광객 안옵니까	한겨레	1988.06.07
올림픽...분단 굳히나,통일 앞당기나	한겨레	1988.06.07
45일전에 자진 철거	매일경제	1988.06.13
性(성)차별 사회냉대의 二重(이중)시련	동아일보	1988.06.13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대회 서울·경기지역 상인·학생들	매일경제	1988.06.14
노점상 단속 항의 평화행진 경찰,폭력진압 10여명다쳐	한겨레	1988.06.14
"우린 어떻게 살라고..."	동아일보	1988.06.14
"올림픽이 우선이냐?"	한겨레	1988.06.15
露店商(노점상),땅으로 들어가나	경향신문	1988.06.15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	한겨레	1988.06.15
露店商(노점상)단속 완화하라	동아일보	1988.06.16

〈그림 43〉 올림픽_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키워드 검색

[예시]서울 기록화 선별 지침: ‘사회 -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

1. 권한
2. 범위
3. 담당(관련)부서의 책임
4. 주요테마 및 배경
5.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 방법
6. 유관기관 및 수집대상기록물
7. 협치기관 및 수집대상기록물
8. 민간기록
9. 연관 선별지침

1. 권한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사회 –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올림픽은 사회영역에 적용되며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의도를 수집하려는 부서에 알려야 함. 수집 지침문에 기술된 컬렉션 테마는 각 부서의 기록물에 적용됨.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사회 –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올림픽은 공공기록의 선별과 시민기록의 수집을 위한 작업도구임. 따라서 이 지침은 기록물 이용자 또는 기록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지침의 이용에 있어서 부서의 경험 또는 새로 발견된 정보 및 새로운 핵심 데이터 개발로 인하여 개정될 수 있음.
- 공식적인 검토주기는 없지만 수정·변경 의견은 언제든지 접수 할 수 있으며, 검토 또는 개정의 범위는 접수된 의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2. 범위

- 이 주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이후 올림픽 준비 전반에 관한 과정과 그 결과를 다루며, 향후 도시개발, 철거민, 노점상 등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함.
- 획득될 모든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기술(description)은 아니지만 수집 작업 및 검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정기록물은 현재 서울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유관기관은 ‘국가기록원’, ‘서울사진아카이브’, 'KTV-E영상역사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올림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음. 협치기록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으며,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기록이 보관되어 있음.

-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선별지침은 관련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의미하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담당(관련)부서의 책임

- 시민생활국 생활체육과, 건설행정과,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로계획과,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교통국 교통기획과,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상하수국 하수과 등

4. 주요 테마 및 배경

- 제24회 올림픽인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화, 조화, 전진'이라는 기조아래 개최되었음. 마스코트는 '호돌이'이며,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드러내는 장이자 냉전 종식의 상징적인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서울올림픽은 분단상황에 대한 우려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올림픽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개최되었지만, 실제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접어들기도 하였음. KAL기 858편 폭파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음.
- 한편 1987년 민주항쟁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삼아 LA와 베를린에서 유치권을 가져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6.29선언으로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면서 예정대로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음.
- 서울올림픽의 개최는 동구권 붕괴와 동서화합의 장이되었다는 평, 독재정권의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 대한민국 경제발전 신화의 정점이 되었다는 평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였음.
- 또한 올림픽은 국가적 차원의 체육행사 유치운동의 시작이 되었으며, 스포츠시설, 교통, 통신 부문에서 올림픽 개최에 따라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음. 서울 지하철 2호선 등 1기 지하철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으며, 동차형 새마을호 열차의 제작, 카드형 공중전화, 커피자판기 확산 등도 서울올림픽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서울올림픽의 이면에는 개최국에 걸맞는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도시외곽으로 밀려나야 했던 시민들이 존재했음. 1983년 제70차 IPU총회, 1985년 IMF 및 IBRD 총회, 1986년 아시아게임과 맞물려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서울 전역의 밀집지역인 산동네 판자촌에 대한 재개발이 시작되었음.
- 전두환 정권은 일련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판자촌 재개발 및 노점상 단

속을 시작했으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노점행위를 금지하기도 하였음.

- 이에 따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철거민들의 조직인 '서철협'이 조직되었으며, 대부분 철거지역에 종교계, 학생운동권, 민주화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지원에 나섰다. '서철협' 결성 이후 철거반대투쟁은 1988년까지 도화동, 홍은동, 신정동, 전농동 등과 서초동의 꽃마을, 법원단지 등으로 늘어났음. 1989년 11월 11일 결성된 '전국빈민연합' 역시 올림픽 당시 노점상들의 연대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철거민들의 사례는 상계동, 목동이 대표적임. 이 지역은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으로써 철거민과 행정당국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고, 지역 주민이 결국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음.
- 노점상의 경우 1988년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에서 개최한 '노점상생존권수호결의대회'가 대표적인 사건임. 당시 17명의 노점상들이 백골단에 의해 부상을 입었으며, 6월 16일까지 항쟁을 계속하였음.
- 노점상들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강경 노점 단속방침을 유보하였고, 당시 빈민운동의 주요한 세력이었던 철거민과 연대하며 빈민운동의 중심이 되었음. 매년 노점상들은 이 날을 기리기 위해 6.13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1988년 9월 17일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올림픽에 맞선 노점상 올림픽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5천여 명의 노점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점상 올림픽 '대동한마당'이 개최되었기도 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민중올림픽'이라고 불렀음.
- 이처럼 서울올림픽은 성공적인 국가적 스포츠 행사라는 '공식기억' 외에도 국가로부터 기억되지 못한 이면의 역사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음.

5.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처리방법

- 시정기록의 유형
  - 보존기간 30년 이상
    - 아시아 88올림픽 대회 기본계획, 처분요구집행(올림픽 대비사업)(2-1), 처분요구집행(올림픽 대비사업)(2-2), 서울시 올림픽방침서철, 올림픽 관련 시설 방침 관계철, 올림픽 관련시설 공사방침 관계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신축공사 설계도, 올림픽 공원 제10공구 건설 공사 설계도(둔촌교 상류), 올림픽 공원 제10공구 건설 공사 설계도(외곽도로 조성 #22#23), 올림픽 공원 제11공구 건설 공사 설계도(1,2차 준공도), 올림픽회관건설공사(전기), 올림픽회관건설공사(기계), 올림픽회관건설공사(건축), 올림픽회관건설공사(토목), 〈송파구〉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부지 내 보상누락 토지매입/석촌호수공원조성/삼전가정복지관 건립부지 부상 사용승인요청외1, 1990 올림픽특별회계인계인수관계철/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내중심상가증축분매각요청진달, 올림픽 공원 위락시설 관계, 올림픽 공원 도시 계획 관계(3-1), 올림픽 공원 제2공구 건설공사(1차), 올림픽 공원 제2공구 건설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1), 올림픽 선수기자촌 공모 신청서(2-1), 올림픽 지원위원 관계, `86아시아,`88올림픽대회 관계, 올림픽 대단위 사업 보고, 올림픽 관련 서류, 올림픽 관련 회의자료, 올림픽 시설 안전 대책관계, 장애자 올림픽, 올림픽 관계, 올림픽 대회후 공사 관계 및 관련서류, `88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 교통 종합대책, 올림픽 자료 목록, 법인)서울올림픽과학학술대회조직위원회, 올림픽대로건설지, 88올림픽고속도로건설지,건설부, 서울문화재대관,올림픽준비단, 올림픽대교건설지(1990), 1980년-1981년서울화보필름및사진(1980년,1981년서울시정사용분), 올림픽문화예술축전슬라이드필름(종묘대제,즐거운한국인,북춤등), 서울올림픽슬라이드필름1, 서울올림픽슬라이드필름2, 서울올림픽슬라이드필름3, 올림픽경기슬라이드필름1, 올림픽경기슬라이드필름2 등

〈표 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사회 - 올림픽의 빛과 그늘

테 마	배 경	담당부서	문서화 및 보존 대상 기록물 처리 방안
올림픽의 빛과 그늘	- 제24회 올림픽인 서울올림픽은 국가적 차원의 체육행사 유치운동의 시작이 되었으며, 스포츠 시설, 교통, 통신 부문에서 올림픽 개최에 따라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음. - 하지만 서울올림픽의 이면에는 개최국에 걸맞는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야 했던 시민들이 존재했음. - 전두환 정권은 일련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판자촌 재개발 및 노점상 단속을 시작했으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노점행위를 금지하기도 하였음. - 철거민들의 사례는 상계동, 목동이 대표적임. 이 지역은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으로써 철거민과 행정당국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고, 지역주민이 결국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음.	- 시민생활국 생활체육과, 건설행정과,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시립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도로계획과,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교통국 교통기획과,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상하수국 하수과 등	- 올림픽 준비과정을 담은 정책파일 및 인허가파일 선별 등을 통해 문서화. 정책 시행 이후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화 - 아래 유형 시정기록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기에 제외 · 아시아 88올림픽 대회 기본계획, 처분요구 집행(올림픽 대비사업)(2-1), 서울시 올림픽 방침서철, 올림픽 관련 시설 방침 관계철, 올림픽 관련시설 공사방침 관계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신축공사 설계도, 올림픽 공원 제10공구 건설 공사 설계도(둔촌교 상류), 올림픽회관건설공사(전기), 올림픽회관건설공사(기계), 올림픽회관건설공사(건축), 올림픽회관건설공사(토목), `86아시아,`88올림픽대회 관계, 올림픽 대단위 사업 보고, 올림픽 관련 서류, 올림픽 관련 회의자료, 올림픽 시설 안전 대책관계, 장애자 올림픽, 올림픽 관계, 올림픽 대회후 공사 관계 및 관련서류, `88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 교통 종합대책, 올림픽 자료 목록, 법인)서울올림픽과학학술대회조직위원회, 올림픽대로건설지, 88올림픽고속도로건설지,건설부, 서울문화재대관,올림픽준비단, 올림픽대교건설지(1990), 1980년-1981년서울화보필름및사진(1980년,1981년서울시정사용분), 올림픽문화예술축전슬라이드필름(종묘대제,즐거운한국인,북

테 마	배 경	담당부서	문서화 및 보존 대상 기록물 처리 방안
	- 노점상의 경우 1988년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에서 개최한 '노점상생존권수호결의대회'가 대표적인 사건임. - 이처럼 서울올림픽은 성공적인 국가적 스포츠 행사라는 '공식기억' 외에도 기억되지 못한 이면의 기억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음.		춤등), 서울올림픽슬라이드필름1, 서울올림픽슬라이드필름2, 서울올림픽슬라이드필름3, 올림픽경기슬라이드필름1, 올림픽경기슬라이드필름2 등 - 올림픽과 관련된 유관기관은 '국가기록원', '서울사진아카이브', 'KTV-E영상역사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올림픽기념관'으로 확인됨. 추후 수집 실행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과 관련된 협치기관 및 민간기록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전국노점상총연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회사진연구소', 양연수(전국빈민연합 前 상임의장), 김동원(다큐멘터리 감독)의 기록이 확인됨. 추후 수집 실행과정에서 적극 수집해야 함.

6. 유관기관 및 수집대상기록물

- 유관기관 확인 및 수집대상기록물 유형
  - '국가기록원', '서울사진아카이브', 'KTV-E영상역사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올림픽기념관'
  - 국가기록원 수집대상기록물
    - 총 10건

〈표 2〉 올림픽 관련 국가기록원 수집 대상 목록

번호	제목	생산년도	생산기관
1	상계제4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기간연기)(서울특별시고시제4	1989	총무처 법무담당관
2	상계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제824호)	1986	총무처 법무담당관
3	상계제4구역제2지구조합정관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749호]	1988	총무처 법무담당관
4	주택개량재개발상계제4구역제1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199호]	1988	총무처 법무담당관
5	상계제4구역제2지구조합정관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572호)	1987	총무처 법무담당관
6	상계제4구역제1지구조합정관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12호)	1988	총무처 법무담당관
7	주택개량재개발상계제4구역제2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특별시고시제912호)	1988	총무처 법무담당관
8	상계제4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기간(서울특별시고시제958호)	1988	총무처 법무담당관
9	상계제4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정관변경인가보고	1986	건설교통부 총무과
10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적승인(상계4구역)	1985	건설교통부 총무과

- 서울사진아카이브 수집대상기록물
  - 성화 봉송, 장애인올림픽, 꽃차 퍼레이드, 리셉션, 잠실주경기장, 개회식, 경기상황 등에 대한 사진자료
- KTV-E 영상역사관 수집대상기록물
  - 88서울올림픽대회 성화점화, 서울국제가요제, 개막행사, 선수선서, 노태우 대통령경기관람 등 사진자료
  - KTV-E 내 분야별기록영상 카테고리의 올림픽 관련 영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집대상기록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하여 총 940건의 문서 및 사진자료 확인
- 서울올림픽기념관 수집대상기록물
  -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하여 별도 목록 확보 후 진행

7. 협치기관 및 수집대상기록물

- 협치기관 확인 및 수집대상 기록물 유형
  -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수집대상기록물
    - 국가기록원 소장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관련 기록물

8. 민간기록물

- 민간기록 수집대상기록물 유형
  - '전국노점상총연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회사진연구소', 양연수(전국빈민연합 前 상임의장), 김동원(다큐멘터리 감독)
  - 전국노점상총연맹 수집대상기록물
    - 잡지『가로수』, 노점상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 사진자료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집대상기록물
    - 최인기,『가난의 시대:대한민국의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동녘, 2012.
  - 사회사진연구소 수집대상기록물
    - 1980년대 철거민, 노점상 등 사회운동 관련 사진 자료 등
  - 양연수(전국빈민연합 前 상임의장) 수집대상기록물
    - 활동일지 등

- 김동원(다큐멘터리 감독) 수집대상기록물
  - 영화『상계동 올림픽』

9. 연관 선별지침

- 이 주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이후 올림픽 준비 전반에 관한 과정과 그 결과를 다루며, 향후 도시개발, 철거민, 노점상 등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함.

2.2.6. 보건/복지영역 선별지침

2.2.6.1. 보건/복지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보건영역 선별지침은 총 3개로 ‘스토피아 서울: 생활체육’, ‘수다? 水多: 공동우물’, ‘맛집 찾으세요?: 서울시 서울시의 자랑스런 한국 음식점’임.
- 이중 일반수집대상 선별지침은 ‘스토피아 서울: 생활체육’이며,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수다? 水多: 공동우물’, ‘맛집 찾으세요?: 서울시 서울시의 자랑스런 한국 음식점’임.
- 복지영역 선별지침은 총 3개로 ‘아빠가 된 서울: 모자원’, ‘도시 속의 한센인’, ‘Can I help you? 자살예방정책’임.
- 이중 일반수집대상 선별지침은 ‘아빠가 된 서울: 모자원’이며,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도시 속의 한센인’, ‘Can I help you? 자살예방정책’임.
- 보건/복지영역 선별지침 중 일반수집대상인 ‘스토피아 서울: 생활체육’과 ‘아빠가 된 서울: 모자원’의 선별지침의 구성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2.2.6.2. 일반수집 대상 - 스토피아 서울: 생활체육

① 주요테마와 배경: 서울시 생활체육 정책

- 정부는 1962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체육진흥을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책요소로 명문화하였으나 엘리트 체육정책에 치중하였음
- ‘88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1989년 11월에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해 11월에 15개 시·도생활체육회를 결성하였으며, 1993년 12월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이란 용어가 삽입되고, 같은 해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이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가 됨
- 서울시는 1990년 11월에 22개구를 통괄하는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본청과 구청에 생활체육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생활체육과 관련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됨
- 서울시는 1997년에 ‘시민복지5개년 기본계획’에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중장기방안을 제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공간 및 시설 확충을 강조함

- 2001년에는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2004년 '학교시설복합화사업 5개년 계획'의 수립을 통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의 건립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
- 2010년에는 '민선5기 체육진흥 추진계획'에 수립되었는데, 이때 정책비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 스포토피아(SPORTOPIA)"가 제시되었는데, 이 계획에서 생활권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14년까지 285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계획과 "2020 체육진흥기본정책"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 2012년 11월에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서울 만들기「2020 체육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스포츠는 시민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수단 중 하나'라는 선언 아래 5대 과제, 23개 사업 계획을 수립함.
- 한편, 1990년 창립된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는 2009년 7월에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5년까지 25개 구 생활체육회 및 64개 시 종목별연합회와 719개 구연합회, 8664개 클럽종목연합회를 가진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음.
-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는 2016년 2월에 서울특별시체육회와 통합하여 '서울특별시(통합)체육회'가 창립하면서, 서울시의 체육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한편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책들도 시행 중임, 2007년 3월에 서울시장애인 체육회가 창립되어,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생활체육 관련 사업은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과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2(관광체육국에 두는 과)2 제5항에 따라 생활체육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표 22〉 체육진흥과 9개 사업

①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②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④	구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⑤	여가생활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관한 사항
⑦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활동 개최 및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직장인체육대회 개최 및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⑨	학교체육 및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 〈표 23〉과 같으며, 관련된 처리과는 복지국 노인복지과, 행정국 행정과, 법무담당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국 도시계획과, 조경과, 재산관리과 등 7개임.

〈표 23〉 생활체육 관련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검색어	검색결과
생활체육 체육 스포츠 S리그 시민리그	수량: 12건 · 청도문서고: 0건 · 서울 본관 문서고: 18건 - 영구: 6건 [2010-2011년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문화시설)결정(변경)(도봉구창동복합문화공연장조성)(서울특별시고시제2011-220호(2011.8.4.)), 2008-2009년도시계획시설사전자문관계철(창동체육시설,한강예술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서고20090130호(중랑구신내동314-1일대-테니스장), 구의동(수도공급설비,체육시설)변경및신설결정-서울시고시제2007-256호, 체육시설-서고386호(광진구구의동164번지일대), 체육시설결정고시철] - 준영구: 2건

검색어	검색결과
	[시립창동운동장조성및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입찰안내서(안)(2001.11),안전관리본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2003-2005))[사본]] - 30년: 2건 [월드컵손님맞이생활체육동호인다짐대회(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2005 시정참여사업정산철(장애인스포츠클럽)] -10년: 2건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5년: 6건 [2008 전국노인생활체육대회, 2008년전국건강노인생활체육대회지출증빙서, 2012 체육문화행사관계철, 최종감리보고서 공사명:금천구민종합체육회관신축공사(2001.1), 2009년도민간단체시정참여사업정산철(장애인스포츠클럽), 2015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정산 30.다문화생활스포츠협회] · 서울 서소문 문서고: 2건 - 영구: 1건 (구민체육센터부지년부매각관계철-동작구신대방동460-1외1동 작구청장) - 준영구: 1건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취소 소송관련(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①,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취소 소송관련(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②]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 분석
  - 생활체육(여가스포츠)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 21개 단위과제에 33개의 단위과제 카드가 도출됨
  - 이중 보존기간 10년 미만의 기록은 18개 단위과제, 27개 단위과제카드로 아래와 같은 유형의 기록임

〈표 24〉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검색된 생활체육 관련 기록(보존기간 10년 미만)

생활체육 관련 기록(보존기간 10년 미만)
2020체육진흥정책수립및추진, 생활체육교실및스포츠클럽운영지원, 학교청소년 관련 사업, 생활체육대회개최및지원,생활체육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 생활체육세입및정산관리, 파크골프장운영및관리, 피트니스센터운영및관리,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 생활체육회운영및지도감독, 수영장운영 및 관리,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사업지원, 보조체육관대관및세입관리, 실내체육관대관및세입관리, 풋살경기장대관및이용관리, 인라인하키경기장대관및이용관리, 여가스포츠진흥, 체육복지진흥조례관리 등

-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은 3개의 단위과제, 6개의 단위과제카드로 아래와 같은 유형의 기록임.

〈표 25〉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검색된 생활체육 관련 기록(보존기간 30년 이상)

생활체육 관련 기록
국제체육행사개최및지원, 국내체육행사개최및지원, 구립체육시설 설치및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및지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체육분야비영리법인허가및민간단체등록관리 등

- 정보소통광장 현황 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생활체육, 체육, 스포츠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생활체육과 관련 기록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계획,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관련 기록, 서울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도점검 관련 기록,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 서울시민리그(S-리그) 관련 기록들, 자치구 협의 기록, 또는 예산관련 기록,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진행 관련 기록 등이 있고, 대부분 기록들이 현재 생산중인 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임.

■ 유관기관 기록

-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생산기록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유관기관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체육회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2016년 2월에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창립되었으며, 기존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을 흡수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생활체육분야에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서울시민리그(S-리그) 운영, 서울광장 스케이트 장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월간 「서울 스포츠」, 각종 대회 사업 운영지침, 결과보고, 각종 지침 및 양식들로 아래 〈표 26〉과 같음.
  - 서울특별시(통합)체육회가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가 생산·보유했던 기록물들에 대한 체계적 아카이빙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임.

〈표 26〉 서울특별시체육회 생활체육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서울특별시체육회 생활체육 관련 보유기록물
- 서울 체육 60년 - 월간『서울 스포츠』 - 생활체육광장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 생활체육광장 결과보고 양식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요 및 경기요강 - 생활체육 대회 경기결과 보고 문서 양식 - 서울시생활체육회 정기총회 - 자치구 생활체육회 현황파악 양식 - 생활체육진흥법 공동발의 회의자료 관련 등[13]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을 생산·보유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표

13) 서울특별시체육회는 2016년 2월에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창립되었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생활체육의 기록물들이 자기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임.
https://www.seoulsports.or.kr/user/nd83968.do

27>과 같음.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관련한 기록을 생산·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나, 세부기록 유형 현황 파악은 실제 수집단계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함.

<표 27>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관련 보유기록물
- 2013 생활체육 지원사업 선정단체 설명회 자료 - 2016 생활체육지원사업(교실형, 동호회, 대회형) 설명회 자료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개선(안) - 2017 서울장애인스포츠기자단 발대식 자료 - 2017 서울시 생활체육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등

- 자치구
  - 자치구의 경우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기록을 생산하고 있음.
  - 자치구에서 생산된 기록은 구청장배 체육대회 관련 기록 및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 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등으로 제한적임.

■ 협치기록
- 해당기록 없음.

■ 민간기록
- 생활체육 선별지침과 관련된 민간기록은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 커뮤니티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관련 시민기록이 생산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음.
- 생활체육과 관련된 민간기록은 동호회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추후 수집 실행과정에서 적극 조사가 요구됨.
- 예를 들어 국내 최대 농구 동호회 커뮤니티 '동아리농구방' 참조(홈페이지: http://cafe.daum.net/dongarry)

2.2.7. 사회영역 선별지침

2.2.7.1. 사회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사회영역 선별지침은 총 4개로 '모여라!!!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당신의 최고의 순

간, 서울이 함께합니다: 작은 결혼식', '밀려난 사람들, 옥바라지 골목', '목동 철거민'임.

- 이중 집중수집대상 선별지침은 '모여라!!! 서울광장·광화문광장'과 '목동 철거민'이며,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당신의 최고의 순간, 서울이 함께합니다: 작은 결혼식', '밀려난 사람들, 옥바라지 골목'임.
- 사회영역 선별지침 중 집중수집대상인 '모여라!!! 서울광장·광화문광장'과 '목동 철거민'의 선별지침의 구성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2.2.7.2. 집중수집대상 - 모여라!!! 서울광장·광화문광장

① 주요테마와 배경

- 21세기에 들어 서울광장·광화문광장[14]은 한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함.
- 서울시청 앞 광장은 과거 관 주도의 '과시형' 공간에서, 1990년대 말 이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소통형' 공간으로 전환되었음.[15]
- 서울광장은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함께 시민여론조사에서도 광장조성에 대한 수요가 파악되는 가운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광장이 붉은 악마의 응원의 메카로 부각되면서 시민결집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광장조성 논의가 진행되었음.
- 서울광장은 서울시가 2004년 3월3일부터 4월5일까지 시청광장 명칭을 인터넷으로 공모한 결과 총 4천334편(참여자 2천953명)이 응모되었고 그 가운데 109명이 제안한 '서울광장'이 공식 명칭으로 선정되었음.
- 광화문 광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와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세종로 중앙에 조성된 광장으로,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의 중심거리 세종로를 차량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경복궁과 북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며, 세종로의 옛 모습인 육조(六曹)거리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2008년 5월 27일 착공되었으며, 2009년 7월 말에 완공되었음.
- 일제하 서울 도심부의 대표적인 광장공간으로는 조선은행 앞 광장과 경성부청 앞

14) 영국의 '스퀘어 (Square)', 프랑스의 '플라스(Place)', 독일의 '플탓츠(Platz)', 이태리의 '피아짜(Piazza)', 스페인의 '소깔로(Zoccalo)' 등 광장은 중세 이래 유럽 각국 도시의 도심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Paul Zucker, 1959; 프랑코 만쿠조 외 , 2009).

15) 김백영, 「식민권력과 광장공간 - 일제하 서울시내 광장의 형성과 활용」, 『한국사회학회』 90, 2011, 272쪽.

광장을 들 수 있음.

- 조선은행 앞 광장은 1910년대 형성된 대표적 광장으로, 당시 일제가 종로·덕수궁 앞·광화문 거리 등 북촌지역에 남겨진 왕조시대 광장정치의 장소성을 파괴·말소시키려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해방 이후에도 한국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광장은 오랫동안 친숙한 공간이 아니었음.
- 시청 앞 광장, 여의도 광장, 서울역 앞 광장 등 서울시내 대표적 광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근현대사를 통틀어 이들 공간이 시민 일상생활 속에서 광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
- 광장이 권위주의 국가권력의 전시적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 주체적 활동의 공간이라는 인식과 실천은 1980년대 말 대규모 반독재 민주화 시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말 이후에야 탈정치화된 시민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의 공간으로서의 서울광장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음.
- 2015년에는 서울광장의 역사성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관련 자료집이 출간되어 있음.[16)]
- 2016~2017년은 '소통형 공간'으로서의 서울광장에 대한 인식과 기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음.
- 서울광장의 공간성과 역사성이 표출되었던 시기인 만큼 당대의 기록들과 현장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들을 수합할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됨.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서울시 기록관(청도, 서소문, 본관)에 있는 서울시 기록물 현황(시정기록)을 분석함.
    -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 〈표 28〉과 같으며, 관련된 처리과는 행정국 시민협력과, 광화문 광장 행사 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행정국 총무과 총 4개임.
    - 본관 행정국 총무과 서울광장 관련 자료 300여 개 정도임.

1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展-70년 이야기-」, 2015.

- 본관 광화문광장행사담당관 자료(본관 45726~45738)

〈표 28〉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_서울광장·광화문광장

출처	기록물명	생산년도	보존기간	담당부서	비고
본관-95561	광화문광장조성사업요약보고서(2008.7),도시기반시설본부	2008	5년	기술심사담당관	
본관-8680	시청광장 명칭 공모	2004	10년	홍보담당관	
본관-8681	시청광장 명칭공모 심사자료(종합)	2004	10년	홍보담당관	
본관-8682	시청광장 명칭공모 심사자료	2004	10년	홍보담당관	
본관-8683	시청광장 명칭공모 접수자료 관계철(1)	2004	10년	홍보담당관	
본관-8684	시청광장 명칭공모 접수자료 관계철(2)	2004	10년	홍보담당관	
본관-8686	시청광장 명칭공모 접수자료 관계철(3)	2004	10년	홍보담당관	
본관-42799	서울 자-00033 서울광장	1992	10년	행정국 시민협력과	
본관-95895	광화문광장설계적격심의(1)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896	광화문광장설계적격심의(2)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897	광화문광장설계적격심의(3)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898	광화문광장설계적격심의(4)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899	광화문광장설계적격심의(5)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0	기술위원후보명단(광화문광장조성사업)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1	광화문광장설계적격심의(6)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2	광화문광장설계적격심의(7)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3	광화문광장설계적격심의(8)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4	광화문광장설계적격심의(9)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5	채점결과표(기본설계)(광화문광장조성사업)(2007.12.11)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6	광화문광장조성사업녹음테이프(기술위원회2개,합동위원회2개)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7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일괄입찰안내서(2007.8),건설안전본부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8	설계적격심의공통질문및입찰참가업체간질문답변서-광화문광장조성사업-,대림산업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09	설계적격심의공통질문및입찰참가업체간질문답변서-광화문광장조성사업-,현대건설㈜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10	설계(기본우선)내용검토서(광화문광장조성공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출처	기록물명	생산 년도	보존 기간	담당부서	비고
	사)(2007.12),건설안전본부				
본관-95911	설계내용검토서(광화문광장조성사업)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12	광화문광장조성사업설계적격심의지적사항검토의견서(대림)(2007.11.29),건설안전본부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13	광화문광장조성사업설계적격심의지적사항검토의견서(현대)(2007.11.29),건설안전본부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14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일괄입찰안내서(2007.8),도시기반시설본부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15	광화문설계적격심의관계철(1)	2008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16	광화문설계적격심의관계철(2)	2008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17	광화문광장조성사업설계지적사항(2008.8.22),도시기반시설본부	2008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18	공통및입찰참가업체간질문답변사항조치결과 안건명:광화문광장조성사업설계적격심의(2008.8.22),도시기반시설본부	2008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19	기본설계지적사항조치결과 안건명:광화문광장조성사업설계적격심의(2008.8.22),도시기반시설본부	2008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20	실시설계지적사항조치계획검토의견서 안건명:광화문광장조성사업실시설계적격심의(2008.8.22),도시기반시설본부	2008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21	광화문광장조성사업(실시설계적격자설계설명자료)(2008.8.22)	2008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23	광화문광장조성사업(발주부서사업개요설명자료)(2008.8.22)	2008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24	입찰안내서심의(광화문광장)(1)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25	입찰안내서심의(광화문광장)(2)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26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일괄입찰안내서(건설기술심의용)(2007.7),균형발전추진본부	2007	준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6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구인명부-유효서명자명부(85,072명)(2권중1권)(조례규칙심의회2010.1.25(월)별첨1,관리번호10-1)	2010	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597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구인명부-유효서명자명부(85,072명)(2권중2권)(조례규칙심의회2010.1.25(월)별첨1,관리번호10-1)	2010	영구	기술심사담당관	
본관-9618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구인명부-무효서명자명부(18,258명)(조례규칙심	2010	영구	기술심사담당관	

출처	기록물명	생산년도	보존기간	담당부서	비고
	의회2010.1.25(월)별첨2,관리번호30-1)				
본관-6351	광화문광장새빛들이사진첩	2009	영구	광화문광장 행사담당관	
본관-16758	서울광장분향소고천안함46용사조의록	2010	영구	행정국 총무과	
본관-60463	서울광장사용허가관계철(1)	2010	5년	행정국 총무과	49개(2007~2010)
본관-60624	서울광장일반행정철	2004	5년	행정국 총무과	
본관-60628	서울광장정보공개관계철	2008	10년	행정국 총무과	
본관-60627	서울광장민원처리관계철	2008	10년	행정국 총무과	
본관-60629	서울광장국가인권위관계철	2010	10년	행정국 총무과	
본관-60633	서울광장특별근무관계철	2009	영구	행정국 총무과	
본관-60640	서울광장사용신고	2010	5년	행정국 총무과	
본관-61235	서울광장조례개정	2009	영구	행정국 총무과	
본관-61248	주민발의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법률자문관계철(3-3)	2010	영구	행정국 총무과	3개
본관-9357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청구인명부-유효서명자명부-용산구4권중1권	2010	10년	행정국 총무과	218개
본관-65478	시청앞서울광장관계철(2)	2004	영구	건설기획국 도로계획과	14개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 분석
  - 서울광장·광화문광장과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 4개가 도출됨.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검색 결과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된 부분공개, 비공개 문서가 다수임.

■ 유관기관 기록

- 국가기록원에 서울광장 키워드로 99개, 광화문광장 키워드로 28개의 문서가 확인됨
- 서울연구원은 도시재생정책의 입안을 위한 분석자료 및 기록을 보유(정책보고서 등)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연

구 및 정책보고서 등으로 아래와 같음.

- 논문 2건과 이용 관련 조사 보고서가 확인 가능함.
  - 「서울광장 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이미지에 관한 연구 : '시민광장'과 '문화광장'으로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2005
  - 「서울광장 조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불의사액 추정」, 2005
  - 「시청앞 서울 광장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도시사회연구부, 2005
  - 「서울시민은 광화문광장을 얼마나 이용하나?「『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96호

■ 협치기록

- 협치기록 없음

■ 민간기록

- 서울광장·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중심으로 포털사이트 등 조사 진행
  -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블랙텐트 운영위원회 등 민간단체 기록 확보 요망
- 서울광장 집회 신고와 관련한 경찰 측의 기록(확보 가능 여부 문의 요망)
-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집회의 신고에 대한 자료들 확보 요망

2.2.7.3. 집중수집대상 - 목동 철거민

① 주요테마와 배경: 목동 철거민의 형성

■ 1964년부터 여의도, 영등포, 회현 등 서울시내 각 지역의 무허가 주택 지역에 살다가 집이 철거되면서 서울시가 허가해 준 강서구 목동·신정동 일대에 주민들이 모여살기 시작함.[17)]

■ 1964년 도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당시 김포가도와 경인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한 안양천변을 옆에 낀 뚝방에 가구주 2,500세대, 세입자 5,200세대로 약 3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음.

17) 「군부독재의 반민중적 도시개발을 온몸으로 규탄하다/84년 목동 철거민 투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12. 3.(2017. 6. 15. 검색; http://www.kdemo.or.kr/blog/location/post/12)



- 양천벌의 전쟁: 30년 전, 목동 철거민 투쟁의 현장을 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 당시 목동 무허가건물 모습.

〈그림 44〉 양천벌의 전쟁: 30년 전, 목동 철거민 투쟁의 현장을 가다

▪ 이들은 당시 수도시설, 전기시설 부족으로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웠으나 1960년대 한국사회의 이농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도심으로 몰리는 사람들로 인한 주거문제는 '집세'문제로 확대되어 '집세'가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판자촌을 형성하게 됨.



『동아일보』, 1972. 8. 25.
- 안양천 주변 무허가주택 주민들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 안양천 뚝방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은 지대가 낮은데다 하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잦은 수해와, 습기에 노출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웠음.

〈그림 45〉 「동아일보」, 1972. 8. 25.

▪ 1983년 4월 강서구 목동·신정동 지역에 140만 평의 목동 신시가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시는 안양천 홍수대책과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준비를 위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 지역의 개발을 본격화 함.

▪ 당시 서울시장 김성배, 부시장 이상연, 도시계획국장 안상영, 건설관리국장 김인식,

도시계획과장 김학재 등이 숙고하여 결정함.

-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 공개념에 의한 공영개발을 처음으로 목동 개발에 적용하여 시행하는데 있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킴.[18)]
- 당시 이 지역 무허가건물은 1,729개, 그 중 세입세대는 3,264세대로 건물 당 약 2.89세대가 거주하였으며 세입자 인구는 20,251명에 달함.
- 당시 세입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 하고 있었으나 '집세' 부담으로 변두리인 무허가촌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음.
- 당시 세입자들의 불만은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19)]
  - 같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쌓아올린 안정된 생활권(자녀교육 문제등)이 파괴되는 데 따른 불만
  - 인근 지역에 취업 기회가 많아 생활에 편리하였으나 이의 파괴로 인한 취업 기회의 상실을 예상한 불만
  - 서울시에서 제공한 정착 단지내 건물을 다른 지역의 위법 무허가건물과 같은 수준의 이주비, 시영아파트 입주 등으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주비 인상과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서울시에서 이주시켰던 과거를 통하여 타 무허가건물 지역과의 차별성 강조)
  -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한 사업계획에서 철거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므로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1984년 8월 27일 본격적인 철거민들의 투쟁이 시작되어 김포가도를 거쳐 양화대교까지 행진하였으며 연좌농성으로 이 일대가 마비됨.
- 그러나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연행되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구타당하였으며, 이 날 이후 목동아파트 분양 일정이 확정되어 투기꾼이 몰리기 시작함.

18) 「(6)목동사건」, 『중앙일보』, 1985. 12. 21; 「군부독재의 반민중적 도시개발을 온몸으로 규탄하다/84년 목동 철거민 투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12. 3.(2017. 6. 15. 검색; http://www.kdemo.or.kr/blog/location/post/12)

19) 「목동지구 무허가 건물정리에 대한 민원사안 조사보고」,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1983, 9쪽.



- 목동철거 데모 현장(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목동주민들과 대학생들이 1985년 3월 20일 오후 6시 경 데모를 시작함.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 수 백명이 함께함.

〈그림 46〉 목동철거 데모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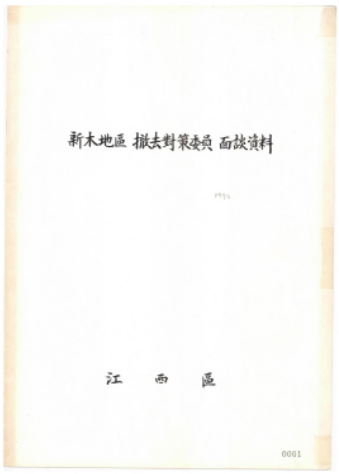
- 현재 목동은 서울 서부 富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안양천 주변을 중심으로 한 1960~80년대 이 지역 빈민촌과 목동 개발이 연결되어야 함.
- 국가주도 개발담론에 피해자인 주민들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도 목동 철거민의 투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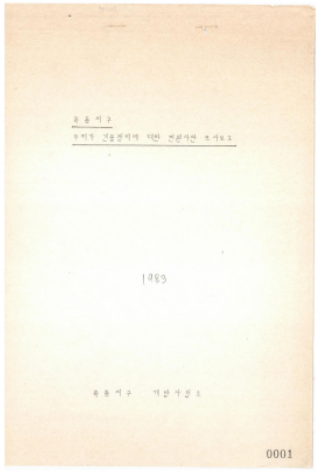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 기록물 현황 분석
  - 서울시 기록관에 이관되어 있는 목동 개발관련 기록물의 목록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

〈표 29〉 서울시 보유 목동 컬렉션 주요기록

유형	출처	기록물명	생산년도	보존기간	담당부서
문서	강서구	신목지구철거대책위원 면담자료 	1982		강서구
문서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무허가 건물 정리방안	1983		강서구

유형	출처	기록물명	생산 년도	보존 기간	담당부서
					
문서	강서구	목동지구 무허가 건물정리에 대한 민원사안 조사보고 	1983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도면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건물현황도(유허가, 무허가 공장)	1983		목동지구개발 사업소
문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무허가건물 관계철	1984		목동지구개발 사업소

- 유관기관 기록
  - 목동개발과 관련한 유관기관 기록은 당시 개발을 담당하던 강서구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협치기록
  - 해당기록 없음.
- 민간기록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신명자 이사장 구술.(2017년 8월 2일 오전 10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내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이사장실)

• 내용: 목동·신정동 철거관련 자료 현황

〈표 30〉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신명자 이사장 구술

유형	출처	기록물명	생산일시	녹취문
녹취	신 명 자 이사장	20170802복음자리1	2017. 08.02.	면담자: 네. 목동이나 신정동 이 철거민 강서지역 철거민 관련해서는 자료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신가요? 구술자: 그 당시. 철거 당시에 목동성당에 신부님이 안경환 신부님이 예방선교회 신부님이신데 함께 계셨고. 그래서 신부님이 거기를 많이 개입을 하셨고 또 사람들이 성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신부님이 좀 자료를... 외국인이셔서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세월이 지나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도시연구소에서 도시연구소에 사진들이 목동뿐만 아니라 다른 철거지역 꺼 까지 사진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강서구청에서 거기서 계속 개입을 지금은 양천구청이지만 강서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에 혹시 있다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사진들. 면담자: 이전부터 76년, 7년에 오셔서 작은자리 이 복지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자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곳에 혹시 보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구술자: 저희가. 저희는. 이쪽으로 옮겨와서 집 짓는 과정에서 사진이 조금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고 예. 많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면담자: 예. 그리고 혹시 목화마을에 지금 원주민 분들이 몇 세대 정도 오셨고 그리고 또 지금은 한 몇 가구 정도가 사시는지? 구술자: 원주민은 그 105세대가 목화. 목동사람들이었고요. 세입자가 마지막까지 싸워서 오신 세입자들이 한 1/3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 중에 이제 아직도 많이 살고 있는데 몇 퍼센트(%)가 지금 확인은 안됐고 자제 분들이 이제 거기 안에 살고 있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환경도 그렇게 열악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분들 중에서 혹시 사진들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그 당시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앞장서서 일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남아 계신 분들이 있긴 한데 좀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면담자: 네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제공 목동 관련 사진 등

〈표 31〉 작은자리 제공 목동관련 사진 목록

유형	출처	기록물명	생산년도	설명
사진	복 음 자 리	목화마을 단오제 	1990	1990년 목화마을 이주 이후 철거민들의 단오제 모습. 정착 이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음.
사진	복 음 자 리	목화마을 	미상	목화연립 이외의 목화마을의 전경.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
사진	복 음 자 리	목화마을 건설 	미상	목화연립 준공 당시 천주교 신부님의 축사 모습.
사진	복 음 자 리	목화마을 건설1 	미상	목화마을 건설현장.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
사진	복 음 자 리	목화마을 건설2	미상	목화마을 건설현장.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

유형	출처	기록물명	생산년도	설명
				
사진	복 음 자 리	시흥1 	미상	초기 목화마을.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
사진	복 음 자 리	시흥2 	미상	초기 목화마을.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
사진	복 음 자 리	철거1 	미상	故제정구 의원이 동석한 자리로 철거현장.(목동·신정동 주변으로 추정)

- 구매기록: 이동철[20], 『목동아줌마』, 동광출판사, 1985(르포형식의 소설; 당시 목동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음)

20) 前국회의원 이철용

〈표 32〉 목동아줌마

유형	출처	기록물명	생산년도	설명
도서	출판	이동철, 『목동아줌마』, 동광출판사, 1985 	1985	- 서울시 후암동, 숭인동 등에서 이주해 온 안양천 주변 주민들의 애환을 그린 르포형식의 소설. 당시 신문기사, 잡임취재 등의 기법으로 사실성과 현장성을 담보하고 있음. - 실제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목동 철거민에 대한 구술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문서자료로서 저본이 될 수 있음. - 특히, 세입자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묘사를 통해 관민의 길항관계와 학계와 사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종합적인 상황파악에 도움이 됨.

- 『복음자리』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내는 소식지로 목화마을을 포함한 철거민 공동체의 소식을 다루고 있어 참고할만 함.
- 이 공동체의 과거-현재-미래를 확인 할 수 있음.

〈표 33〉 복음자리 소식지

유형	출처	기록물명	생산년도	설명
도서	출판	『복음자리』 	2017	-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의 소식지로 목화마을을 포함한 공동체 소식과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있음. - 특히 철거민 공동체에 대한 소개와 주민들의 삶, 운동(movement)에 대한 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에 대한 대안과 고민들이 함께 있음. 철거민과 관련하여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2.8. 안전영역 선별지침

2.2.8.1. 안전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안전영역 선별지침은 총 4개로 ‘여성이 안심인 도시: 여성안심특별시’, ‘범죄 적정 뚝!: 안전마을’, ‘도시형 재난, 우면산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Catch Teenagers: 청소년보호종합대책’임.
- 이중 일반수집대상 선별지침은 ‘여성이 안심인 도시: 여성안심특별시’이며,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범죄 적정 뚝!: 안전마을’, ‘도시형 재난, 우면산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 기초조사단계의 선별지침은 ‘Catch Teenagers: 청소년보호종합대책’’임.
- 안전영역 선별지침 중 일반수집대상인 ‘여성이 안심인 도시: 여성안심특별시’의 선별지침의 구성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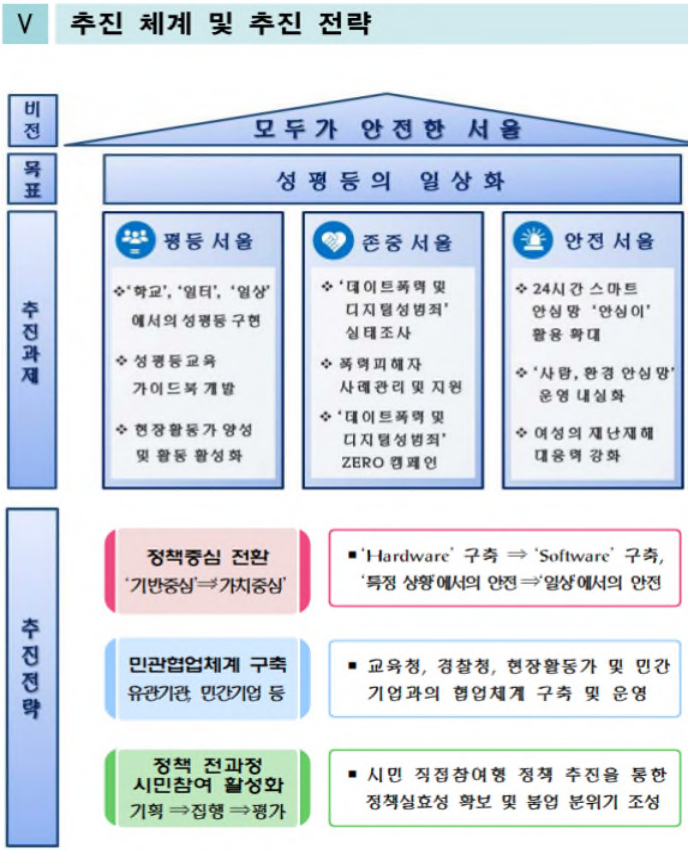
2.2.8.2. 여성이 안심인 도시: 여성안심특별시

① 주요테마와 배경: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의 배경

- 현대 도시의 안전 문제로서 여성 안전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가 많은 도시로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국내외의 관심을 받으며 UN 공공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4년 연속 서울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에 선정되기도 하였음.
- 1972년 UN 총회에서 ‘여성의 해’가 선포되면서 국제적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고, 이후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을 통해 ‘도시에서의 여성’에 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여성분과(UNIFEM(2013))의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간에서 여성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이 있으며, 이는 도시에서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여성의 생애주기에는 성별 논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어린 소녀들에게 밤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성인 미혼 여성들이 공공 공간내의 시설에서 성별에 따른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 기혼 여성에게는 유급과 무급 노동으로 생활시간이 남

성 등과 동등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기존 여성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여행(女幸)'프로젝트를 시행하였음.
- 기존의 여성정책이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만 시행, 평가된 반면,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 전 실·국 산위의 성인지적 종합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서울 전체 단위에서 자치구 단위까지 여성시민 거버넌스(여행동반자, 여행프로슈머, 자치구 여행포럼단)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서울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성폭력 발생률은 10만 명 당 64.1명으로 자치단체 중 1위이며, 서울여성이 생활에서 느끼는 범죄 피해의 두려움은 51.7%로 남성의 2배에 이름.
- 서울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시전체에 안전망을 구축,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신고에서 보호까지 여성안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울을 '여성안심특별시'로 선언하여 현재 '여성안심특별시 3.0'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47〉 여성안심특별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한편 ‘여성안심특별시’의 세부 정책으로서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귀가 앱, 여성안심지킴이집, 데이트폭력 상담전용콜 1366, 홈 방범서비스 등이 있음.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서울시 기록관에서 확인된 기록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여성안심특별시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검색어	검색결과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귀가 앱 여성안심지킴이집	수량: 0개 · 청도문서고: 0개 · 서울 본관 문서고: 0개 · 서울 서소문 문서고: 0개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 분석

- 여성안심특별시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는 1건이 확인됨.
- 보존기간 10년미만의 기록은 단위과제 1건 단위과제카드 1건이며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기록임.
-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은 없음.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앞서와 같이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귀가 앱, 여성안심지킴이집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검색결과는 정책 특성상 최근 기록이 대부분임.
- 여성안심특별시 관련 기록은 세부 정책인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귀가 앱,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사업계획서, 예산, 회의록 등이 존재하며 여성안심특별시 3.0 T/F팀 관련 기록이 확인됨. 특히 여성안심특별시 3.0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됨.

■ 유관기관 기록

- 유관기관의 기록 파악은 시정기록을 바탕으로 대상기록을 확인한 후 대상기록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함.
- 특히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생산기록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안심특별시와 관련된 유관기관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확인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SNS 후기 공모전'을 비롯, 여성안전정책 토론회, '우리가 안전이다', '#이게_여성의_도시다'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그림 4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SNS후기 공모

■ 협치기록

- 해당기록 없음

■ 민간기록

- 여성안심특별시에 대한 별도의 민간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세부정책인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귀가 앱, 여성안심지킴이집의 대상자들을 인터뷰하는 등 추후 수집실행 과정에서 적극 수집해야 함.

2.2.9. 일반행정 / 재정영역 선별지침

2.2.9.1. 일반행정/ 재정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일반행정영역 선별지침은 총 8개로 ‘서울의 상징’, 응답하라 서울시, ’서울시 시민소통행정’, ‘서울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나랏말싸미: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시립행복원’, ‘반딧불 시정: 야간시정’, ‘평생 일하는 서울시민: 50+’임.
- 이중 일반수집대상 선별지침은 ‘서울의 상징’이며,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 ’서울시 시민소통행정’, ‘서울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초조사단계의 선별지침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나랏말싸미: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시립행복원’, ‘반딧불 시정: 야간시정’, ‘평생 일하는 서울시민: 50+’임.
- 재정영역 선별지침은 총 2개로 ‘민관의 상호부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민이 쓰는 가계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임.
- 일반행정/재정영역 선별지침 중 일반수집대상인 ‘서울의 상징’과 ‘민관의 상호부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선별지침의 구성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2.2.9.2. 일반 수집대상 - 서울의 상징

① 주요테마와 배경

- 해방 이후 서울의 상징물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의 제고, 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 상징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겪었음.
- 서울시 상징물의 변화과정을 수집함으로써 브랜드로서 서울시의 변천사와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시 상징물은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심벌, 동물, 식물 등을 말하며 서울시는 서울시 상징물을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상징물 디자인으로써 심벌마크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8년으로 경성부 고시 제 7호로 제정되어 경성을 상징하는 성벽을 배치하고 ‘경(京)’자를 넣어 제작한 것이 그 시작임.
- 이후 1926년에 한 차례 심벌마크가 개정되었으며, 이 때 조선은 물론 일본과 만주에 공모를 진행하여 483명이 932점의 작품을 응모하기도 하였음.

- 해방 이후 서울시 심벌마크는 1947년에 서울시 고시 제17호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경성부가 서울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일반에게 공모하여 선정한 것이었음.
- 1990년대에 서울시는 시민에게 친근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발전한 시의 위상과 걸맞은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휘장을 제작함.
- 그 결과 서울시 심벌마크와, 보조 디자인 요소인 캐릭터 '왕범이'가 선정되었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캐릭터 특성을 이용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에 활용함으로서 서울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휘장의 보조디자인 요소로 제정되었음.

☐ 상징물의 종류

구 분	형 태	개발일	선정방식	활용현황
휘 장 (심벌마크)		1996.10	시민공모	· 시기(市旗), 공무원증 · 위촉장 · 자격증 · 표창장, 감사패, 명함, 봉투, 발간물 · 안내사인물, 홍보물, 웹사이트 등
브랜드 (슬로건)	Hi Seoul SOUL OF ASIA	2002.10 2006.11 (서브브랜드)	시민공모	· Hi Seoul Festival, 우수기업 브랜드 · 방문증, 명함, 봉투, 발간물, 기념품 · 관용차량, 택시, 안내사인물, 홍보물 등
심 벌	HAECHI SEOUL	2008. 5	용역 (262백만원)	· 문화상품, 해치택시, 시티투어버스 · 인증마크, 안내사인물 · 명함, 봉투, 발간물, 홍보물 등
꽃 (개나리)		1971.4. 3	-	· 서울의 기후와 풍토에 가장 적합한 꽃 · 이른 봄 일제히 꽃이 피며 서울시민의 협동정신을 표현
나무 (은행나무)		1971.4. 3	-	· 도시 공해와 병충해에 강해 수명이 김 · 거목으로 성장하는 특성은 수도 서울의 무한한 발전을 보여줌
새 (까치)		1964.	-	· 전래설화에서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거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등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음
캐릭터		2009.3	용역 (248백만원)	· 해치 이미지 홍보를 위해 시 행사 및 문화상품 등에 활용

〈그림 49〉 서울시 상징물의 종류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시의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서울시를 대내외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브랜드가 제작되었고, 그 결과 '하이 서울(Hi Seoul)'이 선정됨.
- 'Hi'라는 인사말로 밝고 친근한 서울의 메시지 전달하고 다양하고 활기찬 서울의 매력 표현, 'Hi'는 'High'와 동음으로 지구촌시대의 세계도시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 이후 기존의 상징물디자인이 시민의 인지도와 호응도가 매우 낮고, 상징물간 통일성과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서울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강력한 도시 상징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심벌으로서 '해치(HAECHI)'를 제정함.

- 그밖에도 서울의 비전에 대한 고민을 시민과 나누기 위해 시민공모의 형태로 슬로건을 제작, 2011년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 선정되었음. 2014년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15년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 'I.SEOUL,U'를 제정함.
- 이처럼 서울시 상징물은 선정절차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과정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음.
- 시의 정책과 비전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가치와 비전을 상징물에 담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상징물이 가진 의미가 있음.

(구)서울시 휘장 및 캐릭터 현황

제정시기		상징물 디자인	제정배경 및 개정사항	의미
상징물조례 제정 이전	1918년	 경성부 휘장	•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도시 휘장 제작에 영향을 받아 착수 • 경성부 고시(告示) 제7호로 제정, 발표	• 경성을 상징하는 성벽을 8각 형태로 배치하고 중심부에는 '경(京)'자를 넣은 형상 • 비교적 단조로운 형상
	1926년	 경성부 휘장	• 기존 휘장이 발전하는 경성부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좁고, 조형성도 미흡하다고 판단 • 조선·일본·만주에서 공모하여 모두 483명이 932점의 작품을 응모 후 당선작을 선발	• 경성부의 '경(京)'자를 형상화 • 북한산과 남산과 경성시가를 상징 • 좌우 성벽을 허물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상징 • 행복의 의미를 가진 지복의 형상 • 이상적 도시구조인 방사상 형상
	1947년	 서울시 휘장	• 해방 후 서울시로 개명됨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제정 • 서울시 고시 제17호(시 휘장 설정의 건)에 근거	• 가운데 원은 서울시내를 상징 • 서울을 둘러싼 8개 산을 보석의 섬광형태로 표현하여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수도의 찬연함을 상징
상징물조례 제정 이후	1998년	 왕범이(캐릭터)	•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캐릭터의 특성을 이용 • 서울시 각종 행사에 활용함으로서 서울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으로의 확대 기대 • 서울시 휘장의 보조 디자인 요소로 제정	• 아주 큼 혹은 인왕산을 의미하는 '왕'과 호랑이를 나타내는 순우리말 '범'의 합성어 • 전통 민화에 나오는 한국 호랑이의 모습을 반영 • 활기넘치는 서울시민의 모습을 상징
	2006년	 왕범이(캐릭터)	• 상품성을 넓히기 위해 2006년에 개정하였으나, • 상징의 의미가 약하고, 인지도가 낮아 해치 캐릭터 개발 후 2009년 조례에서 삭제	

〈그림 50〉 서울시 휘장 및 캐릭터 현황



〈그림 51〉 서울시 휘장 및 엠블럼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 〈표 38〉과 같으며 관련된 처리과는 경쟁력강화본부 기업지원담당관, 산업국 산업지원과 총 2개임.

〈표 35〉 서울의 상징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검색어	검색결과
서울브랜드 해치 하이서울 아이서울유	수량: 28건 · 청도문서고: 0건 · 서울 본관 문서고: 28건 · 서울 서소문 문서고: 0건

• 청도 문서고: 해당 없음

• 서울 본관 문서고: 28건(영구)

– 2007 하이서울브랜드사업정산철, 2008 하이서울브랜드사업정산철, 애니메이션내친구해치, 하이서울공동브랜드화사업, 하이서울공동브랜드광고, 홍보 등

● 서울 서소문 문서고: 해당 없음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 분석

•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카드 분석결과 서울의 상징에 대한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 4개, 6개의 단위과제 카드가 도출됨.

- 이 중 보존기간 10년 미만의 기록은 2개 단위과제, 2개 단위과제 카드로 서울상징물활용 및 관리,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디자인 관리임.
- 30년 이상 장기보존기록은 2개 단위과제, 4개 단위과제 카드로 내 친구서울, 어린이기자 위촉식, 서울사랑 발간, 서울사랑 홈페이지 관리임.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앞서와 같이 서울브랜드, 서울 상징물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검색결과는 서울브랜드 관련 기록이 대부분임.
- 서울의 상징과 관련된 정보소통광장의 기록은 서울브랜드 사용지침, 서울브랜드 홈페이지 개편(안), 서울브랜드 위원회 위원추천, 서울브랜드 사용승인 알림, 서울브랜드 기념품 구매, (2017)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2015) 등임.

■ 유관기관 기록

● 해당기록 없음.

■ 협치기록

● 협치기관으로서는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아이서울유 프렌즈가 파악됨.

●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는 민간기업종사자, 교수, 연구원 등 브랜드 관련 각 분야 총 28명의 전문가들이 '서울대표브랜드개발'이라는 목표로 구성된 단체임.
-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는 '서울얼굴가꿈단', '모두의 서울 브랜드창작단'등의 하부조직을 운영, 브랜드 관련 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음.
- 보유기록은 다음과 같음.
  - (연구자료) 서울시 도시브랜딩전략 연구, (연구자료) 서울마케팅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 상징물 현황 및 연혁, (서울시) 구 휘장 및 캐릭터 변천이력, (서울시)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2010.1. 개정), (연구논문) 서울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서울시 제정 서울색 활용에 대한 디자인 실무자들의 의식 연구, 서울마케팅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도시 브랜딩을 중심으로(2006), 2010 서울시 도시브랜딩 전략 연구
- 아이서울유 프렌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서울시의 브랜드인 아이서울유를 홍보하는 단체임. 관련 사진자료, 활동 기록을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아이서울유 프렌즈 SNS (https://www.facebook.com/iseoulufriends/)

▪ 민간기록

- 서울상징물에 관한 민간기록은 서울시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모을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의 상징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념품 및 구매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의 상징물 변화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꼈던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기록을 수집할 필요가 있음.

2.2.9.3. 민관의 상호부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① 주요테마와 배경: 서울시 창작공간 설립 배경

▪ 사회적인 문제의 복잡화, 시민요구의 다원화에 따라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이 한계가 있는 한편, 시민사회의 역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영향력 및 활동범위가 증대되어 역할을 하고 있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지닌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불안정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임.

▪ 서울시 역시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정부부문과 시민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었음고,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가 협력을 축으로 공익증진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을 이해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촉진과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였음.

▪ 서울시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입각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당해 목적을 달성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 〈표 37〉과 같으며 관련된 처리과는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관광과,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민간협력담당관, 재난대응과, 건축기획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행정국 행정과 등이 있음.

〈표 36〉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검색어	검색결과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지원사업	수량: 386건 · 청도문서고: 0건 · 서울 본관 문서고: 383건 · 서울 서소문 문서고: 3건

● 청도 문서고: 0건

● 서울 본관 문서고: 383건

- 서울 본관 문서고에 있는 기록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에 관한 기록,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업실행계획서 등의 기록이 있음

  - 5년 (5건): 2006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시정참여사업평가, 2008 비영리민간단체시정참여사업중간실적보고서(문화복지연대), 2009 비영리민간단체시정참여사업평가단회의자료, 비영리민간단체지원철(1), 비영리민간단체지원철(1)

  - 10년 (18건): 비영리민간단체(불자약사보리회), 비영리민간단체(한국약물상담가협회), 비영리민간단체관련철, 비영리민간단체실태조사철, 2001-2011년비영리민간단체일반관계철, 비영리법인등표본세무조사관계철(1), 비영리법인등표본세무조사관계철(2), 2005 비영리민간단체시정참여공모사업 온고지신(溫故知新)따뜻한세상만들기사업보고서(청소년폭력예방재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성과분석및발전방안연구, 비영리민간단체의역량및공익사업성과평가에관한연구, 서울시와비영리민간단체의파트너십강화와역량평가에관한연구,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2007, 2004 비영리민간단체시정

참여사업공익사업선정위원회평가소위원회회의록, 2005 비영리민간단체시정참여사업평가용역(학술용역계약서), 2007 비영리단체시정공익사업평가단방문중간평가보고, 비영리민간단체실태조사관계철(1), 비영리민간단체실태조사관계철(2), 비영리민간단체실태조사관계철(3)

- 30년 (3건): 2008년비영리민간단체시정참여사업추진실적보고서(1)((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아나기비영리단체등록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업무편람

- 영구 (81건):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언사업사업실행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철, 비영리법인설립허가관계철,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관계철 등의 기록이 있음.

- 준영구 (276건),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관계철, 비영리민간단체말소관계철,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관련제출서류-활동실적현황 등의 기록이 있음.

- 서울 서소문 문서고: 3건
  - 영구 (2건): 서울시와 비영리민간단체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업평가에 관한 연구, 2006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시정참여 사업촉진현황(2)
  - 준영구 (1건):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1)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 분석
  -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카드 분석 결과 서울의 상징에 대한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 67개, 67개의 단위과제 카드가 도출됨.
  - 이 중 보존기간 10년 미만의 기록은 8개 단위과제, 8개 단위과제 카드로 비영리법인관리시스템운영,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리 등임.
  - 30년 이상 장기보존기록은 59개 단위과제, 59개 단위과제 카드로 비영리민간단체관리,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및 변경, 비영리민간단체등록관리, 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변경관리, 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지원,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일반 등임.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앞서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지원사업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검색결과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지원사업 관련 문건들이 대부분임.
  - 2014년부터 관련 문건이 존재하며, 현재에도 생산되고 있는 중임.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약정 체결, 2017년 비영

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제출 등의 문건이 존재함.

- 유관기관 기록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은 '서울시NPO지원센터'로 확인됨.
- 협치기록
  - 해당기록 없음
- 민간기록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기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의 기록물을 수집할 필요가 있음.

2.2.10. 주택/도시계획영역 선별지침

2.2.10.1. 주택/도시계획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주택/도시계획 영역 선별지침은 총 4개로 '서울로7017', '주거복지의 상징, 회현시민아파트', '시민의 품으로, 용산공원', '공원의 탄생: 서울시 도시공원의 역사기록'임.
- 이중 집중수집대상 선별지침은 '서울로7017'이며,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주거복지의 상징, 회현시민아파트', '시민의 품으로, 용산공원', '공원의 탄생: 서울시 도시공원의 역사기록'임.
- 주택/도시계획영역 선별지침 중 집중수집대상인 '서울로7017'의 선별지침의 구성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2.2.10.2. 집중수집대상 - 서울로7017

① 주요테마와 배경: 서울로7017 정책

- 서울역 고가도로의 역사
  - 1900년 경인선과 남대문 정거장이 설치되고 1925년 경성역이 준공된 후 서울역과 철도는 회현동과 중림동, 청파동 지역을 서로 가로막는 벽처럼 자리하고 있었음.
  - 서울역 고가 도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제14대 서울시 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에 의해 계획되었음.

- 당시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된 서울역 고가는 서울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계되어, 1969년 3월 19일 착공하여 1970년 8월 15일에 개통되었으며, 서울역 북쪽의 왕복 2차선 고가도로로, 퇴계로와 만리재로, 청파로(청파동→퇴계로, 퇴계로→중림동)를 바로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해왔음.



〈그림 52〉 서울역 고가도로 조감도

- 당시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된 서울역 고가는 서울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계되어, 1969년 3월 19일 착공하여 1970년 8월 15일에 개통되었으며, 서울역 북쪽의 왕복 2차선 고가도로로, 퇴계로와 만리재로, 청파로(청파동→퇴계로, 퇴계로→중림동)를 바로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해왔음.

- 서울역 고가는 1970년대와 8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남대문 시장과, 청파·만리동 일대의 봉제공장 상인들이 짐을 싣고 나르는데 든든한 역할을 하는 등 산업화의 한 동력이 되었음.
- 뿐만 아니라 서울역을 휘감고 도는 고가 도로의 위용은 지방에서 상경한 이들에게는 서울의 첫 얼굴이었고, 45년 동안 고가 도로를 지나온 서울시민에게는 추억이 담긴 서울길 중 하나였음.
- 그러나 1995년에는 서울역 고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더불어 서울역고가의 교통처리능력 및 도시미관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1998년 9월부터 13톤 이상의 화물트럭의 운행이 제한되었음.
-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고가도로의 바닥판인 슬래브가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2006년 서울시의 안전진단에서 다시 D등급의 결과가 나오자, 2007년 서울시는 '2009년에 고가를 철거하고 2011년 말까지 재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으나,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의 디자인 서울 사업,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사업[21]과 연계되면서 철

거가 계속 미뤄졌음.

- 2012년 서울시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과 함께 '잔존 수명이 2~3년 남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2013년 감사원의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주요 부위에 상당한 손상이 있고 바닥판 두께 손실도 심각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와 '근본적인 보수·보강 조치와 교량 철거 등의 근본 대책의 조속한 시행'이 촉구됨.
- 2014년 1월에는 실제로 고가의 바닥판 콘크리트가 탈락해 하부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4년 2월 총 시설물의 노후화와 감사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역 고가의 조기 철거를 검토하기에 이름.
- 서울역 고가도로가 위치한 서울역 일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교통의 중심지었고, 이에 따라 주변의 상권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지역의 주요 역사문화 유산들이 인접해있음.
- 또한 근대 문화유산인 구 서울 역사를 포함해 퇴계로 방향으로는 서울성곽과 이어진 남산육교가 맞대고 있고, 한양의 도성 문이었던 남대문과도 근접했으며, 중림동 방향으로는 약현성당 및 서소문 공원이 위치하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나 국립극단, 손기정 체육공원, 남산 공원 등의 많은 역사문화자원들이 서울역 고가도로로부터 1km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3년 3월에 '2015년 말까지 서울역 앞 교차로와 만리재로 사이에 길이 410m의 4차선 고가도로를 새로 완공하고 그 즉시 기존 고가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그러나 2014년 5월 서울역 고가에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와 같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민선 6기 공약으로 채택되어져 서울시 내부에서 검토되었고, 같은 해 9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답사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고가도 하이라인과 같이 철거하는 대신 재생하여 공원화시키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함.

21) 2008년 코레일은 방치도니 서울역 북부를 개발해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사업을 구상하면서,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짓고, 호텔, 공원 등의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마련. 이때 컨벤션 센터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서울역 고가차로를 대체할 고가도로도 계획되어 있었음.



〈그림 53〉 박원순 시장 뉴욕 서울역 공원화 사업 발표

■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전개

- 프로젝트가 발표된 직후부터 서울역 고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은 서울시의 급작스러운 발표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크게 반발했으며, 특히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거셌음.
- 여론의 반대에 부딪힌 서울시는 지역주민과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의 소통을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게 됨.
- 특히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가 실현이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4년 10월 12일 시민사회단체인 고가산책단과 함께 '고가개방행사'를 진행하게 됨.
- 행사 당일 고가 위에는 총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직접 고가를 거닐고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고가 밑에서는 지역주민 및 상인들이 반대시위를 열었음.
- 서울시는 고가개방행사와 함께 '서울역 고가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였지만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으며, 결국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이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 및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힘.[22)]
- 이는 2015년 1월 발표된 기본계획인 '서울로7017 프로젝트'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적인 재생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음.

22) 2014년 11월 13일, 박원순 시장 JTBC와의 인터뷰에서(URL:https://www.youtube.com/watch?v=S9Y14YRSn_o)



〈그림 54〉 2014년 10월 12일 1차 고가개방행사 모습

-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사업이 발표된 해인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까지 현장 방문·면담 203회, 간담회·토론회 158회, 전문가 자문 91회, 그 밖의 활동 158회를 포함해 총 600여 차례에 걸친 소통을 추진해왔다고 밝힘.
- 2015년 3월에는 '서울로7017 시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조취를 취하였는데, '서울로7017 시민위원회'는 이해당사자 그룹을 비롯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서울역 프로젝트 및 도시재생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위원회 조직이었음.
- 특히 박원순 시장은 2015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현장시장실과 정책토론회 및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는데, 4월 17일 중림·회현동을 시작으로 18일은 청파동, 19일은 공덕동을 직접 둘러보며 프로젝트에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들음.
- 현장시장실이 운영된 2박 3일 동안 총 23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현장브리핑 2회, 청책토론회 2회, 주민대표와의 현장 민원실 2회에 걸쳐 열렸으며, 당시 현장시장실 운영과정은 라이브서울을 통하여 생중계되기도 했음.



〈그림 55〉 박원순 시장 현장소통 모습

- 당시 접수된 39건의 민원(용산구 27건, 마포구 12건)들은 현장시장실 논의안건으로 관리되어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로 보내져 처리되는 등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였음.

■ 고가개방행사

- 한편 고가개방행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는데, 당시 고가 위를 걸었던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걸을만하다' 등이었음.
- 1차 고가개방행사는 공원화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일부 전문가들이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
- 2차 고가개방행사는 서울로7017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2015년 5월 10일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15시까지 '서울역고가 두 번째 만남-고가에서 봄'을 주제로 개최됨.
- 3차 고가개방행사는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고가산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당시 서울역 고가도로에 대한 차량의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고가 상판 철거공사를 앞두고 있었음.



〈그림 56〉 2차, 3차 고가개방행사 포스터

- 3차 고가개방행사에서는 시민들이 기본 설계안을 직접 살펴보고, 분필 등으로 시설의 설계와 시설에 대한 요청이나 제안을 자유롭게 그리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됨.

■ '서울로7017 프로젝트'

- 서울시가 철거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도시재생이라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됨과 함께, 하이라인 파크라는 뉴욕의 폐 고가철로의 공원화사업의 성공이 하나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임.
-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서울역고가 재활용 사업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역 일대의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하고 수목을 통해 녹지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게 됨.
-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2015년 1월 '서울로7017 프로젝트'라는 공식 사업 명을 발표함.
- '서울로7017 프로젝트'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교량을 보강하고,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였으며, 서울역 고가도로를 '사람길'로 재탄생시키고, 서울역 일대 지역 활성화와 함께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였음.



〈그림 57〉 서울로7017 프로젝트

- 공식명칭 '서울로7017'은 ① 1970년에 만들어져 2017년 다시 태어난 역사적 고가도로로, ② 1970년 차량길에서 17개의 사람길로 재탄생, ③ 1970년대 만들어진 17m 높이의 고가도로라는 의미를 내포함.
- 서울시는 서울로7017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였는데, 프로젝트의 설계는 노후화된 고가도로와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조경·구조 분야의 협업형태로 진행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설계공모는 근대 산업유산을 되살리는 노하우를 지닌 국내·외 초청작가 7명을 선정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국제 지명초청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네덜란드 건축가인 비니마스(Winy Mass)의 '보행길을 수목원으로(Green City Project)'를 주제로 한 '서울수목원(The Seoul Arboretum)'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됨.
- 주요한 특징으로는 퇴계로와 중림동까지에 걸친 고가도로 위에 국내 수목을 가나다순으로 심고, 램프는 나뭇가지에 비유해 시가 발표한 17개의 보행길을 유기적으로 연계함.
- 또한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 구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NGO단체인 고가산책단과도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 5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 계획」이 발표됨.
-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1단, 2반, 5개 팀으로 구성된 기획단에 총 24명의 공무원을 배치함.
- 기획단의 주요업무는 ① 사업 총괄 및 조정, 회의 개최, ② 설계공모 등 설계 및 공사총괄 조정, ③ 서울역 일대 도시 관리 및 재생계획 총괄지정, ④ 현장소

통 및 홍보 등의 거버넌스 운영(시민위원회) 등임.

- 2016년 2월에 「제2차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는데, 지난 2015년 5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Winy Mass)의 계획안에 대하여 총 34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을 확정함.
- 이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 보행길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4월 준공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짐

■ 서울역 고가 개방 준비

- 서울시는 고가개방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역사안에 대한 추진 및 고가개방 이후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야 했음.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2016년 6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인근 지역주민들과 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
- 또한 고가 개방 이후 고가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그룹인 '초록산책단'을 구성하고, 6월 23일에는 시청 앞에 서울로7017 인포가든을 개소하여 시민들이 변화될 서울역 고가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함.
- 2016년 10월에 서울시는 보행길로 재탄생될 서울역 고가의 새로운 이름과 BI를 공개하였으며, 서울역 고가의 새로운 이름은 '서울로7017'로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길', '서울로 향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그림 58〉 서울로7017 CI

- 2017년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7017은 개장 한달 동안 203만명의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도심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음.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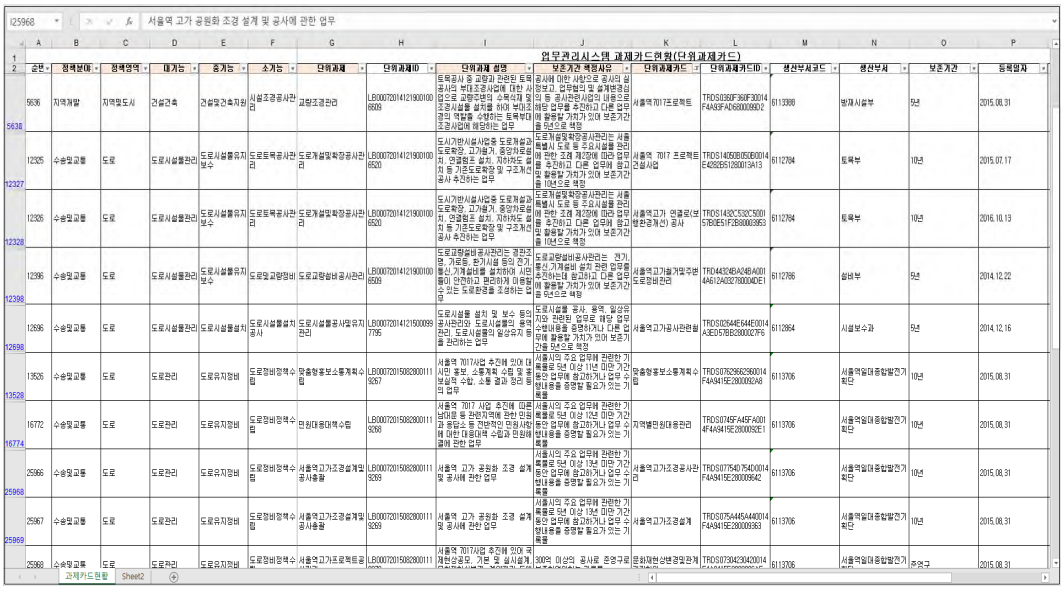
-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 〈표 37〉과 같으며, 관련된 처리과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1부,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 등 4개임.

〈표 37〉 서울로7017 관련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분석

검색어	검색결과
서울역 고가 서울로 7017	수량: 6건(문서, 시청각 자료 등) · 청도문서고: 해당없음 · 서울 본관 문서고: 6건 - 3년: 1건 건설기술심의(용역발주)관계철 제161차서울역고가도로철거 - 5년: 1건 서울역고가도로철거및주변도로개선기본및실시설계용역-설계심의용도서,신성엔지니어링/유신코퍼레이션 - 30년: 2건 서울역고가도로보수용역, 서울역고가도로철거및주변도로개선기본및실시설계용역설계도(2011.3) - 영구: 2건 서울역고가도로보수용역, 서울로7017 프로젝트 서울역고가와 연결통로 설치릉 위한 양해각서 · 서울 서소문 문서고: 해당없음

●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 분석

- 〈그림 59〉와 같이 서울로7017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 15개 단위과제에 22개의 단위과제 카드가 도출됨.
-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카드의 확인은 담당부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단위과제를 확인한 것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시정 기록이 확인됨.



〈그림 59〉 서울로7017_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 이 중 보존기간 10년 미만의 기록은 12개 단위과제, 14개 단위과제카드이고,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은 3개 단위과제, 8개 단위과제카드로 아래와 같은 유형의 기록임.

〈표 38〉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검색 결과_서울로7017

보존기간 10년 미만	보존기간 30년 이상
서울로7017 프로젝트, 서울로7017 프로젝트, 서울역7017프로젝트, 서울로7017 프로젝트 건설사업, 서울역고가 연결로(보행환경개선) 공사, 서울역고가철거및주변도로정비관리, 서울역고가공사관련철, 맞춤형홍보소통계획수립, 지역별민원대응관리, 서울역고가조경공사관리, 서울역고가조경설계, 서울역일대보행환경개선, 서울역일대활성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문화재현상변경및관계기관협의, 서울역고가프로젝트계약관리, 서울역고가프로젝트공사관리, 서울역고가프로젝트국제현상공모관리, 서울역고가프로젝트기본및실시설계관리, 계획수립및회의관리, 관계기관업무협의,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서울역 고가, 서울로, 7017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검색 결과는 아래 〈그림 60〉과 같이 대부분이 민원회신 기록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이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기계공

사 관련 업무지시 혹은 간담회 등으로 제한됨.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가칭) 추진계획(안)

문서 설명

비공개 문서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해당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안내

문서 정보

공개구분	비공개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분류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서울역고가활용계획수립		
원본시스템	서울시		
제공부서	도로관리과	작성자	권완택
전화번호		등록일	2014-11-01
저작권		생산일	2014-08-27
보존기간	준영구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059		
관리번호	D0000019820907		

〈그림 60〉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가칭) 추진계획(안)

■ 유관기관 기록

- 서울연구원 외에 서울로7017과 관련된 별도의 유관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연구원은 서울역 공원화와 관련한 분석자료 및 토론회 등의 기록을 보유(정책보고서 등)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홈페이지 및 정보소통광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연구 및 정책보고서 등으로 아래 〈표 39〉와 같음.

〈표 39〉 서울연구원 서울로7017 관련 보유기록물

서울연구원 서울로7017 관련 보유기록물
- 서울역 고가도로 활용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 서울시 고가 하부공간의 재구성 방안 연구
- 서울시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경관개선 효과 편익분석 연구
- 도로 공간재편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 행태변화
- 서울역고가 재활용 방향 설정 연구
- 서울역 고가 활용 문화프로그램 연구
- 서울로7017 시민 이용실태 및 문화연구 등

■ 협치기록

- 서울로7017과 관련한 협치기록은 서울형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13개소 중 서울역에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 도시재생 관련 홍보
  - 기타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그 중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6월 2일에 개소하여,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필두로 한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구 중림동, 회현동, 소공동, 용산구 남영동, 청파동 일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사람의 유입을 위한 역사문화적 장소성 강화, 보행친화적 장소 연결로 유동인구 확산, 맞춤형 역량강화로 자생적 재생유도라고 하는 재생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수집가능한 협치기록은 서울역 고가 공원과 관련된 워크숍과 토론회 등의 지역 주민과의 협치기록과 해당 센터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코디네이터의 활동기록 등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됨.
- 뿐만 아니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들을 처리했던 기관으로써, 관련 기록들 또한 생산·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민간기록

- 서울로7017 선별지침과 관련된 주요 민간기록은 서울역고가 시민모임인 고가산책단(현 (사)서울산책)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됨.
  - 고가산책단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들이 모여, 서울역 고가를 재활용해 보행로를 만드는데 동의하지만 서울시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2014년 9월에 발족했음.

- 고가산책단은 2014년 11월 '서울역고가 시민공모전 아이디어 발표회' 개최를 시작으로, 총 3차에 걸친 서울역고가 시민개방행사를 주관 혹은 공동 주최함.
- 이와 같은 고가 개방행사는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은 직후에 나타난 거센 반대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였음
- 무엇보다 고가산책단은 서울시가 서울역고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서울역 고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는 활동에 집중함.
- 특히 2015년 6월 이후부터, 서울역 고가 일대 지역의 주민들과 공무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기획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각 동별로, 업종별로 정례화 시키고, 시정과 민간이 만나는 〈현장소통센터〉를 만드는 등 협업을 통해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를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사)서울산책을 통하여 확인·수집 가능한 협치기록은 아래 〈표 40〉과 같음.

〈표 40〉 (사)서울산책 서울로7017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사)서울산책 서울로7017 관련 보유기록물
2015 고가산책단 활동기록
2016 인포가든
2016 초록산책단 활동기록
2014년~2015년 서울고가개방 행사 관련 기록
서울로7017프로젝트 분야별 전문가포럼
주민회의록
국제공모전 출품작
서울역7017 운영관리 방안
보고서〈ㄱ〉 창간호~4호 등

- 이 외에 서울로7017 선별지침과 관련된 민간기록으로 서울역 고가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물과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기사들이 있음.
-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 관련 연구물은 다음 〈표 41〉과 같음.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표 41〉 서울로7017 관련 연구물 현황

서울로7017 관련 연구물 현황
김지훈, 2015,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계획,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이민영, 2017, 시민참여제도로 본 참여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로701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김기호 외, 2014, 안녕! 고가도로,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김은주, 2015, 사람중심 도시재생, 서울로7017 프로젝트, 서울경제, 127: 28-36 조명래, 2015, 도시재생으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검토-재생 방법론의 관점에서, 환경논총, 56: 4-19 김현호, 2017, 공간적 실천에 대한 미디어 담론 연구: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김민교, 2015, SEOUL C' PARK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3C개념을 적용한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방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김태완, 2015, [교통계획] 서울역 고가차도 철거 및 재활용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환경논총, 56: 20-27 조경민, 2015, [시민참여] 서울역 고가는 무엇을 넘고 있는가?, 환경논총, 56: 35-40 김민재, 2015, [학생 의견] 서울역 고가, 하인라인 뺨치는 도시공원으로?, 환경논총, 56: 41-48 김지수, 김기형, 2016, 지방정부 정책의 진화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3(3): 73-100 허영섭, 2014,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서울역 고가차도, 대한토목학회지, 62(11): 58-59 박수지, 신지영, 정철, 공간구문론을 적용한 도보관광 공간구조 분석-서울역 고가도로 보행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80: 573-581 박남진, 2016, 환경디자인의 공공적 특성 연구 -서울로701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42: 39-48 등[23]

- 서울로7017에 대한 언론기사는 다음 〈그림 61〉과 같으며, 서울역 고가 공원화 계획이 발표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약 514개의 언론기사가 검색됨.[24]

URL: www.riss.kr (최종접속일: 2017.8.15.)

24) www.google.co.kr에서 서울로, 서울역 고가, 서울 7017 등의 키워드로 검색(최종접속일: 2017.8.15.)

일자	언론사	기자	기사제목	링크	비고
20140317	월간중앙	홍성태	심층분석-토장각는 도시 고가도로 역사(歷史)	http://magazine.joins.com/jmonthly/view/320990	
20140402	경향신문	배문규	[단독] 서울역 고가, 한국판 '하이라인' 되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04020000358&code=920201	
20140402	YTN뉴스	이승민	서울역 고가 공원으로 변신..간판이 관건	http://www.ytn.co.kr/_ln/0101_201404021624120588	
20140530	한국경제	윤진석	'1960년대 서울의 상징 고가도로 '역사속으로' 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3037	
20140605	라펜트	나정호	박원순 시즌2, 서울의 공원녹지는?	http://www.lafent.com/news/main_view.html?news_idx=117809	
20140726	라펜트	박지현	하이라인, 시즌-천론가 자발적 참여가 열쇠	http://www.lafent.com/news/main_view.html?news_idx=132278	
20140727	라펜트	전지은	한국판 '하이라인 진구들' 동작점 모락모락	http://www.lafent.com/news/main_view.html?news_idx=132277	
20140901	월스트리트저널	Kap S. Kwa	서울역 고가, 노후 스타일 공원으로 재탄생	http://kr.wsj.com/posts/2014/09/01/%EC%84%9C%EC%9A%B8%EC%97%AD-%EA%B3%A0%EA%B0%80-%EB%85%B8%ED%9B%84-%EC%8A%A4%ED%83%80%EC%9D%BC-%EA%B3%B5%EC%9B%90%EC%9C%BC%EB%A1%9C-%EC%9E%AC%ED%83%84%EC%83%9D/	
20140901	한국경제	강경민	서울■고가 확 바뀐다, 어떻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80132691	
20140902	라펜트	전지은	서울역고가' 건축가 출물, 설계공모 추진	http://www.lafent.com/news/main_view.html?news_idx=112560	
20140904	뉴시스	손대선	철거 대신 재생' 서울역 고가 2016년까지 도심 녹지공간으로 면모 일신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40905_0010152795	
20140904	한겨레	음성원	서울역 고가 철거않고 공중공원으로 바꾼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54036.html	
20140905	아주경제	강승훈	서울시, 철거 예정 서울역 고가 녹색 보행공간으로 재생	http://www.ajunews.com/view/20140905181527127	
20140905	프레지던트	정성훈	서울시, 938m '서울역 고가' 녹지길로 재설시킨다	http://www.vivir100.com/main/view.php?key=20140905181000620	
20140909	라펜트	전지은	서울역 고가' 국제현상공모 관리음역기관 모집	http://www.lafent.com/news/main_view.html?news_idx=113021	
20140916	한국조경	이혜경	서울시, 녹색공간 통해 도시열섬·생태계 복원한다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154	
20140917	한국조경	백석희	철거 위기 서울역고가,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나다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3	
20140924	한겨레	음성원	서울역 고가공원, 캠도마크 될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55777.html	
20140924	문화뉴스	이철한	[문화마일] 서울역 고가, 녹육 하이라인파크처럼 녹지공원으로 변신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4	
20140924	연합뉴스	이정원	<서울역 고가 '하이라인파크' 어떤 모습될까...과제는>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9/24/0500000000AKR20140924082000064.HTML	
20140926	한국조경	백석희	서울역고가 시민모인 '고가산책단' 26일 출범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233	
20140926	디멕트	최진석	서울역 고가 녹지 조성, '서울의 랜드마크로 가능할까'	http://news.tf.co.kr/read/today/1418875.htm	
20140926	동아일보		서울역 고가에 녹지 조성, '도시 조망' 반눔에 _일부 상인들은 불만 왜?	http://news.donga.com/3/00/20140926/65749301/1	
20140928	뉴시스	손대선	박원순 시장이 멤치마킹 선언한 '하이라인 파크' 가치는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40927_0010167253	
20140930	아시아경제	박슬금	서울역 고가, 한국의 '하이라인파크'로..'서울역 센트할가이' 최대 수혜지 등극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3014571467646	
20141005	조선일보		서울역고가, 이달 12일 시민개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05/2014100502044.html?Dep0=twitter&d1=20141005020044	
20141005	라펜트	나정호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첫단추가 중요하다	http://www.lafent.com/news/main_view.html?news_idx=118786	

〈그림 61〉 서울로7017 관련 언론기사 목록

2.2.11. 환경영역 선별지침

2.2.11.1. 환경영역 선별지침의 구성

- 환경영역 선별지침은 총 5개로 '원전하나 줄이기: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믿을 水? 아리수!', '근대사업유산의 재탄생, 당인리 발전소', '시민참여의 좋은 예, 간판개선사업', '차를 멈추면 하늘이 보입니다, 서울 차 없는 날', '깨끗한 물 깨끗한 서울: 물재생센터'임.
- 이중 집중수집대상 선별지침은 '원전하나 줄이기: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이며, 미수집대상 선별지침 중 일반조사 단계의 선별지침은 '믿을 水? 아리수!', '근대사업유산의 재탄생, 당인리 발전소', 기초조사단계의 선별지침은 '시민참여의 좋은 예, 간판개선사업', '차를 멈추면 하늘이 보입니다, 서울 차 없는 날', '깨끗한 물 깨끗한 서울: 물재생센터'임.
- 환경영역 선별지침 중 집중수집대상인 '원전하나 줄이기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선별지침의 구성과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2.2.11.2. 원전하나 줄이기: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① 주요테마와 배경: 원전하나 줄이기와 성대골 자립마을

- 원전 하나 줄이기(One Less Nuclear Power Plant)란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지역에너지 정책으로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국 순환정전 등 에너지 위기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4월 시작하한 정책임.[25)]

-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1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기에서 생산하는 200만 TOE만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26)]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울시의 효율적인 정책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2014년 6월 204만 TOE를 초과 달성하였음.[27)]
- 기후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는 UN 공공행정상-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촉진분야 우수상(2013년 6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주관 제2회 거버먼트 리더십 어워즈(2013년 11월)[28)],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주관 이니셔티브 Earth Hour City Challenge(EHCC) - 2014 기후변화대응 행동 우수도시상을 수상하였음. [29)]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5년간 '원전하나 줄이기'로 이룬 원전 2기 분량의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원전 17기의 폐지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가동 중인 24기 원전도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30)]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이란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사업의 새로운 명칭임. 시민과 함께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하며, 효율을 높이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으로. 서울의 에너지를 알뜰하게 살림하겠다는 의미와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 타 지역의 주민까지도 '살리는' 에너지 나눔의 가치를 추구 하는 '시민이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 '에너지 정책'을 의미함.
- 에너지 살림 도시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의 3대 가치를 가지고 있음. '에너지 자립'은 에너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책임도시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31)] 에너지 자립 과정을 통해 에너

25) 이유진,『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소비도시에서 에너지생산도시로』, 서울연구원, 2016, 28~29쪽.

26)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in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One_Less_Nuclear_Power_Plant).

27)「원전 하나 줄이기-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이란?」,『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http://env.seoul.go.kr/archives/25524);「"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시민참여 잠재력 보여줘"[전국초대석]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한국일보』, 2016년 8월 21일.

28) World Green Build Cincil 홈페이지 참조(http://www.worldgbc.org/activities/govt-leadership-awards).

29)「Seoul succeeds in WWF's Earth Hour City Challenge 2015」
(https://www.earthhour.org/seoul-succeeds-wwf's-earth-hour-city-challenge-2015)

30)「박원순 "원전 하나 줄이기 전국 확대하면 원전 대체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7년 7월 29일;「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년…전국에 노하우 전한다」,『연합뉴스』, 2017년 6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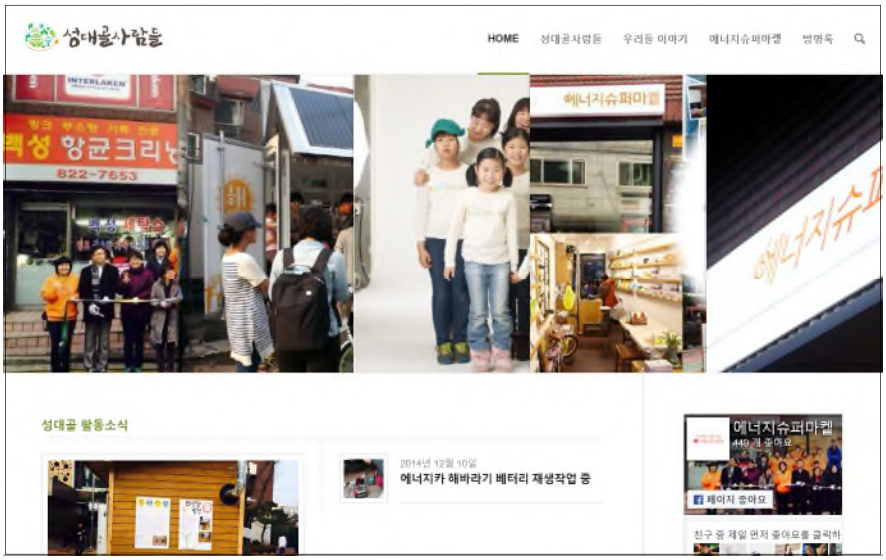
31)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생산량은 생산된 각 분야의 에너지를 석유(toe, Ton of Oil Equivalent)로 환산한 값으로1toe는 1,000

지 산업과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함

- 서울시의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1990년대 후반까지 '연료과'라는 명칭으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7년~1993년 도시가스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스과'를 별도 신설해 운영함.
-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너지 정책이 시행되었음.
- 이후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시기(1997년~2006년 6월) → 서울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시기(2006년 7월~2011년 6월)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시기(2011년 11월~2014년 6월) → 에너지 살림도시(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정책 시기(2014년 7월~2020년)로 구분됨.
- 서울시는 1990년대 하반기까지는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어려웠으나,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2007년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선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발표하고, 2009년 6월 3차 지역에너지계획(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을 발표함.
- 3차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서울을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에너지 순환형 도시, 에너지 복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가정·상업, 수송, 공공분야의 장단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35대 박원순(재임기간 2011. 10. 27 ~2014. 6. 30)시장 시기에 '원전하나 줄이기'를 대표 정책으로 실질적인 도약을 이루었음.
- 에너지소비도시로서 서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기반으로 200만 TOE 에너지 절감에 나섰음. 기후환경본부에 녹색에너지과와 시민협력반을 신설하고, 거버넌스 조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운영함
- 2014년 8월에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정책으로 에너지 살림정책을 발표하여 에너지 산업과 복지로 영역을 확대해 시민들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 에너지 살림정책은 2014년 7월부터 2020년까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정책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중점정책으로 설정해 실행에 옮겼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만 kcal에 해당.

-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자립 운동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효과적인 정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원전 하나 줄이기의 기록들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임.
- 특히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들과 연계하여 기록이 수합·제공되는 방향에 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은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자립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음.



〈그림 62〉 성대골 사람들 홈페이지 화면

-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자립운동은 2000년대를 전후한 시점부터 확대되었음.
- 2002년 1월 서울시 지역에너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0년 6월 26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치기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발족함.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 6월에는 '서울시 환경상 대상'을 수상했고, 8월에는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자립 마을의 전형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성대골 경로당 BRP프로젝트, 에너지슈퍼마켙 온라인쇼핑몰 만들기 등이 전개되었고, 이와 함께 에너지/기후변화 강사 양성과정을 직접 추진하였음. 불과 2011년만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받던 마을이 이제 직접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강의 들을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었음.

②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분석

• 시정기록을 확인한 결과,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 〈표 43〉와 같이 6개가 확인됨.

〈표 42〉 원전 하나 줄이기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검색어	검색결과
서울시 원전, 원전 하나 줄이기,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자립 마을 등	수량: 6개(문서, 시청각 자료 등) · 서울 본관 문서고: 3개 - 10년 이하: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활성화기본계획(2006.11),서울특별시,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활성화기본계획-요약보고서(2006.11),서울특별시, 서울라11376 신재생에너지저널 · 서울 서소문 문서고: 3개 - 10년 이하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신재생에너지계획(초고층 가이드라인 제14조 적용)(2011.03.), 신재생에너지 기초자료,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 사진자료-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종합 가이드맵 제작 및 설치 건물 발굴, 홍보사업-(사)에너지나눔과평화

• 관련된 처리과는 연료과, 에너지정책담당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환경본부의 녹색에너지과와 시민협력반, 거버넌스 조직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 녹색에너지과에는 에너지정책팀, 집단에너지팀, 햇빛발전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 효율화팀, 전력관리팀 등 주체가 다양하고 시기별로 변해왔음(처리과의 변화 추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자료를 수합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 분석

• 원전 하나 줄이기와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 20여개가 도출되었으며 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단위과제가 있음.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원전 하나 줄이기,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검색 결과는 아래와 같이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자립 마을'과 관련된 부분 공개 문서가 다수임.

■ 유관기관 기록

- 유관기관의 기록파악은 시정기록을 바탕으로 대상기록을 확인한 후 관련기관의 정보목록확인 및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함.
- 특히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기록의 내용을 알 수 있음.
- 재단법인 산업자원연구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서울에너지공사(2016년 12월 설립)
-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
-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https://energy.seoul.go.kr
- ENERGY살림 都市서울(http://energy.seoul.go.kr/news/#intro)
-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연구 및 정책보고서 등으로 아래와 같음.
  - '원전 하나 줄이기' 검색 시 총 5개의 관련 연구보고서가 확인 가능함.



〈그림 63〉 원전 하나 줄이기 관련 서울연구원 현황분석

- 국가기록원
  - ‘서울 원전’, ‘원전 하나 줄이기’ 검색 시 총 2개의 자료가 확인 가능함
    - 연표와 기록, 필화사건
- 자치구
  - 자치구의 경우 에너지 자립 마을 및 시민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기록을 생산하고 있음
  - 특히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시민들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수합할 필요성이 있음

■ 협치기록

- 해당기록 없음

■ 민간기록

- 신문 기사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뉴스토마토』 2009년 08월 30일.
  - 「‘에너지 절전소’ 성대골…평범한 동네가 ‘절약 메카’로」, 『한겨레』, 2015년 2월 8일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시민참여 잠재력 보여줘”[전국초대석]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한국일보』, 2016년 8월 21일.
  - 「삼척시-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우호교류 협약」, 『프레시안』 2016년 11월 1일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세계적으로 유명"-[인터뷰]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일자리 늘려야"」, 『오마이뉴스』, 2017년 3월 20일.
  - 「시민 에너지'로 '원전하나줄이기'」, 『허핑턴 포스트』, 2016년 4월 26일
  - 「박원순 "원전 하나 줄이기 전국 확대하면 원전 대체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7년 7월 29일
  - 「박원순 서울시장, “신재생에너지 100% 시대 열겠다”」, 『전기신문』, 2017년 6월 1일.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년…전국에 노하우 전한다」, 『연합뉴스』, 2017년 6월 4일.
- 참고 문헌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백서

(2010.1~2017.2」, 2017

- 이유진.『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
- 이유진,『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소비도시에서 에너지생산도시로』, 서울연구원, 2016
- 이유진,「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의 틈새전략 –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에너지시민연대,「에너지시민연대 창립선언문」, 2000년 6월 26일.
- 서울시,「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 2006,11.
- 서울시,「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 2007.
-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에너지정책담당,「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종합대책」, 2008, 6.
- 서울시,「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종합대책」, 2012.5.
- 서울시,「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1년 성과 보고서」, 2013.6.
- 서울시,「서울시에너지백서 2013」, 2014.
- 서울연구원,「서울시 에너지 소비특성 조사」, 2007.

3. 시사점

3.1. 선별지침 구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추가조사 강화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구성을 위한 광범위한 사전조사 필요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구성의 핵심은 해당 주제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출발하며, 사전조사를 통해 해당주제에 대한 기초정보의 확보가 가능함.
  - 사전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초정보는 '주제선정의 배경'에 적용되며, 선별지침을 통해 제시되는 수집대상 기록을 파악하는 것에도 도움이 됨.
  - 따라서 보유 시정기록과 더불어 다양한 문헌조사 및 포털사이트 조사 등을 통한 주제별 기초정보 조사가 강화되어야 함.
- 서울시 보유 시정기록의 세부 내용 파악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핵심기록은 시정기록으로 서울시에서 생산·보유한 시정기록을 바탕으로 협치기록, 시민기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정기록의 목록(문서고 보유목록)의 경우 기록물철 제목이 아닌 최소한의 기술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장기보존기록의 경우 해제집 또는 안내서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향후 서울기록화 주제선정 및 선별지침의 작성을 담당할 서울기록선별위원회 역할에 도움이 될 것임.
- 생산기록 및 미이관 기록(현용기록) 현황 파악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특징은 과거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의 주요사업과 정책을 기록화 하는 것임.
  - 즉, 수동적인 수집·이관에서 능동적인 수집·이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기록선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정책에서 생산된 기록의 세부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3.2. 유관기관 및 협치기관 보유기록 현황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보유기록 현황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기록까지도 기록화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즉 서울시에 생산·보존 중인 기록과 더불어 서울시와 연관되어(사업 및 정책

등)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기록목록 등도 파악이 요구됨.

- 따라서 유관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목록 등의 파악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주제선정 단계 또는 선별지침 개발단계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는 과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문서목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협약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협치기관 보유기록 현황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유관기관과 더불어 협치기관도 서울기록을 완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협치기관 보유기록 현황 파악을 위한 지소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협치기관 보유기록의 모니터링 체계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협치기관과 해당 처리과의 협약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음.

3.3. 민간기록 현황 파악 및 확보방안 마련

■ 서울기록을 풍부하게 하는 것 중 시정기록과 더불어 서울시 시민의 기록임.

■ 그러나 시민기록의 경우 소장자 및 보유현황에 대한 상세목록을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민간기록 특히 시민기록의 경우 주제 또는 선별지침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시정기록 및 협치기록과는 다르게 소장자(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진 이후에야 최소한의 목록 확인이 가능함.

■ 따라서 민간기록의 현황 파악 및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등의 도입이 요구됨

- 향후 오픈할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칭) 시민기록에 대한 제안’코너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시민기록 현황 파악을 추진

3.4. 선별지침 검토 및 확정을 위한 절차 보완

■ 서울기록선별위원회의 구성 방안

- 서울기록화를 위해 주제를 선정하고 선별지침을 확정하는 서울기록선별위원회의 경우 서울기록원의 업무담당자 1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남.

- 따라서 서울시의 주요문화 기관 및 주요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자 등과의 협업 구조를 마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함.

▪ 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과정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회는 주제선정의 적합성 및 선별지침(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함.
- 즉 서울을 기록화 하는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중요한 회의체이기 때문에, 각 주제 및 선별지침(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함.
-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제안 사항은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

▪ 시민협력 방식의 검토

- 서울기록선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더불어 서울을 기록하는 또 하나의 축인 서울 시민과의 협력도 요구됨.
- 서울시민은 서울기록원의 주요 고객인 동시에 수집처이기에 기록 수집을 위한 시민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함.
  - 시민소통채널은 앞서 언급한 '(가칭) 시민기록에 대한 제안'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가칭)시민참여 기록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3.5. 선별지침 상호 간의 연계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 선별지침과의 상호 연계를 위한 연계 매뉴얼 등의 개발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경우 각각의 지침이 개별적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인 동시에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할 지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예를 들어 올림픽과 관련된 사회영역의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의 경우 경제영역의 '과거와 현재의 흔적: 노점상'과 연관되는 기록 및 수집처가 발생함.
- 따라서 선별지침 상호 연계를 위한 매뉴얼 개발 또는 선별지침 목록의 별도 관리 방안이 필요함.

▪ 선별지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일회성 지침 개발이 아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필요로 함.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었더라도 추후 다시 진행되는 주제(사업 및 정책)이

경우 5년 주기로 선별지침을 검토하여 업데이트 진행하여야 함.

- 업데이트는 전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기존 지침을 파기하여서는 안 됨.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제4장
서울기록 수집

1.수집 매뉴얼 개발 및 적용

1.1.서울기록 수집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1.1.1. 수집 매뉴얼의 필요성

- 기록물관리기관이 당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물 획득(수집)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수집업무의 법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수집정책'이 요구됨.
- 수집정책은 기록물 선별을 위한 토대로 기록물의 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잘 개발된 수집정책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소장물을 구성하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함.
-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경우 수집정책 수립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울기록화 수집 전략 개발 사업'을 통해 수집정책(안) 만이 제안되어 있음.
- 특히 서울기록의 한축을 담당하는 시민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기록화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집 매뉴얼의 필요성이 요구됨.
- 또한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체제의 이관 프로세스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수집'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수집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함.
- 수집 매뉴얼은 수집정책의 수립이전 서울기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기초단계 지침으로 볼 수 있음.

1.1.2. 수집 매뉴얼의 역할

-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임
  - 서울시 시민기록 수집관리 체계 확립 및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집체계 마련
    - 서울시 시민기록 수집에 대한 규정 및 대상 확립을 통한 수집기반 수립
    - 서울시 시민기록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서울시 기록화 사업을 고려한 수집대상 기록 선별
    - 본청 및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수집절차 수립
    - 향후 운영될 서울기록원의 장기적인 기록화 사업을 고려한 수집체계 마련

- 서울시 시민기록 수집방법론의 개발
  - 시민기록 수집방법론 체계화
  - 수집 준비단계, 실제 수집단계, 수집 후 단계에 따라 수집 업무 절차 수립
  - 수집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수집방법 마련
  - 수집정책을 성문화한 서울시 시민기록 수집 규정(안) 개발
  - 시민기록 수집절차에 따른 다양한 서식 개발

1.2.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

1.2.1.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의 구성

-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은 총론, 시민기록 수집의 이해, 수집대상별 수집절차, 수집기록 저작권 정책,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음.
  - 총론
    - 총론은 수집 매뉴얼의 발간 목적을 설명하고, 수집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록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수집 매뉴얼 수립을 통하여 시민기록의 수집기반 구축, 안정적 수집 등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함.
  - 시민기록 수집의 이해
    - 시민기록 수집의 이해는 시민기록의 정의 및 유형, 기증 · 위탁 · 구매 · 대영 등 다양한 수집방법을 설명함.
  - 수집대상별 수집절차
    - 수집절차는 기관 수집 방식 및 개인소장자 수집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수집계획의 수립부터 접촉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설명함.
  - 수집기록 저작권 정책
    - 저작권정책은 서울시 저작권 보호정책에 기반한 수집기록 저작권 정책 및 기록 기증시 저작물 이용허락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음.
  - 부록
    - 부록에는 서울시 시민기록 수집 규정(안), 각종 별지서식(기록물조사활동보고서, 수집카드, 기록물기증 협약서 등)을 담아 수집시 필요한 양식 등을 제공함.

▪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제7호,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의 기록수집과 관련한 조항 및 「국가기록원훈령」 제94호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표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수집관련 조항

구분	내용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⑤ 시·도기록물관리기관,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 향후 서울기록원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운영될 경우에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수집 가능하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는 민간기록의 수집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따라서 서울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아니지만 현행 공공기록물법을 참조하여 민간기록을 수집하는 내용을 조례 또는 규정에 반영해야 함.

▪ 국가기록원의 규정을 참조하여 서울시(또는 서울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별도 또는 타 규정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1.2.2.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 상세

▪ 시민기록 수집의 이해

• 시민기록의 정의와 유형

- 시민기록은 서울시민이 서울시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으로 역사적, 문화적, 정보적 가치를 지는 모든 기록을 일컬음.

- 시민기록 유형은 아래 〈표 47〉과 같이 문서류(도면, 카드 포함), 사진류, 시청각류, 도서류, 간행물/신문류, 박물류, 전자파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가리킴.
- 시민기록의 범위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누구나 서울시와 관련된 기록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상으로 함.

〈표 44〉 시민기록의 유형

구분	유형별 기록
문서류	·서울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정 관련 각종 서류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 ·서울시 내 각종 부동산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모든 도면 ·기타 사료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면, 카드
사진류	·서울시 개최 행사뿐만 아니라 서울일원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나 사건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모든 사진·필름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필름 ·기타 사료적 가치를 지닌 사진·필름
시청각류	·영화 필름 및 각종 홍보용 필름 ·시정 관련 비디오, 오디오, 릴 필름 등으로 제작된 시청각 기록물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기타 사료적 가치를 지닌 필름 등 시청각 자료
도서류	·서울시정을 포함한 다양한 서울 관련 콘텐츠가 담긴 각종 도서 ·기타 사료적 가치를 지닌 도서
간행물/신문류	·서울시 발행 각종 간행물 ·서울시정 관련 각종 신문·잡지 ·기타 사료적 가치를 지닌 간행물·신문
박물류	·현수막, 팸플릿, 기념품 등 각종 행사용 물품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각종 박물 ·기타 사료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유형의 박물

■ 수집방법

● 기증

- 기증은 자발적 기증과 권유를 통한 기증으로 구분되며, 자발적 기증은 기록 수집을 위해 소장자와의 접촉이나 권유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식임.
- 권유를 통한 기증의 경우 기록소장자나 생산자를 추적하여 기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기록현황과 소장자, 생산자 등에 대한 정보구축이 필요함.
- 기증 시 기록에 대한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이전되기 때문에 기증자와 서울시 간에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증협약서 등을 통해 반드시 문서화 해야 함.
- 향후 지속적인 지원 확보를 위해 기증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

- 위탁
  - 위탁은 약정위탁과 개방형위탁으로 구분되며, 약정위탁의 경우 미리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종결되거나 기록물을 서울시 기록관(서울기록원)으로 기증하는 계약임.
  - 개방형 위탁은 위탁자와 서울시 중에서 한쪽이라도 계약파기를 원할 경우 파기
  - 위탁시 기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장치 등으로 위탁 전 기록의 상태를 촬영하는 것이 좋음.
  - 위탁계약서에 처분권한, 관리권한, 이용권한에 대한 내용 포함
- 사본 제작 후 반환
  - 기증 및 위탁이 불가한 기록의 수집을 위해 사본 제작 후 반환 방법을 사용하며, 반드시 소장해야 하는 기록의 경우 사본 제작을 통해 기록 수집
  - 사본 제작시 원본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는 기록의 경우, 기록의 물리적 형태를 그대로 살려 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사본 제작 방법 선택 시 보존매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 구매
  - 구매의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고 가치평가를 진행하며, 기록의 내용과 분량을 파악함.
  -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 가격 이상일 경우 심의 또는 심사 등을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하며, 매체별로 법적권한을 확인
  - 기록에 대한 법적권한을 계약서에 상세기술하고 제한적으로 구매를 진행
- 대여

- 대여는 한시적 대여와 장기대여로 구분되며, 대여양식을 기재하고 보내졌을 때와 회수되었을 때 기입
- 사본으로 제작된 기록의 소유권 여부 확인하며, 명확한 대여기간을 정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기증으로 전환 유도

● 기타

- 협상에 의한 기록 수집

■ 수집대상별 수집절차

● 소장기관 기록 수집

- 수집계획 수립: 선별지침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기초조사
- 접촉기관 선정: 소장하고 있는 수집대상 기록에 대한 사전 평가 등을 통해 우선 접촉대상 구분 및 사전전화 접촉 후 안내자료 또는 공문 발송

〈표 45〉 접촉 목적에 따른 내용 및 예시

접촉목적	구분	설명
방문	내용	·방문대상 기관에서 사전에 방문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을 경우, 효과적인 수집활동 가능 ·방문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예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서 소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에 대해 설명 ·방문일정 조율 및 협의
	예시	·발신자 소개: 발신자 소속 및 이름 등 소개 ·전화접촉 취지 설명 방문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방문일정 협의(방문하고자 하는 일정을 먼저 문의하고, 방문이 불가할 경우 가능한 일정을 협의), 전화 접촉 후 방문 계획서 발송(방문 목적, 내용, 인터뷰 질문, 수집대상 기록 목록 등 기관 방문시 진행할 내용 등을 계획서로 작성하여 발송)
수집활동 홍보	내용	·수집활동 홍보를 위한 전화접촉의 경우, 사전에 수집 안내장을 받은 대상에게 하는 것이 효과적 ·시민기록 수집활동의 취지 설명: 수집의 목적, 수집을 통한 기대효과 ·각 기관의 인식제고 중요성 설명 ·향후 수집 대상 기록을 소장하고 있거나, 잠재적 소장자를 알고 있는 경우 연락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접촉목적	구분	설명
	예시	·발신자에 대한 소개 및 수집 목적에 대한 취지 설명은 방문을 위한 전화접촉과 동일 ·수집대상 기록에 대해 설명

- 기관접촉: 방문시 업무협의
- 교육진행 및 실사: 외부기관 수집협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진행 및 소장기록 확인
- 수집 대상 목록 작성
- 담당자 목록 확인
- 기록수집방법 협의
- 목록 수집
- 수집기록 Packing
- 기증확인서, 위탁확인 작성 및 발송

〈표 46〉 방문시 유의사항

구분		용도
일정계획		·시간안배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 ·인터뷰 위주의 방문 시 효율적인 시간 안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인사 파악, 반드시 얻어야 할 정보 파악 필요
인터뷰 계획	대상분석	·인터뷰 대상(기관)에 대한 연혁, 업무 또는 관계법령 등의 사전조사 ·인터뷰 대상(개인)이 소속했던 기관, 근무년수 및 담당업무 등의 사전조사 ·사전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질문 대비
	대상 사전교류	·분석을 통해 나온 인터뷰 주제 및 목적에 대한 통보 ·관심 대상처(자)의 사전준비 가능(예: 소장 기록물 준비, 정보공유)
인터뷰 실시	인터뷰 목적 및 계획 전달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지 알지 못함 ·개략적인 브리핑을 통한 목적 숙지 ·인터뷰 시간 협의: 인터뷰 대상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인

구분		용도
		터뷰 시간 확정
	인터뷰 진행 인터뷰 종료	·준비한 질문목록을 참고하여 상황에 적합한 질문 유도 ·원하는 대답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답 유도(예: “수집대상 기록으로 다른 분들은 개인 급여명세서, 기관 표창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었다. 이런 것들도 수집대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실한 대답에 감사 표현 ·향후, 재방문 또는 재접촉 시 협조 요청

- 개인소장자 기록수집
  - 수집계획 수립: 선별지침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기초조사
  - 접촉대상자 선정: 소장하고 있는 수집대상 기록에 대한 사전 평가 등을 통해 우선 접촉대상 구분 및 사전전화 접촉 후 안내자료 또는 공문 발송
  - 개인소장자 접촉: 방문시 업무협의를 진행하며 개인소장자의 경우 방문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
  - 방문일정 및 장소 등의 협의: 방문 장소는 되도록 대상자의 자택으로 협의하며, 소장자가 수집대상 기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록까지 확인하여 수집
  - 수집 대상 목록 작성 및 선별
  - 기록수집방법 협의: 기록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출판권 등의 법적 권한까지 이관하도록 유도하며 원본 기증이 불가할 경우 사본 기증 유도
  - 기증이 불가할 경우 위탁을 유도하며,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기록구매 검토
  - 수집기록 Packing
  - 기증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작성 및 발송

기록물기증 및 제보신청서

※ 기록물 기증 및 타인기록 소재정보 제보 중 선택(■) 후 작성해주세요.

신 청 자 (필수)	성 명	
	주 소	
	연락처	
□ 기증신청	기록물 설명	(생산년도, 형태, 수량, 내용설명 등 기증 기록물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저작물 이용 허락 (CCL)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1. 공유하는 저작물에 변경을 허락합니까? □ 예 □ 아니오 □ 예, 단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2. 영리 목적 이용을 허락합니까? □ 예 □ 아니오
□ 타인기록 소재정보 제보		※ 본인이 소장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광장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인이나 기관의 기록물 소재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추후 저희 서울시에서 해당 소장처(자)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소장정보에 대한 간략한 정보(소장자, 소장위치, 소장자연락처, 해당 기록물에 대한 설명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울광장 시민기록물 수집' 참여 관련사항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기증일 ~ 기록물 폐기일까지
4.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신청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광장 기록 기증에 제한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담당자 : 정보공개정책과 T. 2133-5596

※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요 □)

위 기록물(소재정보)을 서울특별시에 기증(제보신청)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자	

〈그림 64〉 기록물 기증 및 제보신청서(예시)

■ 수집기록 저작권 정책

● 정보소통광장 저작권 보호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서울시 혹은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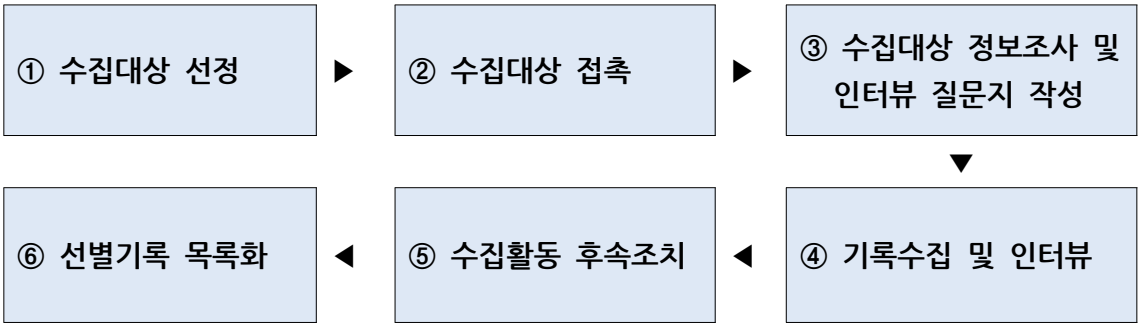
산하기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

-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C BY 유형" 혹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공공누리 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CCL이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 및 변경금지, 비영리목적 사용 등의 저작권이 적용된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야 함.
- 서울시가 웹에서 제공 중인 자료 중 서울시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함.

2. 서울기록 수집

2.1. 서울기록 수집 절차 및 현황

▪ 서울기록을 수집하는 절차는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을 준용하여 〈그림 65〉와 같이 수집대상선정 – 수집대상 접촉 – 수집대상 기초정보 조사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기록수집 및 인터뷰 – 수집활동 후속조치 – 선별기록 목록화 과정으로 진행됨.



〈그림 65〉 서울기록 수집절차

① 수집대상 선정과정은 서울기록 선별지침에 따라 협치기관 및 민간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로 선별지침에서 제시된 협치기관 및 민간의 기록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우선 수집대상을 선정하는 것임.

② 수집대상 접촉은 수집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기록 수집에 대한 설명과 수집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는 과정으로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진행하며, 다회 접촉을 진행하여 사전협의를 하는 단계임.

③ 수집대상 정보조사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단계는 수집에 응하기로 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추가정보 조사 단계로 선별지침에서 제시된 기초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수집처에 제공하는 단계임.

④ 기록수집 및 인터뷰는 수집처(대상)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비전자기록을 수집하는 동시에 기록에 대한 맥락정보파악 등을 진행하는 단계임.

⑤ 수집활동 후속조치는 실물수집된 기록의 기초정리를 진행하는 단계로 무질서하게 수집된 기록의 질서를 부여하는 1차 단계이며, 수집목록을 작성함.

⑥ 선별기록 목록화는 수집을 통하여 작성된 수집목록을 수집처, 수집일시, 기록물명, 수량 등의 메타정보를 부여하여 기록의 질서를 부여하는 단계임.

▪ 본 사업에서는 통해 수집되어 정리된 기록은 아래 〈표 58〉과 같이 총 11,265건으로 비전자기록 805건, 전자기록 10,460건 등임.

- 수집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진이미지가 총 7,0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서류가 1,399건, 동영상 파일이 1,001건으로 그 다음을 기록하였음.
- 사진 및 영상 등 대량 수집은 '블랙텐트'의 공연 사진 및 영상 등을 다수 수집하였기 때문임.

〈표 47〉 서울기록 수집현황

주제	수집처 명	전자				비전자				계
		TEXT	IMAGE	VIDEO	AUDIO	문서류	박물류	도서류	음성류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박근혜정권 퇴진운동 본부					490	67	1	1	**559**
	블랙텐트	12	6,813	965						**7,790**
	촛불기록수집단		779	53		1	135	20		**988**
서울로 7017	서울산책	2,374	247	30						**2,651**
원전하나 줄이기	성대골	3		1	1			1		**6**
상계동 올림픽	양연수					1	1	2		**4**
목동 철거민	목화마을 및 복음자리		13	1	1			2		**17**
비영리민간 단체지원	서울시NPO 지원센터		4	1			6	8		**19**
서울의 상징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2	1	1	64		4		**72**
여성 안심특별시	서울여성 가족재단				1					**1**
계		**2,389**	**7,858**	**1,052**	**4**	**556**	**209**	**38**	**1**	**12,107**

2.2. 일반수집

2.2.1. 수집 현황

2.2.1.1.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 수집대상 선정
  - 서울기록 선별지침 일반행정 분야 '서울의 상징'의 선별지침에 따라 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수집대상 협치기관에 대한 사전 접촉 진행
    - 선별지침에 따라 사전 접촉 대상은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 '모두의 서울 브랜드 창작단', '서울 얼굴가꿈단', '아이서울 프렌즈' 총 4곳임.
    - 각각의 수집대상에 대한 개별연락을 통해 수집 가능여부 등을 검토
    - 4곳의 수집처 모두 현재 활동을 종료한 기관으로 접촉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음.
  - 이중 '모두의 서울 브랜드 창작단', '서울 얼굴가꿈단', '아이서울 프렌즈'의 경우 실제적인 접촉(전화, 이메일 등)이 어려운 관계로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접촉이 가능했던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를 수집대상을 선정
- 수집대상 접촉
  - 활동이 종료된 협치기관의 기록 수집을 위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협치기관의 담당자 조사
  -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하여 당시 위원장인 '김민기' 숭실대교수 확인하여 접촉
    -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수집가능여부 및 인터뷰 의사 사전 타진
    - 인터뷰를 위한 녹화 및 녹취 동의
    - 사업 안내자료 발송 및 미팅 일시 확정

〈표 48〉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기록수집 활동

번호	일자	접촉방법	접촉내용
1	20170725	전화	전화 미수신
2	20170727	전화	전화 번호 오류
3	20170727	전화	숭실대학교 언론학과 사무실 연결
4	20170727	이메일	안내자료 발송, 재접촉 예정
5	20170727	전화	사업내용 설명
6	20170727	전화	안내자료 재요청, 방문일정 확정, 녹화/녹취 협의 필요
7	20170727	이메일	안내자료 발송 및 재접촉 예정
8	20170728	전화	안내자료 수령 확인 및 방문일정 재확인, 녹화/녹취 동의
9	20170801	전화	방문 일정 오인으로 재조정
10	20170807	방문	기록수집 및 인터뷰(녹취/녹화) 진행

- 수집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기록수집에 앞서 선별지침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수집대상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함.(홈페이지: http://seoulbrand.go.kr)
    - 시민이 만드는 서울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기초정보(구성과 활동, 조직연혁, 보유예상 기록물 등)를 담은 기초정보 조사지를 작성
  - 원활한 기록수집과 기증을 위하여 사전인터뷰 질문지를 작성
    - 주요 질문은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주요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

〈표 49〉 시범수집 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질문지(안)_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구성과 활동〉

- 서울대표브랜드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 종사자, 교수, 연구원 등 브랜드 관련 각 분야 총 28명의 전문가들이 '서울 대표 브랜드 개발'을 위해 모임
- 전체회의 , 수시 집중회의 등 시간과 장소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울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자 논의 함

〈조직연혁〉

2014년 10월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전체회의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총괄분과 1차 회의
11월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총괄분과 2차회의

〈담당자 연락처〉

〈보유예상 기록물〉

- 2015년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 'I.SEOUL,U'를 제정 - 관련 기록물
- 인터뷰를 통한 기록물 확보

인터뷰 내용

회의일시	2017년 8월 7일(월) 11:00	**회의장소**	
참 석 자			
질문안건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의 활동과 활동기록		
개요			
주요 질문 사항	1.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활동 •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것이며, 주요활동은 무엇입니까? 2. 시민들의 참여로 새롭게 만들어진 I.SEOUL.U가 지니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 전문가 주도에서 시민 참여형(거버넌스 중심)으로의 변화 이외의 의의 3. 시민 공모 등을 통해서 접수된 기록 등 및 심사관련 기록 등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4. 공식적으로 진행된 회의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회의록 등)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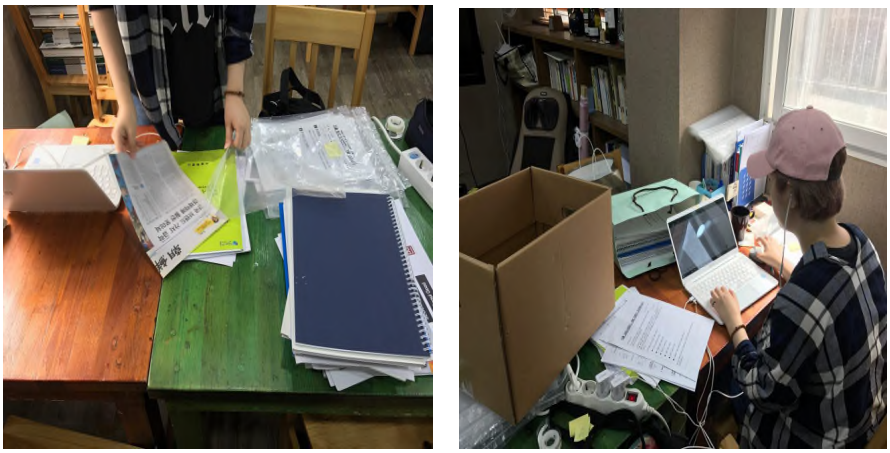
- 기록수집 및 인터뷰
  - 일시: 2017년 8월 7일(월) 11시 ~ 11시 45분
  - 장소: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사)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의실
  - 방문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박종연 팀장, 장형오 연구원)
  - 수집 및 인터뷰 결과
    - 수집기록: 문서 및 간행물 총 68점(1상자 분량) 및 구술기록
    - 수집 제외 기록: 없음



〈그림 66〉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김민기위원장 인터뷰

  - 협의사항
    - 기록물기증 및 제보신청서 1부 작성
    -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1부 작성(구술자 요구사항 없음)
- 수집활동 후속조치
  - 수집 기록에 대한 인수인계용 목록작성
  - 인수인계서 전달 및 인수인계용 목록 상호 확인
  - 수집기록 목록화 및 정리
    - 문서 64건 및 간행물류 4건 등 총 68건
- 선별기록 목록화 진행
  - 수집된 기록을 건 단위로 목록화 및 상자편성을 진행함 (1차 분류)
    - 작업단위: 건 단위

- 항목: 임시번호, 수집일자, 생산자(처), 기록물 제목, 형태, 복본수량, 임시상자번호, 수집상자번호, 비고
- 작업결과: 68건의 기록이 1개 상자에 편성됨.



〈그림 67〉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기록물을 선별 및 목록화 하는 모습

▪ 구술기록 정리

● 수집활동을 통해 확보한 구술기록의 정리

- 구술기록(동영상): 41분 47초
- 유형: MP4
- 수량: 1
- 용량: 909MB
- 출처: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 저장매체: 외장하드(WD Elements 25A2)
- 주요 색인어: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김민기, 서울상징
- 비고: 별도 녹취파일 존재
- 구술기록(음성): 46분 33초
- 유형: MP4
- 수량: 1
- 용량 :21.3 MB

임시 번호	수집일자	생산자(처)	기록물 제목	형태	복본 수량	임시 상자 번호	수집 상자 번호	비고
1	2017.08.07.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서울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 검토보고 〈2014. 9. 5.〉	문서류	0	1	C1(1)	
2	2017.08.07.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서울브랜드 현황 및 해외도시 사례	문서류	0	1	C1(1)	
3	2017.08.07.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서울 상징(브랜드) 개발 전문가 인터뷰(서면)	문서류	0	1	C1(1)	
4	2017.08.07.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워크숍 자료집	문서류	0	1	C1(1)	'문서 끼워져 있음 ('서울을말하다'토크콘서트(안)/추가위촉위원후보)

〈표 50〉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선별·수집 기록 목록 예시

2.2.1.2. 서울시 NPO지원센터

- 수집대상 선정
  - 서울기록 선별지침 재정 분야 '민관의 상호부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따라 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수집대상 협치기관에 대한 사전 접촉 진행
    - 선별지침에 따라 사전 접촉 대상은 '서울시 NPO 지원센터'로 한정되었음.
    - 수집대상에 대한 연락을 통해 수집 가능여부 등을 검토
- 수집대상 접촉
  -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홈페이지 검토 및 유선연락을 통하여 담당자 접촉
  -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경우 아카이브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업무담당자가 존재함.
    -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수집가능여부 및 인터뷰 의사 사전 타진
    - 인터뷰를 위한 녹화 및 녹취 동의
    - 사업 안내자료 발송 및 미팅 일시 확정

〈표 51〉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록수집 활동

번호	일자	접촉방법	접촉내용
1	2017.07.25.	전화	사업내용 안내 및 사업안내자료 제공
2	2017.07.27.	이메일	안내자료 발송 및 재접촉 예정
3	2017.07.27.	전화	안내자료 수령 확인 및 방문일정 확정, 녹화/녹취 협의 필요
4	2017.07.28.	이메일	방문일정 재확정
5	2017.08.07.	방문	기록수집 및 인터뷰(녹취) 진행

- 수집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기록수집에 앞서 선별지침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수집대상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함(홈페이지 :http://www.seoulnpocenter.kr/)
  - 서울시 NPO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초정보(구성과 활동, 조직연혁, 보유예상 기록물 등)를 담은 기초정보 조사지를 작성
  - 원활한 기록수집과 기증을 위하여 사전인터뷰 질문지를 작성
    - 주요 질문은 아카이브의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주요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기록수집 및 인터뷰
  - 일시: 2017년 8월 7일(월) 14시 ~ 15시 30분
  - 장소: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2층 회의실
  - 방문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박종연 팀장, 장형오 연구원)
  - 수집 및 인터뷰 결과
    - 수집기록: 문서 및 간행물 총 15점(1상자 분량) 및 구술기록
    - 수집 제외 기록: 없음
  - 협의사항
    - 기록물기증 및 제보신청서 1부 작성
    -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1부 작성(구술자 요구사항 없음)



〈그림 68〉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록물

- 수집활동 후속조치
  - 수집 기록에 대한 인수인계용 목록작성
  - 인수인계서 전달 및 인수인계용 목록 상호 확인
  - 수집기록 목록화 및 정리
    - 박물류 7건 및 간행물류 8건 등 총 15건
- 선별기록 목록화 진행
  - 수집된 기록을 건 단위로 목록화 및 상자편성을 진행함.(1차 분류)
    - 작업단위: 건 단위
    - 항목: 임시번호, 수집일자, 생산자(처), 기록물 제목, 형태, 복본수량, 임시상자번호, 수집상자번호, 비고
    - 작업결과: 15건의 기록이 1개 상자에 편성됨



〈그림 69〉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록물을 선별 및 목록화 하는 모습

- 구술기록의 정리
  - 수집활동을 통해 확보한 구술기록의 정리
    - 구술기록: 52분 9초
    - 유형: MP4
    - 수량: 1
    - 용량: 23.9MB
    - 출처: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 저장매체: 외장하드(WD Elements 25A2)
    - 주요 색인어: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 비고: 사단법인 시민
- 추가 수집대상 기록
  - 사단법인 시민 활동기록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모법인 사단법인 시민의 기록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기록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함께 활동 중인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기록
    - 아카이브랩 (https://www.facebook.com/archivelab) 등

〈표 52〉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선별·수집기록 목록 예시

임시 번호	수집일자	생산자(처)	기록물 제목	형태	복본 수량	임시 상자 번호	수집 상자 번호	비고
1	2017.08.07.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2017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용설명서: 만들다	도서/간행물류	0	1	C1(1)	
2	2017.08.07.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NPO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2016	도서/간행물류	0	1	C1(1)	
3	2017.08.07.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비영리실무노하우 BEST	박물류	0	1	C1(1)	
4	2017.08.07.	서울특별시 NPO 지원센터	미트쉐어 Meet Share - 이런 서울에서 살고 싶다?	박물류	0	1	C1(1)	미트쉐어 모임형 이용방법

2.2.1.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수집대상 선정
  - 서울기록 선별지침 안전 분야 '여성이 안심인 도시: 여성안심특별시'에 따라 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수집대상 협치기관에 대한 사전 접촉 진행
    - 선별지침에 따라 사전 접촉 대상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 2곳으로 파악됨
    - 수집대상에 대한 연락을 통해 수집 가능여부 등을 검토함
- 수집대상 접촉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검토 및 유선연락을 통하여 담당자 접촉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공문 발송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아카이브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업무담당자가 존재함
    -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수집가능여부 및 인터뷰 의사 사전 타진
    - 인터뷰를 위한 녹화 및 녹취 동의
    - 사업 안내자료 발송 및 미팅 일시 확정

〈표 5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록수집 활동

번호	일자	접촉방법	접촉내용
1	2017.07.21.	전화	사업내용 안내 및 사업안내자료 제공
2	2017.07.27.	이메일	안내자료 발송 및 재접촉 예정
3	2017.07.27.	전화	안내자료 수령 확인
4	2017.07.31.	전화	담당부서 연결, 안내자료 요청, 내부회의 후 재접촉 예정
5	2017.07.31.	이메일	안내자료 발송
6	2017.08.02.	전화	성평등도서관 '여기' 담당자 안내
7	2017.08.02.	전화	사업내용 안내 및 사업안내자료 제공, 내부협의 후 재접촉
8	2017.08.02.	이메일	안내자료 발송
9	2017.08.10.	이메일	안내자료 미수신으로 재발송
10	2017.08.10.	전화	안내자료 수령확인 및 내부협의 후 재접촉
11	2017.08.18.	유선	방문시간 확정
12	2017.08.23.	방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카이브 및 여성안심특별시 관련 인터뷰 진행

- 수집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기록수집에 앞서 선별지침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수집대상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함(홈페이지: http://www.seoulwomen.or.kr/)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초정보(구성과 활동, 조직연혁, 보유예상 기록물 등)를 담은 기초정보 조사지를 작성
  - 원활한 기록수집과 기증을 위하여 사전인터뷰 질문지를 작성
    - 주요 질문은 성평등 도서관 '여기'의 기능과 역할(아카이브의 역할)과 여성안심특별시 관련 주요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기록수집 및 인터뷰
  - 일시: 2017년 8월 23일(월) 10시 ~ 11시
  - 장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 방문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박종연 팀장, 김진선 연구원)
  - 수집 및 인터뷰 결과
    - 수집기록: 구술기록

- 수집 제외 기록: 없음

- 협의사항
  - 기록물기증 및 제보신청서 1부 작성
  -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1부 작성(구술자 요구사항 없음)

- 구술기록의 정리
  - 수집활동을 통해 확보한 구술기록의 정리
    - 구술기록: 48분 45초
    - 유형: MP4
    - 수량: 1
    - 용량: 45.4MB
    -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도서관 '여기'
    - 저장매체: 외장하드(WD Elements 25A2)
    - 주요 색인어: 여성안심특별시, 성평등 도서관 '여기'

2.2.2. 미수집 경과

2.2.2.1. 사단법인 코드

- 수집대상 선정
  - 서울기록 선별지침 경제 분야 '공유도시 서울'에 따라 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수집대상 협치기관에 대한 사전 접촉 진행
    - 선별지침에 따라 사전 접촉 대상은 '사단법인 코드', '서울도서관',' 서울 e 품앗이센터' 3곳으로 파악됨.
    - 수집대상에 대한 연락을 통해 수집 가능여부 등을 검토함

- 수집대상 접촉
  - 서울시 사단법인 코드 페이스북을 통하여 담당자 접촉
  - 사단법인 코드에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10여 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신
    -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활동가 접촉을 진행하였으나 회신 없음.

- 수집대상 연락 불가로 수집 종료
  - 수집처 접촉기간: 2017년 7월 21일 ~ 8월 10일까지 전화 9차례, 페이스북 메

시지 1회 시행

- 수집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기록수집에 앞서 선별지침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수집대상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함(홈페이지: http://cckorea.org/)
  - 사단법인 코드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초정보(구성과 활동, 조직연혁, 보유예상 기록물 등)를 담은 기초정보 조사지를 작성
  - 원활한 기록수집과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인터뷰 질문지를 작성
    - 주요 질문은 사단법인 코드의 기록관리 및 공유허브 아카이브 등과 관련된 내용

2.2.2.2.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 수집대상 선정
  - 서울기록 선별지침 교육 분야 '시민智 시대: 서울시 평생교육'에 따라 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수집대상 협치기관에 대한 사전 접촉 진행
    - 선별지침에 따라 사전 접촉 대상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3곳으로 파악됨.
    - 수집대상에 대한 연락을 통해 수집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선행 사업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서울연구원은 제외함.
- 수집대상 접촉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전접촉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및 안내자료 발송 진행
    - 안내자료 수령 확인여부
    - 내부회의 후 연락 가능여부 검토
- 수집대상 기관의 협조 요청 등으로 인한 중단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협조요청
    - 향후 서울기록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협조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 협조 가능할 시 수집사업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 보고는 진행
  - 본 사업팀 단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관계로 내부 협의 후 수집활동 중단

- 수집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기록수집에 앞서 선별지침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수집대상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함(홈페이지 :http://smile.seoul.kr/)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초정보(구성과 활동, 조직연혁, 보유예상 기록물 등)를 담은 기초정보 조사지를 작성
  - 원활한 기록수집과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인터뷰 질문지를 작성
    - 주요 질문은 평생학습 아카이브 및 향후 운영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임.

2.2.2.3.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 수집대상 선정
  - 서울기록 선별지침 교통 분야 '서울과의 첫만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따라 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수집대상 민간기관에 대한 사전 접촉 진행
    - 선별지침에 따라 사전 접촉 대상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전국고속버스운종사업조합' 2곳으로 파악됨.
    - 수집대상에 대한 연락을 통해 수집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전접촉 진행
- 수집대상 접촉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사전접촉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및 공문 발송 진행
    - 협조를 위해 수집처에서 서울시에서 발행한 공문을 요청
- 수집대상 기관의 무응답으로 수집 종료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내부 검토 후 연락 예정이었으나 담당자의 부재 및 내무 미협의 등으로 인하여 수집 진행이 종료됨.
- 수집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기록수집에 앞서 선별지침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수집대상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함(홈페이지: http://exterminal.co.kr/)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초정보(구성과 활동, 조직연혁, 보유예상 기록물 등)를 담은 기초정보 조사지를 작성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민간보유기록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여, 장기간 근무하였던 버스 운전기사 등의 인터뷰를 통한 수집대상 기록을 확보할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 원활한 기록수집과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인터뷰 질문지를 작성
  - 주요 질문은 고속버스터미널과 관련된 기록의 보유여부, 서울기록원 설립 이후 기록의 기증 여부 등임.

2.2.2.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 수집대상 선정
  - 서울기록 선별지침 보건 분야 '스포토피아 서울: 생활체육'에 따라 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수집대상 유관기관에 대한 사전 접촉 진행
    - 선별지침에 따라 사전 접촉 대상은 '서울특별시 체육회',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2곳으로 파악됨.
    - 수집대상에 대한 연락을 통해 수집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전접촉 진행
- 수집대상 접촉
  - 서울특별시 체육회 사전접촉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
  - 기록관리 관련 담당자가 없으며 별도로 제공할 기록이 없다는 응답으로 종료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전접촉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및 안내자료 발송
  - 관련부서 검토 후 타부서 이관
- 수집대상 기관 방문
  - 일시: 2017년 8월 11일 10시~10시 40분
  - 장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회의실
  - 논의 내용: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기록관리 및 기록수집 등에 대한 논의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 '그룹웨어'를 통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이 기록의 경우 별도의 절차 및 협의를 통해서 공개(또는 수집)이 가능함.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단체에 제공하는 리플렛 및 포스터 등은 제공할 수 있으나, 별도의 공문이 필요함.
- 수집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기록수집에 앞서 선별지침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수집대상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함(홈페이지: http://www.ssad.or.kr/)

-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초정보(구성과 활동, 조직연혁, 보유예상 기록물 등)를 담은 기초정보 조사지를 작성
- 원활한 기록수집과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인터뷰 질문지를 작성
  - 주요 질문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통합자료실 기록관리 현황 등임.

2.2.2.5. 영락모자원

- 수집대상 선정
  - 서울기록 선별지침 복지 분야 '아빠가 된 서울: 모자원'에 따라 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수집대상 민간기관에 대한 사전 접촉 진행
    - 선별지침에 따라 사전 접촉 대상은 '영락모자원' 한 곳으로 파악됨.
    - 수집대상에 대한 연락을 통해 수집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전접촉 진행
- 수집대상 접촉
  - 영락모자원 사전접촉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및 공문 발송 진행
    - 협조를 위해 수집처에서 서울시에서 발행한 공문을 요청
- 수집대상 기관의 무응답으로 수집 종료
  - 영락모자원 내부 검토 후 연락 예정이었으나 내부 미협의 등으로 인하여 수집 진행이 연기됨.
  - 추후 방문 거절의사를 통보하여 수집이 종료됨.
- 수집대상 기초정보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기록수집에 앞서 선별지침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수집대상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함(홈페이지: http://www.youngnakwon.net/)
  -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초정보(구성과 활동, 조직연혁, 보유예상 기록물 등)를 담은 기초정보 조사지를 작성
    - 영락모자원의 경우 다수의 개인기록(입소자 기록) 및 역사기록(운영기록 등)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인터뷰를 통한 수집대상 기록을 확보할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 원활한 기록수집과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인터뷰 질문지를 작성
    - 주요 질문은 입소자 기록의 관리 및 주요 활동 등과 관련된 것임.

2.3. 집중수집

2.3.1. 서울로7017

2.3.1.1. 수집경과

- 선별지침 '서울로7017'의 수집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진행실시
- 서울로7017관련 민간기관인 사단법인 서울산책을 수집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수집진행
- 사전접촉 및 기록수집까지 약 1개월 소요
  - 사전 유선 접촉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인터뷰 질문지의 주요내용
    - (사)서울산책의 구성 배경과 주요활동
      - 서울역 고가와 관련한 사업내용
      - 활동기록의 보관 등
  - 서울산책 활동파악(소장기록 파악)
  - 수집일정 조율 및 수집관련 정보 추가 확보
  - 수집대상 목록파악
  - 방문 및 수집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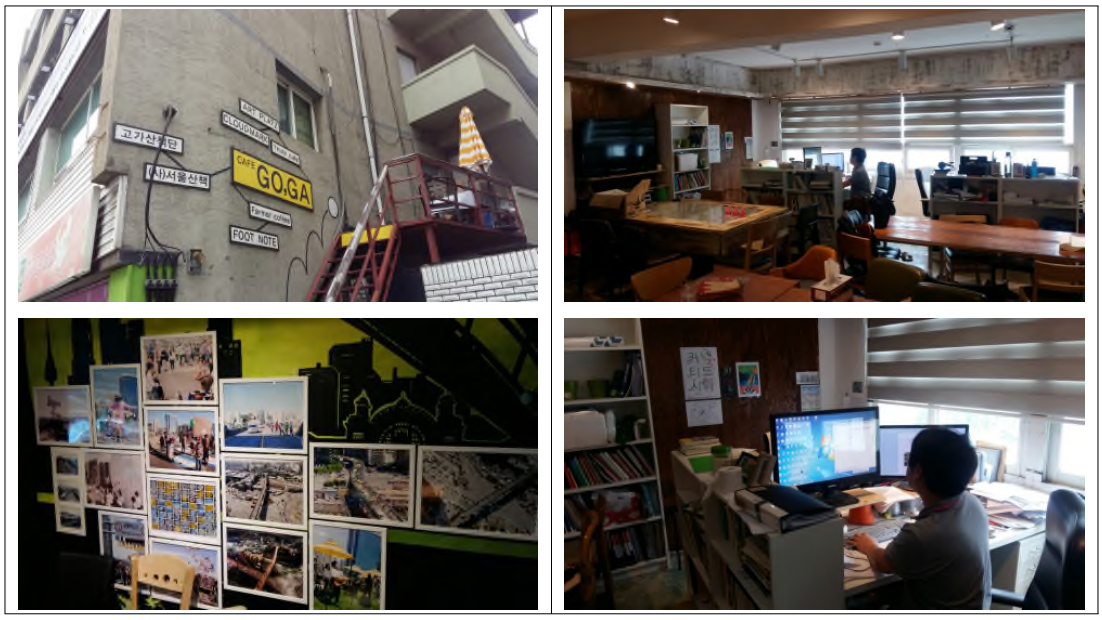
〈표 54〉 (사)서울산책 기록물 수집 개요

연번	일자	접촉방법	접촉대상	접촉내용	참여자	비고
1	2017. 7. 18.	유선	조경민	방문 일정 조율(구술 동의)	윤정훈	
2	2017. 7. 20.	-	-	(사)서울산책 조경민 대표 인터뷰 질문지(안) 작성	Enkhjargal Bilguun(빌궁), 김강산	
3	2017. 7. 24.	방문	조경민	(사)서울산책 활동 관련 인터뷰 및 기록파악	윤정훈, 빌궁, 김강산	기록기증의사 확인
4	2017. 7. 31.	유선	조경민	기록 수집 일정 조율(미수신)	빌궁	

연번	일자	접촉방법	접촉대상	접촉내용	참여자	비고
5	2017. 8. 1.	유선	(사)서울산책	(사)서울산책 사무실 연결, 조경민 대표 접촉 요청	빌궁	
		유선	조경민	(사)서울산책 아카이브 담당(노수동)으로 접촉대상 재조율	빌궁	조경민 대표 휴가
		유선	노수동	기록 수집 관련 정보 안내	빌궁	
		이메일	노수동	(사) 서울산책 서울로 관련 기록 목록 파일 수신	빌궁	
6	2017. 8. 7.	유선	노수동	방문 일정 확정(8/10 11시 (사)서울산책)	빌궁	
7	2017. 8. 10	방문	노수동	(사)서울산책 활동 기록 수집	빌궁	

2.3.1.2. 서울산책 기록수집

- 수집일시: 2017년 8월 10일(목) 11시 ~ 11시 25분
- 수집장소: (사)서울산책 사무실
- 방문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Enkhjargal Bilguun 연구원)
- 수집결과: 문서, 간행물 및 사진 등 전자기록(약 23GB 분량), 구술기록(7월 24일 1차 방문당시 인터뷰 기록)



〈그림 69〉 서울산책 방문 및 기록물 수집모습

- 담당자 협의사항
  - 기록물기증 및 제보신청서 1부 작성
  -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1부 작성

2.3.1.3. 수집기록

- 수집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기록은 아래 〈표 55〉과 같으며, 전자기록으로 모두 외장하드에 저장함.
-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구술기록은 2017년 8월 10일(목) 별도의 정리작업 실시
  - 구술기록의 정리
    - 장소: 콘텐츠솔루션 사무실
    - 작업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김강산 팀장, Enkhjargal Bilguun 연구원)
    - 수집된 구술기록의 파일 포맷변환 및 메타데이터 생성
      - 구술시간: 43분
      - 유형: MP3
      - 수량: 1
      - 용량: 39.5MB
      - 출처: (사)서울산책 대표 조경민

- 저장매체: 외장하드
- 주요 색인어: 고가산책

〈표 55〉 (사)서울산책 수집기록 통계

유형	내용	수량	비고
문서	- 서울고가 시기구분에 관해 -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서 - 서울역고가 교통대책 추진상황 - 2015 주민간담회 회의록 등	1,384	
사진/이미지	- 2015 현장소통센터 개소식 - 2016 초록산책단 1기 양성과정 사진 - 2016 서계동 골목길가꾸기 사업 사진 - 2015 3차 개방행사 사진 등	247	
동영상	- 2015 서울역고가폐쇄영상 - 2016 초록산책단 1기 양성과정 기본반 - 서울로7017 개장식(영) 등	29	
기타	- 1차발주_설계예산서_EBS_서울역7017 (변경)(0829) 등	990	문서로 분류
계		**2,650**	

2.3.2. 올림픽의 그늘, 상계동 올림픽

2.3.2.1. 수집경과

- 선별지침 '상계동 올림픽'의 수집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진행실시
- 상계동 올림픽 관련 유관기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있으며, 민간의 경우 민주노점상연합 등이 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경우 수집대상 기록에 대한 별도의 목록만을 확보하였으며,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수집
  - 올림픽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오픈아카이브에 보유중인 기록은 총 940건으로 아래 그림과 같음.

올림픽 관련 검색 목록(검색어: 올림픽,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 *중복본 제외(동일 자료명이나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는 유지)

번호	등록번호	자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1	00007898	외국 올림픽선수 및 관광객에게 AIDS 검사를 즉각 실시하라!	문서류>문서	윤용	1988.09.03	1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2	00011028	'85년 10월26일자 일간지 올림픽관계 기사에 대한 진상해명을 위한 건의문	문서류>문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5	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3	00011132	매춘올림픽과 에이즈	문서류>문서	노영희, 여성의전화 공동	1988	6	한국교회여성연합회
4	00011133	외국 올림픽선수 및 관광객에게 AIDS검사를 즉각 실시하라! (공개서한)	문서류>문서	윤용, 고려대 신문방송학	1988.09.03	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5	00011156	민원에 대한 회신(올림픽관계기사 진상해명), 퇴폐, 윤락에 관한 현행 법률상의 문제점	문서류>문서	내무부	1985.12.04	1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6	00011298	서울올림픽관광객을 위한 한국인의 성	문서류>문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8.00.00	10	한국교회여성연합회
7	00011303	HUSTLER'S OLYMPICGOER'S GUIDE TO KOREAN SEX	문서류>문서	Jun Kanda	1988	7	한국교회여성연합회
8	00011806	동부지구 시민학생 공동올림픽제	문서류>문서	서울지역중학생회연합신	1988.09.19	4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9	00011967	통일로 가는 길- 올림픽, 농민 그리고 통일	문서류>문서	서울지역중학생회연합신	1988	22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10	00013176	KOREAN A-BOMB SURVIVOR TO VISIT WASHINGTON, DC DURING OLYMPICS	문서류>문서	ASIA RESOURCE CEN	1988.09.21	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1	00013186	Prostitution Tourism: Sprucing Up for the Olympics	문서류>문서	Janet E. Burks	미상	8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2	00013190	POSTITUTION TOURISM : SPRUCING UP FOR THE OLYMPICS	문서류>문서	THE CENTER FOR...	198808	5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3	00013511	1985. 10. 26일자 올림픽 관계기사에 대한 공개질의서	문서류>문서	여성평우회	1985.11.01	4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4	00013512	85년 10월 26일자 일간지 올림픽 관계기사에 대한 진상해명을 위한 건의문	문서류>문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511	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5	00016442	매춘 관광: 올림픽을 위하여 단장하다	문서류>문서	Janet E. Burks	198*	26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6	00018926	평화적 政權교체 안되면 혼란 , 88올림픽도 성사시킬수 없을 듯 -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보도	문서류>문서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	미상	1	이정순
17	00020333	서울올림픽관광객을 위한 한국인의 성	문서류>문서	[미상]	1988	10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그림 7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유기록_올림픽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경우 사전접촉 시 수집대상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 전국빈민연합 전 상임의장 양연수가 수집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집 진행
- 전국빈민연합 전 상임의자 양연수 사전접촉 및 기록수집까지 약 1주 소요
  - 사전 유선접촉 및 사업설명 진행
    - 방문일정 확정 및 인터뷰·기록수집 일정 확인
  - 사전 유선 접촉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인터뷰 질문지의 주요내용
      - 접촉자 및 전국빈민연합의 정보에 관한 질문
  - 보유기록 현황파악이 사전에 어려운 관계로 인터뷰와 수집을 동시에 진행
    - 전국빈민연합의 구성과 활동 조
    - 도서『가난의 시대』, 동녘, 2012 조사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조사를 통한 양연수 활동이력 조사
  - 방문 및 수집진행
    - 1차 방문: 접촉자 활동 내용 인터뷰 및 기록 보유여부 확인
    - 2차 방문: 전국빈민연합 활동기록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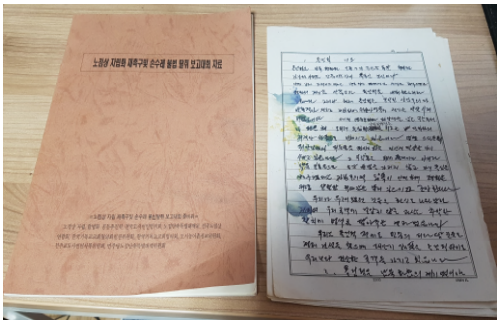
〈표 56〉 양연수 기록물 수집개요

연번	일자	접촉방법	접촉대상	접촉내용	참여자	비고
1	2017.07.29.	유선	양연수	미수신	김강산	
2	2017.07.29.	유선	양연수	안내자료 수령확인, 방문 일정 확인	김강산	
3	2017.08.01.	-	-	양연수(전국빈민연합 전 상임의장) 인터뷰 질문지(안) 작성	김강산	
4	2017.08.01.	방문	양연수	전국빈민연합 활동관련 인터뷰, 기록물 확인	김강산, 빌궁	기록물 기증 의사 확인
5	2017.08.03.	유선	양연수	재방문 일정 확인	김강산	
6	2017.08.04.	유선	양연수	기록물 1차 수령	김강산	
7	2017.08.04.	유선	양연수	추가기록물 건으로 연락 수신, 방문시기 맞지 않아 보류	김강산	
8	2017.08.06.	유선	양연수	기록물 2차 수집	김강산	

2.3.2.2. 전국빈민연합 전 상임의장 양연수 기록수집

- 수집일시: 2017년 8월 1일(화) 및 6일(일)
- 수집장소: 동묘시장 내 양연수의 노점
- 방문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김강산 팀장)
- 수집결과: 문서 및 도서 총 4점(1상자 분량), 구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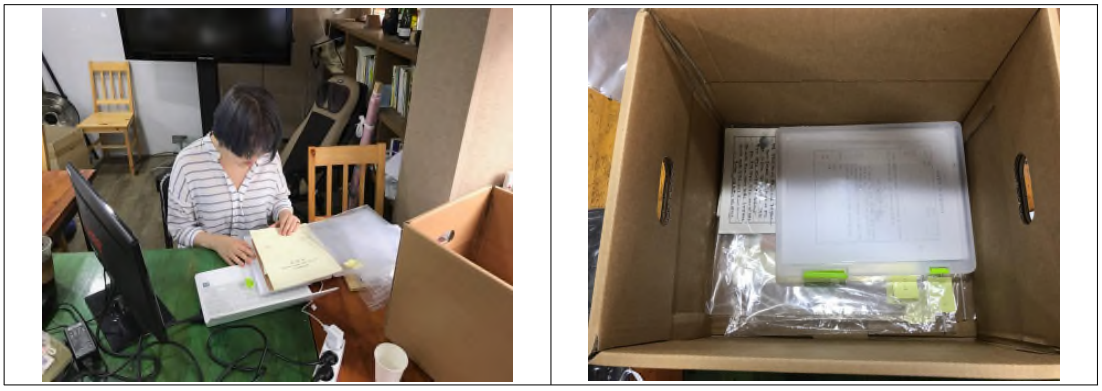
〈그림 70〉 양연수 기록물 기증 및 구술 진행

- 담당자 협의사항

- 기록물기증 및 제보신청서 1부 작성
-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1부 작성

2.3.2.3. 수집기록

- 수집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기록은 아래 〈노점상 자립화 재촉구 및 손수레 불법 탈취 보고대회 자료〉와 〈올림픽 개요: 자필 메모〉임
- 수집기록은 2017년 8월 8일(화) 별도의 정리작업 실시
  - 임시번호, 수집일자, 생산자(처), 기록물 제목, 복본수량, 임시상자번호 등을 정리
  - 작업결과 3건의 자료가 1개 상자에 편성됨



〈그림 71〉 수집된 양연수 기록물을 선별 및 목록화 하는 모습

- 구술기록의 정리
  - 장소: 콘텐츠솔루션 사무실
  - 작업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김강산 팀장, Enkhjargal Bilguun 연구원)
  - 수집된 구술기록의 파일 포맷변환 및 메타데이터 생성
    - 구술시간: 13분 36초
    - 유형: MP3
    - 수량: 1
    - 용량: 12.4MB
    - 출처: 양연수(전국빈민연합 전 상임의장)
    - 저장매체: 외장하드
    - 주요 색인어: 전국빈민연합, 노점상, 빈민, 철거민, 올림픽, 민중올림픽

2.3.3. 서울광장·광화문광장

2.3.3.1. 수집경과

- 선별지침 ‘서울광장·광화문광장’의 수집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진행
- 서울광장·광화문광장 관련 수집대상 기록은 민간기록이며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블랙텐트’, ‘촛불기록 수집단’이 있음
-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의 경우 서울시와 사전접촉을 통해 수집을 추진중이었음
  - 사전조사를 통해 생산(수집) 기록 확인 진행
  -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수집방법 및 수집일정에 관한 협의 진행 후 수집 시행



〈그림 72〉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사무실 내 기록을 선별하는 모습

〈표 57〉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기록물 수집개요

연번	일자	장소	참여자	내용
1	2017.03.	-	정보공개정책과(조영삼 과장), 퇴진운동본부 (박진 공동상황실장)	기록 수집 의사 전달
2	2017.03.23.	정보공개정책과 회의실	정보공개정책과(조영삼 과장, 김재봉 팀장, 원종관 주무관, 김은아 주무관), 퇴진운동본부(박진 공동상황실장)	회의
3	2017.04.12.	본관 9층 회의공간	정보공개정책과(김은아 주무관), 서울역사박물관(김문택 주무관), 퇴진운동본부(박진 공동상황실장, 이태호 공동상황실장),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윤정훈 PM)	회의
4	2017.05.	-	-	퇴진운동본부에서 시청 총무과로 기록 보존공간 요청
5	2017.05.16	-	정보공개정책과(김은아 주무관), 퇴진운동본부(김현식 사무국장)	회의 일정 조율

▪ 촛불기록수집단의 경우 2016년 12월 한시적으로 활동한 민간조직으로 사전접촉을 통해 수집대상기록을 파악

- 사전조사를 통해 생산(수집) 기록 확인 진행
-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수집방법 및 수집일정 등에 관한 협의 진행 후 수집 시행
- 수집기록은 2017년 8월 1일(화) 별도의 정리작업 실시
  - 임시번호, 수집일자, 생산자(처), 기록물 제목, 복본수량, 임시상자번호 등을 정리
  - 작업결과 비전자기록물 156건, 전자기록물 833건의 자료가 2개 상자에 편성됨.

〈표 58〉 촛불기록수집단 기록물 수집개요

연번	일자	접촉방법	접촉대상	접촉내용	참여자
1	2017.07.20.	유선	촛불기록수집단	보유기록 수집방식 여부 확인	윤정훈
2	2017.07.28.	방문	촛불기록수집단	보유기록 보관 장소 및 현황 파악	윤정훈, 이형수
3	2017.07.31.	방문	촛불기록수집단	보유기록 수집	윤정훈, 이형수

▪ 블랙텐트의 경우 기증자의 사전요청으로 진행된 경우로 기증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기록정리 및 아카이빙북 제작이 목적이었음.

- 사전조사를 통해 생산(수집) 기록 확인 진행
  - 온라인 네이버클라우드에 약 600GB 분량의 사진 및 동영상, 문서파일
-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수집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진행 후 수집 시행
  - 소장기록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및 기록기증 추진 협의
  - 기증처와 사업팀이 협업하여 기증기록에 대한 분류체계 수립 추진
  - 온라인 클라우드 파일의 공유를 통한 분류체계 검토

2.3.3.2.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기록수집

▪ 수집일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 ~ 12시

- 수집장소: 퇴진운동본부 사무실(경향신문 13층 회의실)
  - 방문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이형수 팀장, 박종연 팀장, 이준희 팀장, 김강산 팀장, 김진선 연구원)
- 수집결과: 문서류, 박물류 등 총 33점(문서류 제외, 9상자 분량)
  - 다량의 중복본의 경우 수집제외(담당자가 사전에 1차분류)



〈그림 73〉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사무실 내 기록물을 수집하는 모습



〈그림 74〉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사무실 내 수집한 기록물이 상자에 정리된 모습

- 담당자 협의사항
  - 기록물 위탁여부 추후 협약 체결 시 재논의

2.3.3.3. 촛불시민기록단 기록 수집

- 수집일시: 2017년 7월 31일(월) 10시 ~ 12시
- 수집장소: 알권리연구소(협)(촛불기록수집단에서 임시로 기록물 보관 의뢰)
  - 방문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윤정훈 PM, 장형오 팀장)
- 수집결과: 문서류, 박물류 등 총 156점(2상자 분량)
    - 다량의 중복본의 경우 수집 제외(담당자가 사전에 1차분류)

2.3.3.4. 블랙텐트 기록 수집

- 수집일시: 2017년 8월 3일(목) ~ 5일(토)
- 수집장소: 네이버 클라우드 아이디 공유를 통한 외장하드 다운로드
  - 작업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박종연 팀장)
- 수집결과: 전자파일 7,790건(사진, 영상, 문서 등) 441GB
    - 대부분의 수집기록의 파일명이 MOV, JPEG 등으로 건명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대량의 전자파일의 온라인 다운로드의 경우 문제점 발생(다운로드 시간 및 다운로드 중 오류 발생 등)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00-공지사항	2017-08-16 오전 10:...	파일 폴더
01-사진(촬영본)	2017-08-11 오후 3:45	파일 폴더
02-이미지(로고, 웹자보 등)	2017-08-11 오후 3:45	파일 폴더
03-디지털화문서(종이문서 스캔 및 촬영)	2017-08-11 오후 3:46	파일 폴더
04-언론기사(웹링크, 웹캡쳐, 사진, 영상 등)	2017-08-11 오후 3:46	파일 폴더
05-녹취물 및 인터뷰문서 등	2017-08-11 오후 3:50	파일 폴더
06-회의자료 및 회계자료	2017-08-11 오후 3:53	파일 폴더
07-영상(촬영본)	2017-08-11 오후 3:53	파일 폴더
08-영상(편집본)	2017-08-11 오후 4:03	파일 폴더
09-아카이빙북	2017-04-01 오전 1:02	파일 폴더
10-임시저장소_20170605생성	2017-08-11 오후 4:03	파일 폴더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20170106_이혜성 장소익 인터뷰_by김성균	2017-08-11 오후 4:02	파일 폴더
20170107_극장설치현장 춘몽 김동완 최주현 ...	2017-08-11 오후 4:02	파일 폴더
20170207_검열언어의정치학 김재엽 인터뷰_b...	2017-08-11 오후 4:02	파일 폴더
20170225_노란봉투 전인철 인터뷰_by김성균	2017-08-11 오후 4:02	파일 폴더
20170317_극장혜체전날 이혜성 임인자 인터뷰...	2017-08-11 오후 4:02	파일 폴더
20170415_무대감독 신재훈 인터뷰_by김성균	2017-08-11 오후 4:03	파일 폴더
title	2017-08-11 오후 4:01	텍스트 문서

〈그림 75〉 블랙텐트 기록 수집 현황_폴더

2.3.3.5. 수집기록 정리

- 수집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기록은 박근혜정권퇴진운동부의 경우 8상자 총 558건임

- 정리일자: 2017년 6월 9일(금), 12일(월), 16일(금) 총 3일
- 장소: 서울시청 본관 지하 4층 임시서고
- 투입인원: 총 7명
- 작업결과 558건의 자료가 8개 상자에 편성됨.

〈표 59〉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선별·수집기록 목록 예시

임시 번호	수집일자	생산자(처)	기록물 제목	형태	복본 수량	임시 상자 번호	수집 상자 번호	비고
1	2017.06.09.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뽕망치	박물류	1	1	C1(1)	
2	2017.06.09.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즉각퇴진! 즉각구속!적폐청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간담회	박물류	0	1	C1(1)	현수막
3	2017.06.09.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공범자처벌! 적폐청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간담회	박물류	0	1	C1(1)	현수막



〈그림 76〉 수집된 박근혜정권퇴진운동본부 기록물을 선별 및 목록화 하는 모습

▪ 수집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촛불시민기록단의 비전자기록물은 2상자 총 156건이며, 전자기록물은 총 833건임.

- 정리일자: 2017년 8월 1일
- 장소: 콘텐츠솔루션 사무실
- 작업결과 156건의 비전자기록을 보존상자와 클리어화일에 편성



<그림 77> 수집된 촛불기록수집단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한 모습

▪ 수집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블랙텐트의 기록은 총 441GB로 7790건 임.

- 정리일자: 2017년 8월 3일(목) ~ 18일(금)
- 장소: 콘텐츠솔루션 사무실
- 수집된 블랙텐트의 활동기록을 아래 그림과 같이 대분류 3개 (공연, 운영일반, 미분류), 중분류 36개, 소분류 114개로 구성함.
- 각 분류에는 상세설명을 포함하여 기증자에게 검토 및 작성 요청
  - 대분류: 공연, 운영일반, 미분류로 구성
    - 미분류의 경우 기증자에게 재분류 요청
  - 중분류: 블랙텐트의 운영 및 주요활동을 시간순서로 분류
    - 블랙텐트 설치, 개관식, 공연명, 블랙텐트 기록, 블랙텐트 철거, 공지상항, 언론기사, 회의자료 등
    - 소분류: 파일명보다 상위분류로 출처 및 상세공연 명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미작성된 소분류의 경우 기증자에게 추가 기술을 요청

대분류 번호	대분류	중분류 번호	중분류	상세설명	소분류 번호	소분류
		1	블랙텐트 설치	광장극장블랙텐트설치는 청송 나무닭움직임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극장을 해체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영상은 1월 6일 오후 청송에서의 천막극장 철거, 상차에서부터 1월 7일 오전 7시부터 광화문 광자에서 시작된 광장극장블랙텐트 설치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1	20170106_광장극장 청송 철거_by김성균
					2	20170107_광장극장 광화문 설치_by김성균
					3	20170107_극장설치현장 준용 김동완 최주현 송경동 인터뷰_by김
		2	블랙텐트 개관식	광장극장블랙텐트는 1월 10일 오후 4시 개관식을 가졌다. 1월 7일 천막극장 설치 이후 조명, 음향, 객석, 분장실, 콘솔, 예시: 2017년 1월 10일 XX시에 광화문광장에서 블랙텐트 개관식을 진행하였으며 김OO, OO, OO 등이 참석하였음. 개관식은 ~~~로 진행되었음.	4	20170110_광장극장 개관식_by김성균
		3	블랙텐트 개관기념 공연		5	

〈그림 78〉 블랙텐트 기록분류 예시

- 기증자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될 블랙텐트의 기록분류와 정리의 경우인 기증자와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초기 정리단계에서 중단됨.
  - 사업팀에서 진행된 1차 분류이후 각 세부분류 및 추가변경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으며, 상세설명 또한 초기 단계에서 중단됨.

2.3.4. 목동 철거민

2.3.4.1. 수집경과

- 선별지침 '목동철거민'의 수집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 진행 실시
- 목동철거민관련 민간기록은 광명시흥목화연립을 선정하여 수집 진행
  - 목동철거민 기초정보 조사: 도서 「목동아줌마」 참고
- 사전접촉 및 기록수집까지 약 1주일 소요
  - 방문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유선접촉이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방문 실시
      - 방문조사를 통해 보유기록 현황파악 및 인터뷰 일정 확정
      - 방문 후 유선 접촉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연락처 확보
    - 인터뷰 질문지의 주요내용
      - 목동철거민 관련 자료현황 파악
      - 목동철거민 거주형태와 현재
  - 방문 수집 및 인터뷰 진행

〈표 60〉 목동철거민 기록물 수집 개요

연번	일자	접촉방법	접촉대상	접촉내용	참여자	비고
1	2017.07.24.	방문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방문 및 조사	이준희	
2	2017. 07.24.	유선	임해선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법인처 연락 및 자문	이준희	
3	2017. 08.02.	방문	임해선	신명자 이사장 인터뷰 및 자료수집	이준희, 배종열	

2.3.4.2. 광명시흥목화연립(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기록 수집

- 수집일시: 2017년 8월 2일(수) 10시 ~ 11시
- 수집장소: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사무실, 신명자 이사장실
- 방문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이준희 팀장, 배종열 연구원)
- 수집결과: 디지털 사진자료 8건, 신명자 이사장 구술, 간행물 1건
- 담당자 협의사항
  - 구술동의서 1부 작성
- 수집활동 후속조치
  - 수집기록 목록화 및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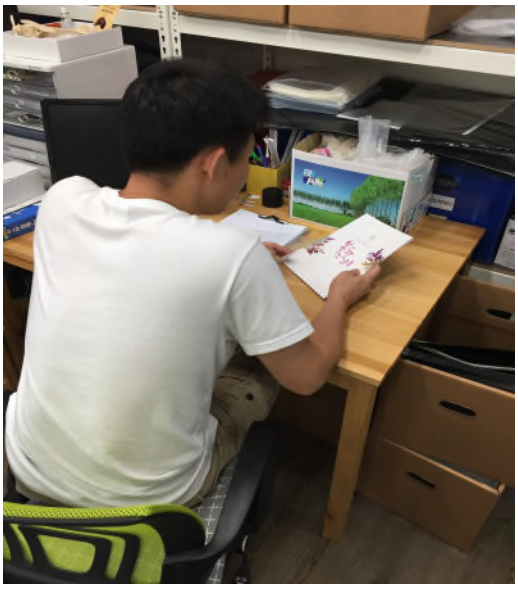




〈그림 79〉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방문모습 및 복음자리

2.3.4.3. 수집기록

- 수집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기록은 경우 1상자에 편성됨
  - 정리일자: 2017년 8월 8일(화)
  - 장소: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 투입인원: 총 2명



〈그림 80〉 복음자리 기록 선별 및 목록화

〈표 61〉 목동철거민 기록물 수집기록 목록

임시 번호	수집일자	생산자(처)	기록물 제목	형태	복본 수량	임시 상자 번호	수집 상자 번호	비고
1	2017.08.02.	알 수 없음	목화마을 건설	jpg	0			디지털
2	2017.08.02.	알 수 없음	목화마을 건설1	jpg	0			디지털
3	2017.08.02.	알 수 없음	목화마을 건설2	jpg	0			디지털
4	2017.08.02.	알 수 없음	목화마을 단오제	jpg	0			디지털
5	2017.08.02.	알 수 없음	시흥1	jpg	0			디지털
6	2017.08.02.	알 수 없음	시흥2	jpg	0			디지털
7	2017.08.02.	알 수 없음	철거1	jpg	0			디지털
8	2017.08.02.	알 수 없음	목화마을	jpg	0			디지털
9	2017.08.02.	복음자리	「복음자리」	간행물	0			
10	2017.08.02.	신명자	20170802복음자리1	m4a	0			디지털

- 구술기록의 정리
  - 일자: 2017년 8월 8일(화)
  - 장소: 콘텐츠솔루션 사무실
  - 작업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이준희 팀장)
  - 수집된 구술기록의 파일 포맷변화 및 메타데이터 생성
    - 구술시간: 2분 50초
    - 유형: m4a
    - 수량: 1
    - 용량: 1.4MB
    - 출처: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신명자 이사장
    - 주요색인어: 목동 철거민, 복음자리
- 추가 수집대상 기록 목록 확보
  - 목화마을 목동철거민 1세대 구술
  - 목동성당 목동철거민 자료
  - 도시선교회 목동철거민 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목동관련 기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목동관련 기록의 경우 오픈아카이브에 총 223건의

기록이 있음.

검색 목록(검색어: 목동, 목동개발, 목동재개발, 목동 철거_*중복본 제외(동일 사료명이나 등록번

번호	등록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1	00836402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기안문 철]	문서류>문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2.08.26	28
2	00048146	[목동 개발대책의 부당함과 목동 철거민의 요구 사항]	문서류>문서	목동세입자대책위원회	198*	6
3	00048127	[목동 지역 주민운동 조사서]	문서류>문서	[미상]	1985	9
4	00839226	[목동 지역 철거민에 대한 시당국의 발표와 주민의 주장]	문서류>문서	[미상]	1985.00.00	2
5	00048135	[목동 철거관련 유인물]	문서류>문서	목동천주교회신자	1984.08.00	1
6	00042584	[목동 철거민 목화마을 이주 천막 실태 - 사진과 설명]	문서류>문서	[목화마을주민]	1986	2
7	00023864	[목동 철거민 세입자 요구사항]	문서류>문서	목동 철거민세입자일동	1985.03.16	2
8	00042582	[목동 철거민들의 목화마을 이주에 관한 진정서]	문서류>문서	정철호외 36명	1986.02.00	6
9	00104350	[목동 철거민에 대한 내용]	문서류>문서	목동천주교회신자	198408	1
10	00117007	[목동,신정동 만영천가 재개발 관련]	문서류>문서	목동천주교회신자	1984.08.00	3
11	00525652	[목동재개발 땅투기와 철거민 관련]	문서류>문서	목동천주교천주교신자	1984.08.00	1
12	00517233	[목동재개발 철거 사건 관련 탄원서]	문서류>문서	목동가옥주및목동세입자	1984.12.31	2
13	00524579	[목동재개발로인한 목동 주민들의 도움 호소 글]	문서류>문서	목동주민일동	1984.11.09	1
14	00884023	[목동지역 재개발과 철거에 관한 호소문]	문서류>문서	목동천주교회	1984.08.00	1
15	00090950	[목동지역 철거에 관한 내용]	문서류>문서	목동천주교회신자	1984.08.00	1

〈그림 81〉 목동철거민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유기록

- 국가기록원
  - 목동철거민 관련 국가기록원 보유기록은 총 4건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생산한 것임(목동철거민에 대한 진상 조사보고 및 공개토론회, 상황보고:목동철거에 관한 공개토론회 동향(미승인), 상황보고:목동철거민에 대한 진상조사보고 및 공개토론회, 볼온벽보 발견, 상황보고:긴급비상 학생총회 동향(목동철거민 대책문제에 대한 전체 총학생회)(불법))

2.3.5. 원전하나 줄이기

2.3.5.1. 수집경과

- 선별지침 '원전하나 줄이기: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수집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 진행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민간기록은 선별지침에 따라 에너지 자립마을 성대골을 선정하여 수집 진행
  - 성대골 기초정보 조사: 서울연구원 원전 하나 줄이기 연구보서 등
- 사전접촉 및 기록수집까지 약 2주 소요
  - 방문 및 인터뷰 질문지 작성
    - 유선접촉이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방문 실시
      - 방문조사를 통해 보유기록 현황파악 및 인터뷰 일정 확정
      - 방문 후 유선 접촉을 통해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연락처 확보
    - 인터뷰 질문지의 주요내용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자료현황 파악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과 자료제공 여부 및 방식 문의

• 방문 수집 및 인터뷰 진행

〈표 62〉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기록물 수집 개요

연번	일자	접촉방법	접촉대상	접촉내용	참여자	비고
1	2017.07.11.	방문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방문 및 조사	이준희, 배종열	
2	2017.07.12.	유선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김소영 대표 연락 및 자문	배종열	
3	2017.07.17.	방문	에너지 슈터마켙	김소영 대표 인터뷰 및 자료수집	배종열	
4	2017.07.24	유선	녹색연합	녹색연합 에너지 사업 관련 담당 심근정 대표 연락 및 자문	배종열	
5	2017.07.27.	방문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이미숙 관장 인터뷰 및 자료수집	이준희	

2.3.5.2.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성대골 기록수집

- 수집일시: 2017년 7월 17일(수) 10시 ~ 13시
- 수집장소: 성대골 에너지 수퍼마켙,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 방문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이준희 팀장, 배종열 연구원)
- 수집결과: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백서(2010.1~2017.2)」(2017),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2016), 「성대골 리빙랩 자료집」(2015),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이미숙 관장 구술.
- 담당자 협의사항
  - 구술동의서 1부 작성
- 수집활동 후속조치
  - 수집기록 목록화 및 정리: 디지털자료 등 총 4건



〈그림 82〉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방문 모습 및 「성대골 리빙랩」

2.3.5.3. 수집기록

▪ 수집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기록은 경우 1상자에 편성됨

- 정리일자: 2017년 8월 8일(화)
- 장소: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 투입인원: 총 1명

〈표 63〉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수집기록 목록

임시 번호	수집일자	생산자(처)	기록물 제목	형태	복본 수량	임시 상자 번호	수집 상자 번호	비고
1	2017.07.17.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자체 제작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백서 (2010.01~2017.02)	pdf	0			디지털
2	2017.07.17.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리뱅랩 시안3	pdf	0			디지털
3	2017.07.17.	성대골 에너지 슈퍼마켙 외	2015 성대골 리빙랩 자료집 최종인쇄본	pdf	0			디지털
4	2017.07.27.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이미숙 관장	20170727성대골1	m4a	0			디지털

▪ 구술기록의 정리

- 일자: 2017년 8월 8일(화)
- 장소: 콘텐츠솔루션 사무실
- 작업자: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배종열 연구원)
- 수집된 구술기록의 파일 포맷변화 및 메타데이터 생성

- 구술시간: 1시간 4분
- 유형: m4a
- 수량: 1
- 용량: 30.9MB
- 출처: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이미숙 관장
- 주요색인어: 에너지 자립마을, 원전하나 줄이기, 성대골

■ 추가 수집대상 기록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자료(김소영 대표 보유)

● 성대골 에너지 슈퍼마켓 운영 자료(김소영 대표 보유)

3. 서울기록 수집 기록물 정리

3.1. 비전자기록물 보존용품 적용

■ 개요

● 추진목적: 비전자기록물의 안전 및 물리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존용품을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 대상: 수집한 각종 유형의 비전자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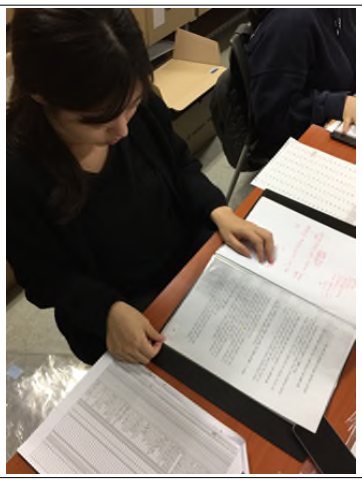
■ 정리방식

● 비전자기록물의 유형, 재질,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존용품 적용

• 기록물 유형별 보존용품 적용

〈표 64〉 비전자기록물 유형별 보존용품 적용 기준

유형	대상	보존용품	단위
문서류	종이 문서류	클리어화일	건
박물류	종이 재질 박물	클리어화일	
	형태가 있는 작은 박물	지퍼백	건
	형태가 있는 큰 박물	에어캡	건





〈그림 83〉 박물류 비전자기록물 보존용품 적용 모습

● 보존상자 편성

• 보존용품 적용된 비전자기록물을 서울특별시 기록관에서 제작한 보존상자에 편성



〈그림 84〉 보존상자에 편성된 비전자기록물

- 서가배치
  - 서울시청 본관 지하 4층 임시서고에 가배치

3.2.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 개요
  - 추진목적: 수집한 비전자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기 위해 디지털화 작업 수행하고자 함.
  - 대상: 촛불기록수집단으로부터 수집한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박물류) 156건
  - 관련 기록관리 표준

〈표 65〉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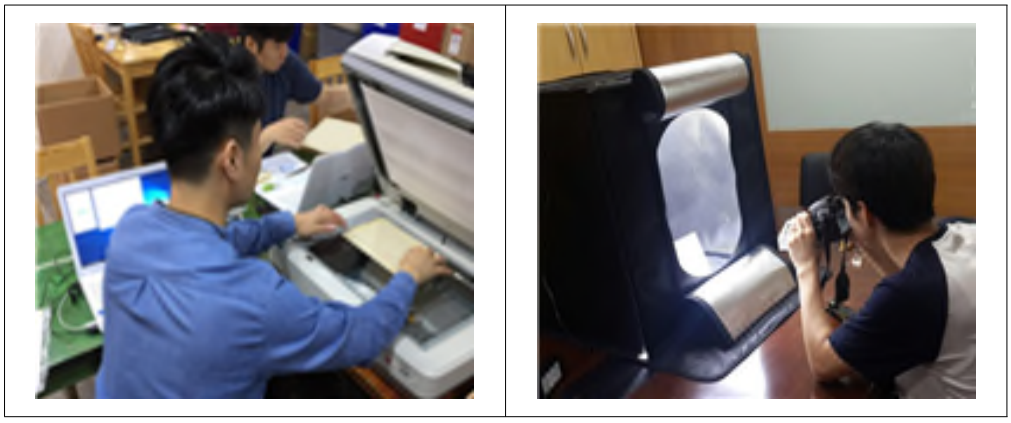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국내표준	KS X ISO /TR 13028	문헌정보 -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
공공표준 (지침)	NAK/G 8-1:2013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
	NAK/G 5:2011	기록물 DB 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 디지털화 방안
  - 디지털화 절차: 디지털화 계획 수립 → 비전자기록물 준비 → 목록 입력 → 스캐닝·인코딩 및 내용 연결 → 이미지 보정 → 매체 수록 → 원본 정리 및 데이터 백업
  - 유형별 디지털화 방안 및 기준

〈표 66〉 비전자기록물 유형별 디지털화 기준

방식	대상	해상도	포맷	사용장비
스캐닝	A3 미만 종이 재질 박물	600dpi	JPEG	EPSON GT-20000)
촬 영	A3 이상 종이 재질 박물	600ppi 이상	JPEG	NIKON D3100
	기타 박물류			

● 디지털화 작업 모습



〈그림 85〉 비전자기록물을 스캐닝 및 촬영하는 모습」

● 디지털화된 기록물 모습



〈그림 86〉 디지털화된 비전자기록물 이미지」

3.3. 기록물 정리 현황

▪ 수집 기록물 정리 현황

〈표 67〉 수집기록물 정리 현황표

주제	수집처 명	전자				비전자				계
		TEXT	IMAGE	VIDEO	AUDIO	문서류	박물류	도서/간행물류	음성류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박근혜정권 퇴진운동 본부					490	67	1	1	559
	블랙텐트	12	6,813	965						7,790
	촛불기록수집단		779	53		1	135	20		988
서울로 7017	서울산책	2,374	247	30						2,651
원전하나 줄이기	성대골	3		1	1			1		6
상계동 올림픽	양연수					1	1	2		4
목동 철거민	목화마을 및 복음자리		13	1	1			2		17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서울시NPO 지원센터		4	1			6	8		19
서울의 상징	서울브랜드 추진위원회		2	1	1	64		4		72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여성가족재단				1					1
계		2,389	7,858	1,052	4	556	209	38	1	12,107

▪ 수집 기록물 현황 통계(12,107건 기준)

● 주제별 기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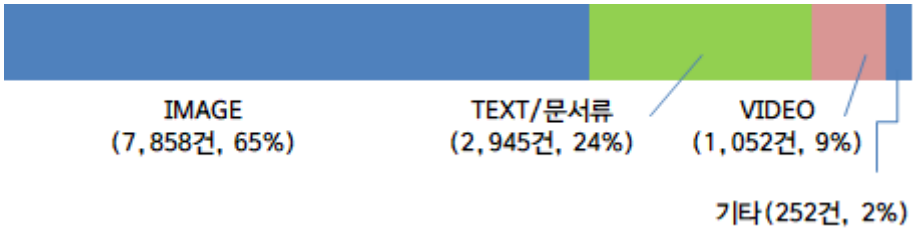
● 출처별 기록 비율



- 전자/비전자기록물 비율



- 형태별 기록물 비율



4. 시사점

4.1. 수집처 보유기록에 대한 상세현황 파악

- 협치기관 및 민간의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수집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현황 파악임.
- 실제 기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제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떤 기록을 기증할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사전접촉을 강화하여 보유기록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중요기록을 1차 선별하여 기증을 유도해야 함.

4.2. 민간기록 수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 마련

- 민간기록 수집의 경우 소장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소장자를 설득하는 단계가 가장 큰 난관임.
- 특히 보유기록이 시정부 등 공공기관에 기증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증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음.
- 따라서 소장자 설득을 위한 다양한 접촉 방식을 개발해야 함.
  - 예를 들어 민간기록 수집과정에서 수집에 대한 사례(기념품 등의 제공)를 하거나, 수집기록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공지해줄 필요가 있음 .

4.3.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과 사후관리

- 기증은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잠재적인 수집처를 확보하는 선행작업임
- 따라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차원과 지속적이고 수집처 확보를 위해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 등이 필요함.
  - 수집 종료 후 수집 목록 확인, 정기 또는 부정기 안내장 발송 등이 요구됨.
  - 서울기록원 건립 후 기증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요구됨.
    - 에너지 자립마을 성대골의 경우 김소영 대표 보유기록(전자 및 비전자기록)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백서 발간 자료 등을 이유로 기증에 응하지 않음.
    - 향후 추가 접촉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기에,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접촉이 필요함.

4.4. 유관기관 보유기록의 수집방법 마련

- 목동철거민, 올림픽 그늘 상계동 올림픽 등의 선별지침의 수집과정에서 확인된 유관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국가기록원)의 경우 현재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직접적인 수집이 어려움.
-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경우 기증자와의 협의절차를 걸쳐서 사본 제작 및 제공·활용이 가능함.
  - 수집형 아카이브의 경우 보유기록에 대한 사본 제작 등이 내부 정책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
  - 수집형 아카이브의 경우 기증자가 수집기관의 보존 또는 위탁을 요청한 기록으로 개별기록에 대한 기증자에 대한 승인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하여 향후 기록활용에도 제약이 있음.
    - 저작권 문제의 경우 특히, 경향신문에서 제공한 사진의 경우 1건 당 사용비용이 청구됨.

4.5. 전자기록의 수집방법과 절차 마련

- 본 사업에서 진행된 기록수집 중 대부분의 기록이 전자기록(사진, 영상, 문서 등)으로 기증자의 외장하드 또는 웹하드 등을 통해서 수집됨.
- 1회 수집에 수십 GB의 파일을 손상·누락 없이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진본성 및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외장하드를 통한 수집의 경우 단순히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손상되는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움.
  - 웹하드 등을 통하여 다량으로 수집되는 전자기록의 경우(블랙텐트) 다운로드 시간의 오래 걸리며(약 24시간) 다운로드 이후 누락되거나 손상되는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움.
  - 특히 블랙텐트의 수집과 같이 목록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수집기록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함.
  - 또한 수집과정에서 확보되는 메타데이터의 경우 수집처별로 상이하여 이를 규격화 할 수 없음.
- 따라서 대용량 전자파일의 안전한 수집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보해야 함.

4.6. 수집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협업프로그램 마련

- 수집처 '블랙텐트'의 경우 해당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물리적 이관뿐만 아니라 실제 정리와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협업을 필요로 하였음.
- 민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기록에 대한 물리적 정리를 위한 매뉴얼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정리를 직접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서울기록원 건립이후 민간기록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록 정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협업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잠재적 수집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의 보유기록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임.
  - 협업프로그램의 경우 민간보유 기록의 분류 및 정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보유기록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제안하는 방식이 필요함.
    - 민간기록을 수집할 경우 수집기록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 생산자가 직접 기술을 할 경우 향후 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검토 단계를 대폭 줄일 수 있음.

4.7. 수집기록 활용을 위한 정리단계 마련

- 다수의 수집기록의 경우 대시민 공개를 위해서는 추가 가공절차(정리 및 기술)을 거쳐야 하며, 특히 기록의 맥락파악을 위한 시정기록과의 연계,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과정은 수집기록의 활용을 위한 중간 정리단계를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음.
- 정리단계는 시정기록과 수집기록의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인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임.
  - 블랙텐트에서 수집된 기록의 경우 기록의 기증처가 모든 기록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으며, 다수의 생산자(출처)가 존재하는 관계로 활용단계에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었음.
  -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는 향후 활용단계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고 수집을 진행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결정하지 못하였음.

- 결국 기록의 맥락파악과 저작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수집기록의 활용을 위해 향후 서울기록원에서는 중간 정리단계의 담당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4.8.구술기록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투입

- 수집과정에서 진행되는 인터뷰는 비전자기록의 맥락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됨.
- 따라서 수집과정에서 구술을 전담하는 담당자와 함께 수집을 진행하여 함.
- 향후 서울기록원 설립 후 구술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 또는 사업을 진행하여 구술기록 확보를 위한 작업을 병행하여야 함.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제5장
서울시민기록단 운영

1. 사업개요

1.1. 서울시민기록단 운영 개요

- 사업명: ‘서울로7017’ 기록화 사업
- 주체: 서울시민기록단(4개 팀)
- 사업기간: 2017.05.~2017.09.(4개월)
- 추진목적
  -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서울 관련 기록 수집
  - 향후 서울기록원의 시민아키비스트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 가능한 시범사업(pilot program)으로 활용

1.2. 서울시민기록단 주요 활동

- 주요활동
  - ‘서울로7017’ 현장 기록화
    - ‘서울로7017’ 개장 100일 기록화를 콘셉트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화 진행(예: 각종 부대행사 촬영, 시민인터뷰, 서울고가도로 과거 기록물 수집 등)
  - ‘서울로7017’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 기록화
    -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예: 사진 전시, 사진집, 다큐멘터리 영상, 홍보영상, 아카이브 신문, 작곡/작사, 뮤직비디오 등 제작물 또는 기획안)
- 운영방식: “기록단 팀 주도 + 기록단지원팀 업무지원”
  - 기록단 팀: 4개 팀플레이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운영
  - 기록단지원팀: 본 사업 지원팀이 기록단 팀별 행정 및 업무 지원

2. 서울시민기록단 활동

2.1. 서울시민기록단 소개

2.1.1.1. 강장공장

- 강장공장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참여나 공공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년들로 구성된 이미지 스타일링팀으로 안산과 서울 등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 강장공장 팀원 소개

연번	성명	역할	직업	비고
1	강진영	팀장 / 디자이너	청년창업가	
2	정재욱	팀원 / 기획 및 작가	청년창업가	
3	김민석	팀원 /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4	임태섭	팀원 / 디자이너	취업준비자	

- 강장공장 팀원 활동 모습



2.1.2. 비상구

- 비상구는 청소년들의 노동 상담과 인권교육을 하는 청소년 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이 주축이 된 활동가들로 구성된 팀임.
- 미상구 팀원 소개

연번	성명	역할	직업	비고
1	백종현	팀장	학생	
2	송하민	기획	학생	
3	김종하	기획	학생	
4	김한슬	기획	학생	
5	서유빈	디자인	학생	
6	최민선	디자인	학생	
7	박건휘	디자인	학생	
8	윤채영	디자인	학생	

- 비상구 팀원 활동 모습



2.1.3. 조우

- 조우는 서로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친 직장인 밴드로 자작곡을 발표하는 등 꾸준히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팀임.
- 조우 팀원 소개

연번	성명	역할	직업	비고
1	이승호	팀장 / 드럼	작장인	
2	권한귀	팀원 / 베이스기타	작장인	
3	김지은	팀원 / 건반	작장인	
4	이동호	팀원 / 기타&보컬	작장인	

- 조우 팀원 활동 모습



2.1.4. SH필름(신한대학교 영상제작동아리)

- SH필름은 의정부에 소재한 신한대학교의 영상제작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활발하게 영상 제작을 진행하고 있음.
- SH필름 팀원 소개

연번	성명	역할	직업	비고
1	윤기남	팀장/연출/각본/촬영/편집	학생	
2	박정수	남자배우, 정수 역	학생	
3	황혜림	여자배우, 혜림 역	학생	
4	류예지	조연출/장비 및 장소협의	학생	
5	이요한	음향감독	학생	
6	오은진	작가	학생	
7	김도연	FD	학생	

- SH필름 팀원 활동 모습



2.2.서울시민기록단 주요 활동

2.2.1. 주요 일정 개요

▪ 주요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준비	기록단 구성	■													
	오리엔테이션		■												
실행	기록 수집			■	■	■	■	■	■	■	■	■	■		
	콘텐츠 제작					■	■	■	■	■	■	■	■		
완료	수집기록 및 콘텐츠 정리											■	■		
	활동보고													■	
팀장 회의			■	■	■	■	■	■	■	■	■	■	■		
보고회			▲				▲							▲	

▪ 주요일정별 활동 및 장소

연번	일자	활동	장소
1	2017.05.17.	사전 오리엔테이션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2	2017.05.20.	오리엔테이션	NPO지원센터
3	2017.05.20.	서울로 답사	서울로7017 일대
4	2017.05.31.	시민기록단 팀장 회의 (1차)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5	2017.06.14.	시민기록단 팀장 회의 (2차)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6	2017.07.08.	시민기록단 팀장 회의 (3차)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7	2017.07.29.	중간보고회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8	2017.08.22.	시민기록단 팀장 회의 (4차)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9	2017.09.12.	시민기록단 팀장 회의 (5차)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10	2017.10.12.	'조우' 팀장 회의 및 인터뷰	'조우' 스튜디오
11	2017.10.13.	'SH필름' 팀장 회의 및 인터뷰	서울로7017 만리동 광장
12	2017.10.16.	'강장공장' 팀장 회의 및 인터뷰	서울로7017 장미무대
13	2017.10.18.	'비상구' 팀장 회의 및 인터뷰	서울로7017 일대
14	2017.10.24.	시민기록단 팀장 회의 (6차)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2.2.2. 주요 활동 보고

2.2.2.1. 서울로7017 서울시민기록단 오리엔테이션

- 일시: 5월 20일 10:30~12:0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 참석자: 서울시민기록단 4팀, 김은아 기록연구사, 기록단지원팀
- 목적: 서울시민기록단 활동 발대식 및 사업설명, 기록화 방안 브레인스토밍
- 각 팀별 구성 및 기록화 주제

팀명	팀 설명	기록화 및 콘텐츠 제작 방식	참석인원
강장공장	청년창업공동체	서울로 맵핑 지도 제작	4명
비상구	청소년유니온 회원	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데이트 코스 지도	2명
조우	직장인 음악동호회	서울로 방문한 시민 대상 인터뷰 내용으로 작사 및 작곡	3명
SH필름	신한대학교 영상동아리	웹 드라마 제작	4명

- 오리엔테이션 진행 모습





서울시민기록단 발대식 및 사업설명 모습




브레인스토밍 진행모습

〈그림 87〉 서울시민기록단 오리엔테이션 진행 모습

2.2.2.2. 서울로7017 서울시민기록단 중간보고회

- 일시: 7월 29일 14:00~15:00
- 장소: 한국문헌정보기술컨소시엄(주) 회의실
- 참석자: 김은아 주무관, 서울시민기록단 4팀 팀장 및 팀원, 시민기록단 지원팀
- 목적: 서울시민기록단 활동 진행상황 중간 보고
- 팀별 보고내역 및 제출 자료

강장공장	·활동 취지 ·산출물 시안 ·진행 과정 ·수집자료 및 활동기록 ·향후 일정	·발표자료 ·산출물 시안 영상
비상구	·기획 의도 ·활동 계획 ·기대 효과	·발표자료
조우	·팀 소개 및 기획 의도 ·활동 계획 ·주요 활동 내역 ·향후 일정 ·산출물 시안	·발표자료 ·산출물 시안 음원
SH필름	·서울로7017 드라마 기획 의도 ·드라마 Main Story ·활동 내용 ·활동 결과 ·회의 및 촬영일정 ·영상 스토리보드	·시나리오(안) ·발표자료 ·스토리보드 영상

- 중간보고회 진행 모습



강장공장 보고모습



비상구 보고모습



조우 보고모습



SH필름 보고모습

〈그림 88〉 시민기록단 활동 중간보고회 진행 모습

2.2.2.3. 서울로7017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회

- 일시: 11월 4일 18:00~19:00
- 장소: 서울로7017 고가도로 장미마당
- 참석자: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민기록단 4팀 팀장 및 팀원, 시민기록단 지원팀
- 목적: 서울로에 방문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민기록단의 기록화·콘텐츠 제작 활동 보고 및 콘텐츠 시연



〈그림 89〉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회 현수막 이미지

- 행사식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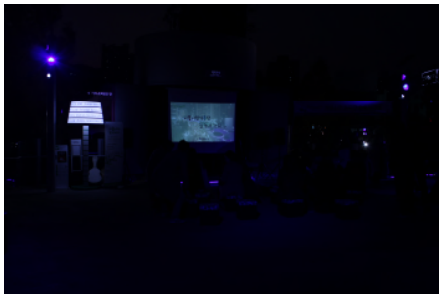
〈표 68〉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회 식순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담당
사전마당	16:00~17:30	·버스킹 드로잉(컬러링 엽서 제작)	강장공장
본대회	18:00~18:05	·기록단 소개 및 인사	시민기록단지원팀
	18:05~18:10	·밴드 공연: 이 길에서	조우
	18:10~18:40	·기록단 팀별 발표	시민기록단
	18:40~19:00	·웹드라마 상연: 언제나 우리는 사랑옵다	SH필름
뒷풀이	19:00~	·시민기록단 저녁식사	

■ 활동보고회 진행 모습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회 준비 모습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회 밴드 공연 및 웹드라마 상영

〈그림 90〉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회 진행 모습

2.2.3. 서울시민기록단 팀장회의

■ 서울시민기록단 1차 팀장회의

- 일시: 5월 31일 19:30~20:00
- 장소: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 참석자: 서울시민기록단 4팀 팀장(4명), 시민기록단 지원팀
- 팀별 활동내역 및 제출자료

팀명	활동 내용	제출자료
SH필름	·장미무대 공연 촬영 ·시민들의 모습 촬영 ·만리동 고개 입구촬영 ·전반적인 구도 및 관람객 촬영	·현황보고서 ·서울로 이미지 파일 52컷
강장공장	·호기심 화분, 서울로 전시관, 담쟁이 극장, 방방 놀이터 등 시설 방문 및 리플렛 등 자료 수집 ·목련마당, 장미무대 공연 관람 및 사진 촬영 (J-NOTE, 더뉴 째즈밴드) ·한겨레 '서울생활길라잡이' 특별판, 남대문시장 관광안내도 등 맵핑 작업에 필요한 레퍼런스 자료물 수집 ·수집 기록물 검토 및 콘텐츠 구성회의	·현황보고서 ·서울로 이미지 파일 52컷
조우	·패션쇼 촬영 ·장미무대 공연 (더뉴 째즈밴드/클라니넷 연주 등) 촬영 ·개장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촬영	·현황보고서 ·서울로 이미지 파일 57컷
비상구	·서울로 주변 탐색	·현황보고서

■ 서울시민기록단 2차 팀장회의

- 일시: 6월 14일 19:30~20:30
- 장소: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 참석자: 서울시민기록단 4팀 팀장, 시민기록단 지원팀
- 팀별 활동내역 및 제출자료

팀명	활동 내용	제출자료
SH필름	·내부회의 진행(6/12) - 시놉시스 검토 및 수정 ·영상인력 추가	·현황보고서
강장공장	·팀 회의 진행(6/9)	·현황보고서

팀명	활동 내용	제출자료
	- 월별 액션플랜 수립 - 서울로 드로잉 영상 촬영: 격주 방문하여 시간대별 영상 및 사진 촬영 예정 ·서울로 방문 및 활동(6/12) - 영상 및 사진촬영: 19:00~20:30까지 일몰영상 촬영, 서울로 가게 방문 및 촬영 - 기록물 수집: 서울로 가게 '장미김밥' 카페 이용 영수증 및 컵 홀더	·서울로 드로잉 영상: 16건 ·서울로 전 코스 이미지: 241컷
조우	·팀 회의 진행(6/8) - 인터뷰 질문지(초안) -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노래 기획(안) 작성 - 인터뷰 주제/방향 논의 (팀원 역할 배분) - 인터뷰 방법 논의 (대상자/시기/장소/준비사항 등)	·현황보고서
비상구	·팀 회의 진행(6/10) - 팀명 변경에 대한 협의 진행(팀명: 청소년유니온 → 비상구) - 팀원 역할 분담: 백종현 팀장(총괄기획), 박건휘/송하민(상세기획) - 6월 중 서울로 방문 예정	·현황보고서

- 팀간에 협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
  - 조우팀에서 음원을 제작
  - 조우팀 음원에 대한 영상 제작
  - 두 팀의 협업으로 뮤직비디오 제작

■ 서울시민기록단 3차 팀장회의

- 일시: 7월 8일 11:00~12:00
- 장소: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 참석자: 서울시민기록단 4팀 팀장, 시민기록단 지원팀
- 팀간에 협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
  - 조우팀과 SH필름의 협업으로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
- 팀별 활동내역 및 제출자료

팀명	활동 내용	제출자료
SH필름	·팀 회의 진행(7/3) - 촬영 장비 대여 예약 및 장소 확인 - 영상 촬영 일정 협의	·시나리오(안)
강장공장	·팀 회의 진행(6/30) - 수집자료 정리 - 드로잉버스킹 대상지역 후보군 선정 - 필요 장비 점검 및 구매 - 도시문화 활동가 모임에 서울로 탐방 제안 : 7월 16일(일) 서울로 탐방 및 활동 기록화 예정	·현황보고서
조우	·팀 회의 진행(6/22) - 서울로 홍보 음원 제작 준비 : 녹음장비 준비 : 컨셉기획 회의 : 참고 사례조사 결과 공유 ·서울로 시민인터뷰 진행(6/29) - 시민대상 인터뷰 진행 및 영상 촬영 (2명)	·현황보고서 ·시민 인터뷰 영상
비상구	·팀 회의 진행(6/24, 7/1) - 콘텐츠 형식 논의 : 서울로에서 “현장실습 문제” 관련 캠페인 진행 - 서울로 답사 예정 : 7월 16일(일)	·현황보고서

■ 서울시민기록단 4차 팀장회의

- 일시: 8월 22일 19:30~20:30
- 장소: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 참석자: 서울시민기록단 4팀 팀장, 시민기록단 지원팀
- 팀별 활동내역 및 제출자료

팀명	활동 내용	제출자료
SH필름	·팀 회의 진행(8/4, 8/7) - 대본 최종 리딩 및 동선 점검 - 촬영장소 사전 답사 및 최종 검토 - 대여장비 점검 ·영상 촬영(8/8, 8/9, 8/16) - 서울로 및 서울로 인근 지역, 실내 촬영 - 주간 및 야간 촬영	·현황보고서 ·시나리오
강장공장	·행사관련 회의 진행(8/23)	·현황보고서

팀명	활동 내용	제출자료
	- 서울공정관광축제 참석 관련 : 일자: 9월 6일~7일 : 활동내용: 사진 및 영상 촬영, 드로잉 버스킹 부스 운영	
조우	·팀 회의 진행(8/10, 8/17) - 서울로 홍보 음원제작 준비 : 장비 준비 및 음악 구상 : 서울로 연관 스토리로 가사 작성 중 : 악기 별 연습 및 녹음 준비	·현황보고서
비상구	·팀 회의 진행(8/5) - 서울로 캠페인 활동 준비 : 일자: 8월 26일 : 피켓 제작	·현황보고서

- 팀간에 협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
  - 조우팀과 SH필름의 협업으로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미진행

■ 서울시민기록단 4차 팀장회의

- 일시: 9월 12일 19:30~20:30
- 장소: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 참석자: 서울시민기록단 4팀 팀장, 시민기록단 지원팀
- 팀별 활동내역 및 제출자료

팀명	활동 내용	제출자료
SH필름	·팀 회의 진행(8/4, 8/7) - 대본 최종 리딩 및 동선 점검 - 촬영장소 사전 답사 및 최종 검토 - 대여장비 점검 ·영상 촬영(8/8, 8/9, 8/16) - 서울로 및 서울로 인근 지역, 실내 촬영 - 주간 및 야간 촬영	·현황보고서 ·시나리오
강장공장	·행사관련 회의 진행(8/23) - 서울공정관광축제 참석 관련 : 일자: 9월 6일~7일 : 활동내용: 사진 및 영상 촬영, 드로잉 버스킹 부스 운영	·현황보고서
조우	·팀 회의 및 음원 제작 진행(8/26, 8/27, 9/5) - 서울로 홍보 음원 제작 : 서울로 연관 스토리로 가사 작성	·현황보고서

팀명	활동 내용	제출자료
	: 악기 별 데모 녹음 완료 - 버스킹 전시 준비 : 시민기록단 수집활동 자료 정리 : 버스킹 방안 구상	
비상구	·서울로 캠페인 진행(8/26)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캠페인 : 일자: 8월 26일 : 서울로 방문 시민 대상 스티커 설문 진행 : 현장실습 문제 캠페인 진행	·현황보고서 ·캠페인 활동 사진 11장

- 팀간에 협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
  - 조우팀과 SH필름의 협업으로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미진행

■ 서울시민기록단 대상 인터뷰 진행

- 일자: 10월 12일~10월 19일
- 참석자: 서울시민기록단 4팀 팀장 및 팀원, 시민기록단 지원팀
- 팀별 인터뷰 일정

팀명	일시	장소	제출자료
SH필름	·10월 13일(금) 13:00~13:30	·서울로	·인터뷰 영상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영상 편집본
강장공장	·10월 12일(목) 11:00~11:30	·서울로 장미무대 앞	·인터뷰 영상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영상 편집본
조우	·10월 12일(목) 20:00~20:30	·조우팀 스튜디오	·인터뷰 영상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영상 편집본
비상구	·10월 19일(목) 17:00~17:30	·서울로 장미무대 앞	·인터뷰 영상 ·인터뷰 녹취록 ·인터뷰 영상 편집본

■ 서울시민기록단 5차 팀장회의

- 일시: 10월 24일 19:30~20:30
- 장소: 콘텐츠솔루션 회의실
- 참석자: 서울시민기록단 4팀 팀장, 시민기록단 지원팀
- 팀별 활동내역 및 제출자료

팀명	활동 내용	제출자료
SH필름	·영상 편집 ·완료보고 준비	·완료보고 자료
강장공장	·영상 편집 ·완료보고 준비	·완료보고 자료
조우	·음원 추가 녹음 ·음원 마스터링 ·완료보고 준비	·완료보고 자료
비상구	·완료보고 준비	·완료보고 자료

- 팀간에 협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
  - 조우팀의 활동 영상과 음원, SH필름의 영상을 합쳐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방향으로 협의 진행
  - SH필름 내 출연 배우들에 대한 뮤직비디오 제작관련 협의 필요

3. 서울시민기록단 활동

3.1. 주요 활동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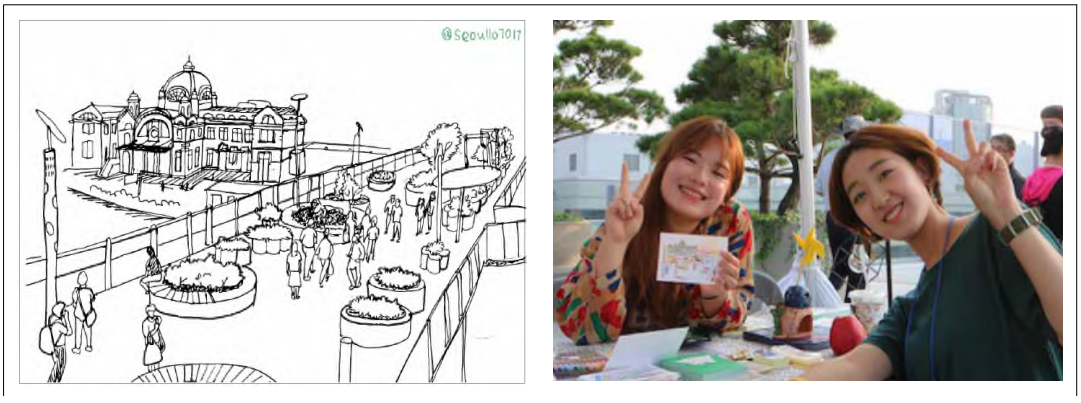
〈표 69〉 서울시민기록단 주요 활동 개요

팀명	강장공장	비상구	조우	SH필름
성격/소속	청년창업기업	청소년유니온 활동가	직장인 밴드동아리	신한대 영상동아리
수집기록	스틸이미지, 영상	스틸이미지	시민인터뷰	스틸이미지, 영상
참여프로그램	행사 스케치	캠페인	음원 개발	웹 드라마 촬영
주요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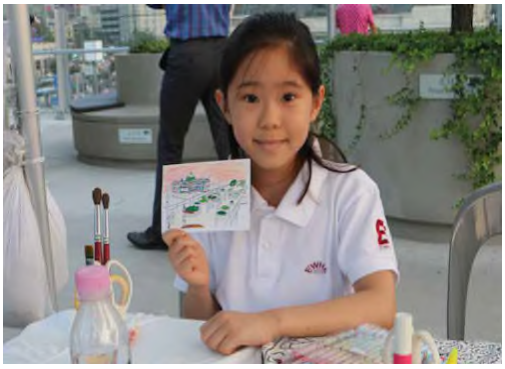
3.2. 팀별 주요 활동

3.2.1. 강장공장

- 콘텐츠 기획 방향
  - 작업실에서의 예술 활동이 서울로까지 확장됨을 표현
  -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
- 결과물: 드로잉 버스킹 진행 및 영상 제작, 서울로 컬러링 엽서 제작
- 주요활동
  - 서울로답사와 드로잉버스킹 진행
  - 드로잉 버스킹 영상 및 서울로 컬러링 엽서 제작







진행 과정;

예술로/서울로 7017

- 5/20 서울로7017 팀 활동 시작 & 첫 탐사 진행
  (홍보 기사물 / 리플렛 수집)
- 5/31 내부회의 - 콘텐츠 구성계획 논의
- 6/5 서울로7017 두 번째 탐사 진행
  (타임랩스 영상 / 서울로와 시민 활동 사진 수집 / 서울로 내 시설물 이용 내역 수집)
- 7/16 안산 시민단체 및 활동가 서울로 탐방 계획 > 일정 변경으로 무산
- 7/24 '예술로, 서울로 7017'첫 촬영
- 9/5~6 서울로 2차, 3차 촬영진행
- 9/7 서울로 드로잉 버스킹 진행
- 9/7~14 영상 편집 및 제작

3.2.2. 비상구

- 콘텐츠 기획 방향
  - 캠페인을 통해 서울로를 소통의 공간으로
- 결과물: 현장실습에 대한 캠페인 진행
- 주요활동
  - 기획회의 및 서울로 답사



  - 현장실습 캠페인 진행



3.2.3. 조우

- 콘텐츠 기획 방향
  - 서울시민과 함께 만드는 노래
  - 서울로7017을 방문한 시민들의 목소리(인터뷰)를 가사로 음원 제작
- 결과물: ‘이 길위에서’ 음원
- 주요활동
  - 기획회의
  - 시민 인터뷰, 서울로 문화예술활동 등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로 모습을 촬영함. (시민들이 바라본 서울로 이미지와 느낌을 담기)





  - 음원제작(작사, 작곡 ,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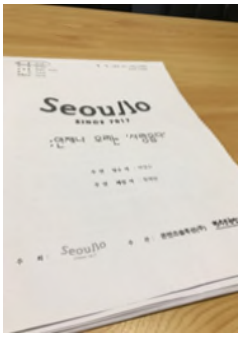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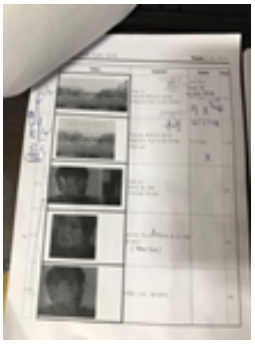




3.2.4. SH필름

- 콘텐츠 기획 방향
  - 서울로를 배경으로 두 남녀가 이별하고 만나는 이야기를 웹드라마로 제작
- 결과물: 웹드라마 '언제나 우리는 사랑옵다'
- 주요활동
  - 기획 및 시나리오 회의



  - 웹드라마 촬영 모습






4. 서울시민기록단 활동평가

4.1. 시민기록단 팀별 내부 평가

4.1.1. 시민기록단 성과 평가

- 서울시민기록단 각 4팀 모두 약 5개월간의 기록단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민으로서 서울로7017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생겼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하지만 시민기록단 모두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음.

〈표 70〉 서울시민기록단 팀별 성과 평가

구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강장공장	· 평소 문화·예술의 사회적 참여나 공공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 실험들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예술을 실현하고 싶었는데 이번 서울로7017 시민기록단 활동이 우리 팀에게 있어 그런 실험의 기회가 된 것 같음. · 같은 공간 안에서 다양한 속도와 각도, 시간대, 장비 등으로 촬영을 진행하며 서울로를 산책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음. · 또한 사람들과 그림을 매개로 소통하며 그들의 인생과 꿈, 여행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를 영상에 담아낸 것만으로 충분한 기록의 가치가 있음. · 이런 재밌는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각 팀의 활동을 기준이나 틀에 껴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음. · 그렇기에 시민기록단으로 참여하는 내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오롯이 즐기며 할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로를 충분히 즐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 우리가 서울로를 방문하는 목적은 대부분 기록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목적을 띈 방문이었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로 활동하는 안산에서 서울로까지는 꽤 멀었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일정 조정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했음. · 시민의 입장에서 한적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쉬움. · 또한 처음 기획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건과 상황 때문에 결국 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음.
비상구	· 형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색을 자유롭게 팀별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음.	· 팀원들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못 만

구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 시민기록단이라는 기회로 평소에 미처 보지 못한 소소한 것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	들어 아쉬웠음. · 다른 팀의 팀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조금은 아쉬었음.
조우	· 서울로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하면서 서울로 뿐만아니라, 서울 곳곳에 있는 시설물/문화재들을 관심있게 다시 보게 되었음. 서울 역사에도 관심 가지게 됨. ·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에 무언가를 기여했다는 뿌듯함. · 서울시민기록단으로서 서울로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생김.	· 시민인터뷰를 많이 진행하지 못함. · 서울로를 주제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음.
SH필름	· 서울로7017이 생기고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촬영을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직접 서울로를 둘러보면서 예쁜 풍경과 야경을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좋았음. ·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한 명의 시민으로써 서울로를 둘러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음.	· 아쉬운 점보다는 서울로7017을 어떻게 해야 영상에 예쁘게 담을 수 있고 다양한 장소들을 보여드릴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음.

4.1.2. 시민기록단 운영 평가

- 서울시민기록단은 운영 상에 있어서 각 팀별 활동에 대한 자율성 보장, 시민기록단지원팀의 지원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향후 시민기록단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수의 시민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미 있는 기록 대상 선정, 시민기록단 활동 분야 세분화, 시민기록단 팀간 소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표 71〉 서울시민기록단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 방향

구분	시민기록단 운영 평가	향후 시민기록단 운영 방향
강장공장	· 가장 좋았던 점은 각 팀의 활동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 그 덕분에 각자의 역량 안에서 충분히 즐기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거창하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첫 사업 소개 때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 조금 더 많은 기록단을 모집 필요. 모집할 때 꼭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연령대, 직업군, 역량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정말 다양한 시각 안에서 재미있는 시민 기록작품이 나올 것 같음. · 또한 기록 대상에 있어서도 익히 알려지

구분	시민기록단 운영 평가	향후 시민기록단 운영 방향
	말이 참 많은 힘이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쓰는 활동보고서에 딱히 쓸 말이 없어도 솔직하게 활동한 게 별로 없다고 쓸 수 있었음. · 아쉬웠던 것은 더 많은 팀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연령대, 거주자의 시각으로 서울로를 바라본 기록을 보고 싶었는데 4개의 팀밖에 없어서 아쉬웠음.	거나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잊혀지거나 사라질 것들에 대한 기록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음. · 물론 옛 동네나 거주지를 기록할 땐 현지 거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기념물, 문화재, 자연물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이 축척된 것들에 대한 기록이 더 재미있을 것 같음.
비상구	· 어려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음. · 사업보고가 처음에 들었던 형식의 수위보다 더욱 탄탄해진 점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음. 사업을 마감하면서 조금은 아쉬움.	· 이번 시민기록단과 같은 방식의 운영이라면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더 많은 형식의 이야기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임. ·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이 시민기록단을 참여하여 즐겁게 사업을 만들어가고 더욱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시민들에게 주어졌으면 함.
조우	· 밴드 활동 이외 다양한 분야의 시민기록단 분들과 팀장 회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서울의 주변 곳곳을 다시 되돌아 볼수 있었음. · 서울역 고가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계기가 됨.	· 시민기록단 활동 분야 세분화(예술/사회참여/역사/홍보/체육 등) · 시민기록단 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민기록단 활동 지원(2기, 3기 시민기록단 활동이 계속되었으면 함) · 시민기록단 각 팀별 교류 활동의 강화
SH필름	· 우선 시민기록단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했다는 게 뜻 깊은 시간이었음. · 팀으로 운영되다보니 각자의 역할에 노력하고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경험이 되었음.	· 향후 또 시민기록단이 운영된다면 보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긍정적으로 신경써주면 좋겠음.

4.2. 시민기록단지원팀 내부 평가

- 서울시민기록단 4팀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시민기록단지원팀의 활동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임.
- 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이 시민기록단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록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임.
- 하지만 시민기록단이 본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인 '서울로7017'에 대한 기록화 성과 자체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림.

〈표 72〉 시민기록단지원팀 내부 평가

구분		활동내용	내부 평가
시민기록단 구성		· 프로젝트 속 프로젝트로 시민기록단을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 · 본 사업단 참여인력의 개인적 관계를 통한 시민기록단 모집 · 개인보다는 팀 단위로 구성하였으며, 각 팀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20~30대 청년 중심으로 구성	· 서울시 기록관리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탁용역업체가 아닌 시민들로 구성된 기록수집단을 구성한 사례가 없어 기록수집단 구성에 대한 첫 모델이었음. · 향후 시민기록단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한 계획 없이 일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시민기록단 운영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개연성이 큼. · 공모 방식이 아닌 인맥에 따라 시민기록단을 구성하다 보니 시민기록단 구성에 대한 깊은 고민 부족으로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시민기록단 활동	기록 수집	· '서울로7017'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과 이 공간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을 기록화 · 각 팀별 시민 인터뷰, 서울로 배경 및 인물 사진촬영 등 자유롭게 기록 수집 및 생산 · 각 팀별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프로그램 진행 관련 활동과정을 기록으로 정리	· 본 프로젝트의 참여연구원으로 구성된 '기록수집팀'과의 연계 없이 시민기록단 단독으로 수집 진행 · 본 프로젝트의 참여연구원으로 구성된 '기록수집팀'과의 연계 없이 시민기록단 단독으로 수집 진행 · 기록 수집보다는 콘텐츠 개발이 주활동으로 치우치면서 실질적인 기록 수집 및 생산량이 저조함.
	콘텐츠 개발	· 각 팀별로 서울로7017을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 서울로7017을 배경으로 웹 드라마 제작, 음원 제작 및 공연, 현장 드로잉, 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캠페

구분		활동내용	내부 평가
		· 팀에서 개발한 다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팀에서 보유	인 등 시민기록단 자발적인 대외활동은 상당한 성과임. · 오히려 기록 수집보다는 콘텐츠 개발이 주활동으로 치우쳤으며, 콘텐츠 개발도 아카이브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서울로7017이라는 현장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팀에서 개발한 저작권을 팀이 보유하게 하면서 콘텐츠 제작의 적극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함.
시민기록단 지원	**조직체계**	· 시민기록단은 시민기록팀과 시민기록지원팀으로 구성 · 시민기록팀은 서울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이며, 시민기록지원팀은 시민기록팀의 활동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주체임.	· 시민기록팀이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시민기록지원팀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체계가 시민기록팀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 · 다만 시민기록지원팀이 시민기록팀의 활동을 독려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행정/재정 지원	·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른 기록단 행정적·재정적 지원 · 각 팀별 약 350만원 상당의 예산 지원(후속 정산 배제)	·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이 시민기록단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각 팀별 예산 지원으로 각 팀별 콘텐츠 제작 및 참여프로그램의 활동자금으로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개발됨.

5. 시사점

5.1. 시민기록단 위상과 역할에 맞는 구성 방식

- 시민기록단을 구성할 때 모집 방식은 다양하나 본 사업처럼 용역업체가 단기성 프로젝트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민기록단을 운영할 때 공개모집이 아닌 인맥을 통한 모집이 효율적일 수 있음.
  - 다만 용역업체의 인맥을 통한 시민기록단 모집의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기 어렵고, 투명한 시민기록단 모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서울시가 아닌 용역업체 주도로 모집한 시민기록단은 그 위상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이 큼.
- 향후 서울기록원 등에서 시민을 주체로 한 기록물 수집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시민기록단도 서울특별시의 대외적인 얼굴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기록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함.
  - 시민기록단 구성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시민기록단 모집에 대한 업무협조를 받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시민기록단 모집 전에 시민기록단에 대한 혜택이나 대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법규에 저촉 없이 시민기록단의 모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5.2. 자율성을 보장한 시민기록단

-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민기록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다만 시민기록단의 활동 취지와 방향이 어긋나지 않게 지속적인 교육 및 최소한의 점검확인 절차는 병행해야 함.
- 참여 시민들이 시민기록단 행정에 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 업무 지원 필요
- 시민기록단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성과품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지양하는 것도 고려
- 시민기록단 멤버들이 자율적으로 소통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5.3.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시민기록단 활동

- 시민기록단이 기록 수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집주제와 대상 선정이 매우 중요함.
  - 시민기록단이 수집 주제를 선정할 때 직접 참여하여 활동의 적극성을 높임.
  - 일반시민들이 기록 수집 주제와 대상을 선정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시민기록단은 단지 기록 수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수집된 기록을 분류·기술, 정리하는 등 아카이브 전반에 대한 활동도 필요
  - 시민기록단을 대상으로 아카이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병행 필요
-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아카이브 프로그램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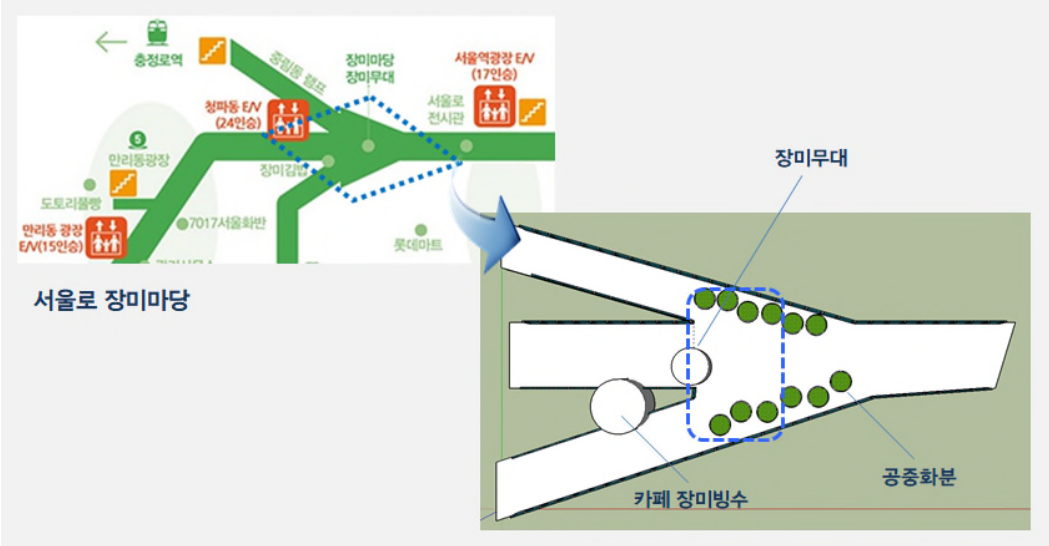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제6장
시범콘텐츠개발

1. 시범 콘텐츠 개요

1.1. 전시 개요

- 전시명: 「서울로7017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 전시」
- 전시목적: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로를 배경으로 기록화 활동을 한 서울시민기록단의 활동 과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함.
- 전시기간: 2017.11.04.(토)~2017.11.05.(일) 11:00~21:00
- 전시장소: 서울로7017 고가도로 장미마당



- 주최/주관: 서울로7017 서울시민기록단
- 후원: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1.2. 전시 내용

전시주제		전시내용	전시방식 및 설치물
인트로		· 본 전시 소개 · 서울로7017/시민기록단 소개 · 시민기록단 인터뷰/시민 인터뷰 · 시민기록단 팀별 활동 영상 · 만든 사람들	· 싸인물(제목 캘리그라피, 캐릭터 이미지) · 싸인물(텍스트), 활동사진 · 싸인물(텍스트), 태블릿PC(인터뷰 영상) · 태블릿PC(메이킹필름 영상) · 싸인물(텍스트)
1	강장공장	· 팀 소개 · 활동보고(1)	· 싸인물(팀명 캘리그라피, 캐릭터 이미지) · 싸인물(발표 PT 이미지)

전시주제		전시내용	전시방식 및 설치물
		· 활동보고(2): 컬러링 엽서 제작 · 활동보고(3): 인터뷰/메이킹필름	· 싸인물(활동사진), 엽서 부착판 · 태블릿PC(인터뷰/메이킹필름 영상)
2	비상구	· 팀 소개 · 활동보고(1) · 활동보고(2): 설문조사 · 활동보고(3): 인터뷰/메이킹필름	· 싸인물(팀명 캘리그라피, 캐릭터 이미지) · 싸인물(발표 PT 이미지) · 싸인물(활동사진), 스티커 설문조사판 · 태블릿PC(인터뷰/메이킹필름 영상)
3	조우	· 팀 소개 · 활동보고(1) · 활동보고(2): 인터뷰/메이킹필름 · 활동보고(3): 뮤직비디오 영상	· 싸인물(팀명 캘리그라피, 캐릭터 이미지) · 싸인물(발표 PT 이미지) · 태블릿PC(인터뷰/메이킹필름 영상) · 태블릿PC(뮤직비디오 영상)
4	SH필름	· 팀 소개 · 활동보고(1) · 활동보고(2): 인터뷰/메이킹필름 · 활동보고(3): 웹드라마 영상	· 싸인물(팀명 캘리그라피, 캐릭터 이미지) · 싸인물(발표 PT 이미지) · 태블릿PC(인터뷰/메이킹필름 영상) · 태블릿PC(웹드라마 영상)

2. 시범 전시콘텐츠

2.1. 전시콘텐츠 섹션별 세부 내용

섹션	면수	텍스트	이미지/영상
인트로	01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 전시** - 전시기간: 2017.11.04.(토)~11.05.(일) - 전시장소: 서울로 장미마당 - 주최: 서울로 7017 서울시민기록단 - 후원: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 협찬: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콘텐츠솔루션(주)	• 서울로7017 E.I.(영문, 국문) • 각 팀 캐릭터 통합 이미지
	02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은 서울역 고가 도로를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재생하고, 단절된 서울역 일대를 통합 재생하여 지역 활성화와 도심 활력 확산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의 시작을 알리는 야심찬 서울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시민기록단**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의 서울기록화 사업 일환으로 구성된 서울시민기록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서울로'를 배경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모임입니다.	• 단체사진
	03	**서울시민기록단, 이렇게 활동했어요(1)** "많은 꽃과 파란 조명이 주는 편안함과 긍정적인 느낌은 마치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네요." - Martin Paatz(독일) **interview** 01_서울로 방문 시민 인터뷰 - Ina, Martin(독일 Sachsen)(04:08) - 이요한(서울시 강남구)(01:08) - 김상한(경기도 부천시)(01:25) - 김은애(서울시 강북구)(01:18) 02_서울시민기록단 활동가 인터뷰 - 강진영, 장재욱(강장공장팀)(03:44) - 백종현(비상구팀)(02:53) - 이승호(조우팀)(01:54) - 윤기남, 류예지, 박정수(SH필름팀)(03:43)	• 태블릿 PC 배치 • 서울로7017 사진
		서울시민기록단, 이렇게 활동했어요(2) "서울로가 앞으로 시민 참여의 계기가, 또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Making Film** 서울시민기록단 활동 메이킹 필름	• 태블릿 PC 배치

섹션	면수	텍스트	이미지/영상
		01_강장공장(02:01) 02_비상구(01:27) 03_조우(01:15) 04_SH필름(02:22) **만든 사람들** 주최_서울로7017 서울시민기록단 후원_서울특별시 연출_윤정훈 구성_이형수 자료수집_장형오 디자인_장재원 영상편집_윤기남 제작_콘텐츠솔루션(주)	
강장공장	01	**강장공장** 이미지스타일링팀	• 팀명 캘리그래피 • 화가 실루엣 이미지
	02	**강장공장팀, 이렇게 활동했어요(1)**	• 완료보고서 이미지 6장 배치
	03	**강장공장팀, 이렇게 활동했어요(2)** 드로잉 버스킹 및 컬러링 엽서 제작 시민들이 만든 서울로 컬러링 엽서	• 활동 사진 • 제작 엽서 부착 판
	04	**강장공장팀, 이렇게 활동했어요(3)**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서울로랑 굉장히 친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01_강진영, 정재욱 인터뷰(03:44) 02_강장공장팀 Making Film(02:01) 03_강장공장팀 드로잉 버스킹 영상(04:47) **강장공장팀** 강진영(팀장/디자이너) 정재욱(기획 및 작가) 김민석(기타리스트) 임태섭(디자이너)	• 태블릿 PC 배치
비상구	01	**비상구** 청소년유니온 활동가	• 팀명 캘리그래피 • 촬동가 실루엣 이미지
	02	**비상구팀, 이렇게 활동했어요(1)**	• 완료보고서 이미지 6장 배치
	03	**비상구팀, 이렇게 활동했어요(2)** **기획회의 및 서울로 답사** **현장실습캠페인** **현장설문조사**	• 스티커 설문조사 부착 판

섹션	면수	텍스트	이미지/영상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ㅇ리터’ (본인이 원하는 일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1) 이제는 하자. 칼퇴근 2) 저임금 노동 X. 임금이 높은 회사 3) 저는 싫어요. 회식 없는 회사 4) 두렵지 않은 회사, 성폭력/성희롱 없는 회사 5) 내 꿈을 위해 나를 성장시켜 주는 회사 이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의 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 활동가들 모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터(직장)는 어떤 곳인지를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04	**비상구팀, 이렇게 활동했어요(3)** “서울로가 앞으로 시민 참여의 계기가, 또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01_백종현 인터뷰(02:53) 02_비상구팀 Making Film(01:27) **비상구팀** 백종현(팀장) 송하민(기획) 김종하(기획) 김한슬(기획) 서유빈(디자인) 최민선(디자인) 박건휘(디자인) 윤채영(디자인)	• 태블릿 PC 배치
조우	01	**조우** 직장인 밴드 동아리	• 팀명 캘리그래피 • 기타리스트 실루엣 이미지
	02	**조우팀, 이렇게 활동했어요(1)**	• 완료보고서 이미지 6장 배치
	03	**조우팀, 이렇게 활동했어요(2)**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울로를 표현하여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1_이동호 인터뷰(01:54) 02_조우팀 Making Film(01“15)	• 활동 사진
	04	**조우팀, 이렇게 활동했어요(3)** **서울로를 배경으로 제작한 음원** **‘이 길에서’(캘리) 뮤직비디오** 작사/작곡: 조우 제작연도: 2017년	• 태블릿 PC 배치

섹션	면수	텍스트	이미지/영상
		상영시간: 03:29 **조우팀** 이승호(팀장/드럼) 권한귀(베이스기타) 김지은(건반) 이동호(기타/보컬)	
SH필름	01	SH필름 신한대학교 영상제작동아리	• 팀명 캘리그래피 • 촬영가 실루엣 이미지
	02	**SH필름팀, 이렇게 활동했어요.(1)**	• 완료보고서 이미지 6장 배치
	03	**SH필름팀, 이렇게 활동했어요.(2)** “서울로라는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영상으로 보기 쉽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01_윤기남, 류예지, 박정수 인터뷰(03:43) 02_SH필름팀 Making Film(02:22)	• 활동 사진 • 태블릿 PC 배치
	04	**SH필름팀, 이렇게 활동했어요.(3)** **서울로를 배경으로 제작한 웹 드라마** **언제나 사랑옵다(캘리그래피)** 연출: 윤기남 정수 역: 박정수 혜림 역: 황혜림 제작연도: 2017년 상영시간: 04:09 **SH필름팀** 윤기남(팀장/연출 및 각본, 촬영, 편집) 박정수(남자배우 정수 역) 황혜림(여자배우 혜림 역) 류예지(조연출 및 장비, 장소협의) 이요한(음악감독) 오은진(작가) 김도연(FD)	• 태블릿 PC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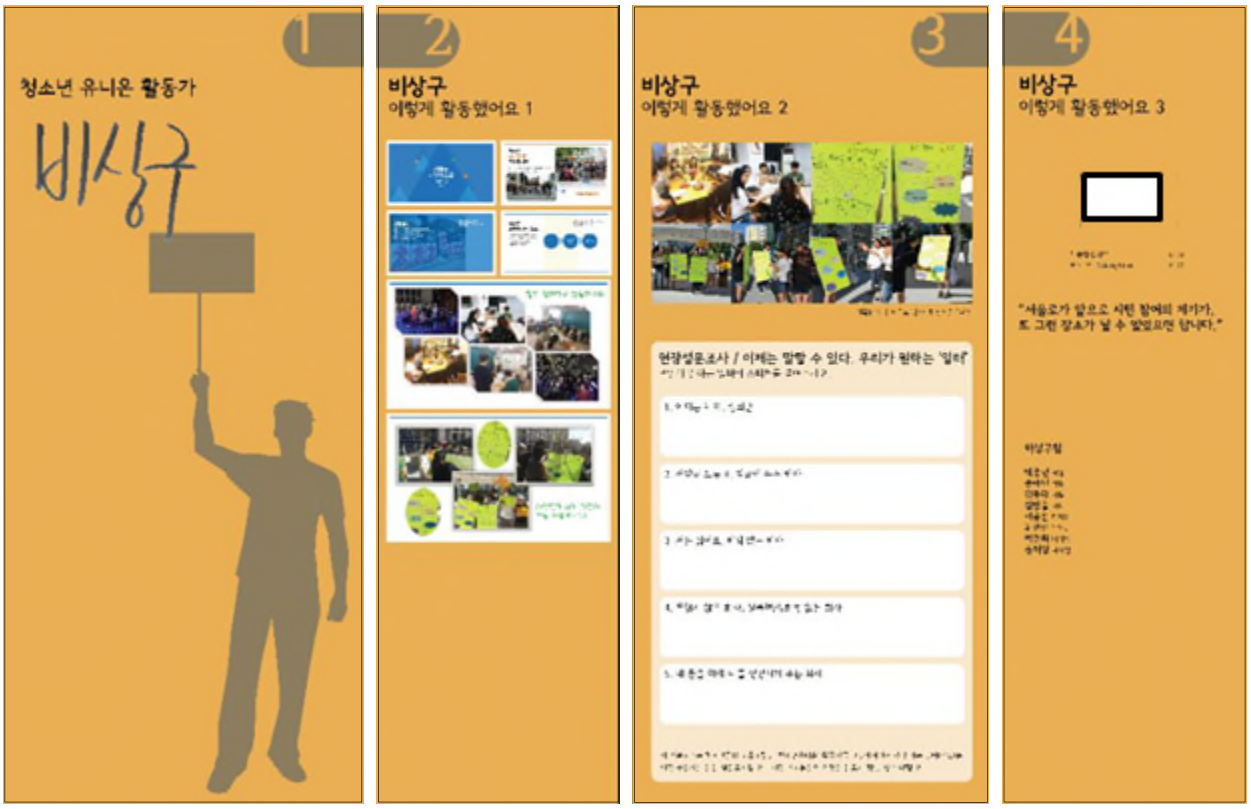
2.2. 전시콘텐츠 시안



〈그림 91〉 전시콘텐츠 시안: 인트로



〈그림 92〉 전시콘텐츠 시안: 강장공장



〈그림 93〉 전시콘텐츠 시안: 비상구



〈그림 94〉 전시콘텐츠 시안: 조우



〈그림 95〉 전시콘텐츠 시안: SH필름

2.3. 전시 모습



〈그림 96〉 서울로7017 서울시민기록단 활동보고 야외 전시회 모습

서울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제7장 서울기록학 제언

1. 제언 개요

- 서울기록원이 서울과 서울시민의 기억을 집합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생산한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기록들을 찾아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해야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향후 건립될 서울기록원이 서울의 대표 기억저장소이자 아카이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수행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서울기록' 수집의 추진기반 마련과 관련한 사항을 개관 전과 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2. 서울기록원 개관 전

- 서울기록원이 개관 이후 수집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관 전에 수집전략의 보완, 수집기록물 관리 방안 수립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함.
- 현재 개발 중인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기능 구현 여부에 따라 시스템상에서 수집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2.1.수집전략의 보완

- 본 사업에서 수행한 선별지침 제작과 시범수집 결과 시사점을 바탕으로「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용역」사업(2016)에서 제시한 수집전략을 보완하여 서울기록원이 수집기능을 수행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수집정책문과 수집실행전략, 서울기록 수집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며, 선별지침 개발 절차를 확립해야 함.
  - 수집전략의 점검 및 보완은 사명과 비전 등 서울기록원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향후 서울기록원이 수집업무를 추진하는 근거로서 포괄적이며 분명한지의 여부, 선별지침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데 기준으로써 명확한지, 그리고 기록을 평가·선별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함.
  - 수집 이후 보존 · 관리 및 서비스 등 서울기록원의 전체적인 보존기록관리 프로세스와의 적합성여부 또한 검토해야 함.

2.2.수집기록물 등록 및 관리 방안 수립

- 수집절차를 확립하여 현재 개발 중인 서울기록원디지털아카이브에 수집한 기록물을 등록 ·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함.
  - 수집기능의 구현 정도에 따른 등록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수집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정의하여야 함.
  - 수집기록물은 출처가 다양하여 메타데이터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등록 과정 중 메타데이터 매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주제별 또는 수집 케이스 별로 유연하게 콜렉션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층별 기술을 실시하여 웹 카탈로그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기술항목 및 기술규칙을 정의하고, 시스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함.

2.3.수집 기록물 분류 방안

- 서울기록의 온전한 콜렉션 구성을 위해서는 수집기록물과 관련 시정기록의 맥락적인 연계가 가능해야 함.
  - 연계를 통해 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 웹서비스에서 수집기록의 카탈로그에서 시정기록의 카탈로그로 브라우징이 가능해야 함.
  - 시정과 연관된 수집기록물에 대해서는 업무기능분류도 적용이 가능한 다중분류체계 구현이 필요함.
- 수집기록물이 반드시 시정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업무기능이 아닌 선별지침에 기초한 주제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2.4.서울기록 수집계획 수립

-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을 토대로 가능한 수집의 범위와 심도를 고려하여 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기록 수집이 온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집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 수집의 범위 및 분량에 따라 연간 소요 예산과 공수를 예측하여야 함.
- 수집계획은 향후 서울기록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할 것인지 수집 이후의 활용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함.

3. 서울기록원 개관 후

- 수집전략에 따라 수집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전략을 개선해나가야 함.
- 서울기록 수집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전체 수집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보완해야하며, 수집정책 및 전략, 선별지침 등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야 함.
- 수집기록물의 전시 및 열람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3.1. 수집체계 검증 및 개선

- 수집프로세스에 따라 서울기록 수집을 실시하고, 프로세스 각 과정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집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가야 함.
  - 수집의 과정과 성과가 수집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 · 보완하거나 수집정책에 따라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함.
-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선별지침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선별지침 개발 매뉴얼을 작성하여 향후 일관성 있는 (추가)수집과 선별지침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수집기록물의 등록·관리 절차 및 시스템 기능에 대한 검증을 통해 향후 서울기록원디지털아카이브 고도화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3.2. 수집기록 서비스 및 전시

- 수집기록물의 활용 방안 차원에서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수집기록물 콜렉션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전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온라인 전시는 카탈로그 기반으로 콜렉션을 구성하여 서울기록원디지털아카이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수집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전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서울기록 수집에 대한 지지와 옹호(advocacy)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시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한 기증자 예우 방안을 모색해야 함.

3.3. 시정기록 재조직화

- 콜렉션 구성 및 카탈로깅 차원에서 이관기록에 대한 선별과 재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기록을 대상으로 추가 기록화 추진 필요